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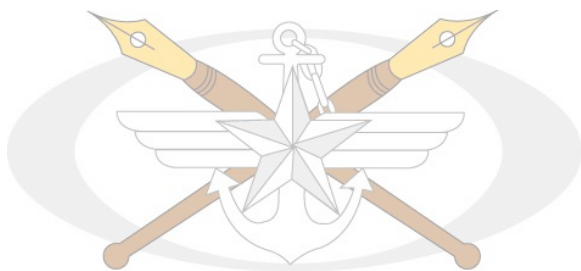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국방부

연구소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물을 통해서 보는 6·25전쟁사

군사편찬연구소장 하 재 평

6·25전쟁은 우리 민족이 겪은 수난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사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선배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하여 국군의 기틀을 세우고 조국의 안보를 든든히 하였습니다. 물론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우방국들의 지원과 협조가 큰 힘이 되었지만, 이 땅을 지킨 주인공은 그 당시의 우리 국민과 국군이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던 인물들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행동이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편찬된 많은 6·25전쟁사는 주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전쟁의 주역인 인물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에 『6·25전쟁과 채병덕장군』을 펴내게 된 것도 이런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장군은 6·25전쟁을 지도·수행한 네 명의 육군총참모장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그는 해방 후 혼란의 와중에서

4 발간사

일찍이 국방경비대에 투신하여 건군의 주역이 되었고, 이후 제4여단장, 국방부 참모총장과 제2대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하다가, 제4대 육군총참모장으로서 6·25전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날로부터 6일밖에 총장 직책을 수행하지 못했지만, 전쟁 발발 전의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되고, 전쟁 발발 직후 가장 긴박한 시기에 작전을 지도했던 까닭으로 6·25전쟁사에 있어서 어느 누구보다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공과(功過)에 대해서도 특별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채장군을 알지 못하고서는 6·25전쟁 발발기의 실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감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채장군에 관한 사실 확인 및 시각의 정립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난국을 맞아 어려운 전쟁 환경에서 야전을 책임진 최고지도자로서의 고뇌와 의사결정 과정의 어려움, 그 성공과 실패의 역정들을 기록과 증언을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채병덕 장군의 성공과 실패 그 자체가 후대의 교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과거를 연구하여 현재와 미래를 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하고도 유익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으며, 또한 이를 계기로 6·25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들의 행적에 대한 연구와 정리작업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합니다.

목 차

발간사 / 3

화 보 / 7

제 1 부 전장의 선두에 서기까지 · 13

제1장 혼란의 와중에서 15

1. 전쟁지도체제 / 15
2. 육군의 상황 / 17

제2장 일본군 시절 23

1. 평양(平壤)에서 동경(東京)으로 / 23
2. 일본 육군사관학교 / 31
3. 장교 생활 / 43

제3장 건군기의 활동 53

1. 군사영어학교 / 53
2. 경비대 제1연대의 창설 / 63

제4장 초대 국방부 참모총장 72

1. 채병덕의 약진 / 72
2. 육군 증강을 위한 방풍림 역할 / 84

제5장 제2대 육군총참모장 88

1. 떠오르는 별 / 88
2. 남북교역사건의 회오리 / 102

제2부 6. 25전쟁의 작전지도 · 123

제1장 전쟁대비의 허와 실 125

1. 채병덕 총참모장의 책임론 / 125
2.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 125
3. 남침 예측과 대비 / 132
4.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 145
5. 늑대가 온다 / 164
6. 폭풍전야의 토요일밤 / 187

제2장 전쟁 발발과 작전지도 197

1. 1950년 6월 25일 / 197
2. 서울은 포기할 수 없다 / 220
3. 병력축차투입과 반격작전 논쟁 / 230
4. 한많은 미아리고개 / 243
5. 한강교 폭파의 미스터리 / 251
6. 오! 한강 / 267

제3부 빛과 그림자 · 279

제1장 군인의 최후 281

1. 영남편성관구사령관(嶺南編成管區司令官) / 281
2. 하동에서 별이 지다 / 292

제2장 궤적(軌跡) 314

1. 풀지 못한 악연(惡緣)의 고리 / 314
2. 군인으로서의 채병덕 / 321

부 록 / 337

후 기 / 341

찾아보기 / 344



↑ 육군총참모장 당시의
채병덕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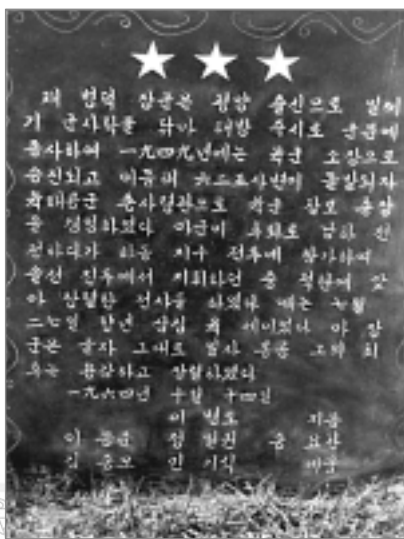
→ 갈월동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1950. 1. 1)



↑ 채병덕 장군 유해 국립묘지 제1장군묘역 이장식(1964. 10. 14)



↑ 채병덕 장군 유해 이장을 마치고, 오른쪽에서 두번째부터 손희선(孫熙善) 장군, 채장군의 차남 영수(榮洙)와 장남 영욱(榮郁), 이상국(李相國) 장군



↑ 국립묘지에 안장된 故 채병덕 장군 묘의 묘비와 묘비명(墓碑銘)



↑ 故 채병덕 장군 50주기 추도식(2000. 7. 27, 국립묘지 제1장군묘역). 왼쪽으로부터 채장군의 장남 영욱, 미망인 백경화 여사, 차남 영수, 김창규 장군, 한사람 건너 손희선 장군, 한사람 건너 홍갑식 장군(육군인사참모부장)



← 채병덕 장군이 전사한 쇠고개 현장에
건립된 전사비(2002. 6. 4)



채장군 전사비와 함께 세워진 미군 제29
독립연대 장병 충혼비



↑ 채병덕 장군 전사비 제막식에 참석한 백선엽(白善燁), 유재흥(劉載興), 김창규(金昌圭)
장군, 강영훈(姜英勳) 전 총리 등 군 원로들과 제11군단장 홍갑식(洪甲植) 중장, 제39
사단장 정용섭(鄭龍燮) 소장, 미 제19전역지원사령관 등(2002. 6. 4, 경남 하동군 적량
면 동산리 소재 공원)

→ 채장군의 저서 『국군의 진로와 국민개병의 의의』(1949년 정민문화사 발행)

↓ 육군박물관에 전시된 채병덕 장군 유품



↑ 육군 백마부대를 방문한 한·미 육사생도들. 전열 오른쪽에서 네번째가 채병덕 장군의 손자 채동균(토머스 채), 다음으로 손희선 장군, 사단장 신현배 장군, 제이슨 김

제 1 부

전장의 선두에 서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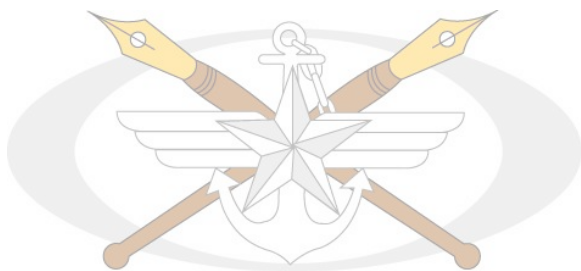
제1장 혼란의 와중에서

제2장 일본군 시절

제3장 건군기의 활동

제4장 초대 국방부 참모총장

제5장 제2대 육군총참모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6월 25일 남침공격을 개시한 북한군이 T-34 전차를 앞세우고 의정부 도로를 따라 남하하고 있다.

제 1 장 혼란의 와중에서

1. 전쟁지도체제

전쟁 발발기의 국방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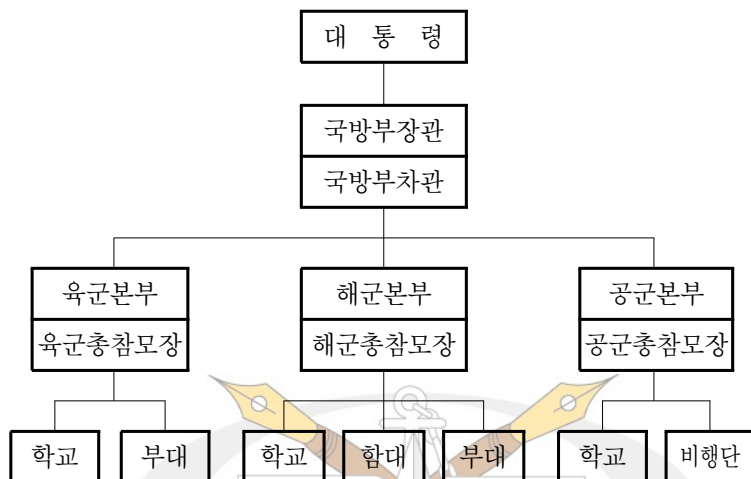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고 이어서 「정부조직법」과 「국군조직법」이 공포됨으로써 국방기구가 형성되었다. 국군조직법의 핵심은 대통령이 통수권자가 되고, 국방부장관이 군정권(軍政權)을 행사하며, 참모총장이 장관을 보좌하여 군령권(軍令權)을 행사한다는 것이었다.

국방부 설치와 함께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각각 개칭되었고, 다음해(1949년)에 공군이 독립되자 국군의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때 각 군 본부에는 총참모장을 두어 국방부 참모총장의 명령을 받아 해당 군을 지휘·감독하게 했다.

그러나, 곧 참모총장 직위가 폐지됨으로써 국방부장관이 각 군 본부의 총참모장을 지휘·감독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하여 6·25전쟁 발발 당시 전쟁을 지도하게 된 대한민국

<도표 1-1> 6·25전쟁 초기의 국방기구

(1950. 6. 25 현재)



의 국방기구는 대통령-국방부장관-각군 총참모장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 수뇌부의 인적자원

그렇지만 정부 수립 후 2년도 지나지 않던 시기였으므로 국가적인 전쟁지도 체제는 겨우 모양만 갖추어졌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빈약했다. 전쟁지도는 고사하고 작전지도 체제마저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승만 대통령이나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전쟁에 관한 개념이나 전쟁 통할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렇

다고 해서 그들을 군사면에서 보좌할 인적구성이 충실한 것도 아니었다.

국방부나 각 군의 간부들은 급속한 부대의 증·창설과 함께 적절한 경력과 경험을 쌓지 못한 채 계급이 오르고 직위가 상승한 인물들이었다. 그런 인적자원마저도 숫자가 적어서 3군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육군의 경우에도 장군이 10명(소장 3명, 준장 7명),¹⁾ 그리고 대령이 24명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미군이 철수한 후에도 여전히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여서 모든 군사활동을 자주·독립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군의 지원과 미 군사고문단의 자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미군은 한국군 장교의 질적 수준과 능력을 낮게 보았고, 또 실제로 한국군 장교들은 전술·교리, 무기 및 장비의 조작 방법, 부대 교육 및 훈련, 부대 운용 방법을 그들에게 배우는 입장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육군의 상황

사단의 배치

전쟁 발발 당시 육군은 총 8개 사단 규모였다. 이 부대들은 전쟁 전 해인 1949년 1월까지만 해도 6개 여단이었으며, 그 해 5월에 전부가 사단으로 승격되고 6월에 2개 사단(수도경비

사령부와 제8사단)이 창설됨으로써 8개 사단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히 증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편제와 인력, 장비, 교육 및 훈련 면에서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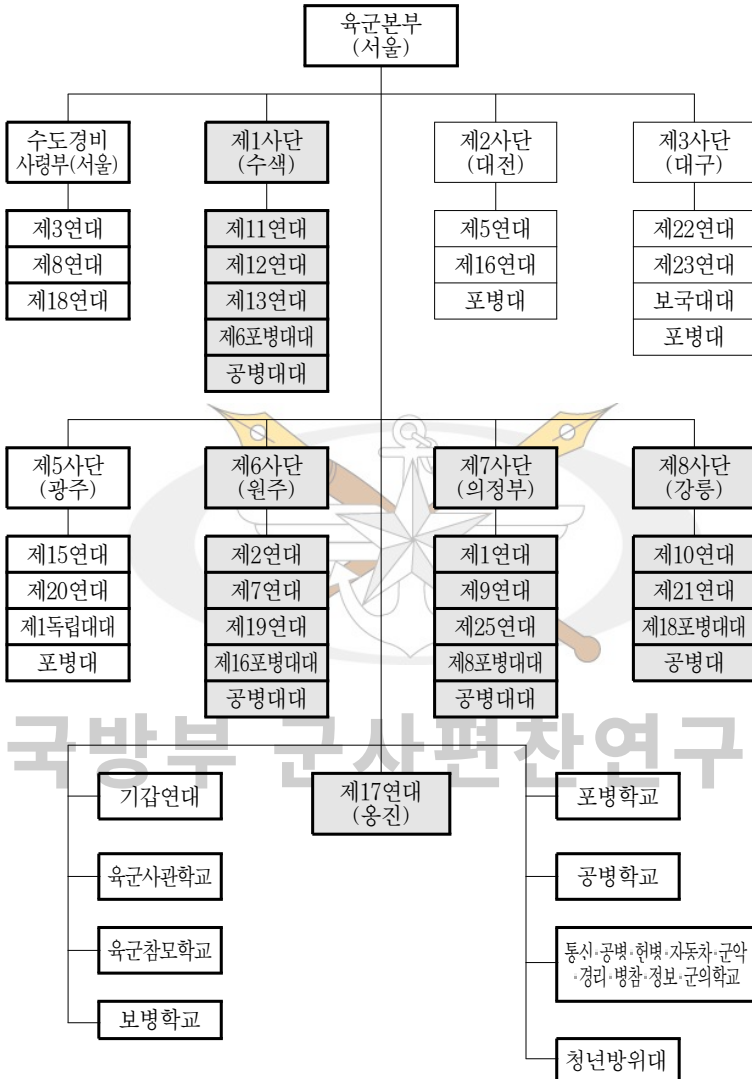
작전지도 면에서 가장 부실한 점은 육군본부와 각 사단 사이에 중간지휘 계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 점은 북한군이 전선사령부 예하에 군단을 편성한 것과 대조되는 사실이었다.

국군은 이렇게 되어서 전쟁 초기에 육군본부가 사단을 지휘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문제를 육군본부에 의존하였다. 그리고 육본은 사단과 때로는 독립연대까지를 통할하는 무겁고 비효율적인 책임을 짴어졌다. 따라서 육군총참모장의 부담도 그만큼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다.

육군은 주한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1949년 1월부터 38도선 방어임무를 인수한 이후로, 6·25전쟁 발발 당시 38도선에 4개 사단 및 1개 독립연대, 서울에 1개 사단, 그리고 대전·대구·광주 등지에 각각 1개 사단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비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가 후방에 산재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던 당일 국군이 보유한 총 61개 대대 중 실제 38도선 전방진지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는 11개 대대에 불과하였다. 다른 25개 대대는 제1선 사단의 예비로서 서울-원주-삼척을 연하는 지역에 주둔해 있었고, 나머지 25개 대대는 공비토벌작전을 위해서 남부 각 지방에 분산배치되어 있었던 것이다.

<도표 1-2> 전쟁 발발 당일 육군의 편성 및 배치2)

※ : 38도선에 배치된 부대

급조된 총사령관 직책

이런 여건 하에서 전쟁 발발 초기의 전황이 육군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국군의 실질적인 전쟁지도의 책임이 순식간에 육군총참모장인 채병덕(蔡秉德) 소장에게 쏠리게 되었다.

당시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한 건물에 있었고 전쟁이 발발하면서 여기에 해군총참모장 대리 김영철 대령과 공군 총참모장 김정열 대령이 육군본부에 함께 있어서 실질적인 지휘본부가 되었다.³⁾ 그러나 이를 통합·지휘할 수 있는 체제는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단 한 사람 국방부장관은 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 그리고 전쟁지도의 개념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곧 바로 전쟁지도 선상에서 벗어나 버렸다.

이렇게 되자 군령권을 행사하는 사람, 즉 육·해·공군을 총괄하는 한 사람의 지휘관이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전쟁이 발발한 이틀 후인 6월 27일 육·해·공군총참모장이 모인 자리에서 3군을 통할하는 직위의 필요성을 인식한 김정열 공군총참모장이 즉흥적으로 “형님이 총사령관 하시오”라고 해서 채총장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⁴⁾

이렇게 해서 채총장은 아무런 법적·제도적 근거도 없고, 필요한 조직의 뒷받침도 없이 급조된 총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게 된 셈이었다.

육군총참모장에다 3군총사령관의 직무를 짊어지게 된 채병덕 장군. 그렇지만 그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할 수 없다.

채소장이 총참모장에 등용된 것은 당시로서는 통솔력, 정치적 수완, 인기 등에 있어서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총장은 '병기 부문에는 전문가였지만 작전과 정보에는 어두웠다'거나, '야전부대를 지휘한 경험이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는 일본군 소령 출신으로 해방이 되자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여 1946년 1월에 대위 계급으로 임관되면서 경비대 창설에 뛰어들었다. 그 후로 같은 해에 소령에서 중령까지 진급되었으며, 다음해인 1947년 4월에 대령, 그 다음해인 1948년 12월에 준장, 그리고 1949년 2월에 소장이 되어 초고속 진급을 계속하였다. 따라서 그동안 지휘관 또는 군대 관리자로서의 경험과 능력을 키울만한 경력을 갖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럴만한 시간도 없었다.⁵⁾

하지만 이런 일은 채병덕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었다. 6·25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까지 우리 군대의 환경적인 조건에서는 이런 일들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었다. 경비대가 구성된 지 4년, 정부가 수립된 지 겨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군 간부가 될만한 인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채병덕과 같은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라 흔히 있는 보통의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채병덕보다 더 우수하고 능력있는 다른 인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중용하여 육군총참모장의 직책을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어떻든 채병덕 장군은 6·25전쟁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육군총참모장으로서, 그리고 사실상의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을 총괄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전쟁이 발발한 이후 그가 그 직위에 있었던 기간은 단 6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6·25전쟁 초전의 상황에서 채병덕 총장의 영상은 후세의 사람들에게 너무나 크게 비춰 보이게 되었다.

실제로 전쟁 전 기간 중에서도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긴박했던 시기에 그의 의사결정과 일거수일투족은 전쟁 전반의 흐름에 크고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 당시로서 그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체중 110kg이 넘는 무거운 몸으로 6월의 뜨거운 피약별 아래 의정부·창동·미아리 전선을 달리고 또 한강 방어선을 누볐던 채병덕 총장. 패전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육군총참모장의 자리에서 물러난 지 약 한 달만에 하동고개에서 35세의 나이로 전사한 채병덕. 그는 길지 않은 생애에 영욕이 점철된 삶을 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평양에서 하동까지, 채병덕의 삶의 궤적을 더듬어 보면 대한민국 국군의 초창기 역사를 읽을 수 있다. 또한 6·25전쟁 초기 상황을 더욱 심층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제 2 장 일본군 시절

1. 평양(平壤)에서 동경(東京)으로

소년 채병덕

채병덕(蔡秉德)은 1915년 4월 17일에 평안남도(平安南道) 평양시(平壤市) 이향리(履鄉里) 5번지에서 부친 채관수(蔡觀洙)와 모친 황씨의 3남 3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⁶⁾ 그의 위로는 형 병선(秉善)씨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 병서(秉瑞)씨와 세 누이동생이 있다. 채병덕의 부친은 6·25전쟁 3년 전에, 그의 모친은 전쟁 1년 전에 북한에서 작고하였다.

채병덕의 아호(雅號)는 「호산(虎山)」인데, 일본 육사의 동기생이며 그의 절친한 친구인 이종찬(李鍾贊)씨⁷⁾의 설명에 따르면 채병덕의 동료들이 그 호를 지어주었다고 한다. 해방 후 어느 해 겨울 토요일 저녁, 우연히 아호 이야기가 나오자 채병덕이 즉석에서 좋은 호를 기증하라고 재촉하면서 무게 있고 위엄 있는 그럴듯한 것을 요구하므로, ‘부동여산(不動如山)’의 산(山)자와 ‘백수지왕(百獸之王)’ 호랑이의 호(虎)자를

따서 ‘범의 산’이라는 뜻으로 ‘호산’이라 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호를 그가 매우 만족스러워 했다고 한다.

채병덕은 자신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특히 유소년기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당시 그를 곁에서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그 시절의 형편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서는 그의 동창이면서 한 해 선배였던 김인준씨의 증언을 토대로 채병덕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려고 한다.

채병덕은 1923년 봄에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평양 중로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이 학교에 다니는 6년 동안에 하루도 결석하지 않아 6년 개근상을 받았고 공부를 잘 하여서 줄곧 수석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그는 1929년에 한국인으로는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웠던 일본인 학교인 평양 제1중학교에 입학하였다.⁸⁾ 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는 많은 일본인 학생들을 제치고 수석을 유지하였다. 특히 대수와 기하 등 수학(數學)을 잘 했으며, 물리와 역사, 지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나타냈다.

그러나 영어만큼은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 성적이 나빴던 것은 아니었고, 다만 본인이 싫어하면서도 억지로 공부한 과목 중의 하나였다는 것이다. 후일 미 군정 하에서, 그리고 미 군사고문단과 협조관계 하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에도 영어 회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뿐



채병덕 장군 전사 제35주기 추도식에 참석한 평양종로보통학교 동창생.
왼쪽으로부터 김주흥(金柱興), 김용문(金龍文), 박유현(朴惟憲), 미망인 백
경화 여사, 박재창(朴在昌), 이제민(李濟民), 김주연(金周淵)씨.

만 아니라 잘 하지도 못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현상이 학창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 생각된다.

청소년기의 채병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가 수재인 동시에 대단한 노력파로서 성실하였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학업성적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체육에도 특출한 소질을 지니고 있어서 유도와 육상(중·장거리 달리기)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씨름, 축구, 스케이트, 야구 등 여러 운동에서 선두그룹에 속했고, 기마전(騎馬戰)에서도 학생들 중에서 강자였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당시 인기가 있던 유도부에 들어가서 유도부원이 되어 수업 후에도 매일같이 학교에 남아 맹 연습을 했다. 그의 일과는 아침 8시 조회로부터 시작하여 8시간의 수업과 2시간의 유도 연습,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는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에 대한 인상을 종합하면, 여드름이 나고 힘이 세고 머리가 좋은 학생, 그러면서도 귀염성 있고 서글서글한 소년, 살결이 희고 풍채가 당당하며 사람들을 잘 웃기고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감성이 풍부하여 호탕하게 웃기도 잘 하는가 하면 울기도 잘 하는 편이었고,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

일본 육군사관학교 지원

중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채병덕의 인생 진로를 결정짓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평양 제1중학교에는 배속장교(配屬將校)로서 일본군 대상(大上) 소좌(少佐)가 와 있었는데 그가 1932년 후반부터 한국인 학생들에게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하기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하였다.

당시는 소위 만주사변(1931년)이 일어난 직후로서 일제는 일본 본토와 한반도와 만주를 연결하는 체제를 형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해갈수록 그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으며, 일본 당국은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명목으로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였다.⁹⁾

당시 중학교나 고등보통학교는 5학년으로 졸업하게 되어 있었으나, 육사의 규정으로는 4학년 1학기를 마치게 되면 그 입학 자격이 부여되었다. 배속장교들 뿐만 아니라 학교장의 간곡한 권유도 있어서 한국인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이에 따랐는데, 평양 제1중학교 4학년 중에서는 채병덕이 지명을 받았던 것이다.¹⁰⁾ 대상 소좌의 설득은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였으며, 학교 교장은 물론 학생들도 채병덕이라면 합격이 틀림없는 적격자라고들 하였다.

마침내 채병덕은 일본 육사 입학시험에 응시하기로 결심을 하였다. 당시 육사 입학시험은 먼저 서울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받은 다음, 이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서 각 지구별로 시행하는 필기고사를 치르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은 동경의 교육총감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최종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했다. 여기에서 합격해야 비로소 입학이 허가되었다.

일차 관문인 신체검사는 1932년 11월 서울 용산에 있는 조선군사령부의 장교구락부인 '해행사(偕行社)'¹¹⁾에서 실시되었다. 검사장에는 건장하고 장대한 청년들로 붐비고 있었다. 유도로 단련된 채병덕은 이 검사에서 무난히 합격판정을 받았다.

당시의 상황은 직접 시험에 응시했던 채병덕과 서울 경성중

학교 4학년으로서 같은 시험에 응시했던 이종찬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채병덕은 이 과정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지 않았으므로, 그 자신에 대한 일도 그의 동료인 이종찬의 증언에 의해 알 수 있거나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이종찬과의 만남

이종찬의 증언에 의하면 서울의 신체검사장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모두들 건장하고 장대한 이십세 전후의 청년들이라 그는 ‘육사를 지망하려면 과연 이 정도는 되어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자기 오른편에 있는 한 청년이 특별히 당당하게 보여서 그 순간 ‘야! 참 상당하구나’라고 느꼈다는 것이다. 동시에 저처럼 당당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하고 상당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 만날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은 서울에서 자랐고, 다른 한 사람은 평양서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종찬은 혼자서만 ‘굉장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름을 부를 때 그가 누구인지 확인하려고 귀를 기울였다. 대부분 일본인들의 이름이 계속되었는데 그 청년의 차례가 오자 “채병덕”이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종찬은 그 순간에 대단히 반갑고 즐겁고 든든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그것은 독립된 자기 나라에서 자유스럽게 살고 있는 사람들

은 결코 느낄 수 없는 절실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좌우를 둘러보아도 일본인들만 보이는 곳에서 한국인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에게는 참으로 위안이 되고 반가운 일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그때까지 한국인의 입학이 중단되었던 만큼 합격한다고 해도 일본인들만 있는 미지의 세계에서 졸업할 때까지 오랜 기간동안 어떻게 견디어 나갈까 걱정스러웠던 그였다. 그 자신의 말을 빌리자면, 2,000명에 가까운 일본 육사응시생들 중에 동포 학생, 더욱이 보기만 해도 태산같은 체격의 채병덕 청년이 응시하러 온 것을 보니 참으로 든든하고 반가웠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가 꼭 합격하여 같이 입교하기를 바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찬의 증언에는 채병덕을 직접 대면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날의 신체검사에서는 이종찬도 합격 판정을 받았다. 학과시험은 그로부터 약 1주일 후에 실시되었다. 이 시험을 이종찬은 서울에서, 채병덕은 평양에서 각각 치렀다. 이 때에는 서로 만날 수 없었으므로 채병덕이 어떻게 시험을 치렀는지는 알 수가 없다.

학과시험의 결과는 신체검사 때처럼 그날로 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3개월 후에야 알 수 있었다. 이종찬은 이미 치른 시험의 긴장을 잊어버리고 그후 몇 달을 지냈는데, 그 다음해인 1933년 2월 중순의 어느 날 오후에 한 장의 전

보를 받았다. 육사시험의 합격을 알리는 통지서였다. 물론 평양의 채병덕도 같은 시기에 동일한 합격통지서를 받았을 것이다.

이종찬은 합격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 그때 그 늙름하고 당당한 체구의 주인공 채병덕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하였다. 아마도 합격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아니 꼭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였다고 한다.

한편, 채병덕이 일본 육사에 합격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지게 되자 그의 인기는 급등하였다. 한국인으로 4학년에서 일본 육사에 합격하였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일이었던 만큼 못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수재 채병덕의 이름은 전교, 아니 전 평양에 널리 퍼졌던 것이다.¹²⁾

그 다음 달 3월 하순, 동경에서 2차 신체검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종찬은 채병덕을 만날 수 있었다. 이때의 만남은 감격적인 것이었다. 본래 감성이 풍부한 채병덕인지라 이종찬이 한국사람인 줄 알게 되자 반갑고 궁금한 마음에 곧장 그에게로 달려갔다.

다음은 이종찬이 그때 두 사람이 만나던 장면을 묘사한 글이다.

“네레 한국 사람 아니가!”

“채병덕군이지? 알고 있었어. 나 이종찬이야.”

“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었어?”

“지난번 용산 해행사에서 군을 보았어. 그때 군이 호명되는

것을 가까이서 들었지.”¹³⁾

이때로부터 이들 두 사람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두 사람의 입장과 의식이 우정의 밑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은 여기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도 꼭 같이 합격되기를 서로 빌었다.

그런데 이번의 2차 검사는 정밀검사로서 까다로운 면이 있었다. 채병덕은 콩팥에 약간 이상이 있다고 해서 재검사까지 받았다. 그러나 그가 장거리 여행으로 피곤하다는 점과 또 중학교에서 유도부장으로 연습이 과도했다는 점을 참작한 검사관은 다행히 최종 합격 판정을 내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기쁨이 대단히 컸을 것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의 신체검사와 한 번의 학과시험을 무난히 통과한 두 사람은 마침내 최종합격자가 되어 4월 1일에 거행될 입교식을 기다리게 되었다.

2. 일본 육군사관학교

육사 예과생활

최종합격자들은 그날부터 동경 이찌가야(市ヶ谷)에 있는 육사 영내에서 거행될 입교식을 준비하였다. 이종찬씨의 회고에

의하면 그동안 두 사람은 틈나는 대로 만났고, 이러한 동안 우정이 싹트게 되었다고 한다.¹⁴⁾

입교식은 예정대로 1933년 4월 1일 이찌가야 연병장에서 교장 이나가끼(稻垣) 중장의 육사교육장령 소개를 시작으로 개시되었다. 이날부터 두 사람은 육사의 예과생도(豫科生徒)로서 완전히 군인이 되는 길로 들어섰다.

당시 예과생도들의 일과는 아침 6시 기상 나팔소리와 함께 시작된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일조점호(日朝點呼)를 받고, 점호가 끝나면 생도들은 막사 안팎을 청소하고 이어 각자 세면을 한다. 이것을 한 시간 안에 끝내고 아침 식사를 한다. 식사가 끝나면 곧 생도 막사로 돌아와서 오전 강의를 들으러 갈 준비를 서두른다.

숙소에서 강의를 듣는 교실로 이동해 가는 과정을 학과출장이라고 하는데, 생도들은 이 학과출장 전에 일단 생도 막사 앞뜰에 정렬하여 주변사관의 복장검사를 받는다. 이러한 과정은 학과 시작 5분전까지 매일 실시된다.

이런 과정을 끝내고 학과출장을 하면 오전 중에는 교실에서 일반학(一般學)과 군대예절을 비롯한 군대의 각종 전령범(典令範) 등을 학습한다. 여기서 일반학이란 군사학과 비교되는 학과목으로서 정치, 철학, 경제, 수학, 물리, 화학과 같이 일반대학교에서 교양 또는 전공으로 공부하는 부류의 과목을 통칭한다.

오전 수업이 끝나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는다. 그후 오후

1시부터는 오후학과 강의가 시작된다.

오후에는 보통 군사학 과목을 2시간 정도 배우고, 그 다음
은 소위 술과(術課)라고 불리우는 체조, 유도, 검도, 마술(馬
術) 가운데 어느 한가지를 매일 번갈아 가며 단련한다. 오후
학과가 끝나면 1시간의 ‘수의운동(隨意運動)’이라는 자유운동
시간이 있다.

이 수의운동이 끝나면 목욕을 하고 저녁 식사 신호를 기다
리게 된다. 생도들에게는 식사시간이야말로 즐거운 시간이다.
학교 식당의 식사도 상당히 좋은 편이었으나, 한창 식욕이 왕
성한 데다 격한 운동까지 한 생도들은 정량으로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주변사관이 식당에서 퇴장하자마자 쏘살같이 생
도집회소로 달려간다.

“채병덕은 태산같은 몸집을 날쌔게 날려 집회소로 달려갔
고, 거기서는 당당한 체력으로 전후좌우를 밀치고 앞장을 서
고는 했다”고 이종찬은 회고하고 있다.

그는 우동 두 그릇에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 정도가 표
준이었으나, 채병덕은 우동 세 그릇에 과자 두 봉지, 사이다
두 병이 표준이었다. 때때로 그는 그것도 부족해서 우동을 두
그릇이나 더 주문하곤 했다. 몸이 남보다 크고 유달리 건장한
때문이었는지 그는 참으로 대식가였다.

식사 이후의 시간은 마음껏 먹는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나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이종찬은 “우리 두 사람이 자유로이 만나 우리나라 말로 이

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이때 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최대의 노력을 해가면서 거의 매일 이 시간에 만났다”고 한다.

하루 종일 일본말만을 써야 하는 곳에서 길지 않은 시간이긴 하지만 자기 나라말을 쓸 수 있는 그 즐거움이란 한국인 유학생인 두 사람에게 상상 이상으로 즐거운 일이었으리라.

그러나 식사 이후의 이런 여유시간은 30분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오후 7시 자습시간에 맞추어 내무반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신속히 행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집회소에서 일찍 나오는 경우 두 사람은 식당 앞에 있는 비파호반(琵琶湖畔)을 산책하기도 하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생도숙사 쪽으로 걸어가면서 하루 동안의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대부분 상대방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내용이었다.

처음 학기에 채병덕은 일본 식사가 맞지 않아 큰 애를 먹었다. 이 일로 그는 이종찬에게 퇴교하겠다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네래 이대로는 견딜 도리가 없으니 다 집어치우고 돌아가야겠다.”

채병덕이 이렇게 말하자,

“조금만 참게. 일요일에 외출하면 중국요리나 우리나라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종찬이 위로 격려하였다.

한 학기가 지난 후로는 시간적인 부담이 줄어들고 생활에

적응하게 되었으며, 또 매주 휴일이 있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고 한다.

저녁식사 후 잠깐동안의 휴식시간이 끝나면 7시부터 자습이 시작된다. 자습이 끝나면 저녁 점호를 마치고 밤 10시에는 잠자리에 든다.

육사 재학기간 중에서 일요일은 천당에라도 가듯 이들에게 즐거운 날이었다. 주중에는 육사도 일반 병영과 마찬가지로 여유없는 생활이었지만, 일요일만은 아침 식사가 끝나는대로 곧 외출이 허가되었다. 외출하게 되면 일본인 생도들은 각각 자기 향토 출신 선배장교들이 운영하는 소위 현인회(縣人會)라고 하는 일요하숙에 가는 것이 상례였다.¹⁵⁾

그러나 이것은 한국인인 두 생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다. 이들은 동향회(同鄉會)가 없었으므로 아는 사람의 집이나 찾아가는 것이 고작이었다.

입교 직후 단 한번 그들은 유일한 한국인 생도였던 이형석 전배의 안내로 히로시마(廣島) 현인회의 일요하숙인 초수회(草水會)에 간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해 6월 그가 육사를 졸업하자 그들은 더욱 쓸쓸하고 답답하여 향수병이 생길 지경이었다.

물론 일요일에는 두 사람이 꼭 외출하고는 했으나 일본인 생도들처럼 현인회에 가서 편안히 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더욱이 그들이 외출하여 시내에 나갔을 때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고 또 간섭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한국인 유학생들

을 볼 때에는 부러운 마음이 들었다. 유학생들은 집에서 부쳐 주는 돈으로 개인하숙을 얻어 자유로이 공부할 수 있었으나 자신들은 고통스러운 내무생활 속에서 젊은 시절을 썩히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들은

“민족의 독립은 역량을 배양함에 있고, 모든 역량 중에서도 가장 중대, 긴요한 군사적 역량 연마를 위해서 어떠한 고초도 극복해야만 한다”고 장래를 굳게 다짐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인내와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계림회

그러던 어느날 육척 장신의 당당한 체구를 가진 김인욱이라는 소좌가 학교로 그들을 면회왔다.¹⁶⁾ 김소좌는 당시 교육총감부에 근무하고 있던 영친왕 이은 중좌(일본육사 제27기생)의 왕족부(王族附) 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김소좌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음식을 사주면서 일요하숙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¹⁷⁾

“그대들이 일요하숙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왕전하(王殿下)께옵서 나에게 그 설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침 내가 잘 아는 집이 있으니 주선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동경 요쓰야(四谷)에 작으나마 그들만의 안식처인 회관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고또

(後藤)씨 소유의 집이었다. 고또씨는 김소좌를 포함한 과거 한국 유학생들과 일찍이 깊은 인연을 맺었다. 대한제국의 관비생으로 도일했다가 후에 일본 육사에 입교한 제26기와 제27기의 한국인 선배들이 사관후보생 시절 바로 이 집을 만남의 장소로 사용했던 것이다.¹⁸⁾

그러한 인연 때문인지 집주인은 그들을 대단히 친근하게 대해주었고, 또 20여년 전 그들 옛 선배들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해 주기도 했다. 여기서 그들이 감명받은 것은 집주인이 23년 전의 것이라고 하면서 사진첩 하나를 보여주었을 때였다.

이 사진첩은 「사막의 오아시스(沙漠泉)」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는데, 그들의 선배들이 중앙유년학교(中央幼年學校) 재학 당시 이 집에 신세진 것을 기념하여 남겨놓은 것이었다. 그 사진첩에는 제23기생 김광서를 비롯한 34명의 홍안의 소년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첩 「사막의 오아시스」는 그들에게 참으로 무한한 암시와 교훈을 주는 것이었다. 특히 그 사진첩에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에서 항일운동에 투신하다가 죽은 이종혁(마덕창, 27기생)의 모습도 보였고, 그때 한참 광복군을 거느리고 북만(北滿)과 북지(北支)에서 일군과 투쟁 중이던 이청천 장군의 사진도 있었기 때문이다(이 사진첩에는 물론 홍안의 소년으로 보였다). 더욱이 이 사진첩의 표지 이름이 「사막의 오아시스」로 되어 있었기에 그들은 선배들의 말로 표현할 수 없었던 열렬한 조국애와 한없는 통분을 역력히 헤아릴 수 있었다.¹⁹⁾

두 사람은 “이 사진첩을 보니 선배님들의 울분 맺힌 원한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거, 지금 관동군은 이청천 선배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 관동군에 있는 홍사익, 윤상필 두 선배님은 얼마나 입장이 괴롭겠어!”라고 착잡한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²⁰⁾

이 사진첩은 그들 두 사람은 물론 다음해부터 입교해 들어오는 후배들에게 둘도 없는 경전(經典)이 되었다.

그들은 이 고또씨 집을 일요하숙처로 정하고 이를 당국에 등록하기 위해서 회명(會名)을 정했다. 처음 그들은 사진첩의 이름대로 「사막의 오아시스, 회라 할까도 생각했으나, 회명으로는 너무 길어서 결국 삼국을 통일하여 단일민족국가를 이룬 신라의 옛 칭호인 ‘계림’을 인용하여 「계림회(鷄林會)라고 하였다.²¹⁾

이후부터 학교당국에서도 계림회라 표시했고 또한 학교에서 발간되는 회보에도 이를 사용했다. 이것은 두 사람에게 참으로 감개무량한 추억으로 남았다.

1934년 4월 두 사람이 예과 2학년에 진급하였을 때 새로이 두 명의 한국인이 입교했다. 평양고보 출신의 이용문과 군산중학 출신의 지인태였다. 이로써 육사에는 모두 4명의 한국인 생도가 재학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후배가 생기자 한층 용기가 솟았고, 일요일 외출시에는 이들을 데리고 당시로서는 귀한 유성기(留聲機; 전축)와 바둑 등이 구비된 고또씨 집을 찾고는 했다. 특히 이용문은 채병덕과 평양 종로보통학교 동기

동창이었던 관계로 그의 향수병도 무척 완화되었다.

예과 2학년 후반기에 접어들자 병과로 구분하여 훈련을 받게 되었다. 그전까지는 보병훈련에만 주력했었다. 이때 채병덕은 중포병과(重砲兵科)로, 이종찬은 공병과(工兵科)로 결정되었다. 채병덕은 제1지망으로 야전포병(野戰砲兵科)을 신청했으나 제2지망인 중포병으로 결정되었다.

그들이 이처럼 기술병과를 지망했던 까닭은 그들의 대선배인 제26기생과 제27기생들이 거의 모두 보병이었으므로 장차 우리나라의 군대가 발족될 경우 기술병과 출신자가 크게 부족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한다.²²⁾

계림회의 동지들은 그후 이들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보병이 아닌 기술병과를 지망했다. 즉, 제50기의 이용문과 지인태는 각각 기병과와 항공병과를, 제52기의 최명하와 박범집은 각각 항공병과와 포병과를 지망했다. 그후 항공병과가 인기를 끌게 되자 김정열(제54기), 김창규(제55기), 신상철(제56기), 박원석(제58기), 장지량(제60기) 등 회원들도 이를 지망하여 항공사관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들은 후일 한국 공군 창설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될 사람들이었다.

대부생활

병과 결정 직후에 ‘대부생활(隊附生活)’ 부임지가 결정되었다. 대부생활이란 사관생도들로 하여금 야전 실무의 이해 및

지휘통솔 능력의 배양을 위해 병영생활을 체험케 하고 장래 통솔할 대상자인 사병 및 하사관의 실무를 몸소 경험케 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다. 예과를 졸업하면 사관후보생으로서 6개월간의 대부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다.

대부생활의 부임지를 지명하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은 낮익은 고향, 즉 우리나라에 있는 부대를 희망했었다. 어린 시절이었고 수백명의 일인들 중에 고독을 금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막상 발표를 보니 두 사람 모두 일본 내에서 부대생활을 하도록 결정되었다. 즉 채병덕은 규슈(九州) 사세보(佐世保)에 있는 중포병연대로, 이종찬은 아이치현(愛知縣) 도요바시(豊橋)에 있는 제3보병사단 공병대대로 결정된 것이다.

1935년 3월 하순, 그들은 2년간의 예과를 졸업하였다. 그리고 졸업 휴가에서 돌아오는대로 대부생활 부임지로 출발했다. 4월부터 9월까지의 6개월 동안에, 처음에는 상등병의 실무를, 그 다음에는 오장(伍長)의 실무를, 그리고 다음에 군조(軍曹)의 일을 차례로 경험하였다. 야전의 환경은 예과의 생도생활과 같이 엄격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실무를 체험하면서 학교와는 또 다른 군대의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서 그들은 '통솔을 할 사람은 통솔을 받을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솔을 받아본 경험이 긴요한 것'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상등병 계급에서 실습하는 동안에는 부대 내 최선임 상등병의 대우를 받았다. 이 동안에는 상위계급인 오장에게 종종 시

달림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두 달 후 오장 계급의 실무를 맡게 되는 그 즉시로 최선임 오장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이 때는 참 유쾌하였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가소로운 바도 있지만, 이런 일은 젊은 후보생들에게 계급이 어떻든 직책이란 가장 소중함을 알게 하는 동시에, 항상 상위계급보다는 그 계급에서 제일 우수한 사람이 가장 훌륭하다는 긍지를 체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종찬은 회고하였다.

육사 본과생활

채병덕은 대부생활을 마치고 이 해 10월에 다시 육사로 돌아왔다.

그때로부터 본과 과정이 시작되었는데, 그 기간은 1935년 가을부터 1937년 여름까지였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묘하게 작용했고 일본은 바야흐로 군국화의 길을 걷고 있었다. 고조된 군국주의는 영토확장으로 그 야욕을 드러내어 중국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어 갔다. 육사 생활을 하는 중에도 두 사람은 이런 정세를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심각한 현실문제로 다가오고 있었다.

본과의 생활은 예과생활과 대체로 비슷했으나, 본과에서는 일반학 대신 군사학 공부에 치중하는 것이 달랐다. 군사학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컸던 것은 전술학이었다.

각 병과 본연의 교육 훈련은 매일 오후 시간과 매주 1회씩

의 야외 교육 훈련으로, 또한 매년 봄에 약 1주간과 가을에 약 2주간의 야영 연습으로 계속 실시되었다.

이처럼 본과시대는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배우는 기간인 동시에, 인간 성장의 과정으로서도 약관을 넘어 점차 지각이 익어 가는 때이었으므로 졸업 후에는 어떤 군인생활을 해야할 것인가, 즉 장교로서 어떤 생애를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심각히 생각해보는 기간이기도 했다.

육사를 지원할 때 어리고 순진한 마음속에 품었던 그 이상은 멀지 않은 장래의 졸업과 임관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실지 군무에 당면하게 될 것이었다. 장교로 임관하여 각자 군대에 서 지휘관 또는 교관으로 복무한다는 것은 일본인 생도들이 가진 보통의 생각이었고 목적이었다. 그러나 특별히 한국인 생도들에게는 그들과는 다른 감회가 있었다.

이종찬씨는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썼다.

처음부터 민족적 역량을 양성하는 데 군사지식이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해서 군문에 들어온 우리들이었기에 졸업은 그 의의가 있었으나, 그 후의 임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지금까지 연마한 노력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아무 가치없이 쓰여지게 되지 않을까, 혹은 소위 십년공부를 수포화시키게 될 뜻 없는 희생이 되거나 않을까 은근히 걱정되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실지로 ‘군사지식이 민족적 역량을 양성하는

데 가장 긴요하다'고 생각해서 군문에 들어갔다면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의식과 비전을 가졌다면, 아마도 그것은 일본에 지배당하고 있는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본과 2학년 후반기에 국제정세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당시의 일본 국내정국 특히 고조된 군국주의와 영토확장의 야망은 그 도를 더해가고, 중·일의 관계는 극도로 험악하게 되었던 때인 만큼 두 사람의 걱정도 커졌다. 그러나 그들은 굳게 결심하고 군문에 온 초지를 더욱 깊이 명심하여 묵묵히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다.



3. 장교 생활

졸업과 임관

1937년 6월 29일, 두 사람은 마침내 일본 육사 제49기생으로서 졸업을 하게 되었다. 예과 입교로부터 4년여의 형설의 공이 이루어진 것이다. 당시 육사에는 그들의 1년 후배가 2명 있었고, 1936년 4월에 입학한 3년 후배, 즉 제52기생으로 최명하와 박범집이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졸업하던 해 4월에 다시 4년 후배(즉 제53기)로 박재홍과 신웅균이 입학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임관 후의 일이 크게 걱정되었지만,

군사편찬연구소

졸업의 순간은 시원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였다. 즉 그것은 한 편으로 보면 철창 속 같이 엄격한 재학 4년의 지루한 환경을 극복하고 끝마쳤다는 쾌감이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만하면 우선 갈망하던 군사기술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만족에서였다.

짧은 졸업 휴가를 보낸 채병덕은 원 소속인 규슈 사세보에 있는 중포병연대로 부임하였다. 사세보 군항을 지키는 중포장교로 배치된 것이다.

반면 동기생인 이종찬은 아이치현 도요바시의 제3보병사단 공병대대로 갔다. 이때로부터 3년 이상 채병덕은 이종찬을 만나지 못했다. 이종찬이 중국대륙을 전전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락은 끊어지지 않았고 소식은 계속 전할 수 있었다.

채병덕과 이종찬이 육사를 졸업하고 임지에 부임하던 6월은 북만(北滿)의 긴장된 사태가 돌연 북지(北支) 방면의 험악한 사태로 급진전된 때였다. 그들이 견습사관으로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중·일전쟁이 터졌다.²³⁾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일본군은 동원을 개시하였다. 일본인들은 대규모의 전쟁준비를 서둘렀고 여러 곳의 부대들이 출동하였다. 사실 어느 지역에 한정해서 해결될 수 있을 듯이 생각되었던 이 사건은 일본측이, 그들의 선전과는 달리, 의식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발발한 중·일전쟁은 4년 후 태평양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오래 전부터 두 사람이 걱정해오던 일이 너무나 빠르게



채병덕(당시 일본군 소위)이 이종찬에게 보낸 사진. 뒷면에 자필로 “戰陣中 奮闘하는 鍾贊兄에게, 秉徳부터 鐵石같은 決心 武運長久.”라고 썼다.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다. 그러나 만사는 운명에 맡기는 길 밖에 없었다.

1937년 8월 하순, 이종찬의 사단에 동원령이 발령되어 그는 9월초에 상해전선에 투입되었다.²⁴⁾ 그러나 채병덕은 중포병으로서 일본 본토의 사세보 요새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로 출전할 기회가 오지 않았다.

전쟁의 위험을 직접 겪지 않는다는 면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야포 병과를 지원하였다가 중포 병과로 변경되었을 때 그는 다소 불평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되고 보니 모든 것이 새옹지마(塞翁之馬)라 할 수 있었다.

이 해에 채병덕은 육군소위에서 중위로 승진하였다.

결 혼

임관 이듬해인 1938년 6월 5일 채병덕은 중위로서 백경화(白慶和)²⁵⁾와 평양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백여사는 일본 육사 선배(제29기)인 백홍석(白洪錫) 중령²⁶⁾과 정홍범(丁洪範)여사²⁷⁾의 장녀이다.

육사 졸업 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 교제를 가졌으며, 그리고 이미 약혼한 사이였다. 육사 본과시절에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이종찬은 채병덕이 평양에서 백경화와 만났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종찬의 회고에 의하면, 채병덕은 고등여학교 교복에 가랑머리를 한 백경화의 상반신 사진을 생도복 상의 주머니에 언제나 넣고 다녔다고 한다. 일본 육사의 교칙에 의하면 여성의 단독사진은 모친 외에는 비록 친남매라도 허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것이다.

그리고 채병덕과 백경화의 편지 왕래도 잦았다. 이종찬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동경에 유학 중이던 그의 동생이 하숙집으로 오는 백경화의 편지를 받아 육사에 있는 채병덕에게 전달하는 일을 담당하였다고 한다.

채병덕 부부는 사세보에서 신혼살림을 차렸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2남 3녀가 태어났는데, 장녀 영옥(英玉), 차녀 경



채병덕과 백경화의 약혼 사진

옥(慶玉; 명희로 개명), 장남 영길(英吉; 영옥으로 개명), 3녀 영순(英順), 그리고 차남 영진(英進; 영수로 개명)이다.

1939년 겨울 채중위는 육군포공학교(陸軍砲工學校)에 입교하기 위하여 동경으로 갔다. 이 학교는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포병 및 공병장교에 한하여 입교자격이 부여되는 곳이었다. 이 학교에 입교한 장교학생은 유기화학, 탄도학(彈道學), 미적분을 위주로 한 고등수학, 조병(造兵)에 관련된 야금(冶金) 화학 등을 공부하였다.

우수한 성적으로 이 학교를 졸업한 채중위는 신나천현(神奈川縣) 연야변(淵野邊)에 있는 육군병기학교 교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병기 연구자로서 장래를 촉망받게 되었다.

그후 1940년 그는 육군병기학교로부터 오사카에 있는 육군 조병창으로 전임되었으며 거기서는 조병연구에 관한 주요 요원으로서 더욱 많은 발전과 지식을 쌓았다.

그해(1940년) 겨울 채병덕은 이종찬이 중국전선으로부터 동경으로 돌아오게 되자 다시 즐거운 만남을 갖게 되었다.²⁸⁾ 육사 졸업 후 만 3년 반만의 재회였다. 사지(死地)에서 전전하다가 오랜만에 돌아온 친구를 동경역에서 만나는 감회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었을 것이다. 이종찬은 그때의 즐겁던 추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때 채병덕은 더 뚱뚱해졌고 육군 중위로서의 관록이 몸에 배어 있었다고 한다.

두 사람은 옛 시절처럼 자주 만나며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때 이종위는 포공학교 장교학생으로 하숙생활을 하였고, 채중위는 백경화와 교외에서 신접살림을 하고 있었는데, 이종찬은 거의 매주일마다 그 집에 들렀다.

일본에 있는 동안 채병덕의 집에는 동기생인 이종찬 외에도 당시 사관생도였던 정래혁, 신상철, 유재홍, 김창규 등이 초청되었는데, 백경화는 멀리국물에 국수를 삶아 이들을 대접하였다.

1941년 3월 채중위는 육군대위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군에서 자주 상관과 충돌하였다고 하며, 특히 이곳 오사카 조병창에서 근무할 때는 창장에게 반항하여 육군대학에 입

교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천조병창에서 맞은 해방

1941년에 들어서부터는 일본 국내와 국외의 정세가 더욱 긴박해졌다. 이와 같은 긴장이 하루하루 그 도를 더해가던 중 마침내 그 해가 저물 무렵인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고야 말았다.

일본군은 주도면밀한 계획으로 진주만을 기습공격하여 서전에 승리를 얻은 듯 보였다. 그러나 현대전은 1개 회전의 승리로써 간단히 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습을 당한 미국은 개전 초기에 심한 타격을 입기는 하였으나 무진장한 공업력과 진보된 과학의 힘으로 차츰 전세를 회복하였다.

전쟁 중에 일본 군부는 북방에 대한 대비책으로 한반도에도 조병창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인천지구 부평 부근에 공장을 건설하였다. 1943년 소령으로 승진한 채병덕은 부평에 신설된 이 조병창의 공장장으로 전임하였다.

부평 조병창에서의 근무는 그에게 있어서 매우 뜻깊은 일이었다. 태평양전쟁 말기에 일인들은 기울어져 가는 전세를 만회하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썼다. 여기에는 전쟁에 나가지 않은 학생들을 동원하여 전쟁 지원을 위한 작업에 투입하는 방법도 포함되었다.

만약 이런 동원에 응하지 않는 학교나 학생에게는 가혹한

제재를 가하였는데, 특히 한인학교에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도 없었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순 한국인 재단인 당시의 보성전문학교(현 고려대학교)에 대한 노력 동원은 미묘한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추이에 따라서는 폐교 처분까지 갈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될 조짐이 보이자 학교측은 부득이 동원에 응하게 되었다. 부평 조병창이 작업장소로 지정되었고 보전 학생들은 1944년 7월 이곳으로 끌려갔다.

학병에 가는 것보다 나왔을는지 모르나 여태껏 거친 노동이라고는 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힘에 겨운 중노동이 시작되었다. 노동이 힘들기도 했지만, 일본군을 위해 전쟁 무기를 만들어 준다는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작업에 열성을 보이지 않았다.

여기에 몇몇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사상적(좌경화된) 조직이 싹트기 시작하였다. 그 좌경학생들 모임에서 ‘이 전쟁을 유리하게 하는 무기를 만들지 말자’라고 충동함으로써 사보타지 운동까지 벌어졌다.

차츰 학생들의 작업능율이 저하되자 일본군 당국은 보전을 폐교시키는 문제를 논의하였고 그 위험성이 더해 갔다. 위기감을 느낀 교수들은 “무기를 만들어 전쟁을 더 오래 끈다는 것은 반대다. 그러나 일본이 패망하는 그 날까지 어떤 방법이든 보전이라는 이 학교만은 존속해야 한다”고 학생들을 설득

하기 시작했다.

갈등하던 학생들은 교수들의 간곡한 설득과 일본이 패망할 그때 젊은 학생의 집합체인 보전만이라도 남아 있어야 나라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식과 애교심, 그리고 공장장 채병덕 소령과의 의기투합이 계기가 되어 이 위기를 넘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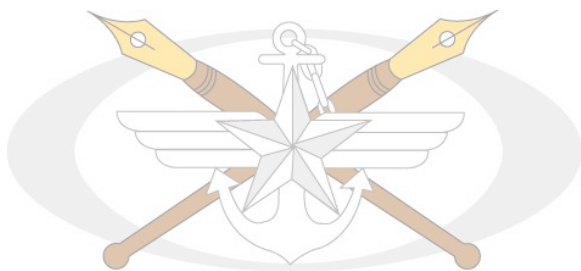
채병덕은 이들 앞에서 “나도 조선사람이다”라고 공언하였다. 그리고 학생 대표에게 “될 수 있는대로 자리만 뜨지 말고 일을 하고 있다는 시늉만이라도 해주면 내가 당당히 일본군 당국자들을 대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술자가 아닌 학생들은 일반 공원 사이에 끼여 기초적인 일만 거들어 주는 잡부같은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 일이 잘 진행되어 이후 보전의 폐교문제는 사라졌다. 이 과정에서 채병덕 소령은 그들에게 음으로 양으로 많은 편의를 제공하였다.²⁹⁾

한편 채병덕으로서는 이 기회에 한국 청년들과 접촉하여 공분(公憤)을 같이 할 수 있었다. 또한 교수들과 사궐으로써 민족의 당면과업을 더욱 확실히 판단하게 되었다고 한다.

채병덕은 이곳에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의 군대가 만들어질 경우 전력(戰力)의 바탕이 될 공업과 병기생산을 위하여 그 때로서는 유일무이한 이 조병시설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한인 공원들을 설득하여 해방의 혼란 속에서도 매일매일 기재의 확보 및 관리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얼마후 미군 점령군이 진주하면서 채병덕과 한인 공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확보하고 있던 거대한 기계시설을 일거에 제거하고 불도저로 밀어서 땅속에 파묻어 버렸다고 한다. 당시 『모든 군사시설의 철거』라는 방침에서 단행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3 장 전군기의 활동

1. 군사영어학교

입 교

채병덕이 한국군에 첫발을 내디딘 계기는 군사영어학교 (Military Language School)³⁰⁾를 통해서였다. 그는 자신의 일본 육사 동기생인 이종찬과 달리 경비대 참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1945년 광복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미군 제24군단이 남한지역에 군정청을 설치하여 일제 치하의 조선총독부로부터 행정 기구를 인수하게 되었을 때 군사에 관련된 공식기구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군정 당국은 1945년 11월 13일에 군정법령 제28호로써 「국방사령부(國防司令部 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Defense)」를 설립하고 이 기구로써 군대를 건설하는 핵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국방사령부가 군대를 만들려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된 것



군사영어학교가 있던 서대문 감리교 신학교

이 인적자원이었다. 물론 무기와 장비, 기술과 예산도 필요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지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군대를 구성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적자원은 한국인일 수밖에 없었는데, 소요를 충족시킬 만한 인력을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다. 더욱이 군의 간부는 단시간 내에 양성될 수 없으므로 우선 장교 양성이 큰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군대 창설계획의 확정과 이행에 앞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미 군정청은 1945년 12월 5일에 군사영어학교를 설립하였다. 우선 군사 경력자들을 모집하여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통역관 및 군간부요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였다.

이 학교는 1946년 4월 30일 폐교될 때까지 총 110명의 장

교를 배출시켰는데, 이들이 초창기 경비대의 간부가 되었으며 또한 건군의 주역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채병덕은 이 대열의 선두에 포함되어 있었다.

군번 1번에 얹힌 갈등

군사영어학교의 입교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이루어졌지만 졸업·임관시기는 동일하지 않았다. 군사영어학교의 첫 번째 졸업 및 임관은 1946년 1월 15일에 실시되었다. 국군의 모체인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이후 군사영어학교에서는 10여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장교들이 배출되었다.

원래 이 학교의 졸업자는 전원을 참위(參尉: 현재의 소위)로 임관시키고, 그후 실력에 따라 진급을 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 그렇지만 이 원칙은 지켜지지 못하고 참위 외에 부위(副尉: 중위) 또는 정위(正尉: 대위)나 그 이상의 계급으로 임관시킨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³¹⁾

제일 먼저 졸업한 12명 중에서도 채병덕을 포함한 5명은 정위 계급으로 임관되었고, 나머지 인원은 부위 또는 참위로 임관되었다. 정위로 임관된 5명의 장교는 이형근, 유재홍, 장석윤, 정일권 등이었다. 이들에게 육군 최초의 장교군번이 부여되었는데, 1번이 이형근, 2번이 채병덕이었고, 3번 유재홍, 4번 장석윤, 5번 정일권 순이었다. 채병덕은 장교군번 2번, 즉

10002번을 받았다.³²⁾

채병덕은 이 군번 부여 순서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이형근의 군번이 1번이고 자기가 2번인데 대해 매우 분개하였다.

등번호를 붙이고 시험을 하는 운동선수들의 경우에는 그 번호의 순서가 그들의 입단 차례를 나타내거나 능력의 우열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특별히 1번 선수가 2번 선수보다 더 선임이라거나 더 우수하다거나 하는 차이를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군대에서 군번은 대체로 선임 순서를 뜻한다. 그리고 동기생일 경우에는 우열의 표시가 약간은 배어 있기도 하다.

때문에 군대 생활의 서열로 보아 채병덕이 1번이 되어야 함은 중론이 일치하는 바였다. 그리고 장본인인 채병덕 자신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교로서 군번 1번은 매력이 있는 것이다. 더욱이 건군에 있어서라.

군사영어학교 출신자의 군번은 대체적으로 졸업 일자와 영어 능력에 의해서 부여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물이나 군사 능력을 평가한 서열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군번을 그렇게 정의해버리면 간단해지겠지만, 인간인 이상 누구나 앞선 군번을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1946년 1월 15일부로 졸업한 군사영어학교 제1회 졸업자에게 부여된 군번을 일본군 출신자 중심으로 보면, 1번

이형근(56기, 대위), 2번 채병덕(49기, 소령), 3번 유재홍(55기, 대위), 4번 장석륜(27기, 중위때 퇴역), 5번 정일권(55기 해당, 대위), 6번 양국진(만주군 대위), 9번 이영순(일본해군 경리 중위), 10번 최주종(58기 해당, 소위), 11번 최경록(일본군 준위), 13번 장창국(59기, 사관후보생), 17번 강문봉(59기 해당, 사관후보생) 순이었다.

여기서 군번 2번 이하의 서열을 보면, 27기생인 장석륜은 별도로 치고, 이상하게도 구군(舊軍)의 서열순으로 되어 있다. 육사와 군관학교 출신자의 기별을 배려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채병덕이 “선배를 제쳐놓고 후배인 이형근이가 1번이 되다니, 도대체 이 무슨 이유이나? 설사 상사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 치더라도 사양하여 5번인 정일권 다음이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는가!”하고 열화같이 격분한 그 심정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더구나 1번부터 5번까지의 5명에게는 특별로 대위(이하 현재 계급명으로 호칭함) 계급이 부여되었다. 그러니 7기나 후배인 이형근은 구 일본군의 대위 계급 그대로 주어지면서 군번 1번이 되고, 채병덕은 소령에서 대위로 강등되면서 군번 2번이 부여된 것이 된다.

채병덕 대위는 경비대총사령부 부관 임선하 소위를 불러놓고, “이형근보다 일본 육사로 보나 계급으로 보나 더 선배인데 내가 왜 군번 2번이고 이형근이가 1번인가?” 하고 따졌다고 한다.

임소위는 이에 대해 “군번은 행정 정리상 서류 접수 순대로 부여한 것 뿐”이라고 변명하였다고 한다. 그의 대답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정규 육사 출신인 채병덕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이 군번 문제가 이후 채병덕과 이형근의 사이를 갈라놓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 어떤 사람은 이 현상을 초창기 우리 군대 내의 파벌과 결부시키기도 하였다.

실제로 두 사람은 건군기 국군의 선두그룹에 속하였으므로, 두 사람의 갈등관계가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았을 것임은 짐작할 수 있다.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한 상태와 비교해보면 대국적인 면에서 큰 손실임에 틀림없다.

이형근씨의 입장

이형근씨는 자기가 군번 1번을 받은 과정에 대해서 그의 회고록이나 다른 글에서 상당히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다. 일본의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씨는 '한국전비사'에서 군번 1번 부여에 대한 이형근씨의 해명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

군번은 졸업시험의 성적이 1등이었기 때문에 (내가) 1번이 된 것뿐이지, 별도로 공작을 했거나 이용준 고문(이형근의

장인)이 특별히 돌봐 주었거나 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리고 채병덕씨가 2번이 된 것은 시험성적이 2등이어서 그랬던 것이니, 그 사람이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³³⁾

여기서 군사영어학교의 졸업시험 성적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사사키씨는 같은 책에서 ‘시험이 없었다고 하는 증인이 많다’고 부연하고 있다.³⁴⁾

한편 장창국씨의 증언에 의하면,

학생들은 영어 실력에 따라 A·B·C·D 4개 반으로 나누어 교육을 받았다. A반은 영어 실력이 웬만큼 있는 사람, B·C반은 기초가 있는 사람, D반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교육 과목은 군사영어가 주였으나 그밖에 한국역사, 참모학, 소총분해, 자동차 운전 교육 같은 강좌도 있었다. 영어는 매일 시험을 보아 성적에 따라 반을 옮겼다. A반부터 순차로 임관하는 식이었으므로 입학식은 있어도 졸업식은 없었다.³⁵⁾

고 한다. 영어 성적에 따라 반이 정해지고 졸업 순서도 정해졌다는 이야기이다. 장교의 군번 부여 요령은 장교 양성기관에서 졸업시 성적순으로 매겨지는 것이 통상이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의 경우이고 채병덕과 이형근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공부도, 성적 산출도 없었다는 증언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이형근 자신의 회

고록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의 회고록에 있는 기록을 여기에 옮겨보자.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한 후 미 군정 당국은 나에게 새삼 이 학교에서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면서 입교를 면제해 주었다. 서울에서 일시 귀향했던 나는 1946년 1월 15일 미 군정 청령(美軍政廳令)으로 다시 상경했다. 그런데 난처한 일이 벌어졌다. 일본 육사 56기이며 나이 24세인 나에 비해 군사 경력으로나 나이로나 선배가 되는 분들을 제쳐놓고 내가 군번 1번을 받았기 때문이다. 36)

즉, 그는 이 학교에 행정상으로 입학을 했을 뿐이지 직접 출석하여 교육·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병덕도 마찬가지였다.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을 볼 수도, 성적이 나올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험성적에 의해 군번 1번을 받았다’는 이형근의 설명은 신빙성이 없게 된다.

또 이형근은 당시 채병덕이 자신에게 “직접 미군 당국에 건의해서 (군번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꼭 그의 요구를 따르자고 그런 건 아니지만, 자신의 입장도 다소간 거북스러워 미군 당국에 수정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형근의 회고록을 좀더 인용해 보자.

나는 이용준 고문에게 나의 견해를 설명하고, 즉시 미 군정

당국에 군번 1번을 받을 수 없다고 완강하게 사양했다. 장유유서의 질서가 엄존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젊은 내가 선배들의 앞자리에 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참페니 사령관과 아고 육군부장은 나의 건의를 깔아뭉개면서 이렇게 일축했다. “당신은 우리가 지금 일본군을 재건하고 있는 줄 아느냐. 이 군번은 맥아더 총사령부가 전형 결과와 과거에 소속했던 각군 군당국에서 송부해온 각자의 고과표를 참작해서 결정한 것이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명령에 복종하는 일 뿐이다.”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몹시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화를 냈다.

입장이 난처해진 나는 이응준 고문을 다시 찾아갔다. 그분은 “군번 문제로 더 이상 고집을 부리거나 미 군정 당국자들과 싸우지 말라”고 충고해 주었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나는 결국 일본군 대위에서 한국군 대위가 되었으며 군번은 1번으로 고정되고 말았다.³⁷⁾

이 글에 의하면 이형근은 자신이 군번 1번을 받은 데 대해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느껴진다. ‘장유유서의 질서’라든가 ‘젊은 내가 선배들의……’라는 말이 그런 느낌을 준다. 또 실제로 미 군정 당국에 군번 수정을 요구했다는 사실(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도 그렇다.

그런데 군번 부여에 맥아더 총사령부가 개재되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나, 과거에 소속했던 각군 군당국으로부터 보내온

고과표를 군번 결정에 참고로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채병덕과 이형근의 경우 ‘과거에 소속했던 군’이라면 일본군을 지칭할 터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했을까? 설사 고과표를 보내왔다고 해도 서로 다른 병과, 서로 다른 계급의 사람들을 어떻게 비교 평가할 수 있었을까? 군번을 정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리고 일본군 군적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일본군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했을까?

평소부터 채병덕과 이형근은 마음이 맞지 않았다고 하는데, 더구나 이 군번 문제를 계기로 하여 두 사람의 사이는 더욱 나빠지게 되었다. 채병덕은 어떤 기록도 남겨두지 않아서 그의 심정을 알 수 없지만, 이형근은 이 문제로 결코 마음이 편치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후 채장군은 나에 대해 선배를 몰라본다느니 불손하다느니 하는가 하면, 심지어 반미주의자라고 비방하기도 했다”고 한다.

얼마 후 채병덕 소령은 제1연대장이 되고 이형근 소령은 육사교장이 되어 태릉 병영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다. 그때 한 건물의 1층에 채소령, 2층에 이소령의 집무실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아침 저녁의 인사조차도 교환하지 않았다.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본 사람도 없다고 한다.

이런 현상은 채병덕과 이형근 두 사람의 개인적인 알력이지만, 좀 더 크게 보면 일본 육사 동문끼리의 불화이며, 동시에

국군 장교단 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응준-이형근 계열’과 ‘백홍석-채병덕 계열’의 대립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어쨌든 두 사람이 국군 내에서 차지한 비중으로 볼 때, 양자의 불화는 국군 전체의 손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비대 제1연대의 창설

최초 창설부대의 중대장

1945년 12월 말경에 미 군정청이 수립한 「뱀부계획」에 의하면 국방경비대의 골격은 남한지역의 8개 도에 각각 1개 연대씩 8개 연대를 우선적으로 창설하는 것이었다. 연대를 창설하는 기본적인 요령은 먼저 각 도에 1개 중대를 편성하고, 이를 기간(基幹)으로 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대대를 만들고, 이어서 그것을 연대로 확대하여 편성을 완결하는 방식이었다.

이 작업은 먼저 서울·경기에서 시작하여 다음으로 부산으로 이어졌는데, 그것은 정치 및 경제적 의의와 치안 유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채병덕은 미군정의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국방경비대 창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46년 1월 15일에 남조선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인 제1연



조선경비대 제1연대
표지판

대 제1대대 A중대가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 태릉(구 일본군 지원병훈련소, 현 육사 위치)에서 창설되었다. 제1연대의 대원 모집은 그보다 앞서 1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서대문에 소재한 군사영어학교에서 실시됐는데, 225명 모집에 1,000여 명이 쇄도하여 4:1이 넘는 경쟁률을 보였다.

시험은 구두시험과 신체검사였다. 합격한 대원 중에는 장교 출신을 비롯, 일본군 또는 만주군의 고급하사관, 대학 중퇴자, 중학 졸업자가 있는가 하면 자기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한국측에서는 입교 대상자에 대한 개인 신상조사나 사상조

사를 실시하자고 미 군정청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채병덕은 대위로 임관되면서 바로 국방경비대 최초의 부대인 제1연대 A중대장에 부임하였다. 소대장에는 최경록, 강문봉 소위가 임명되어 함께 부대 창설업무를 수행하였다.

A중대 편성은 1월 17일에 완료되었으며, 이어서 근무중대(본부중대)와 B중대가 만들어졌는데, 중대장은 장석륜 대위와 정일권 대위가 각각 맡았다.

경비대를 창설하는 과정에서 많은 장애가 있었고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채병덕과 관련된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제1연대가 창설되던 당시 그가 중대장을 맡고 있을 때 대대장은 미군 소위였다. 그 소위는 훈련중에 병사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교육 불충분'이라고 채대위를 닥달하였다. 그것도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은 자세에 마치 하인을 다루는 듯한 태도로. 채대위, 그는 지금은 비록 대위지만 얼마전만 해도 일본군 소령이 아니던가, 비록 패망한 군대이긴 하지만.

그리고 상대는 나이를 따져도 막내동생에도 못 미치는 소위다. 그런 녀석이 건방지게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고 껌을 씹어가며 멸시하는 듯한 말투로 대하니 그는 울화가 치밀었다.

이럴 때마다 영어도 시원치 않던 그는 화풀이도 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옷통을 벗어 던지며 “군대생활도 끝장이다”고 몸



국방경비대 창설요원들, 뒷열 오른쪽에서 세번째가 채병덕

부림쳤다고 한다. 뚱뚱한 몸인데도 신경이 날카로웠던 그였지만, 그러나 끝끝내 참고 이겨냄으로써 뒷날 총참모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경비대 최초의 영관장교

1946년 2월 8일에는 이들 3개 중대로써 제1대대가 편성되었고, 대대장에는 A중대장이었던 채병덕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하여 보임되었다. 이로써 그는 국방경비대 최초의 영관급 진급자가 되었다. 채병덕 소령이 대대장으로 있을 때 C중대도 편성되었으며, 이병주 중위가 대위로 진급되어 중대장에 임명되었다.

통위부의 전신인 국방부는 경비대 장교의 임관을 앞두고 계급장도 함께 제정하려 했으나 당장 좋은 방안이 없었다. 당시 국방부 관하 경무국에서는 경찰 계급장, 모표, 흉장이 제정되어 있었다. 무궁화를 넣어서 도안한 계급장과 모표였다.

군사국에서는 궁리 끝에 당분간 임시로 경찰 모자의 귀단추에 있는 무궁화를 계급장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귀단추 하나를 소위, 2개를 중위, 3개를 대위로 표식케 하고, 영관은 그 후에 제정키로 했다.³⁸⁾ 그후 영관 계급장은 채병덕 대위가 제1연대 대대장으로 재임중 소령으로 진급할 때 최초로 제정·부착하였다.³⁹⁾

창설기 경비대 전체의 일반적인 현상으로서, 모병을 위한 홍보활동과 충원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입대전 소속 사설군사단체 또는 군 출신 간의 상호대립과 갈등으로 탈영자가 속출했다. 장교들은 상당시간 교육훈련보다 오히려 가두모집에 더 신경을 써야 했다.

제1연대의 편성이 완료된 것은 1946년 9월 18일이었다.

하극상 사고

건군 초기인지라 우선 형식적인 부대 편성에 급급하였고, 간부 인원의 부족, 경험 미숙 등 불충분한 점이 많았다. 더욱이 사상적으로 혼란한 시기였고, 출신별로도 일본군·만주군·중국군 등으로 잡다하여 동질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

다. 이들은 출신에 따라 군대 내에 각종 사조직을 만드는가 하면, 좌익 불순분자들까지 여기에 끼여들어 말썽도 많았다.

또 각 부대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속출했다. 군과 경찰간의 불화, 좌익 불순사병들의 하극상, 진급에 대한 간부후보생들의 반발, 여성문제로 일어나는 한·미 병사들 간의 충돌 등의 사건들이 꼬리를 물었다.⁴⁰⁾

채병덕 소령이 대대장으로 있었던 제1연대 제1대대에서도 큰 사건이 발생했다. 그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1946년 5월 23일 점심이 끝나고 나서 대대의 사병들이 연병장에 모여 데모를 하였다. 그들의 요구조건은 영등포 보급중대에서 2개 차량의 보급품을 부정 처분한 주모장교를 찾아 내라는 것이었고, 이러한 간부들을 건군기의 지도자로서 받을 수 없으니 사이비장교들은 물러가라는 하극상의 데모였다.

근본적으로는 경비대 창설이래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간부 요원으로 모집된 대원들의 진급 불만, 기합과 구타 등의 일본 군대식 악습에 대한 불만, 좌익계 및 우익계 장교들간의 대립 등 그 동안 누적되었던 온갖 불만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B중대장 정일권 대위가 혼시로 무마하려 하였으나 반발이 심하였고, 도리어 “너도 물러가라”고 아우성을 쳤다. 이렇게 되자 미군경비대총사령관인 베로스 중령까지 나서서 미군들을 출동시켜 사태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주동자들을 연금하였다.

이날 저녁에 중대의 선임부사관들은 정일권 대위의 숙소로 찾아와서 주간의 요구 관철과 대표자들의 연금에 항의하였다. 그들 중 일부 과격파들은 정대위를 폭행하고 7~8시간이나 난동을 부렸는데, 그는 겨우 자리를 피하였다.⁴¹⁾

정일권의 회고록에는 이런 상황들이 다음과 같이 우회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창설 요람기인 남조선국방경비대와 조선경비대 시절, 군 내부에 침투한 좌익분자들이 부대훈련을 방해하고, 항명하고, 상관을 집단구타 또는 암살하고, 병사들을 포섭하는 등 우리의 건군을 온갖 수단으로 방해 파괴하려 했다. 나 역시 그들의 표적이 되어 몇 번이고 신변 위협을 당했다. 때로는 목숨까지 잃을 뻔했다.⁴²⁾

정일권은 이런 곤혹스러웠던 일들의 근본 원인이 좌우익을 구분하지 못한 미 군정의 정책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의 여파로 주동자인 고급 부사관 수 명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보급품을 부정처분한 2명의 장교는 파면되었고, B중대장 정일권 대위는 제4연대 대장으로 전출되었다. 그리고 채병덕 소령은 지휘관으로서의 감독 책임을 지고 대대장의 자리에서 물러나 통위부 병기국장으로 전보되었다.⁴³⁾

이 제1연대 사건은 건군 초의 큰 불상사로서 미군정 당국과 경비대 간부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남방전선으로부터 귀국해 있던 이종찬은 이때의 채병덕을 바라본 소감을 이렇게 적고 있다.

…… 비록 그 당시의 실정이 복잡하고 자주적 개혁을 저해하는 허다한 제한이 가로놓여 있었으며, 인심의 동향이 심히 혼란하여 불리한 상태에 있었으나, 그는 시종일관 단신 과감히 명일의 자주국방 창건을 위하여 확고 부동한 민족정신을 기대하면서 불같은 정열과 반석 같은 거구(巨軀)로써 일의(一義) 매진하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이 길은 평탄치는 않았다. ……

그후 채병덕은 통위부 특별부대 사령관을 거쳐 대령으로서 1948년 4월 27일 충북 청주에서 새로이 창설된 제4여단장에 부임하였다.

채병덕이 제4여단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인 B씨를 원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고문단장 로버츠(Roberts) 준장은 그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이종찬이나 채병덕 중에서 선정하기를 원했는데, 결국 채병덕이 선정되었다.⁴⁴⁾

건군 과정에서 나타난 채병덕의 역할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즉, 박력이 있고 정치성이 풍부하며, 부하의 어려움을 잘 돌보아 주는 인물이었다는 것이다.⁴⁵⁾

동시대 사람으로서 육본 정보국에 근무하기도 했던 김점곤

씨는 채병덕의 이런 면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한국군의 건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채 장군이다. 제1연대 제1대대장으로서 건군을 시작한 사실은 역사적인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혼란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 나섰다고 해도 채병덕 만큼 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적인 친화력, 추진력, 돌파력, 반대를 압도할만한 위력 등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그를 능가할 수 없었다. 후에 6·25전쟁에서 보여준 채장군의 실수와 과오는 차치하고, 건군 과정에서 그가 수행한 역할은 단연 독보적이며 그 의미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⁴⁶⁾

뒷날 6·25전쟁 발발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는 평가 때문에 채병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그렇지만 그가 한국군 창설의 핵심체가 되어 초창기의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그 기반을 굳히는데 역할을 해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제 4 장 초대 국방부 참모총장

1. 채병덕의 약진

약관으로 국군 현역 최고위 장교가 되다

오늘의 한국군에는 ‘참모총장’이라는 직위는 있어도 ‘총참모장’이라는 직위는 없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이어서 한국군이 정식으로 출범하면서 기존의 통위부가 국방부로 바뀔 당시에는 국방부에는 참모총장이, 육·해군본부에는 총참모장이 각기 따로 존재했다.

이 시기의 참모총장은 오늘날처럼 육·해·공군에 있는 최고선임자로서의 직위가 아니라, 국군을 통괄하는 국방부 안의 직위였다. 즉, 참모총장은 ‘국군의 현역 최고장교로서 ……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방 및 용병 등에 관하여 육·해군을 지휘 통할하며 일체 군정(軍政)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을 보좌’하는 직책이었다.

이를 부연하자면 참모총장은 군령상(軍令上) 육·해군의 총사령관(Military Command)인 동시에 군정 부분(Military

Administration)에서 국방부장관 특별보좌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었다.⁴⁷⁾

이같은 참모총장 밑에 육군총참모장과 해군총참모장을 두었다. 즉, 국방부 참모총장은 육·해군의 총참모장을 통괄할 수 있는 자리였다. 공군은 육군총참모장 예하에 육군항공대로 남아 있다가 그후 1949년 10월 1일에 독립되었으므로, 공군총참모장은 이때서야 보임되었다.

국방부 참모총장은 이와 같이 육·해군 총참모장 위에 있는 직급이었지만, 미 군사고문단이나 국방부 당국에서는 과도적인 직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장차 국군조직법이 확정되어 육군본부와 해군본부가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날에는 폐지되는 것으로 양해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잠정적인 직위라 할지라도 국방부 참모총장은 ‘국군 현역의 최고위 장교’로 보임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누구를 참모총장으로 선임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국군 지휘체계의 서열과 인사 방향을 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이었으므로 중요한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그 자리에 나이 33세의 채병덕이 임명되었다. 제4여단장에서 일약 국방부 참모총장으로 영전한 것이다.

일본 육사 출신의 선배들을 제치고 젊은 나이로 그가 참모총장이 된 과정에 대해서는 몇가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1948년 8월 1일 국회로부터 국무총리 인준을 받은 철기(鐵驥) 이범석은 국방장관을 겸하게 되자 참모총장 인선에 착수

하였다. 그는 8월 14일 이종찬에게 국방부장관을 맡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이종찬은 이를 거절하고 “일부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는 채병덕을 참모총장으로 선임하면 어떻겠느냐”며 채병덕을 추천했다고 한다.⁴⁸⁾

또한 채병덕이 젊은 나이로 군의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 때문이었다는 설도 있다.

이 무렵의 육군 고위장교로는 송호성, 이웅준, 원용덕, 채병덕, 이형근, 정일권 등이 대령으로서 선임그룹이었으며, 그 때까지 군적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김석원, 신태영, 노태준, 이종찬 등이 있었다. 이범석 국방부장관은 참모총장을 선정하기 위해 이들 중에서 최종후보자로 이웅준, 노태준, 채병덕의 세 사람을 이대통령에게 추천하였다.⁴⁹⁾

이때 김석원은 미 군사고문단과의 관계가 원활치 못한 점이 결격 요소라고 생각되었으며,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이었던 송호성 대령은 현대식 군대의 지휘관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어서 후보에서 제외되었다고 한다.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세 사람 중에서 이웅준은 구한말 한국 무관학교 제42기생이며, 일본 육군사관학교 위탁생으로 유학하여 제26기로 졸업한 후 일본군 대좌가 된 사람이었다. 그는 해방 이후 미 군정이 국방경비대를 창설할 때 그 고문으로 초빙되어 온갖 뒷바라지를 다하였으며,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정부수립 때는 당년 57세의 육군대령이었다.

노태준은 상해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로서 광복군 이범석 지대(支隊)의 참모장격으로 항일무력투쟁의 선봉에 섰던 사람이었다. 해방 후 귀국해서는 민족청년단 부단장이 되어 조직과 용인에 숨씨를 발휘하였으나, 이응준과 채병덕과 달리 아직 현역에는 들어와 있지 않았다.

채병덕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군 소좌 출신으로 해방 후 국방경비대 창설에 앞장을 서서 제1연대를 창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전투부대 편성의 최선임장교로 활약하였다. 병기부대(후방부대) 사령관을 거쳐 정부수립 당시는 제4여단장으로 재임중인 당년 33세의 육군대령이었다.

이렇게 압축된 후보자 3명 가운데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낙점한 사람이 채병덕 대령이었다. 젊고 패기가 있으며 박력과 실천력을 갖추고 활달한 성격에 미군측 군사고문단장의 신임도 두터웠으므로 이 대통령은 채병덕을 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노태준은 자신이 그 보직을 극구 사양하면서 이종찬과 함께 채병덕을 적극 밀었다고 한다. 이응준의 경우는 당사자의 성품이 어떤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군총참모장이 적합할 듯하여 후속인사에 반영기로 하였던 듯하다.⁵⁰⁾

여하튼 채병덕이 선배들을 제치고 젊은 나이로 참모총장이 되었다는 점은 그가 정치적으로 매우 활동성이 있었고 권력 핵심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이범석의 강력한 지원이 그를 받쳐주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결정적인 요소는 이대통령의 인식이었을 것이다. 채병덕에 대한 이대통령의 생각을 잘 나타내 주는 일화가 있다.

채병덕을 국방부 참모총장으로 임명한 후에 미 대사관 관리들과 미 장군들이 “하필이면 한국에서 제일 뚱뚱하고 둔해 보이는 장군을 참모총장에 임명했습니까?”라고 질문하자(미군들은 채병덕을 FAT BOY라고 불렀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나의 채장군은 날씬한 장군이 못 가진 기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적인 군사 지식은 물론 우리나라에 무슨 무기가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는, 경험으로 뭉쳐진 장군이야. 또 미남 장군들의 시원스런 큰 눈이 보지 못하는 것을 채장군의 줄리듯한 눈이 꿰뚫어 본단 말이야!⁵¹⁾

채병덕 참모총장은 1948년 8월 16일에 정식 발령을 받고 육군준장으로 진급, 통위부 참모총장 이형근 대령으로부터 사무인계를 받았다.

국군조직법 제정

참모총장으로서 그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은 국군조직법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군대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법안을 기초하여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공포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국방』 창간호(1949. 1)에 실린 채병덕 국방부 참모총장의 글 ‘국방은 국군의 혈관이 되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조선경비대는 대한민국 국군으로 새로 발족했다. 미 군정 당국의 행정권이양협정에 따라 「남조선 과도정부 조선경비대」는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육군으로 편입되어 9월 5일 잠정적인 육군으로 개칭되어 있었다. 잠정적이라고 함은 법적인 조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채총장은 국군조직법의 초안 기초를 당시 육군 이등병인 신응균에게 맡겼다. 신응균은 채병덕의 4기 후배인 일본 육사 출신으로 일본군 포병 소좌였다. 그러나 해방 후 귀국이 늦어져서 국방경비대가 발족한 지 훨씬 뒤에야 사병으로 군문에 들어왔으므로 그때는 이등병이란 말만 병졸이었다. 그렇긴 해도 최용덕 국방부차관의 임시보좌관 직책으로 특별히 사복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⁵²⁾

신응균이 뛰어난 군사이론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채병덕은 그를 중용하여,

“여, 응균이, 국군조직법은 네가 만들어!”

이렇게 해서 신응균이 그 일을 맡게 되었던 것인데, 명령을 하는 사람이나 명령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 스스럼없는 기분이었다.⁵³⁾

신응균이 기초한 「국군조직법(안)」은 곧 국회 심의에 회부되었다. 채병덕 총장은 최용덕 국방부차관과 함께 자주 국회에 나가 법조문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법조문 심의가 매우 까다로워서 법안 통과 일정이 번번이 지연되자, 의원들에게 시달리다 돌아온 채병덕 총장은 육중한 몸을 소파에 던지며 곧잘 낮두리를 하였다.

군인들이 무식하다구 하면서 국회의원들 자신은 더 유치하게 구니 이거 어디 해먹겠어? 독립운동할 때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구 우리들을 마치 총독부 관리 대하듯 하니 열통터져 이거 살겠다.

그러면서도 국군조직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그는 저녁때가 되면 사복으로 갈아입고 모모한 국회의원들을 요정으로 불러내어 소위 ‘요정정치’를 벌였다.⁵⁴⁾

이런 노력의 결과 이 법은 그 해 11월에 확정 공포되었으며, 그 법에 따라서 국방경비대는 육군으로, 해양경비대는 해군으로 정식 개편되었던 것이다.⁵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사건·사고 해결과 국군 증강사업

채병덕은 국방부 참모총장으로 약 9개월 동안 근무하였다. 이 시기에는 국군 건군 초기의 혼란이 군 내외부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여순10·19사건, 북한군과의 38도선 충돌, 지리산 공비토벌 등이 그 대표적인 사건들이었다. 그는 이 사건들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중추에 서있었는데, 그의 활동이 밖으로 드러난 면모를 신문보도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채병덕이 참모총장으로 취임한 지 두 달만에 여순10·19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의 기사는 10월 22일에 기자단과 회견하고 사건 후의 사태에 대하여 그가 발표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위치와 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현재 관군은 광주와 남원과 마산으로부터 순천으로 향하여 막대한 병력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금일 오후 순천에서 여수 반도로 압박 섬멸전의 총공격을 시작하였다. 순천은 완전히 점령할 것이다.

발표가 늦은 이유는 갑자기 일어났고 내부적으로 급습을 당하고 적의 병력이 상상보다 컸기 때문에 많은 부대를 집중시킬 필요와 작전의 비밀로 발표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며 공산분자들의 모략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군대는 조금도 동요가 없고 각 부대는 비상대기중에 있으니 일반국민은 안심하기 바란다.

순천에는 이미 포로수용소와 야전병원 준비도 다 되어 있다. 일부 정보에 여수가 탈환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여수는 적의 손에 있다고 생각한다. 작전 병사도 사기왕성히 여유있는 전투를 하고 있다.⁵⁶⁾

또한 당시 38도선에서 빈번히 발생한 북한군과의 충돌사건은 국군과 국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일이었으므로 채총장에게도 주요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래 글은 채병덕 참모총장이 38도선 경비문제에 언급하여 1949년 3월 3일에 발표한 담화 내용이 다음날 신문에 보도된 기사이다.

38선 경비는 실로 일반이 신경을 기울여 우려할 만한 문제는 아니다. 다만 미군부대가 작년 12월 15일 38선으로부터 후퇴하고 1월 15일에는 또다시 후방선을 철퇴한 후로는 경찰과 국군이 대신하여 이를 경비하기로 되었는데 북한 괴뢰정부 인민군은 미군이 경계할 때도 월 1, 2회는 반드시 불법침입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인민군은 남한 경비진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자신들의 위력정찰을 인정하고 1월 15일부터 2월 15일에 걸쳐 전후 77회의 불법침입을 감행하였으나, 그 중 비겁하게도 남한 경찰복장을 착용하고 색천서를 소각하는 한편 사살자까지 내고 아방의 압도적인 반격으로 말미암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고 도주한 바이다.

앞으로 군 당국으로서는 이들의 불법침입의 기회를 추호라도 보이지 않기 위하여 1월 말 이후로는 경찰과 협력하여 교전 대책에 만유감이 없도록 힘을 다하고 있는 만큼 38선 경계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끝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요즈음 군을 줍먹으려던 남로당 특수군 책임자 이재복을 비롯하여 부책임자 이용수와 이어 김영식 3명을 체포하여 엄중 문초 중, 군측 최고책임자인 김종석·최남근 양 중령과 오일권 소령 등도 체포하여 준엄한 문초를 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공산사상의 침입은 남북통일만 되면 일단락을 질 것으로 믿고 계속 숙군에 노력하겠다.⁵⁷⁾

채총장 재임 중에는 지리산 공비토벌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38도선 충돌사건에서 전사한 장병들을 추모하는 합동전몰군인 위령제에서 조사(弔辭)를 읽고 있는 채병덕 참모총장

1949년 4월 11일에 채병덕 참모총장은 반도(叛徒) 총사령관 홍순석과 김지희의 처를 사살한 전투상황에 대하여 특별담화를 발표하였다. 다음은 그 내용이 ‘채병덕 참모총장, 지리산 반군의 주력을 섬멸하였다고 발표’라는 제목으로 신문에 실린 기사이다.

여수사건의 주모자이며 반란도배 총사령관인 홍순석과 남로당 정치부장 조(趙) 모는 지난 9일 지리산 산내면 반선리에 서 국군 지리산전투부대 제3연대 유(柳) 유격부대에게 사살당하고, 10일 오후 5시에는 역시 지리산 심원(深遠)에서 김지희의 처 조유순은 국군 지리산전투부대 제3연대 제2대대 조유격대에 사살되었다.

이로써 지리산 반란도배의 주력은 완전히 박멸되었다. 김지회는 반란도배의 참모장으로 아직 그에 대해서는 생사불명이거나 근일 중 명확히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리산지구 전투 총지휘는 국방부 육군본부 참모부장 정일권 준장이 친히 지휘하고 있다. 본관은 정준장 이하 동 소속부대의 전투에 깊이 회사하는 바이다. 현재까지의 지리산지구 전투의 종합전과는 다음과 같다.

폭도 유기 사체 193명, 포로 236명, 노획무기 165, 실탄 6,000여발, 아방 손해 전사 6명, 부상 약간 명⁵⁸⁾

채병덕은 위와 같은 사건들을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국군의 증강을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중앙일간지에 실린 국군의 증강에 대한 그의 발언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과 그의 소신을 알 수가 있다.

(10만) 정규군 강화와 아울러 20만 예비병 조직을 5월 상순부터 시작할 것이나 예비군은 호국군을 중심으로 하되 학도 호국대·대한청년단 기타 제 단체로 조직될 것인데 5월 상순부터는 서상대(徐相大)씨를 비롯한 몇 청년지도자와 각 도·군 대한청년단 간부·훈련부장·부단장 등에 단기 군사훈련을 행하고 예비사관 자격으로 각 단체에 배속시켜 학도호국대 훈련과 병행하는 청년단의 군사훈련을 담당케 할 것이다. 더구나 국내 정세에 비추어 육해(陸海) 양부(兩部)는 동등자격으로 국방부 내에서 독립할 것이며 참모총장제 대신에 연합참모회의로서 전군을 통솔할 것이다.⁵⁹⁾

2. 육군 증강을 위한 방풍림 역할

이용준 총장의 육군 증강 노력

육군이 발족되면서 초대 육군총참모장에는 이용준 대령이 임명되었다. 이 소식은 군 내외에 좋은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이용준 초대총장의 당면과제는 국방경비대에서 탈바꿈한 육군을 명실상부한 주력군으로 육성하는 일이었다.

이용준 총참모장은 여단을 사단으로 증편하는 선행작업으로 아직 국군에 들어오지 않은 재야의 군경력자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 작업은 국방부장관 이범석과 참모총장 채병덕 등의 자문을 받으며 진행된 일이었지만, ‘노장군 이용준’이 육군총참모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큰 흡인력으로 작용하였다.

광복군 참모장을 지낸 김홍일 장군은 훗날

만일 그 당시 채병덕이 육군총참모장에 있었다라면 재야의 구군인(舊軍人)들이 그렇게 흔쾌히 육군에 들어갔을 것인가 하고 반문해 볼 때 그 대답은 좀 달라졌을 것이다.

라고 술회한 바 있다.

청산리대첩에서 용맹을 떨친 철기 이범석 장군이 국방부장관이고, 일본육사 출신의 최고참이었으며 국방경비대 창설의

산파역을 다한 이응준 장군이 육군총참모장으로 앉아 있다는 이 군수뇌부의 인적 구성 앞에서는 아무리 콧대가 센 구 군인이라 하더라도 허튼 소리를 할 형편이 못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한국 육군의 발전을 위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이런 연유로 해서 많은 인재들이 대거 육군에 참여하였다.⁶⁰⁾

이렇게 하여 이응준 육군총참모장은 구군인 중에서 고급장교를 대거 영입하는 한편, 사단 증편의 기초작업을 마무리지었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척되면서 그는 나름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다.

반민특위의 공격 차단

그러나 말이 많기 마련인 정가에서 이응준 장군의 심사를 특히 괴롭힌 것이 이른바 「반민족 행위자 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反民特委) 쪽에서의 반발이었다. 과거 일본 치하에서 종사하던 인물들, 즉 반민족행위자들을 군인으로 특채한 것을 두고 군부의 인사방침이 틀렸다고 비난하는 소리였다.

이때가 채병덕이 국방부 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시기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이 국회를 통과하고 반민특위가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한 시기였다.

반민특위가 활동을 개시하자 경찰이 동요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 일본 경찰 출신들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 경찰간부였던 L씨, J씨 등이 자위책으로 군 헌병대로 자원해 들어왔다. 당시 헌병사령관 원용덕은 이들을 모두 영관급 장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자 “육군이 친일파들의 대피소냐?”라는 비난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일본군장교로서 신생 육군의 수뇌진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예삿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용준 참모장은 듣기에 거북한 그런 종류의 소리에 직접적 대꾸는 하지 않았지만 심사는 결코 편안하거나 유쾌할 수 없었다.

그 자신은 비록 일본군 출신이었지만 이용준 장군의 전력(前歷)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친일파라고 하지는 않았다. 그의 고민은 뒤늦게 등용된 구군인들이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아 사기가 떨어지거나 앓을까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일본군 경력자들을 대거 군에 등용하는 데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의 진짜 진원지가 지하에서 준동하는 남로당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며, 그들이 퍼뜨리는 모략정보에 일부 인사들이 가담해 그를 괴롭혔다.

군에 들어온 인물들 중에 반민특위에서 지목하는 이들의 처리를 두고 반민특위와 군간에 한동안 말썽이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참모총장으로 있던 채병덕이,

국군은 필요한 모든 인재를 되도록 많이 포섭해서 국가방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군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골라가며

친일파로 몰아 붙이고, 군 고급장교로 특채된 사람들의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하면 박수를 칠 사람은 박헌영과 김일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하여, 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정력적으로 맞서 그 파편이 육군본부에까지 날아가지 않도록 진력하였다. 이 문제에 대한 방풍림(防風林) 역할을 채병덕 참모총장이 발벗고 나서서 맡아 했던 것이다. 채장군의 그러한 노력을 이용준 장군은 흡족히 여겼다고 한다.⁶¹⁾

그러나 군에서 친일 경찰을 받아들인 것은 헌병대를 중심으로 차차 군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부정적인 면도 남겼다. 또한 채병덕의 정치적인 감각과 교섭력이 그 자신에게 행과 불행을 함께 가져다 준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5 장 제2대 육군총참모장

1. 떠오르는 별

강·표 대대 월북사건의 파편

1949년 5월 4일 강원도 춘천에 본부를 둔 제6여단 제8연대에 하 제1대대가 대대장 표무원 소령의 간계에 이끌려 모진교를 건너 집단 월북하였다. 다음날인 5일 새벽에는 제2대대 장병들도 대대장 강태무 소령(모두 육사 2기생)에 이끌려 38도선 북쪽으로 넘어 가버렸다.

이런 일은 '반공'을 표방하며 창설되었던 국방경비대의 후신인 대한민국 육군으로서는 청천병력 같은 불상사로 받아들여졌다. 이 사건은 표무원·강태무라는 두 대대장이 군부에 잠입한 남로당 세포원으로서 북한공작원과 내통하여 저지른 반역사건이었지만, 이용준 총참모장에게는 대단히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이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기로 하여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5월 8일 이용준 총참모장이 그 직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다

음날 부로 그 후임에 채병덕 소장이 임명되었다. 이총장의 재임기간은 1948년 12월 15일로부터 겨우 4개월 23일이었다.

채병덕 소장이 육군총참모장에 취임함으로써 공석이 되어버린 국방부 참모총장 자리에는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고, 그 자리가 아예 없어지고 말았다. 이로써 국방부 참모총장으로서 ‘국군 현역의 최고위 장교’였던 채병덕 소장은 육군총참모장이 됨으로써 또다시 군령상의 명실상부한 ‘육군의 최고위 현역장교’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소장이 물러나고 채소장이 국방부 참모총장직에서 육군총참모장으로 전임하는 과정과 참모총장 직위의 폐지에 대해 당시 한 중앙일간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금번 군 최고수뇌부의 인사이동 단행으로 이용준 소장이 육군총참모장의 직위를 사임하고 채병덕(전 참모총장) 소장이 그 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이것은 신 국방장관이 언명한 바군 기구의 간소화를 실천한 것으로 볼 것이며, 이로써 육·해군총참모장 위에 참모총장이 있어 이를 통솔하던 것이 이제는 참모총장 직위가 폐지되고 육·해 양 총참모장이 각각 소관 군의 최고 통솔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소장은 지난번 춘천 및 홍천 양 지구에서 발생한 국군 일부의 월북사건에 대하여 육군 책임자로서 인책 사죄한 것이라 언명하였는데, 동씨가 앞으로 현역 군인으로서 어떠한 요직을 담당하게 될지 또는 예비군으로 국방부의 고문격인 지위에 앉을 것인지 그 거취가 주목된다.⁶²⁾

당년 58세의 이응준 장군이 물러나고 그 뒤를 34세의 채병덕 소장이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젊은 계층이 육군지휘부의 주류를 이루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 육군총참모장의 나이가 24세나 젊어졌다는 것은 발랄하고 패기에 넘치는 청년 장군들과 대령급들에게는 새삼스럽게 생기를 불어넣게 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역기능으로 노장층과 소장층 사이에 서먹서먹한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사실이었다.

육군총참모장 취임

새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의 취임식은 5월 16일 오전 8시 반부터 국방부 청사 뒤 연병장에서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육·해군 장성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임석상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한 신성모 국방장관이 했던 식사(式辭)와 채병덕 총장의 취임사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불안정한 당시 군 내외의 실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먼저 신장관 식사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오늘의 모임은 보통 모임보다 의의가 깊은 모임이다. 내가 재직한 지 2개월 간 대내·대외의 풍운은 외국인들에게 커다란 충동을 주었다. 그러나 우리는 충동보다 우리의 일을 완수해야 한다. 그래서 국방부의 체재(體裁)를 변경하게 되었다. 즉, 육군 최고수뇌 이응준 소장이 국군에 상서롭지 못한 일이 있어 대통령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면관(免官)을 보게

되었으며 나도 책임상 사직서를 내놓았으나 내 것은 수리되지 않았다. 이래서 천하에 상벌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국군의 기상을 쇄신하게 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군은 기운없는 국군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 대신 채병덕 소장을 육군의 최고 책임자로 모시게 된 것이다.

내가 부탁할 것은 제군은 채소장을 받들어 앞으로 국군을 더욱 강하게 할 것을 결심하고 서약하기 바란다. ……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튼튼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이때 좌익분자들은 교묘한 선전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선전이 적고 또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내가 이 자리서 성명할 것은 국방부가 개조되어 최고 책임자가 새로 취임한 이때부터는 우리의 선전도 약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국방부 안의 반동분자나 파괴분자는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이후 국방부는 안팎으로 아주 달라질 것이다. 여하한 파괴운동을 지하·지상으로 전개하여도 국방군은 이제 두려워 안 할 것이다.⁶³⁾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다음은 육군총참모장으로 취임한 채병덕 소장의 취임사이다.

오늘 평소 존경하며 우리 군의 원로이신 이용준 총장의 뒤를 이어 불초 본인이 제2대 총참모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다. 그간 전임 총장의 영단으로 단행된 대숙군공작(大肅軍工作)으로 군내 좌익 세포망은 점차 붕괴되기 시작하였으나, 지금 북한 괴뢰 집단은 대남유격대를 대거 남파하여 온갖 수단 방법을 다하여 사회적 혼란을 조성시키며 신생 대한민국의 국

기마저 뒤엎으려 한다.

이에 본관은 전임 총장의 지휘지침을 이어받아 계속 대숙군(大肅軍)을 전개하여 반공을 국시로 한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 할 것을 맹세한다.

전 장병들에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충성된 군인이 되어 행동과 실천으로 국가수호에 전진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신장관의 식사와 채총장의 취임사에는 공통적으로 현시국에 대한 불안정성이 반영되어 있다. 전임 총장의 임기 만료로 이루어지는 정기 인사가 아니라, 불미스러운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총장이 사퇴한 후의 인사인만큼 그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좌익분자, 국방부 안의 반동분자, 파괴분자’라든가 ‘군내 좌익 세포망’ 등의 언급이 눈에 띈다. 당시 군대와 국방부 내에 상당한 불순분자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채총장은 계속적인 숙군을 통해서 기강을 확립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웅준 장군의 뒤를 이어 채병덕 장군이 제2대 총참모장에 취임할 무렵의 국내정세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군내에 침투한 좌익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야기된 일련의 반란사건들이 겨우 진압되었다.

그러나 숙군의 단행으로 점차 그들의 세포조직이 붕괴되기 시작하자 북한은 더욱 적극적으로 남한의 치안을 교란시키며

사회적 불만을 조성키 위하여 대남유격대를 조직하여 대거 남파시켰다. 그들이 지리산, 오대산, 태백산 일대에 준동하는 한편, 방화·약탈 등 갖은 만행을 다하여 대한민국의 내부분열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38도선 일대에서는 북한측이 송학산 8·4침공사건을 야기시켜 아군의 경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그 당시에는 우리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이미 남침준비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채총장은 취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의 충성된 군대로서 국토방위에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은 3개 조항의 지휘지침을 제시하였다.

- (1) 국가민족에 충성
- (2) 국민으로부터 신뢰
- (3) 행동과 실천으로 국가 수호

그리고 육군에 내린 담화문에서 채총장은 자신의 심경과 각오를 피력하고 새로운 다짐을 촉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번 육군의 참된 발달을 위하여 국방부 기구가 간소화되었다. 그래서 나는 육군총참모장으로 일신에 중책을 느끼고 제군의 조력을 받아 국가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서하는 바이다. 우리 국군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한민국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는 과거 3년 간 사상적으로 여간 애매한 점이 많은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회주의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유엔 승인을 받은 대한민국의 혜택을 받으면서 인민공화국이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진 군인이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용서 않겠다. 금일부터 육군본부는 행동과 실천으로 국가수호를 위하여 일로 매진할 것이다.

8개 사단 창설

이제 바야흐로 채병덕 육군총참모장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의 재임기간은 5월 9일로부터 그 해 9월 30일까지 약 5개월. 그 기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였다. 주요한 일들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그는 총참모장에 취임한 직후인 5월 12일부로 총장을 보좌하는 참모체제로서 기존의 육군총참모부장제를 폐지하고 행정참모부장(行政參謀副長制)과 작전참모부장(作戰參謀副長制)을 신설하였다. 초대 행정참모부장에는 신태영 대령을, 초대 작전참모부장에는 전 육군참모부장 정일권 준장을 각각 보임하였다.

신태영 대령은 바로 채병덕 장군의 장인인 백홍석 대령과 일본 육사 동년배가 되는 고참자였지만, 행정참모부의 장으로서 오�히려 그같은 노장급이 적임일 것으로 인식되었다.⁶⁴⁾

정일권 준장은 국방경비대 창설 때부터 채장군과 동고동락하였고 경비대 총참모장(2대)을 역임하였으며, 명석한 두뇌와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로 평가되어 왔으므로 역시 책임자를 얻었다는 중평이었다.⁶⁵⁾

채병덕 장군은 전임자가 추진해온 전력 증강을 위한 사단 증편작업을 완결지었다. 취임 나흘만인 1949년 5월 12일 국군 조직법 제3항 제12조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6개 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켰다.⁶⁶⁾

그 사이에 웅진지구전투사령부(초대 사령관 김백일 대령), 6월 10일에는 강원도 강능에 제1, 제21연대를 기간으로 제8사단, 6월 20일에는 서울 용산에 제2, 제7기갑연대를 기간으로 수도경비사령부를 창설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육군은 8개 사단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그 사단들과 초대 사단장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1사단장 : 김석원 대령

제2사단장 : 유승렬 대령

제3사단장 : 최덕신 대령

제5사단장 : 송호성 준장

제6사단장 : 유재홍 대령

제7사단장 : 이준식 대령

제8사단장 : 이형근 준장

수도경비사령관 : 권준 대령



제2대 육군총참모장에 취임한 채병덕 소장(뒷열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참모들. 채장군 다음이 행정참모부장 신태영 대령과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

그리고 1949년 8월 15일에는 북한군 귀순장병 약 600명을 기간으로 한 육군보국대대를 창설하였다. 이외에 채총장 재임 기간 중 주요부대의 증·개편사항으로는 제23연대와 제25연대를 창설하는 한편, 육군본부 내에 항공부(航空部)를 확충하여 공군 독립의 정지작업을 추진하는 등의 실적을 기록에 남겼다. 그는 항공부에 참여한 박범집, 김정렬, 김창규, 박원석, 장지량 등 장차 한국 공군의 기둥이 될 인재들이 일본 육사의 후배라는 것을 마음 든든히 여겼다.

육군의 전투력 증강

채총장은 군의 전투력 증강책의 일환으로서 특히 군사교육

및 훈련의 강화에 진력하였다.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제2차 도미유학생을 파견하였는데, 이때 선발된 유학생으로는 최덕신 대령, 최홍희 대령, 심홍선 중령, 장은산 소령, 강관용 대위, 이승호 중위 등 6명의 장교들이었다. 이들은 1949년 7월에 미 보병학교와 포병학교에 파견되어 10개월 간의 군사교육을 받고 1950년 6월에 귀국하여 전쟁에 참여하였다.

육군참모학교 설립도 중요한 일로 기록될 만하다. 이 학교는 군의 고급지휘관과 사단 이상급 참모들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전술교리와 참모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1949년 7월 1일 육본 직할로 육본 청사 내에 설립되었다. 채총장이 교장을 겸임하고 부교장으로는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이 겸임하였다.

참모대학의 교육기간은 8주로서 그해 7월 29일에 제1기생 29명이 졸업하였다. 이들은 재학기간 중에 3주는 보병학교의 고급간부반에서 미국 보병학교의 교과과정에 준하여 전술학과 화기학을 배운 다음, 나머지 5주간을 참모학교에서 전술교리와 참모업무에 관해 교육을 받았다. 강의는 미 군사고문단에서 전담하였는데, 특히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준장의 전술 강의는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대부분의 고급지휘관이나 참모들은 특채된 사람들로써, 이들은 과거의 군사 경력 이외에는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참모업무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였다. 따라서 참모학교에서의 교육은 비록 단기간으로 실시되었지만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새로운 군사지식을 습득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채총장은 이외에도 수색에 육본직할로 육군정보학교(초대 교장에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이 겸임), 군의학교, 경리학교 등을 새로이 설립하여 병과교육에 박차를 가하였다.

자주국방을 그 지표로 한 국군은 국방력의 강화와 병력 충당책으로 그간 국민개병제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의 제정을 서둘러 오던 중 드디어 국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되어 법률 제41호(1949. 8. 6)로 공포되었다. 이 법이 공포됨에 따라 종전에 지원제에 의하여 병원을 모집·충당해 오던 것이 징병제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된 자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 의무적으로 병역에 복무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민개병제가 실시되고 병역은 국민의 4대 의무 중의 하나로 되었다.

이 법에 의한 병역의 역종(役種)은 상비병역(현역, 예비역), 호국병역, 후비병역, 보충병역(제1보충역, 제2보충역), 국민병역(제1국민병역, 제2국민병역)의 5개 병역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이 법에서 제77조 ‘청년에 대한 군사훈련’ 규정과 제78조 ‘중등학교 이상의 생도 및 학생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규정은 특이한 것이었다.

육군은 이 병역법에 의거 해당 병역의 징집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1949년 9월 1일에 육본 일반명령으로 종전의 호국군 여단사령부 편성 인원을 기간 요원으로 하여 각 지구에 병사



편찬연구소

육탄10용사를 추모하여 『국방』지에 게재한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의 ‘국군정신의 금자탑’

구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병사구사령부는 각 도별로 서울·부산·대전·광주·전주·춘천·청주 등 도청소재지에 상설하고 징집해당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등 해당지역의 제반 병사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숙군과 군기확립

채총장은 그간 좌익계의 책동으로 야기된 일련의 반란사건으로 흩어진 군기를 바로잡고 건군의 기초를 든든히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는 전임 총장의 유업을 이어받아 계속 군내 숙군을 전개하여 좌익분자들을 발본색원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군은 1949년 2월 남노당 총책 비서 김영식과 김종석 중령 및 오인균 등을 체포하고, 3월에는 이재복의 뒤를 이어 남노당 특수부 총책으로 활약하던 이중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과학적 수사와 증거서류 압수 등으로 군 내부에 잠복 중인 다수의 현역 장병들의 새로운 세포망을 탐색케 되었다.

이리하여 군은 다시 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1949년 5월부터 이 해 9월까지 제2차 숙군을 단행하였다. 이 제2차 숙군에서 현역장병 215명, 군관계 민간인 30명, 합계 245명을 적발하여 중앙고등법회의에 송치하였다. 이로써 군내에 잠입한 남노당 특수부는 그 뿌리가 제거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1949년 6월 25일 군은 대통령령 제134호에 의거 국군

징계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이 징계령의 공포에 따라 군의 군기유지를 위하여 1949년 8월 20일 각 지구에 위수사령부를 설치하였다. 이 사령부는 해당지역 내의 모든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장병들의 군기 확립 대인안전보호의 책임을 지고, 유사시에는 지역방어를 위하여 일반행정의 지휘권을 장악토록 하였다.

정규군으로 발족한 이래 군은 그간 여순10·19사건 등 일련의 반란·폭동진압작전과 공비토벌작전 등에 대거 출동하는가 하면, 육군복장령 제17호 및 제18호에 의거 각급 지휘관에게 그 직분을 표시한 휘장과 견장을 제정하여 1949년 8월 15일부터 부착토록 하였다.

정부 수립후 남한의 공산당 지하조직이 점차 붕괴되고 재기불능케 되자 북한은 와해된 이 남노당 지하조직을 재건하고 후방교란을 획책하여 대남유격대 조직에 착수하였다. 이들은 평양 교외에 위치한 강동에 '강동정치학원'을 설치하고 월북한 극렬분자들을 수용시켜 남한에 대한 적화 정치공작과 유격전술을 습득시켜 1948년 11월 14일 이후 6·25전쟁 직전까지 무려 10차에 걸쳐 2,400여명을 남파하였다. 채총장 재임기간에는 전후 7차에 걸쳐 유격대를 남파하였다.

채총장은 이렇게 부단히 침투하여 오는 북한 유격대와 입산공비들을 소탕하기 위하여 1949년 9월 28일 충북 단양에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를 설치하고 초대사령관에 제16연대장 이성가 대령을 임명하였다.

1949년도에 접어들면서 북한군은 송악산 5·4침공사건을 위시하여 부단히 무력침공사건을 도발하였다. 채총장 재임기간에는 개성지구의 제2차 송악산 침공사건, 백천사건, 춘천지구의 관대리사건, 의정부지구의 사직리사건, 제1, 2차 웅진사건 등 38도선 전역에 걸쳐 연쇄적으로 무력침공 사건을 도발하여 아군의 경비태세를 시험하여 왔다. 이때마다 우리 군은 즉각 응전하여 그들의 침공을 격퇴시켰다.

채장군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순수한 직업군인으로서의 행동반경 속에 자신을 구속시키려 하지 않고 정치적 장군으로서의 활동도 전개하였다.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하도록 유인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지만, 백범 김구선생 암살사건을 전후하여 의혹의 소지를 남긴 일련의 연동이라든지, 말 많은 국회에 대한 로비활동의 연장으로서 요정 출입 등은 당사자의 신념이야 어떠했건 간에 그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면을 느끼게 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남북교역사건의 회오리

사건의 발단

남북교역사건은 남북한의 물자상호교역에서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1945년 8월 소련군과 미국군이 진주하자마자 38도선으로 남북한이 차단되었다. 이로써 남농북공(南農北工)의 산업구조인 한국의 경제는 어느 쪽이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1947년 5월 22일 미·소 군정 당국이 합의하여 남북한간의 물자교역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군의 관리 하에서 남북교역이 개시되었다.⁶⁷⁾

교역은 38도선 상의 토성, 대원리, 동두천, 양문리 등지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이루어졌다. 물자교환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품목은 의약품, 전기용품, 생고무, 동(銅) 제품, 자동차 부속품, 광목 등이었다. 한편,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원품은 주로 북어(명태), 카비이트, 오징어, 인삼 등이었다.

남북한 그리고 미·소 군정 당국이 물자의 상호교환이라는 이러한 방식의 교역을 수용한 이면에는 나름대로의 정치·경제·군사적인 목적이 깔려 있었다. 특히 북한측은 군사적인 첩보수집에 중점을 두어 첩보기관원들을 교역상인으로 위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⁶⁸⁾ 또 그들은 정치적으로는 교역을 통하여 남노당의 정치공작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필요한 전략물자를 획득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한국측은 단순히 군사적인 첩보수집과 경제적 위기를 완화하기 위한 소극적인 수단 이외에는 별다른 이익이 없었다.

그런데 이 교역에서 남북한이 주고받는 물자의 성격 및 종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또한 교역상인들의 이권과 부정행위가 불거지면서 문제가 비화되기 시작하였다.

교역은 상공부와 육군본부에서 교역증을 발급받은 독점상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남북교역의 운영에 대한 부정 또는 독직의 풍문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교역에서의 매상금이 고급장교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니, 일부는 남로당 지하공작원에게도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니 하는 소문이였다.⁶⁹⁾

교역에 대한 통제기구가 없어서 철저한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였다. 육군본부에서 교역증을 발급했으나 실효성이 없었다. 보따리장사, 등짐장사들은 이익이 될 만한 물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교역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미제 의약품(당시에는 희귀했던 페니실린이나 다이아진 등), 전기제품, 생고무, 면직물, 자동차 타이어와 부속품 등이 그들에 의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요컨대 남북교역의 문제는 채병덕 장군이 육군총참모장으로 부임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찍이 한 중앙 일간지에는 남북교역에 관해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기사가 실렸다.⁷⁰⁾

황혼이 짙어진 38선에는 오늘도 등짐장사 상대(商隊)가 감시의 눈을 피해가며 숨어들고 있다. 이 땅이 두 동강으로 나누

어진 지도 이미 4년이다. 철의 장막 38선은 언제나 부서지려
는가! 이 철의 장막이 생긴 후 사람의 왕래는 물론 물자의
교류가 두절되자 소위 남북교역이라는 일종의 기형적인 직업
이 등장하였으니 이것이 즉 38선의 등짐장사꾼들이다.

그들이 진 바랑과 보통이 속에는 과연 어떠한 것이 들어 있
을까? 궁금한 보통이와 바랑 속의 비밀을 이제부터 들추어내
기로 하자. 우선 월북하는 바랑부터 …… 폐니실린·다이아
진·구와니진·금계랍 등등의 약품을 비롯하여 쌀·밀·밀가
루 등 잡곡, 광목·고무신·생고무·털실·유황아연화·알루
미늄 제품·못 그리고 담 큰 장사꾼은 타이어, 심지어 자동
차 부속품까지를 육지로 혹은 연하의 뱃길을 이용하여 실로
막대한 수량이 연속 부절히 길을 넘어 북으로 북으로 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월남하는 물자를 보면 알궂게도 전기를 보내 주지 않는
남한에 양초나마 켜라고 하는지 양초가 제일 많고 다음은 전
기 없는 이 땅에 전열 사용하라고 하는 듯 니크롬 전열선 그
리고 북어·오징어·빙초산·비료·비누 등을 볼 수 있다.

이 38도선의 비밀교역의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한 달
이면 적어도 수십만 원의 물자가 흐르고 있는 것만은 현저히
알 수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군정 당시 허가를 얻어 교역한
금년 1월 이후 지난 8월까지의 통계에 의거하여 보건대 이남
으로 반입된 물자의 총액이 13억 4천만 원이었고, 이북으로
반출된 총액은 3억 2천만 원대라고 하니 10억의 반입초과를
낸 것도 사실이다.

남한에도 부족한 귀중한 물자가 모리상인들의 손을 거쳐 북

으로 흐르는 것을 위정 당국자는 어떻게 보는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서 있는지, 관찰자는 궁금히 여기는 바이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남한의 민생문제가 심각한 이 때 시장의 물가는 이들 38교역 등짐장사로 인하여 오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하겠다.

복잡한 문제가 내재하고 있던 남북교역은 1949년 1월 김석원 대령이 서울과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제1사단장으로 부임하면서 폭발하게 되었다.

일본군 육군대좌였던 김 사단장은 엄격한 군인정신과 거센 투쟁심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었다. 일찍부터 남북교역에 대해서 풍문으로 들어온 그는 취임과 동시에 그 실정을 조사케 하였는데, 역시 그 교역이란 것이 아주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회고에 의하면 이 때의 조사 결과 북으로 가는 물건 중에는 카빈소총, 45구경 권총 등을 비롯하여 상당량의 전략물자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⁷¹⁾

한국측으로부터는 군수물자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해, 북한측으로부터는 명태 따위의 해산물이나 받아오는 것은 국가이익에 위배된다. 특히 국방상의 큰 손실이 아닌가. 김 사단장은 그렇게 판단했다.⁷²⁾

그래서 그는 사단 관하의 교역을 중지시켰다. 마침 일선연대(임진부대)가 북쪽에서 넘어온 북어 20트럭 분을 토성에서 일단 압류한 후 그 처리문제를 사단사령부에 문의해 오자 그

는 사단장 명령으로 그것들을 몰수토록 명령하였다. 그리고 참모장교들과 협의하여 북어를 매각 처분하고 그 대금으로 전투용 부식을 구입, 그 무렵에 벌여졌던 송악산전투에 투입된 일선장병과 노무자들에게 지급해 버렸다.⁷³⁾ 그는 사전에 육군본부에 이를 보고하였으며 처분과정에서의 경리 부정 소지를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의 상황에 대해 김석원 장군의 회고록에 실려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⁷⁴⁾

나는 이것을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북어 20여 트럭분을 압류했다. 약 500만원 어치의 비단도 압류했다. 그러자 난리가 난 것이다. 현역 최고위 장성이 편지를 보내와 하주(荷主)가 조카라고 풀어달라고 하는가 하면, 국방부의 모 국장은 하주가 아버지라고 사정을 해오기도 했다. 나는 “내 아버지라도 풀어주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나는 육본에 보고를 하는 한편 장병들의 사기를 위해 부식으로 북어를 일부 제공하고 일부는 팔아서 음료수, 과일, 과자 등을 전장으로 보냈다. 또한 이틀동안의 전투에서 탄환운반 등 노역을 해준 400~500명의 주민과 가축·재산을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해주었다.

그러나 김석원 사단장의 그같은 처사는 순수하게 받아들여 이해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물자를 압수당한 화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그들은 반발하여 각계 요로에 진정을 하

는가 하면, 채병덕 총장에게는 군부의 처사에 대해서 항의하였다. 그리고, 김석원 사단장이 물자를 임의처분하면서 착복한 혐의가 있다고 모해하였다.

채총장은 국가에서 정식으로 허가한 교역을 일선 지휘관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김석원 사단장에게 그 시정 조치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장군은 “교역을 빙자하여 무기를 북한에 반출하는 것도 정당한 일이나?”고 반문하면서 채총장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⁷⁵⁾

갈등의 증폭

육본에서는 김대령의 ‘월권행위’를 비판하고 나섰다. 여기서 채총장이 일 처리를 조용히 진행했더라면 이 사건이 비화되지 않고 끝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노골적이고도 강경한 자세를 취하였다.

그리하여 전봉덕 헌병사령관에게 “헌병사령부에서 철저히 조사하라. 만일 김 사단장에게 부정혐의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구속해 버려라”라고 명령하였다. 이 명령을 받은 헌병사령관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런 정황에 제1사단 헌병대장 이풍우 소령이 김석원 사단장의 심복이라 해서 해임되고, 이익홍 소령⁷⁶⁾이 그 후임자로 보임되었다. 수사요원들은 김석원 사단장의 명륜동 집과 성남 중학교 주변에까지 배치되었다.

그러나 헌병사령관은 김석원 사단장에게 부정착복의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불가’라고 복명하였다. 사건은 여기서 종지부를 찍고 조용한 뒷수습으로 매듭지어져야 했다.

그렇지만 두 사람 모두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⁷⁷⁾ 그래서 감정적 차원으로 격앙된 양쪽의 원색적 발언들이 연일 신문지상에 그대로 보도되어 마침내는 정치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였다.

김석원 사단장은 그의 회고담에서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피력하고 있다. 그 자신이 착복혐의를 받아 ‘정보원에 의해 뒷조사를 당했다’는 것을 알고, 이에 반발하여 명태 처리에 대해 세밀히 보고함과 아울러 태도를 더욱 굳혔다고 한다.⁷⁸⁾

쌍방의 말을 들어야 객관적인 진상 파악이 가능할텐데, 채병덕 총장의 입장을 알려주는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한 편의 주장만을 듣게 된 것이 대단히 불편하고 안타깝지만 일단 김석원 대령의 말을 들어 보자.

(일이 이렇게 되자) “김석원이 임의로 압류물자를 처분, 사복을 채웠다”고 문제가 되었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나는 “내 밥상에는 복어꼬리 하나 올려놓지 말라”고 엄명했고, 복어는 도중 횡류가 없도록 정보참모, 헌병대장, 부관참모, 군수참모 공동 입회 아래 처분했다.

채병덕은 2차에 걸쳐 조사단을 파견, 30여일 간을 조사했지만 단 한 마리의 횡류도 밝혀내지 못하자 사건을 정치문제화

하는 쪽으로 끌고 갔다. 물론 나도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아 결국 이 시비는 이 박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어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채병덕 총참모장과 나는 9월 어느날 경무대로 불려갔다.

이 자리에서 채병덕은 “사단장이 독단적으로 압류물자를 처분해서 조사시킨 것 뿐이니, 어떤 감정적인 알력도 없고 자체 해결하겠습니다”고 했는데, 나는 “군의 최고 간부가 전략물자 밀수 행위로 장사를 하고 있으니 흑백을 가려주십시오”라고 맞섰다.

이 박사가 흥분, 경련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눈물이 글썽해진 신성모가 “제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고 해 우리는 경무대를 물러 나왔다.

이날 밤 신성모 집에서 채병덕이 “각하, 제가 잘못했습니다”고 사과를 해 악수만 하고 헤어졌는데, 다음날 화해를 했다고 다시 경무대로 들어갔을 때, 나는 또다시 흑백을 가려달라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채병덕과 나는 결국 같이 군복을 벗게 되었는데, 채병덕은 두 달 후 현역으로 복귀했으나 예편극은 쇼같은 인상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일 채병덕 총장이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면 김석원 사단장과는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일에 대해서는 증언하는 사람이나 기록자들에 따라서 내용이 엇갈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는 고지마 노보루의 『한국전쟁사』에 기술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신성모 국방부장관, 채총장과 김대령을 불러놓고, 국방의 중책을 맡은 군간부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훈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대령은 “각하, 그러시다면 국방의 중책을 맡은 군 간부가 적과 장사해서 돈벌이를 해도 종단 말씀입니까?”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반박은 채총장에게 겨냥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미 여러 차례 김대령은 채총장과 절충했으나 채총장은 그때마다 ‘정치적 배려’의 필요를 강조하며 김대령에게 “사태수습을 위해서 재고”를 요청하였다. “한국과 한국군의 사정을 알지 않는가? 원칙론만으로 일을 처리할 수는 없다. ‘원칙 아닌 원칙’도 고려하여 ‘포용력’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좋을 듯하다 ……”

그러나,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되며 전투에 정신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구 일본식 군인정신이 몸에 배어 있는 김대령으로서 그런 식의 ‘정치적 설교’가 생리적으로 불쾌한 것이다.

단호하게 튕기고 이제 이 대통령 면전에서 노골적인 비판을 시도해 보았으나 김 대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김대령의 반박을 자신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 화를 내었다…….79)

다른 자료로서 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제1권 구판)

의 관련 기록을 살펴보자.

이러한 시비는 급기야 대통령이 알게 되었다. 그래서 김석원 사단장은 경무대로 대통령을 방문하고 자초지종을 보고하였던 바, 이승만 대통령은 “잘 알았네” 하면서 조금도 걱정말고 일선을 잘 지켜달라는 당부였다.

한편 채총장은 총장대로 대통령을 방문하고 제1사단장의 독선적인 처사가 불법이라고 호소하게 되어 대통령으로서는 어느 쪽도 비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⁸⁰⁾

총참모장과 사단장의 동반퇴진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마침내 1949년 10월 1일부로 채병덕 총참모장과 김석원 사단장을 현직에서 해임하여 예비역에 편입시켰다. 채병덕 총장의 후임으로는 신태영 준장이 이 날짜로 소장으로 진급되면서 육군총참모장 대리로 보임되었고, 제1사단장의 후임으로는 유승열 대령이 발령되었다.⁸¹⁾ 이로써 남북교역사건은 정치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면서도 흑백이 가려지지 않은 채 종결되고 말았다.

이 사건은 명태의 처리를 두고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명태사건’ 또는 ‘북어사건’이라고도 한다. 국군의 최고위급 직위에 있는 인물들이 ‘명태’ 때문에 싸우다가 두 사람이 모두 면직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밑바닥에 두 사람의 미묘한 감정의 응어리가 깔려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즉, 일본육사 27기생으로 일본군 대좌에까지 올랐던 당년 56세의 ‘카이젤 김석원’이 뒤늦게 한국군에 등용됨으로써 이제 겨우 육군대령으로 만족해야 하는 ‘울적한 심사’와, 대선배들 중에서도 독존적 성격이 두드러진 김석원 사단장을 거북하게 여겨 경원시해 온 젊은 총참모장의 잠재적 콤플렉스가 표출되어 한바탕 맞붙게 되었다는 견해이다.

이러한 갈등은 한국 육군의 생성 과정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운명적 결과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인 국방부장관이 고도의 세련된 조정능력을 발휘해야만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국방장관 신성모는 불행하게도 그럴만한 위인이 못되었다.

이 사건은 냉정한 눈으로 볼 때 쌍방에 모두 반반씩의 일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채총장의 생각은,

남북교역은 정부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북한 정보 획득과 기밀비 조달이라는 부차적 이득이 있다. 일선 사단장이 상부의 이러한 고차원적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민간인 물자를 마구 압류해서 임의처분한 것은 월권행위요, 탈선행위이다. 김석원 사단장은 고도의 참모기능을 모르는 사람이다 …….

반면에 김석원 사단장의 입장은,

남북교역은 결과적으로 반역행위이다. 주요한 전략물자를 넘겨주고 북어대가리 따위나 받아온다는 것은 이적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나? 더욱이 총참모장이라는 사람이 장사꾼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어떤 이득을 도모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나를 구속하도록까지 밀령을 내린 이번 사건은 흑백을 가려야 한다. 내 목이 아니면 채병덕의 목을 자르라 …….

는 것이었다.⁸²⁾

일찍 세상을 떠난 채병덕 총장과 달리 김석원 사단장은 어떤 형식으로든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기회가 있었고 또 앞에서 그 부분을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채총장의 입장에서 더 생각해보기로 한다.

김석원 사단장이 채총장에 대해, 군의 최고간부가 전략물자 밀수행위로 장사를 하고 있으며 그가 직접 이 교역에 개입하여 이득을 추구한다고 비난한 것은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고 한 말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떠도는 말을 듣고 감정에 치우쳐서 공격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글 어느 부분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물자를 임의처분한 것과 개인의 사복을 채운 것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김사단장은 자기가 북어 한 마리도 밥상에 올려놓지 않았으며, 채총장이 그의 개인적인 착복을 철저히 조사했지만 밝혀내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또는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사단장이 적발하여 임의로 조치한 행위는 개인의 사복을 채우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남북교역에 문제점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사단장이 내리고 압수한 물자를 사단장의 명령으로 처분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기 반출이 있다면 이를 적발하여 지휘계통으로 보고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조사·확인케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 이처럼 압수물자를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 매각하거나 분배함으로써 사후 조정이나 타협의 여지를 없애 버렸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감정은 격해지고 사건 수습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김석원 사단장의 단도직입적이고 과격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채총장과 신장관이 자체 해결을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사단장은 계속 타협을 도외시한 채 역지를 부린 셈이다. 그의 말대로 서로 악수를 하고 헤어졌는데(채총장과 신장관은 그 악수가 화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였을지도 모른다), 다음날 경무대로 들어갔을 때 거둬들여 흑백을 가려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도 매끄럽지 못한 행위로 보인다.

채총장의 행위에 대한 응징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모순된 사실들을 바로잡는 것을 명분으로 삼았다

면, 그 시점에서 고위급 장교가 취할 태도는 그 차원을 달리 할 수 있어야 했다.

이 사건으로 채병덕 장군은 육군총참모장 취임 5개월만에 해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역 장군의 옷까지 벗어야 하는 좌절을 맛보았다. 한편 김석원 장군도 9개월만에 사단장 보직에서 해임되고 예편하여 군복을 벗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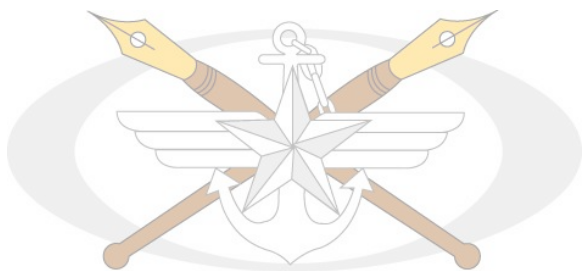
김석원씨가 이 사건을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상처’라고 회고한 것을 보면, 이 일이 당시뿐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도 강하게 그의 마음 속에 남아 있었던 모양이다.

더구나 두 사람이 동시에 해임되면서 군복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령은 여전히 예비역에 편입된 대로였으나, 채소장만이 현역에 복귀하여 병기행정본부장에 임명되고 곧 이어서 총참모장에 복귀한 사실을 보고 그의 심정은 편치 못했을 것임이 분명하다.

채병덕 장군이 예편된 지 두 달도 안되어 현역에 복귀한 것은 분명 이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미 군사고문단의 절대적인 신임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총애가 합쳐져서 대통령을 움직인 결과라는 의견이 많다.

신설된 병기행정본부는 군과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병기와 탄약을 생산할 목적으로 발족한 기구였으며 채병덕 소장의 과거 경력 중 어느 부분과 견주어 보아도 적격의 부서와 적격자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었다. 병기분야에 관한 한 누가 무어라고 해도 그는 제1인자였기 때문이다.⁸³⁾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인사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명태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채장군은 정치적으로 고려를 너무 지나치게 선행시킨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는 병기행정본부장 직책에 만족하지 않고 총참모장 복귀를 꿈꾸었고, 그 결과가 그를 재난의 길로 몰아 가게 되었던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제 1 부 전장의 선두에 서기까지

- 1) 소장은 김홍일, 이응준, 채병덕 등 3명이었다.
- 2) 졸저, 『한국전쟁의 전쟁지도』(국방군사연구소, 1999), p. 73.
- 3) 당시 공군총참모장 김정열 준장의 증언.
- 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제1권)(1977), p. 600.
- 5) 육군 소장이라고는 하지만 당시 그는 35세의 젊은 청년이었으므로 인간적인 성숙도 면에서도 일국의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6) 채병덕의 출생년도는 기록에 따라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등으로 나타나 있다. 한 사람의 생년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로서, 육군본부 장교인사기록카드에는 1914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의 가족들은 1915년이라 주장하고, 『정일권회고록, 6·25비록 전쟁과 휴전』에는 1916년, 사사키 하루다카(佐佐木春隆)의 『한국전비사』에는 1917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의 호적등본에 기록되어 있는 날짜를 따르기로 한다.
- 7) 채병덕과 일본 육사 동기생이며 절친한 친구로서 그와 두터운 우정을 유지하였다. 채병덕보다 훨씬 뒤에 국군에 투신하여 6·25전쟁 때는 수도경비사령관, 제9사단장 및 제3사단장, 제6대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하였다.
- 8) 그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할 당시 그의 형 병선이 이 학교의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 9) 이기동, 『비극의 군인들』(일조각, 1982), p. 283.
- 10) 이때 김인준씨는 시골 지주의 독자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았으나, 채병덕은 모든 조건이 적합하여 그에게 육사 응시 권고가 집중되었다고 한다.
- 11) 육군장교를 회원으로 하여 조직된 공제조합적인 성격을 띤 단체로서 1877년(명치 10년) 2월에 창설되었다. 기관지의 발간, 군사 도서의 발행, 군장품의 판매, 회원 사망시의 부조 등의 사업을 하였

다. 서울 용산에 있던 해행사는 그 지사인 셈이다. 태평양전쟁 후 조직과 사옥이 모두 소멸되었으나, 전후에 민간단체로서 부활되어 일본 육군사관학교 동창회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관지 월간 『偕行』을 발간하고 있다.

- 12) 김인준씨의 회고.
- 13) 이기동, 앞의 책, p. 285.
- 14) 이하 일본 육사 시절의 내용은 이종찬씨의 증언,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구성한 이기동교수의 글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15) 이기동, 위의 책, p. 287.
- 16) 그는 해방 직후 평양에서 소련군에 피랍되어 생사불명이라고 한다.
- 17) 이기동, 앞의 책, p. 288.
- 18) 일요하숙 발족엔 1932년 LA에 마라톤 선수로 출전했던 권태하(權泰夏)씨도 일조를 했다고 한다.
- 19) 이기동, 앞의 책, p. 289.
- 20) 위의 책.
- 21) 이 모임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회원은 72명에 달하였다. 이는 일본 육사에 유학한 총인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채병덕, 이종찬, 이용문, 김정열, 유재홍, 정일권, 이형근, 박정희, 정래혁, 장창국, 강문봉 등 한국군의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림회 회원들이었다.
- 22) 이기동, 위의 책, p. 290.
- 23) 7월 7일의 노구교(蘆溝橋)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다.
- 24) 이때부터 이종찬은 3년 가까이 중국전선에서 사전을 해매게 된다.
- 25) 백경화씨는 1918년 5월 15일 생으로서 당시 만 21세의 나이였다.
- 26) 후에 국군에서 준장.
- 27) 성(姓)이 정(丁)씨인 것만 확실하다. '홍범'이란 이름은 결혼한 후에 남편 백홍석의 가운데 이름자를 따서 새로이 만든 것이다.
- 28) 이종찬 대위는 채대위가 포공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도쿄에 돌아와 이 학교에 입학했으며, 졸업 후에는 다시 남방전선에 투입되었다. 1943년에 소좌로 승진한 그는 독립공병 제15연대장 대리로서 뉴기니아에서 해방을 맞이했다.
- 29) 서태원(徐泰源), 『서태원 자서전, 回想과 隨筆選』(일조각, 1994), pp. 30~37.
- 30) 서울 서대문구 소재 감리교신학교에 설치되었다. 초대 교장에는 리스(Rease) 소령이 임명되고 한국인 원용덕(元容德)이 부교장격으로 취임하였다.
- 31) 특이한 경우로서 이응준은 군사영어학교가 폐교된 후에 졸업이 추진되면서 정령(正領: 대령)으로 임관되었다. 한용원, 건군, 73.
- 32) 사병들에게 계급이 부여된 것은 같은 해 2월 1일이었다. 과거의 군

사경력과 복무성적에 따라 임부택 정교(상사)가 사병군번 1번을 받았고, 공국진이 2번, 김종원이 3번이었다.

- 33) 佐佐木春隆著, 姜昶求編譯, 『韓國戰秘史』(이하 사사끼, 『한국전비사』로 약술함)(상)(병학사, 1977), p. 106.

- 34) 위의 책.

- 35) 장창국, 『육사졸업생』(중앙일보사, 1984), p. 57.

- 36) 이형근, 『이형근 회고록 : 군번 1번의 외길인생』(중앙일보사, 1993), p. 27.

- 37) 위의 책, p. 42.

- 38) 그러나 경찰모자의 귀단추가 장교 계급장이라는데 대해서 임관되는 장교들은 극도로 불쾌감을 나타냈다.

- 39) 이응준, ‘창군’, 『전환기의 내막』(조선일보사, 1982), p. 34.

- 40) 위의 책, p. 340.

- 41) 전편위, 『한국전쟁사』(구 1), pp. 399~401.

- 42)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고려서적(주), 1996), p. 128.

- 43) 통위부 병기국은 이후에 보급, 차량, 병기, 창고 등을 통할하는 부대로서 『후방사령부』로 개칭되었다.

- 44) 주한미군사고문단(KMAC)장 Roberts 준장의 공한철 I,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소장 자료.

- 45) 채장군 전사 26주기 기일에 계림회 회원들이 그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고 미망인을 위로한 것이라든가, 50주기 행사에 한국군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석한 것은 채장군의 이런 면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 46) 김점곤 장군의 증언.

- 47) 이경남, ‘육군참모총장’, 『월간조선』, p. 181.

- 48) 강성재, ‘참군인 이종찬 장군’(동아일보사, 1986), p. 30.

- 49) 이경남, 위의 글, p. 182.

- 50) 위의 글.

- 51) 위의 글, pp. 39~40.

- 52) 이응준, 『전환기의 내막』, p. 345.

- 53) 이경남, 위의 글, p. 183.

- 54) 위의 글.

- 55) 이응준, 위의 책, p. 345.

- 56) 서울신문(1948. 10. 29).

- 57) 동아일보(1949. 3. 4).

- 58) 서울신문(1949. 4. 12).

- 59) 동아일보(1949. 4. 25).

- 60) 이경남, 앞의 글, p. 185.

- 61) 이경남, 위의 글, p. 187.

- 62) 동아일보(1949. 5. 19).

- 63) 조선일보(1949. 5. 17).

- 64) 1949년 8월 그는 행정참모부장 신태영 준장을 막료로 두기가 거북

하여 원용덕 준장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노장급 선배들이 군의 중추부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65) 이경남, 앞의 글, p. 190.

66) 당시 1개 사단의 편성 본부 및 본부중대, 군악대, 3개 보병연대, 통신중대, 병기정비중대, 의무대대, 병참중대, 공병중대, 보병대대 등으로 편성되고 그 병력은 장교 625명, 사병 9,936명, 합계 10,561명으로 구성되었다.

67) 남북교역은 1949년 3월 31일까지 계속되었다.

68) 6·25전쟁이 발발하자 소련과 북한측은 남북교역에서부터 장차 전쟁을 위한 정보를 입수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69) 고지마 노보루 저, 김민성 역, 『한국전쟁』(상)(종로서적, 1981), p. 16.

70) 동아일보(1948. 10. 10).

71) 김석원, 『나의 이력서』(서울신문, 1974. 10. 30).

72)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p. 16.

73) 이경남, 앞의 글, p. 191.

74) 김석원, 위의 글.

75) 위의 글.

76) 후일 내무부장관.

77) 이경남, 앞의 글, p. 191.

78) 고지마 노보루, 앞의 책, p. 16.

79) 위의 책, pp. 16/17.

8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판 제1권)(1967), p. 426.

81) 대통령 일반명령 제5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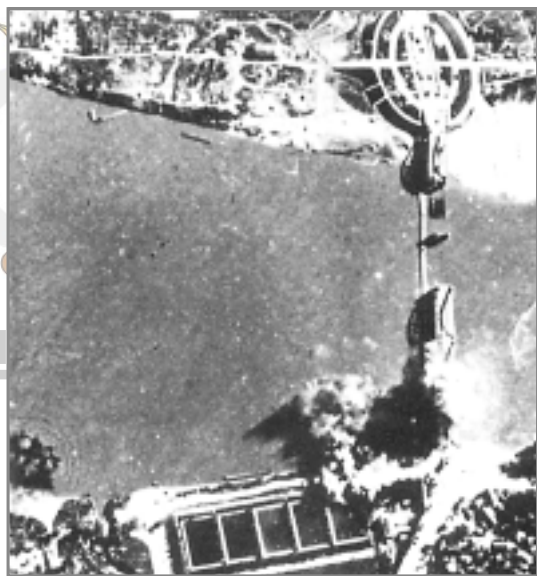
82) 이경남, 앞의 글, p. 191.

83) 위의 글, p. 19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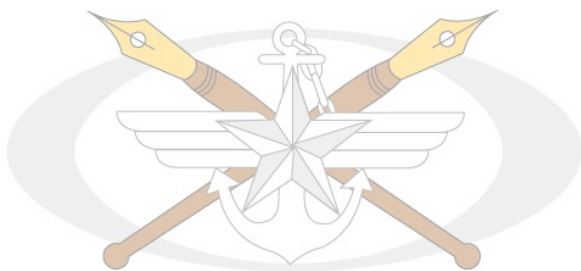
제 2 부

6.25전쟁의 작전지도



제1장 전쟁대비의 허와 실

제2장 전쟁 발발과 작전지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경, 국군 공병에 의해 폭파·절단된
한강 인도교. 이 폭파로 서울 사수의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제 1 장 전쟁대비의 허와 실

1. 채병덕 총참모장의 책임론

육군총참모장으로의 복귀

채병덕 소장은 남북교역사건으로 제1사단장 김석원 준장과 충돌한 결과 1949년 10월 1일 김장군과 함께 예비역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그 자신만은 2개월 여가 지난 12월 14일자로 현역에 복귀하면서 병기행정본부장에 취임하였다.

병기행정본부는 미국 원조 무기의 인수 및 지급, 병기 생산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이었다. 그래서 병기 전문가인 그가 등용된 것으로 인식되었다.

김석원 장군과 동시에 퇴역하여 채장군만이 현역에 복귀하였으므로 그로서는 일견 다행스러운 일로 느껴질 만도 했다. 그러나 군부의 일각에서는 채장군 혼자만의 복직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병기행정본부장에 취임한 후에도 그는 근무의욕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리하여 다음해 봄에는 군을 떠날 결심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제1국장으로 있던 이종찬 대령을 비롯한 그의 친구들은 “조금만 기다려 보게. 장관도 자네 처지를 동정하고 있고, 현재 총참모장 신태영 소장은 어차피 대리 근무니까 조만간 인사이드동이 있을 것이네”라고 그의 퇴직을 간곡히 만류했다고 한다.

친구들의 권유에 못 이겨 그의 사표제출이 늦어지고 있던 시기에 마침 신태영 총장이 사임하였고, 그 후임으로 그가 육군총참모장에 다시 임명되었다.

채총장이 재등용된 것은 통솔력, 정치적 수완, 인기 등에 있어서 그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범석 총리나 신장관의 추천도 있었겠지만 당시 한국군에 있어서 그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미 고문단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당시 채병덕은 미군측으로부터도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제 지배에서 해방되어 나라가 다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여서 군대 내에 능력과 경험을 갖춘 인물이 적었으므로 널리 인재를 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했다. 그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충성심이 강하고 군을 장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채병덕 장군과 같은 인물이 필요했을 것이며, 원로들에 대한 경계심과 반감도 작용했을 것이다.¹⁾

채병덕 소장이 제4대 육군총참모장으로 보임된 날은 1950년 4월 10일. 그가 제2대 총참모장 직에서 물러난 지 6개월 10일만의 일이었다.

소위 ‘명태사건’으로 불명예스럽게 총장직에서 물러난 후에 다시 그 직위로 복귀한 것은 그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채총장은 그의 재임 기간 중에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서 큰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

전쟁을 정확히 예견하지도, 또 그에 철저히 대비하지도 못한 사실과, 전쟁 초기의 패배 때문에 국방수뇌부가 내외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 그 책임 추궁과 비난이 특히 채병덕 총장에게 집중적으로 쏟아졌던 것이다. 그 자신이 하동전투에서 목숨을 잃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의 기록과 비난은 그대로 남아서 전사에 기록되어 있다.

총참모장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복귀, 하지만 그 영광이 그때로부터 2개월 반 뒤에 비극으로 변할 줄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라.

10대 불가사의(不可思議)와 채병덕

6·25전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형근씨가 그의 회고록에서 지적한 가칭 ‘10대 불가사의’도 그 중의 일부분이다. 그가 제시한 열가지의 미스터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북한군 남침 징후의 무시·목살
- ② 전쟁 직전 각급 주요 지휘관의 대규모 인사이동

- ③ 전쟁 직전 전후방 부대의 대대적인 교대이동
- ④ 6월 23일 자정 비상경계령 해제
- ⑤ 장병의 휴가 및 외출·외박 실시
- ⑥ 6월 24일(토) 밤 장교구락부 개관파티 개최
- ⑦ 의정부지역의 병력 축차투입으로 인한 피해
- ⑧ 전쟁 직후 중앙방송의 국군 반격·북진 방송
- ⑨ 한강교 조기폭파
- ⑩ 공병감(최창식 대령)의 조기 사형집행

이형근씨가 지적인 내용의 특징은 이 일들이 전부 전쟁 발발 직전과 직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육군 지휘부에 통적(通敵) 분자, 즉 적과 내통하는 첩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는 6·25전쟁 초전의 전후 사정을 종합 판단할 때 군 내 외에서 좌익분자들이 긴밀하게 합작하여 국군의 작전을 오도했음이 분명하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면 통적분자가 과연 누구냐? 그로서는 수상하다고 느껴온 사람들이 있지만 심증만 갖고 있어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형근씨가 회고록을 집필할 그 당시에 그들 가운데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였다.

또 그는 언젠가 누군가가 확증을 제시할 것으로 믿었으며, 그의 생전에 이 문제에 관한 집중적인 연구가 시작되면 자신도 후세를 위해 밝힐 것은 밝힐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떠났다. 누군가가 그의 미스터리를 밝혀 주었는지, 또는 누군가에게 그의 ‘심증’을 남겨놓았는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심증을 품은 채 갔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이형근씨가 제시한 열 가지 의혹 가운데 상당한 부분이 채병덕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우선 ‘육군 지휘부에 통적분자가 있다’는 내용이 그렇다. 채총장은 육군 지휘부의 최고위 장교이며, 전쟁 직전과 직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또 ‘10대 불가사의’ 중에서 ⑧번과 ⑩번의 일을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모두 채총장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이형근씨가 수상하다고 느꼈던 제1의 인물이 바로 채병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일은 사상문제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것이라서 언급하기도 곤란하고 쉽게 풀리기도 어렵다. 첩자 또는 좌익이라는 문제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서는 심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아무나 분석하고 평가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쟁사적인 측면에서 일어난 현상을 기록과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할 뿐이다. 그 중의 어느 것이 때로는 ‘10대 불가사의’에 해당되는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접근 방법의 결과일 뿐이다.

연속선상에서 논의해야 할 책임론

6·25전쟁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채병덕 장군에 대한 인식은 ‘전쟁 대비의 불철저’와 ‘전쟁 초기 패배’인 것 같다.

평시이거나, 아니면 그때까지 빈번히 있었던 38도선 충돌사건 정도라고만 해도 ‘채총장은 재임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그 임기를 마쳤다’라는 정도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업적의 잘 잘못에 대한 비판도 신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6·25전쟁은 그런 종류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전쟁 전 두 달 반, 전쟁 발발로부터 단 6일간 육군 총참모장 직위에 있었던 그에게 의외로 크고 무거운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 대비의 불철저와 전쟁 초기 패배의 가장 큰 — 거의 전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 책임을 육군총참모장인 채장군에게 돌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유독 채병덕 총장인가? 채총장을 비판·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채총장의 재임기간 중에 전쟁이 발발하였으므로 그에게 전쟁 대비의 책임이 제일 많이 돌아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쟁의 양상이 육군 중심으로 전개되어 육군총참모장인 채병덕 장군이 진두지휘를 함으로써 그 승패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가 가장 많이 짊어져야 한다

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전쟁 대비 면에서 볼 때 한 국가의 전쟁 준비는 2~3개월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6·25전쟁의 경우에도 북한은 약 4년에 걸친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남침을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방어적인 입장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는 결코 몇 달만에 갖추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전쟁 대비의 공과를 거론하기로 한다면 전쟁 훨씬 이전의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건과 인물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것이다.

채병덕 장군은 전쟁이 발발하기 2개월 15일 전에 육군총참모장 직책을 물려받았다. 그의 전임자인 신태영 총장은 1949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9일까지 6개월 남짓 동안 그 직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 전임자는 다시 채병덕 총장(5개월)과 이응준 총장(4개월 20여일)이었다.

북한군이 남침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또 그 사실이 우리 정보기관에 포착된 시기는 1949년부터였고, 그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나타난 것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다. 그러므로 전쟁 대비에 대한 책임을 거론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으로 제4대 총참모장 이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전쟁대비문제 중에서 채병덕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점심은 평양, 저녁은 신의주에서

이승만과 신성모의 북벌론

일찍이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감지되고 있을 때 남한에서는 북한의 전쟁능력에 대한 평가와 남침 가능성, 그리고 한국의 대응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과 주장이 분분하였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한국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때로는 북진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공표하였는데, 이것이 ‘북벌론(北伐論)’ 또는 ‘북진론’이다.

북한이 남침한다는 ‘남벌론’과 함께 북벌론은 일찍이 1948년부터 등장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혼란과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었다.

북벌론에 관한 당시의 실정을 정일권씨는 그의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²⁾

이 대통령은 언제라 할 것 없이 공·사석을 막론하고, “공산당에 억압당하고 있는 우리 북한동포들을 구하기 위하여, 하루 속히 북진해서 통일해야만 합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 군의 처지에서는 여간 곤혹스럽지가 않았다.

첫째는, 국군의 형편이 말이 아닌 데도 무엇을 믿고 북진을 주장하는 것인가?

둘째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에게 대한 군사원조에 인색한 미국 트루먼 행정부인데, 자꾸만 북진을 주장하면 더욱 인색해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한 1948년 당시 73세의 고령이었다. 그러므로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에 민족통일을 보고 싶어하는 노 애국자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다. 하나, 신 국방부장관이 때도 없이 불쑥불쑥 “우리 국군이 한번 북진하기 시작하면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신의주에서 저녁을 먹게 될 것이다”하고 공언하는 데에는 곤혹을 넘어 화가 치밀기까지 했다. 누구보다도 국군의 실정을 심도있게 알고 있으며, 누구보다도 가장 말조심해야 할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정말 경솔하다 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미 군사 고문단측에서 심한 항의가 빚발쳤다. ……

정일권 장군은 이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생각을 ‘현실 인식의 착오’라고 단정하였다. 더욱이 군을 총괄하는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수시로 “우리 국군에게 북진명령만 내린다면 아침은 해주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들며, 저녁상은 신의주에서 받을 수 있다”라고 한 말은 어처구니없는 허언일 뿐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담화까지도 서슴치 않았다.

우리는 무력으로 조국을 통일시킬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무기와 총탄만이 모자란다. 대부분의 북한군은 폭동을 일으켜 우리와 합세하여 공산도당을 북한에서 쫓아버릴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또 북한 동포들도 쫓기하여 폭동을 일으켜 북한군 병사와 합세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지원없이 쫓기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며, 다만 우리에게 폭동을 일으킬 일자만을 알려달라고 청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나는 그들의 쫓기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만 그들이 쫓기한 후에 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무기와 탄환을 확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의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참으로 낙관적인 말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의외의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외부에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거나,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을 공격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까지 되었던 것이다.

1949년 초순 자유신문에 실린 AP의 논평 기사는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드러난 단적인 예이다. 그 기사의 요점은,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의 군사력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며, 만일 전쟁이 발발한다면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이대통령이 자위를 위해서 무기를 요구하지만, 그것이 북한 공격에 사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었다.

실제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³⁾

약 1개월 전 이대통령의 워싱턴 특사 조병옥씨는 2년간 그리스 정부에 대하여 실시한 것과 같은 미국의 군사원조계획을

한국에도 실시하기를 요청하였다. 이승만씨는 미국 병기로 장비된 현 5만의 남한군을 배가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그 외에 남한은 5만 명의 경찰을 가지고 있다. 일부 견해에 의하면 이는 북한 공산군과 대개 꼭 같은 수라고 하고, 또 다른 견해에 의하면 이승만씨의 군대는 북한군에 비하여 현재 이미 훨씬 우세하다고 말하고 있다.

남한의 인구는 약 2,200만 가량이고 북한은 약 900만이라고 한다. 한편 일부 보도에 의하면 만약 한국에 있어 어느 한 편이 공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승만씨의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으며 다만 한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승만 박사는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공격도 격퇴할 만한 충분한 군사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이승만씨가 자위의 목적으로 요구한 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통일하는데 쓰지 않으리라고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그대로 믿고 있지 않는 것이다. 미국은 이 박사가 요구하는 군사원조를 공여하기 전에 이것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를 심계(審計)할 것이다.

과거 2년간 미국의 무기는 중국의 내란에서 사용되었으며 최초에는 이를 대여한 국부군(國府軍)이 사용하였고, 다음에는 중공군이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국부군으로부터 노획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우 놀라운 것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지원해 주면 중국 내전에서 장개석 군대에게 제

공한 무기가 공산군에게 넘어간 것처럼 될 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군수뇌부의 북벌론

하지만 이런 우려를 유발할 만한 언행은 계속되었다. 또 이 대통령과 신 국방부장관만이 그런 언행을 한 것이 아니라 군 요직에 있는 간부들도 이구동성이었다. 그 중에는 물론 채병덕 총장도 들어 있었다.

1949년 5월 23일 연합신문사에서는 국방부 수뇌부와 의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신문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것은 ‘국군 창건 이래 최초인 군수뇌부 대 언론인의 군사행정을 중심으로 현하 긴박한 국방정세 전반에 걸친 획기적 대좌담회’였다.

여기에 출석한 군 수뇌는 (제2대)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외에 해군총참모장 손원일 소장, 육군참모부장 정일권 준장, 제1사단장 김석원 대령, 육본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 호(虎)부대장 김종오 대령 등이었다. 그리고 연합신문사 측에서는 양우정 사장 외 7명이 참석하였다.

여기서도 북벌설과 남벌설이 대두되었다. 사회자가 “최근 북한 방송 혹은 월남해 온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들 ‘북한 괴뢰군’은 2개월 내에 부산까지 자신있게 밀고 내려오리라는 소위 남벌설을 유포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국군은 어떠한 태세로 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채병덕 소장은

소위 남벌설은 작년 10월을 위시하여 금년에는 2월에 온다는 등, 4월에는 틀림없으리라는 것과 같이 일방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군의 태세는 완벽하나 군기상 더 언급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재까지의 소충돌로써 이것이 본격적인 남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저쪽에서 여러 가지 각도를 의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즉 우리는 그들이 만약 본격적 공세를 취하여 올 때 피동(被動)에서 주동(主動)으로 과연 전세를 달리하여 대할 것인즉, 거듭 말하거니와 현하 국내외의 정세에 의하여 군으로서도 아직 도발행동을 한 일은 없으며 앞으로 그들이 공세를 취하는 그 시기를 포착하여 한숨에 국군은 실지 북한을 접수할 자신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나 정부나 국민은 일치하여 군사력의 배경이 되는 국민 총역량을 결속해 주기 바란다.

라고 설명하였다. 채총장의 설명에 손원일 제독이 다음과 같이 첨언하였다.

그 점에 대해서 나도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의 국군·해군 실력으로라도 북한측의 해군을 물리치기에는 부족이 없다는 것이다. 명령이 내리면 우리 해군은 유동적 작전선을 따라 언제든지 38이북을 맹공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사회자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남북통일이 전 민족

의 염원이겠으나, 만약 무력에 의하여서라도 실지(失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있어 군은 과연 어떠한 작전으로 이에 당할 예정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고 하자,

채병덕 장군은 “그 방법은 군기밀이라 언급할 수 없으나, 백번 승산이 있으니 국민은 안심하라.” 그리고, “38선이 터지는 그 날만 두고 보라”고 장담하기까지 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정일권 장군은 보다 진지하게,

전쟁은 목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조직을 전신 태세로 편성 못한 것이 유감이다. 국가 예산이나 인적 동원을 지금부터 십분 준비해야 할 것이므로 군·경·민 일체가 지금보다 더 요청되는 때가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채총장은

미군 철퇴를 계기로 남벌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대한 국민이 있다면 그들의 머리를 180도 회전시켜야 할 것

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손원일 제독도,

남벌설을 조금도 우려할 것 없다. 우리 실력으로 북한군쫓의 방어에는 문제없으니 안심하기 바란다.

라고 거들었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사회자가 “우리에게는 소총탄환 한 개의 제작시설도 없다. 반면에 북한 공비군은 소총 탄환·박격포 탄환 등을 평양에서 자수(自手)로 만들고 있다고 한다. 국군의 총포탄환은 대개가 미국제인데 작년 맥아더 장군이 이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대만처럼 미국의 관심에서 사라질 우려가 있다”고 걱정되는 말을 하자, 채총장은

우리는 확신을 갖고 현 단계에 있어 우리 국군이 동양 제일이라는 것을 자부하고 있고 또 그렇다. 만약 남벌 기세가 보이면 이쪽에서 먼저 압록강까지 쳐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 김석원 대령도 지지발언을 하였다.

국민 다수는 장차 남벌이 있을 것을 예측코 근심하는 편도 있으나, 지금 정예 국군은 38선상에 빈틈없이 배치되었으며 만약 월남할 때에는 상부의 명령 한 마디로 충분히 때려부술 작정이다.

연합신문은 이 좌담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연합신문사와 국방부 수뇌부의 좌담회 - 국군의 방위태세는 완벽」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다.⁴⁾

당시 이 북벌설과 남벌설은 국민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채병덕 총장은 이 좌담회에서 만일 북한이 남침한다면 우리 국

는 것이고 뜻하는 실지회복의 성스러운 민족과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 우리 군대는 대통령의 명령 일하 어느 때 어디에나 돌진할 용의와 태세를 갖추고 있으나 국민의 받드는 힘과 떠밀어 주는 힘이 없이는 전승은 기하기 어려운 것이다. ……

또한 김석원 대령은,

현재의 사태로 볼 때 우리는 이미 전투상태에 돌입하였다. 즉 38선을 철폐하고 우리의 실지를 회복하는 뚜렷한 목표가 섰 것이니, 전국은 지금까지의 희미한 꿈을 깨뜨리고 눈을 바로 뜨고 주먹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38이북의 공비들은 지금 38선에 접근하고 있으며 전투를 위한 집결·분산 즉 배치가 빈번히 실시되고 있다. 그들은 바야흐로 38선을 침해하고 월남을 하려는 것이다.

국군의 수뇌부가 나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군사정세를 설명한 것은, 당시로서는 북한의 남침설이 분분하던 때였으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리라. 또한 국군이 결코 허약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런 자신감을 피력하는 데 당시의 군 수뇌부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군 내부에서는 북벌론을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공개적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말을 한 셈인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국방부장관의 의중을 감안하는 면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군 수뇌부가 자기 군대를 약하다고 할 수 없어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 너무 지나쳤던 것이 아닐까.

북벌론의 허구

훗날 모든 사람들은 이 북벌론을 두고 우리 국군 수뇌부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다고 공격을 하게 되었다. 북한군의 군사력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한국군의 군사력이 약한 줄을 몰랐거나, 알고서도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인 동시에 책임 추궁이다.

북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수준에 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북벌론은 우리의 군사력에 대한 과신뿐만 아니라 북한의 실정을 잘못 파악한 데서 ‘과신의 증폭’을 초래하였다. 이 대통령의 그런 북한관에 일반 국민들과 정부의 지도급 인사들도 부지불식간에 동조하게 되었으며, 군부 장교들 사이에도 인식의 도착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북벌론은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방부장관과 군 수뇌부에 이르기까지 한 목소리로 외쳐댄 ‘합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병덕뿐만 아니라 국군 수뇌부급의 인물들, 정일권이나 손원일이나 김석원도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이 당시 대한민국 수뇌부의 기대였고 희망이었으며, 또 그것이 그때의 분위기였고 추세였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북벌론이 허구였다면 그것을 외친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며,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거나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직책이나 역할에 따라서 그 소리의 크고 작음과 빈도수는 달랐을 것이다. 만일 책임의 중요성으로 따진다면 그 가장 큰 부분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신성모 국방부장관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흔히들 전쟁 당사국들은 상대방과 자기 자신의 역량을 잘못 판단하여 전쟁에 돌입하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자기 편이 이길 것이라는 착각과 착오에서 전쟁에 뛰어들는 것이다. 그래서 손자(孫子)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중요성을 설파하지 않았던가.

문제는, 당시 한국으로서는 북벌을 할만한 능력이 없었다는 데 있었다. 설사 정치적 목적으로 북벌론을 공공연히 주창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추지 못한 것이 큰 문제였던 것이다. 또 그런 진실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해도, 그것을 과감히 밝힐 용기를 갖춘 인물이 없었다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

더욱 불행한 부작용은 이대통령과 신성모 국방부장관의 북
 별 호언을 미국 정부가 반신반의하면서도 그것을 핑계로 차츰
 한국 정부의 기도를 견제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런 행위가 미국의 판단을 흐리고, 한국군에게서 과거 장개
 석 군대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태도를
 더욱 굳히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군에게 무기공급을 증가하면 이대통령이 무슨 짓을 할는
 지 모른다. 그가 정말로 북진 공격을 개시하면 한반도에 이
 해관계를 가진 미국과 소련이 본의 아니게 말려들어 귀찮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대통령의 무모한 기도를 견제하는 첩
 경은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극도의 제한선에서 묶어두는
 일이다.

미국 정부의 이승만관(李承晩觀)이 이런 방향으로 기울었으
 므로 한국군에 대한 전차, 항공기, 전투함 등의 원조 공여는
 자동적으로 고려 외 사항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미 행정부의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다른 사람 아닌 이승만 정부 자체가 유
 도해 낸 결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미국이 실속없는 한국측의 공갈을 사실인 줄 믿어
 서, 북침할지 모르니 한국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국제적인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세계 최강대국이며, 정보 수집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
 한다는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엉터리 제스처에 속아서 판단

을 그르쳤다면 분명히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다. 맥아더 원수의 회고록에

…… 국무부는 한국이 먼저 북을 공격할까 두렵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를 하지 않았다. 이 기이할 정도로 근시안적인 그 이유는 거꾸로 북한 공산군의 공격을 유발하고 말았다…… 이같은 결정은 태평양에 관해서는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고 한국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워싱턴 인사들이 내린 것이다…… 이로 인해 북한 공산군에게 용기를 준 것밖에 되지 않았다.……7)

북벌론은 이대통령과 신장관이 선창하고 채병덕 장군을 비롯한 군 수뇌부에서 북창한 허구의 합창이었다. 그 소리에 놀란 미국이 반신반의하면서 한국에 대한 지원을 머뭇거리는 사이에 소련과 북한은 용의주도하게 침략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3. 남침 예측과 대비

미군 철수와 북한군 남침에 대한 우려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일찍이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던 1949년 중반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해 있을 때는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었던 일이 이제 현실적인 걱정거리로 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측은 이러한 우려에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하였다. 당시 주한 미 군사고문단장의 인터뷰 중에 그런 태도가 여실히 배어있다.⁸⁾

질문 : 한국에 대한 군사고문단은 500명으로써 충분한가?

답변 : 한국이 많은 발전을 보아 국군은 강력하다고 보며 장교들도 날로 향상하고 있어 500명의 군사기술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한국군과 경찰이 협력하면 국내 치안확보와 외부 침략도 방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질문 : 한국에 대한 1억 5천만불 원조안에 대한 의견은?

답변 : 하루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

고문단장의 말에 의하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한국군과 한국 경찰로써 국내 치안 유지와 외부 침략 방위가 가능하므로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언급은, 한국군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원조가 절대 필요하거나 시급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 시점에 미국 당국자들도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태도를 보였다. ‘위험하다’고 하면 ‘그럴 리 없다’고 하였다.

북한군의 능력에 대한 판단도 한국과 미국의 양측이 서로

달랐다. 이에 따라 북한군과 한국군과의 상대적인 힘의 우열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한국측에서는 '북한군의 병력은 17만 5천명으로 우수한 포병, 전차, 공군을 보유하고 있어 만일의 경우엔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군사고문단에서는 '북한군의 병력은 11만 7천 3백 75명이다. 포병이나 낡은 전차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나, 한국군은 이를 능히 격퇴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⁹⁾

즉, 미 군사고문단은 끝까지 '한국군은 공격을 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지만, 방어를 하기엔 충분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고, 이 판단이 동경과 워싱턴으로 보내져서 그것이 그대로 극동군사령부와 미국 정부의 판단이 된 것 같았다.

한편 미군 철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정부로서는 애써 태연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범석 국무총리의 담화¹⁰⁾를 보면 이런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지난 29일로써 미군은 우리 한국으로부터 완전히 철퇴를 하였다. …… 이미 우리에게서 강력한 조직체를 가진 국군과 완전한 경찰이 있으니 이것으로 능히 방위태세는 거의 완전한 경지에 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미군철퇴에 따르는 치안과 방위는 하등 우려할 것이 없는 것이다.

특히 미군의 군사고문단이 약간 당분간 주둔해 있어서 국군 훈련과 무기 공급에 적지 않은 편의를 도와주기로 되었으며 금 7월 1일부터의 신년도 미국 원조액으로 미 국회에 제출중

인 1억 5천만 불 이외의 용도로 군사원조를 받기로 된 것 등 이러한 물자적 절대한 후원에 대해서 우리 국군과 경찰은 반석과 같은 조직 연락하에 복해를 마실 듯한 사기 또한 힘차게 떨치고 있으니 국민은 오로지 안심하고 진정수분하기를 부탁하여 마지않는 바이다.

이런 내용의 담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군의 남침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가되었다. 특히 1949년 말부터 한국군 장교들 사이에 조만간에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져 있었다고 한다.

이런 걱정이 계속되고 있던 1949년 12월 육군본부 정보국은 그때까지 입수된 북한에 관한 첩보를 토대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론에서

최근의 적정과 제반 정세를 감안하건대 다음 해 춘계를 계기로 적정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까지 적은 대남 후방 교란과 내부와해공작을 강행하여 남한 침공의 구체적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전 기능을 총동원하여 전쟁준비를 촉진한 다음 38도선 일대에 걸쳐 전면적 공세를 취하고, 일거에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할 것이다.¹¹⁾

라고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완성된 것이 「육군방어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한국방어계획」이라고도 불리어지는 것으로

서 1950년 3월 25일에 육본 작전명령 제38호로 발령되었다.¹²⁾

이것으로 보면 한국 육군은 나름대로 유사시에 대비한 작전 계획이나 동원계획은 작성해 놓았던 것이다. 물론 완전한 것은 못되었지만.

정일권 장군의 설명을 통해 이 계획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한다.¹³⁾

이 계획은 신태영 총참모장 시절 강문봉 작전교육국장이 주동이 되어 마련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남침해 올 것을 가상, 최후의 방어선을 설정하여 축성공사로 진지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멘트, 철재 등 공사자재와 교량 파괴용 폭약, 대전차지뢰 등을 획득할 길이 없었다. 당시 재정난에 허덕이던 정부는 국방예산을 염출할 수 없었고 미국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신생 정부의 재정은 극빈한 데다 국가적인 생산능력 또한 전무에 가까웠다. 미국의 군사원조는 여전히 인색하기만 했다. …… 80%를 장병들의 봉급과 주부식비에 충당하고 나면 1년 예산이 바닥나는 형편이므로, 방어선의 축성공사가 시급하다고 알면서도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이었다. ……

대전차 장애물 공사가 어렵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대전차 지뢰를 차선택으로 미 군사고문단에 지원 요청했으나, 이 역시 ‘본국의 군사지원 예산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 하는 식으로 좌절되고 말았다.

육군도 중장비가 전혀 없었다. 미군 요로에 중장비 지원을 사정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때 방어계획 제38호가 햇빛을 보아 절반만이라도 축성공사를 할 수만 있었다면, 6·25 전쟁 초전의 처참한 패퇴는 모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천추의 한이 아닐 수 없다.

그러한 사정은 해군과 공군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우리 해군엔 군함 구실을 할 만한 함정이 없었다. 패전 일본 해군이 버리고 간 낡은 소해정 몇 척과 주일 미 해군이 고철로 폐기 처분한 소해정 몇 척이 해군력의 전부였다.

공군은 연습기와 연락기 10여대가 전부였다. 당시 미국은 야속할 정도로 우리 국군 지원에 인색했다. '미 제7함대와 미 제5공군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였다. 미군측의 자세는 냉랭하기까지 했다.

사실 미국은 1950년 1월 애치슨 국무부장관의 선언을 통해 이미 한국을 미 태평양방위권 밖으로 밀어내 버린 후였다.

정일권 장군은 그 해 2월 중순 어느 날 미 군사고문 하우스먼 대위에게 '동경 사령부가 수많은 북한 정보를 입수하였는데도 미 국방부와 국무부측에서 이상하게도 이 긴박한 정보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고 묻자, 하우스먼은 '그 이유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미국과 한국간에 상호방위관계가 없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몇 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전쟁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장군이 '그럼 애치슨선언대로 하겠다는 말인가'



38도선에 배치된 부대를 시찰하고 있는 채병덕 육군총참모장과 장경근 국방부차관

고 확인하자, 그는 ‘현재로서는 그렇게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¹⁴⁾

채병덕 장군이 총참모장으로 재취임하던 때의 실정이 이러하였다. 북한의 남침 조짐과 그에 대한 예측 및 대비책 마련의 노력은 채총장 취임 이전부터 이미 문제시되어 왔었으나, 그것이 거의 전혀 우리측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군 전차에 대한 대비책

그렇다고 해서 채병덕 총장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는 전쟁 발발 직전 약 2개월 동안에 더욱 증가되는 북한의 남침 정보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북한군의 전차 보유 정보를 무시한 점, 그리고 전쟁 발발 직전에 그 위험을 알리는 보고를 무시한 점일 것이다.

전쟁 초기 북한군 전차의 위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한국군에게 절대적인 위협이 되었다. 전차를 당해낼 무기가 없었던 국군에게 그것은 ‘무적의 괴물’로서 ‘공포의 대상’이었다. 어느 장교는 “북한군의 전차만 없다면 해볼만 한데……”라고 아쉬워하였다.

실제로 전차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의 접전에서는 대등한 전투를 벌였던 사례가 많았던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군의 전차가 초기전투의 승패에 미친 영향은 결정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북한군 전차에 대비할 다소의 장비나 대책이라도 있었다면 전황은 상당히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차에 대한 유감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한국군 수뇌부에서는 북한군이 중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공군과 포병도 우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음을 개탄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의 수뇌들은 진지의 강화나 방어를 위한 준비는 물론 대전차호를 구축하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으며, 또한 대전차 전투의 연구나

훈련강화는 물론 장비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일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채총장도 적의 전차에 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미국은 한국에 전차를 제공 해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전차를 막아낼 만한 무기도 지원해 주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뜻이 있는 군사지도자였다면, 그리고 전차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진 총장이었다면 다른 수단으로라도 적의 전차를 막을 공리를 하는 것이 마땅했을 것이다.

그런데 채총장은 정보요원들이 결사적으로 촬영해온 T-34 전차의 사진마저도 신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대전차 대책을 생각하여 그 수단을 개발하거나 훈련을 명령한 일도 없었다고 한다.

결국 전차나 대전차무기 그리고 대전차 방어대책의 문제인데, 전차와 무기를 주지 않은 미국만을 탓할 일이 아니라, 아무런 조치를 강구하지 못한 한국군 수뇌들의 대비자세에도 큰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 책임의 큰 부분이 육군 총참모장이었던 채병덕 장군에게 돌아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이에 대해 그의 입장을 변호하는 증언도 있다. 실제로 한국군 수뇌부는 1949년 10월부터 미국에 전차를 수 차례 요청했지만 미국 당국은 “전차는 한국지형에 적합하지 않고 복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며 번번이 거절했었다. 이처럼

럼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는 미국의 태도를 채총장인들 어떻게 해볼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다.

당시 육본 본부사령이었던 이상국씨도,

수뇌부에서 전쟁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채총장은 미 군사고문단에게 전차 사진까지 보이며 그 위험성을 주장했지만 그들은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부정하고 거절하니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군수뇌부가 전차 정보에 확신을 가졌다고 해도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라고 술회하였다.

한 쪽의 주장으로는 채총장이 북한 전차 사진을 무시했다는 것이고, 다른 한 편의 설명은 그 사진을 미 군사고문단에 보였는데도 미군측이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어느 쪽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채총장이 전차 문제를 중요시했다고 해도, 그에게 사진을 보이고 그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했던 사람에게서 그의 반응이 불충분했을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전차 문제는 채총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고 미군측의 보장이 있어야만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는데, 미군측으로부터 보증이 될 만한 언질이 없는 상태에서 채총장인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점 때문이다.

이런 사정을 짐작케 하는 증언을 정일권의 회고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1950년 6월 30일 미국에서 귀국하여 수원 비행장에 내린 후에 바로 채총장과 함께 지프차를 타고 한강으로 달려가면서 채총장이 했던 말을 그의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즉,

…… 그 놈의 탱크, 탱크 때문에 이렇게 당했어! 참 이상한 친구들이야. 우리가 그토록 탱크를 달라, 대포 큰 것을 달라고 할 때는 콧방귀만 뀌더니 …… 일을 당하고 나서야 서둘러댄단 말이야.¹⁶⁾

이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채총장도 북한군 전차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미군측에 수차례 지원을 요청했는데도 그들이 전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미국이 지원해주지 않은 것은 그렇다 치고, 우리로서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다 해 봤어야 했다고 앞에서 언급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대책 마련에 무관심하고 소홀했던 점은 우리 정부에게 있었다고 생각된다.

1950년 5월 말,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은 피아의 전력을 분석 비교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군사력 증강과 방어태세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였다.

다음은 강문봉씨의 회고이다.

당시 우리 국군은 병력이나 장비, 국가의 후방지원체제와 동원능력, 국가예산상의 뒷받침과 국민의 사기면에서 전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다. …… 그래서 육군본부 작전국장 재임시 나는 정보국의 절박한 판단자료에 의거 1950년도의 군사추경 예산에 38도선 축성공사비를 계상한 긴급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눈앞에 박두한 5·30선거에 정신이 팔려 예산내용의 대부분을 삭감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군관계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었다.

미국의 지원이 없을 경우 우리측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군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전쟁 대비 수준이라면 대부분 정부 차원, 즉 예산의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는데, 정부는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예산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또 예산 지원 없이 학생들을 동원하여 의정부 지역에 교통호를 구축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경무대에서 사람이 나와 그 작업을 중지시켰다. 평화시에 공연히 불안을 조성하지 말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여건 하에서 전쟁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쟁 발발 직전의 조치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채총장으로서 가장 변명하기 어려운 일로서는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그의 조치와 행동일 것이다.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6월 23일 자정 비상경계령의 해제로 말미암아 전군이 적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되고 있을 때 정보당국자들은 북한군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하면서 그 첩보 수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다음날 육본 정보상황실은 22~23일 간에 입수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적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다는데 우려하고 있던 차에, 이날 오전에 의정부 정면에 배치된 제7사단으로부터 ‘북한 군관들로 보이는 일단의 무리가 아축을 향하여 지형을 정찰하는 것 같다’라는 요지를 보고해 왔다.

따라서 김종필, 엄용승, 함덕운, 서정순, 이영근 중위 등으로 편성된 정보상황실의 남북한반에서는 제 첩보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면공격이 임박한 것으로 보며, 이는 이 날이나 다음 날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와같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따라 이날 오후 3시에 채총장을 위시하여 일반참모들이 상황실에서 긴급회합을 가진 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종필 중위와 이영근 중위는 그 간에 수집한 적의 활동상황을 설명하고 나서 ‘북한이 평화통일안을 제의하는 것은 그들 남침을 비닉하기 위한 술책일지 모른다.

적은 현시점에서 남침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요지의 결론을 제시하고, 이어서 아방의 당면조치로서 첫째, 비상경계령의 발령, 둘째, 즉시 휴가 및 외출의 중지, 셋째, 전기 모든 조치가 불여의할 때에는 최소한 2/3 병력이라도 영내에 대기토록 하여 전방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제안들은 이들 군수뇌들의 특별한 주의를 환기하지 못한 채로, 단지 채총장으로부터 '첩보대를 포천-동두천-개성 등지에 파견하여 계속 적정을 살피고, 그 결과를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고하라'는 요지의 지시가 하달되었을 뿐이었다.¹⁷⁾

이 설명대로라면 전쟁 발발 하루 전의 긴박한 시기에 채총장은 정보참모들의 정확한 예측보고를 무시하여 적시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그래서 채총장의 판단의 오류가 지적되고, 심지어 더욱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의심을 받게 되었다.

채총장의 해명을 들을 수 없으므로 당시 그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다른 자료나 증언을 통해서 그의 형편을 짐작키로는, 요컨대 정보보고를 받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북한군이 당장 공격을 할 것이라는 확실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채총장이 믿었던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측에서 북한이 남침해 온다고 단

언할 수는 없다.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텐데 설마 북한이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는가.

채총장이 이처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으로는 ‘미국에 의존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자연스러웠는지도 모른다.

또 그때는 정치, 경제, 군사의 모든 것이 미국의 우산 밑에 놓여 있었다. 한국군은 병력, 장비, 예산의 세 가지가 모두 부족했으며,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군 간부로서는 우선적으로 한국군의 장비와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미 군사고문단과의 우호관계를 촉진하고, 그 호의와 원조를 획득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첩보 수집 능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다고 우기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이 많았다.

당시 군 내부에서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쟁의 위기를 예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전쟁 발발 예상론자들은 헛소리꾼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더 큰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전쟁이라는 흉조(凶兆)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대체적으로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이라는 말을 입밖에 내는 것이 정신 이상이거나 이적행위라도 되는 것처럼 의심을 받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분위기의 밑바탕에는 ‘북한이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리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미군 고문관(顧問官)의 주장이 큰 영향을 미쳤다. 평소의 업무도 미군에 의해 판단되고 미군 고문단의 지원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상례였던 때여서, ‘미군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웬 잔소린가’라는 풍조가 군대 내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자기 나라의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일이 어리석은 줄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당시는 미국에 의존하는 외에는 자국을 방위할 방도가 없었고, 차량 1대나 포 1문을 움직이는 데도 고문관의 승인이 필요했던 시대여서, 이런 의존은 사실상 불가피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런 정황이 국군 수뇌부, 그리고 채총장의 사고와 판단까지를 지배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그런데 실제로 전쟁이 터지자 미국 정부 당국자나 정보기관 관련자들은 모두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견했다거나, 아니면 북한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한 원인이 다른 데 있었

다고 하여 그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양상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예로서, 맥아더 사령부의 정보부장이었던 월로비 장군은 “도쿄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워싱턴에 대해서 경고 했지만 워싱턴은 개의하려 하지 않았다”¹⁹⁾라고 하였다.

반면에 트루먼 대통령은 그의 회고록에

맥아더가 한국군은 북한군의 공격을 능히 견뎌낼 수 있다고 보고해 왔었고, 또 한국군의 훈련은 만족한 상태에 있다고 보고하고 있었기 때문에 500명의 고문단을 남겨 놓고 철수했다. ……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강화는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다. …… 우리들은 만일 북한군이 전면공격을 개시한다면 이승만 정권이 위협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²⁰⁾

라고 기술하고 있다. 도쿄의 맥아더 사령부에서는 위협을 경고했다고 한다. 그런데 워싱턴의 트루먼 대통령은, 도쿄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그대로 믿었으며, 대한 군사원조는 공화당의 반대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전쟁 예측과 대처에 대한 책임을 제각기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당시 미 대사관 2등 서기관 도널드 맥도널드씨는 KBS의 「다큐멘터리 한국전쟁」에서

돌이켜 보건대, 위험신호는 있었던 같다. 문제는 우리가 믿으려 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미국인들은 소련측에서 북

한의 침공을 방관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승만과 그의 측근들이 과장해서 보고를 하고 있었다는 데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아내기가 어려웠다.

전쟁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설마 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이 한국측의 과장된 보고 때문에 혼란을 일으켰다는 말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의 저널리스트 스톤(I. F. Stone)이나 일본의 하기와라 료(萩原 遼) 같은 사람들은 “맥아더와 미국이 사태의 진전을 몰랐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들이 오히려 ‘모르는 척’하는 쪽을 택한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게 된 것이라.²¹⁾

여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게 생각되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그 당시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채총장도 그런 정도의 징후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평화시에 ‘곧 전쟁이 일어난다’고 단언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정확한 정보, 용기있는 결심이 없고서는 어렵다. 바로 그것이 의사결정의 곤란성이다.

그런데 모두들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은 큰 소리를 치는데 육군총참모장이라고 해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단언하는데는 분명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면, 그 다음의 일은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었다.

이때 만일 미국이라도 전쟁 가능성이 확실하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면 채총장도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북진통일을 외치는 마당에 한국측이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분명히 전쟁이 발발한다고 육군총참모장이 비상나팔을 불 수 있었을까?

채총장의 입장으로서 비상경계령은 이미 너무 자주, 너무 오랫동안 발령한 상태이다. 이제 겨우 해제되었는데 다시 비상경계령을 내리기에는 자신이 없다. 내일 모레에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정보보고를 받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의 문제일 뿐이다. 결심은 총장이 해야 하는데, 만약 이번에도 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나간다면 더욱 우스운 꼴이 될 것이 뻔하다.

결국 채총장은 비상나팔을 불지 못했고, 전쟁은 터지고 말았다. 그래서 채총장 책임론이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그렇게 지엽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또한 대국적인 견지에서 평가해야만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일권씨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 적절한 예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지배에서 해방된 지 겨우 4년, 그동안에 북한이 남한을 침공할 만한 힘을 가지게 된 것은 북한 단독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소련의 정책과 전략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소련의 의도와 힘이다. 전쟁 무기와 장비, 작전계획, 부대의 증강과 교육 훈련 이 모든 것이 북한 단독으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증거는 북한군의 남침명령에 나타나고 있다. 북한군 총참모부 작전차장이던 유성철이 자기도 작전의 근본적인 뜻을 몰랐다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일에 비교한다면, 한국 정부의 정보 판단에 대한 논란이나 실언 등은 오히려 지엽적인 것이다. 북한의 남침을 예고한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도, 물리칠 수도 없었다. 거기에 맞대응 될 수 있었을 대응책은 소련에 대응할 수 있는 미국의 정책과 대응전략 뿐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 오비이락(烏飛梨落)인가?

대규모 인사이동

채병덕 장군은 육군총참모장으로 취임한 지 12일 만인 4월 22일부로 육군본부 참모진의 일부를 포함한 사단장급 인사이동을 실시하였다. 그가 총참모장으로 재취임한 때의 육군본부 일반참모 진용은 다음과 같았다.

작전참모부장 : 정일권 준장

인사국장 : 강영훈 대령

정보국장 : 장도영 대령

작전교육국장 : 강문봉 대령

군수국장 : 양국진 대령

그는 이 중에서 도미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작전참모부장 정일권 준장 후임으로 제3사단장 김백일 대령을 임명하였다.²²⁾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3개 사단장직을 교체 · 발령하였다.

백선엽 대령 : 제1사단장(전임 제5사단장)

유승열 대령 : 제3사단장(전임 제1사단장)

이용준 소장 : 제5사단장

이에 따라 백선엽 대령은 후방지역(광주) 사단장에서 전방지역(개성 · 문산)을 담당하는 사단으로 이동하였고, 전방지역에 있던 유승열 대령은 후방지역인 대구로 옮겨갔다. 또한 이용준 소장이 광주에 주둔하고 있는 제5사단을 맡게 되었다. 이 인사이동으로만 본다면 젊은 장교를 전방에, 연배가 높은 장교를 후방에 배치한 모양이 된다.

채총장은 이와 같은 인사이동을 실시한 지 1개월 20일 만인 6월 10일부로 두 번째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5월 중순에서 하순에 걸친 남부지역의 치안상황 시찰과 제2, 3, 5사단의

부대시찰을 마친 후의 일이었다. 이 인사이동은 대폭적인 것으로서 전 군의 지휘체계를 크게 바꾸어 놓게 되는데, 변동된 주요지휘관은 다음과 같다.

이형근 준장 : 제2사단장(전임 제8사단장)
 김종오 대령 : 제6사단장(전임 제1연대장)
 유재홍 준장 : 제7사단장(전임 제2사단장)
 이성가 대령 : 제8사단장(전임 제16연대장)
 이종찬 대령 : 수도경비사령관(전임 국방부 제1국장)
 신상철 대령 : 육본 인사국장(전임 제6사단장)
 장창국 대령 : 육본 작전교육국장(전임 참모학교 부교장)
 이준식 준장 : 육사교장(전임 제7사단장)
 김홍일 소장 : 참모학교장(전임 육사교장)
 강문봉 대령 : 도미유학 대기(전임 육본 작전교육국장)

이 외에 이치업 대령은 육본 작전교육국의 차장에서 교육과장, 박임항 중령은 제3연대장에서 육본 작전교육국 차장, 정래혁 중령은 참모학교 교관에서 육본 작전교육국 과장, 그리고 김점곤 중령은 제12연대 부연대장에서 육본 정보국 차장으로 각각 전보되었다. 이 인사이동은 그 규모가 매우 커서 '건군 이래 최대의 인사'라고 할 정도이다.

이렇게 실시된 인사이동은 총참모장 취임후의 상례적 인사행정이며, 38도선 방어사단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조치의 일환

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인사이동으로 말미암아 한국 육군이 지휘계통의 과도적 혼란기를 맞이했다는 지적이 많다. 지휘권 인계인수다, 송별파티다, 환영파티다, 현황파악 브리핑이다 하여 육본과 사단사령부는 하나같이 어수선하고 들뜬 분위기에 젖었다는 것이다.

그 후 이 인사이동은 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왜냐하면, 전쟁 발발 직후와 위기설이 떠돌고 있는 시점에 이처럼 규모가 큰 수뇌급 인사이동을 실시한 것은 시가상 적절치 못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인사이동 직후에 전쟁이 일어났으며,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후방 사단장들이 부대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전투를 지휘하게 되었고, 육군본부 참모들 역시 업무에 익숙지 못한 채 총참모장을 보좌하게 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이 인사 발령에 5월 17일 국방부차관으로 취임한 장경근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풍설도 있어서 유쾌하지 못한 뒷맛을 남겼다. 물론 그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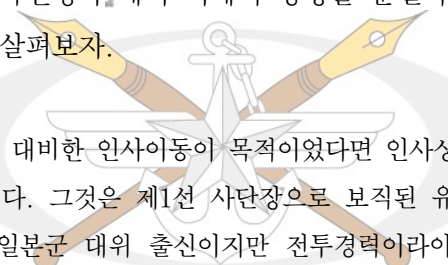
또 인사국장에 전보된 신상철 대령은 6월 25일까지 부임하지 못하여 전임자인 강영훈 대령이 계속 근무하였고, 작전과장 및 정보국차장도 이와 같은 실정이었다는 지적도 있다.²⁴⁾

그리고 이때 교체되었거나 새로 임명된 지휘관들은 전투경험이 부족한 인물들이라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경험과 실력을 갖춘 고급장교들이 다수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들을 제쳐두고 그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합한 인물들을 군 고위직에 배치한 것이 전쟁 수행에 역기능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전방 사단장으로 보직된 장군들이 당시로서는 뛰어난 인물들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대를 장악하고 당면의 적정을 파악함과 함께 지형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전쟁을 맞게 되었다고 하여 비난하는 사람도 있다.

국방부의 『한국전쟁사』에서 이때의 상황을 준렬하게 분석·평가한 내용을 살펴보자.



만약 전쟁에 대비한 인사이드가 목적이었다면 인사상에 적재적소는 아니다. 그것은 제1선 사단장으로 보직된 유재홍 준장의 경우 일본군 대위 출신이지만 전투경력이라야 제주도 토벌사령관을 지낸 것이 최고이고, 또한 김종오 대령은 전투경력이 전무하다. 제8사단장으로 임명된 이정가 대령은 중국군 소령 출신으로서 중국에서의 전투와 국내 태백산지구 토벌사령관을 지내 강원도 방면에 대하여는 지리적으로 잘 알고 있어 적재라면 적임이라고 할 수 있다.

군에 전투경력의 경험자가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국 등지에서 싸운 많은 경력자가 있었다. 김홍일, 송호성, 이준식, 권준, 김석원, 이형석, 최덕신(도미유학중) 등 인재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인사이드는 38도선 경비의 일선 사단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

또 한가지는 작전국장 강문봉 대령의 도미유학을 위한 교체 문제이다. 강문봉 대령은 1947년 9월 이래 계속 작전계통에서 국장까지 승진하여 이 방면에서는 가장 권위자인데 국내 위기를 앞에 놓고 정일권 준장을 소환시키면서 작전 책임자를 다시 유학 조치를 한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

4월과 6월에 인사이동을 실시하고 곧 이어서 6·25전쟁이 일어난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 사태를 ‘우연의 일치’로 돌려버리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유난히 컸던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일련의 사태의 핵심에 채병덕 육군 총참모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그 인사이동을 단행한 채 총장은 어떤 해명도 남겨두지 않은 채 고인이 되고 말았다. 그가 생존해 있다면 그로부터 어떤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인사이동의 동기

6·25전쟁사의 서두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이 인사이동 문제. 그 진실은 무엇인가? 비판과 비난만 있고 채 장군의 진실이나 그때의 실상을 밝혀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 의문을 풀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인 해석만을 답습할 수도 없는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진실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쌍방의 주장을 들어 보아야 한다. 채병덕 총장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도 그것을 비판하는 주장과 함께 채 총장의 입장도 헤아려 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황을 종합하기도 하고 추측하기도 하여 그 단면을 재구성해 볼 수밖에 없다.

인사이동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우선 그것이 실시된 시기 때문이다. 인사이동이 실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고, 이때 보임된 인물들이 작전을 수행한 결과 초전에 혼란과 패배를 겪었던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듯한 징후가 있었고, 경계령까지 발령되기도 했던 시기에 굳이 인사이동을 단행한 까닭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비난은 앞에서 열거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의 조치를 어느 정도 수궁하는 이들의 주장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인사이동이 일어난 후에 공교롭게도 전쟁이 터졌으며, 그것은 다만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그 당시에 그랬지만 군대에서는 지휘관이 바뀌면 인사이동이 있기 마련이다. 총장으로서는 자신의 지휘방침을 잘 수행할 만한 인물을 등용하거나,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동을 실시할 수도 있는 일이다. 다만 '총장의 부임'과 '인사이동'에 이어서 전쟁이 발발했지만, 그것은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군에서는 어떤 위기에

서도, 설사 전쟁 중이라도 인사이동은 하기 마련이다.²⁵⁾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사실 자체에 대한 의구심이 사라지는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떻든 인사이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난만을 할 수는 없다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될 것이다.

또한 인사이동이 있는 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부대 실정 및 업무파악이 불충분해서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반론이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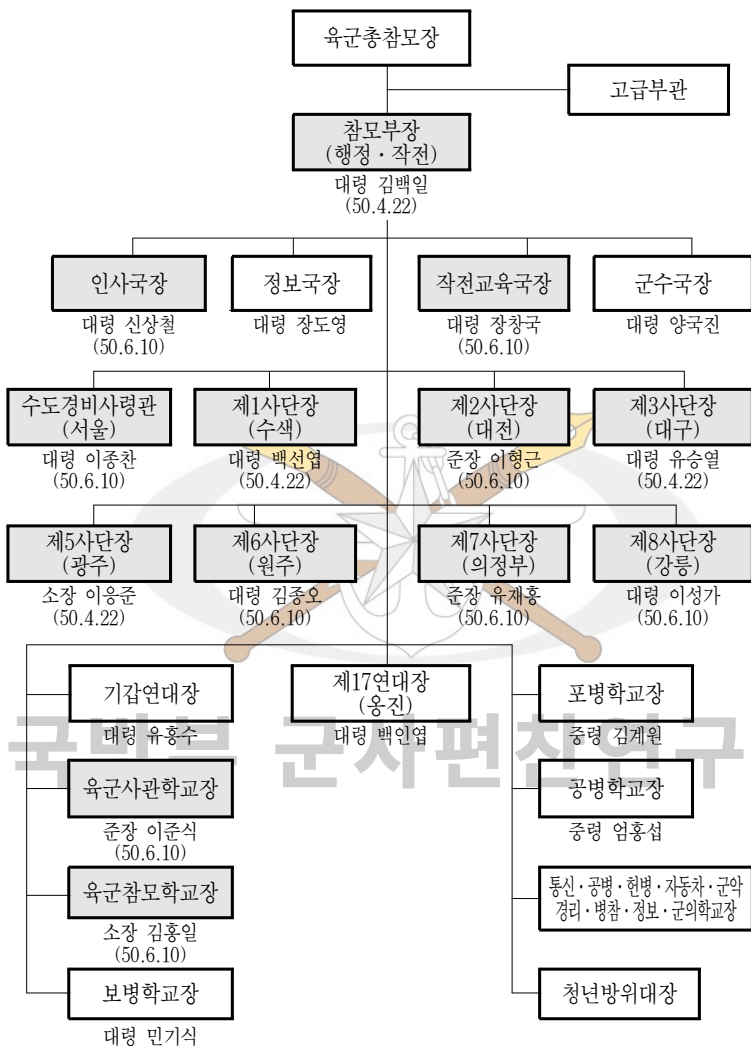
4월 22일에 교체된 지휘관들은 전쟁이 있기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6월 10일에 교체된 지휘관들은 보름 정도의 기간이 있었다. 군대에서 부대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통상 1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전자의 경우에는 시간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전혀 없었다.

시간문제라면 후자의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그러나, 군대에서 부대현황 파악은 시간이 급하면 급한 대로 실시하는 것이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쟁이 임박하다는 시기에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사람은 그만큼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6월 10일 제8사단장직에서 제2사단장직으로 전임명령을 받은 이형근 장군이 그로부터 13일이 경과한 6월 23일 밤에야 임지인 대전에 도착하여 24일부터 예하 부대를 점검하기 시작한 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²⁶⁾

앞에서 부대현황 파악에 1개월을 고려하였지만, 이것도 사

<도표 2-1> 채총장이 실시한 주요직위 인사이동



※ : 인사이동이 실시된 직위

※ ()의 날짜는 보직일

실상 당시의 여건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육군 사단 창설 이후 사단장의 평균 임기는 5개월, 연대장의 평균 임기는 7개월²⁷⁾이었다. 우리의 통념상 그렇게 짧은 재임 기간에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지만, 여기서 그 원인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원인이 어떠한든 사실이 그러하였으므로, 그런 여건 하에서 부대현황 파악에 1개월 정도가 소요되어야 한다고 전제한다면 정상적인 근무기간은 그만큼 짧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부대현황 파악에 그런 긴 시간이 허용되지 않았으며, 또 그런 실정이 보편적인 인식과 관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평가나 비판에서도 그 때의 실정을 고려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인사이드가 문제가 된 또 다른 이유는 그 규모에 있다. 규모가 너무 크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육본 참모진이나 사단장 및 연대장급의 인사이드가 이 정도로 실시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4월과 6월의 인사를 합치면 육군 8개 사단의 사단장들이 모두 교체되었다.

그렇다면 그 정도의 대규모 인사이드를 단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전쟁사』에서 가정한 것처럼 ‘전쟁에 대비한 인사이드’일까? 물론 여기에 대해 명쾌한 해답은 발견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채소장은 김석원

사단장과의 알력으로 총참모장직에서 물러나면서 군복까지 벗었는데, 자신만이 현역에 복귀하면서 병기행정본부장을 거쳐 마침내 총참모장에 재보임되었다. 그래서 있을 법한 반발을 차단하고 육군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려고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채총장의 신임인사에는 새로운 인물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새 인물의 기용보다는 기존인물의 측방 이동이 많았다. 기존 인물을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는 것보다, 측방 이동 또는 승진 보직 시에는 인사이동이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인사이동의 규모가 더 커졌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점이 인물론이다. 특히 사단장으로서 신임자들이 전임자들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것인데, 책임자가 선정되지 못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유능한 인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쟁에서 적재적소가 아니라고 지적한 인물이 유재홍 준장, 김종오 대령이다. 전투경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당시 육군에서는 채병덕 장군을 포함하여 소장 3명과 준장 7명이 장군이었고, 대령급은 모두 24명이었다. 그 중에서 사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상 인물은 기껏해야 1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고, 그나마 연령, 경험, 실력, 융화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채총장의 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대안으로 내세우는 인물들은 김홍일, 송호성, 이준식, 권준, 김석원, 이형석, 최덕신씨 등이다.²⁸⁾

그렇다면 채총장이 사단장에 임명한 인물들과 비교해서 이들은 어떤가? 송호성씨는 일찍 그 무능함이 알려졌으며,²⁹⁾ 최덕신씨는 도미유학 중이었다. 김홍일씨는 52세, 김석원씨는 57세로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든 사단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연령상으로 무리가 있었다(이것은 그 후 실제로 입증되었다).

이들을 포함한 그밖의 다른 인물들도 전쟁시에는 모두 현역에서 활동하게 되지만, 그 능력이나 실적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반면에 채총장의 인사이동시에 포함된 인물들, 특히 전방 사단장으로 배치된 백선엽, 유재홍, 김종오, 이성가 등은 모두 훌륭하게 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전교육국장을 강문봉 대령에서 장창국 대령으로 교체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지적받는 점이다. 전임 강문봉 대령보다 경력이 뒤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대령은 군원교육으로 도미유학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었다.

당시 한국군 장교들은 군대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을 미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통해 보충받고 있었다. 이런 교육은 강대령 뿐만 아니라 다른 장교들도 이미 받았고 또 계속 이수할 계획이었으므로 강대령과 장대령의 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

고 할 수 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신입자가 구임자보다 경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만일 군대에서 어느 보직에 새로 임명될 인물이 기존의 인물보다 지식과 경험이 동일하거나 더 많아야 한다면 적임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한 직책에 있는 인물은 그 직무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고 경험도 누적될 것이므로 이론상 보직변경은 완전히 불가능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상 군의 보직에는 일정한 임기를 정하여 계속 다른 인물로 바꾼다. 여기에는 그만한 필요성과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장대령도 작전부문 유경험자이므로 작전교육국장을 강문봉 대령에서 장창국 대령으로 바꾼 것 자체를 큰 과오로 단정해 버리는 것은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채총장의 인사상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는 잘못된 기록이 한 몫을 하고 있음도 발견된다. 즉, 전사편찬위원회 발행 『한국 전쟁사』에는 ‘인사국장에 전보된 신상철 대령은 적의 남침이 시작된 25일까지 부임하지 못하여 전임자인 강영훈 대령이 계속 근무하였고, 작전과장 및 정보국차장도 이와 같은 실정이었다’³⁰⁾라고 되어 있고 다른 자료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신상철 대령은 벌써 인사국장으로 부임하여 전쟁

발발 당일에는 육본 주변총사령을 맡고 있었다. 그러나 전임자인 강영훈 대령이 아직 출발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들 두 사람이 합동근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임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이다.

작전교육국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임 장창국 대령이 부임해 왔는데도 전임 강문봉 대령은 출발하지 않아서 육본에 작전교육국장이 두 사람이나 있는 셈이 되었다.

그래서, 좀 역설적이긴 하지만, 오히려 육군본부 참모진은 인력상으로 보강이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작전과장으로 발령된 정래혁 중령은 참모학교의 형편 때문에 교관직을 겸무한 상태였으며, 전쟁을 맞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육본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전임자인 예관수 중령과 합동근무를 하였다.³¹⁾

이형근 장군의 보직을 이동시킨 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 만, 제8사단장직에 1년 근무하고서 다른 부대로 옮긴 것은 당시로서는 유례가 드문 장기 근무였다. 그러므로 후방사단으로 이동했다고 해서 좌천이라든가, 어떤 나쁜 의도에 의해서 옮겨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당시 제7사단장이었던 유재홍 준장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 인사를 놓고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지만, 내가 아는 한은 채병덕 총장의 고심작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평가하였다.³²⁾

공용화기 및 차량 후송

인사이동과 함께 실책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공용화기 및 차량의 후송이다. 공용화기란 M1소총, 칼빈 소총과 같이 개인이 소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명이 어울려 조작하는 화기, 이를테면 박격포나 기관총, 자동소총 등을 말한다.

여기서 실책이라고 하는 것은, 채병덕 장군이 총장으로 부임한 후 갑자기 전군의 공용화기와 차량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여 이것들을 정비 명목으로 전쟁 직전에 후송함으로써 막상 위급한 때에 사용할 수가 없게 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육본 병기감실은 1950년 3월 미군으로부터 인수하여 지급한 중고품인 공용화기 및 차량을 정비할 계획을 세우고, 각 사단에서 15~20%를 회수하여 부평병기창에서 수리하고 있었다.

또한 차량은 전군 사단 소요량의 20%인 1,566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 중에서 500대를 부평으로 후송하고 1,000대를 각 지구에서 수리하고 있었으니 각 사단에는 차량이 ‘전무’한 상태였다. 그래서 전후방 부대를 막론하고 개전과 동시에 전투보다 병력 및 탄약 수송을 위한 민간차량 징발에 전력을 추구하게 되었다.

물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공용화기와 고장 차량을 회수하여 정비한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하필 긴박한 상황을 앞에 놓고 그것들을 회수하여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한다 하여도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 것은 계획상의 결함이 아닐 수 없다. 제6사단의 경우 장비를 후송하기 위해 춘천에 집결시켜 놓았으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긴급히 재지급하여 전투에 지장을 주지 않았던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래서 전쟁 직전에 공용화기와 차량을 후송하여 쓰지 못하게 한 것이 실질적인 정비 목적에 의한 것이며, 또 단순히 우연의 일치일 뿐인가 하는 데 관심이 쏠리게 된 것이다. 여기에 밝혀지지 않은 어떤 숨은 계략이라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도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혀줄 자료나 근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므로 공용화기 및 차량후송에 대한 의구심을 풀기는 어렵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당시의 상황을 살펴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면도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군사원조에서 병기는 병력제한에 의하여 충분한 수량이 지원되지 않았다.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병력 책정은 65,000명으로 그 규모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인 병력은 그 숫자를 상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사단급의 전투부대는 대부분 M1소총이 장비되어 있었지만, 기타 지원부대나 후방부대는 일제 99식 소총을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군사원조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육군에서는 보유병기의 15%가 폐품화되었고, 따라서 일본제 99식 소총 등을 수리하여 이를 대체하는 형편에 있었다.

공용화기도 소요에 비해 절대수량이 부족했다. 또 그마저도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군이 사용하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갔으므로 그 상태는 거의 폐품이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만일 공용화기를 후송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이었다. 어쩌면 정비를 위한 후송이 문제가 아니라 필요로 하는 병기의 절대적인 부족현상이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일 후송하지 않고 현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 이 문제의 논란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차량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중고품을 그들이 철수시 한국군에게 인도한 것인데, 대부분이 노후화하여 1950년 3월 육군본부 병기감실에서는 제1차적인 정비를 하기 위하여 35%에 해당하는 300대의 차량을 회수하였다. 또한 군수국에 서는 1,000대를 회수하여 정비하기 위한 일제검사를 하려던 차에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

차량은 계속적인 정비 및 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전·평시 구분없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만일 노후화되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부속이 없어 그대로 세워둔 차량이라면 부대에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일 수밖에 없다.

제6사단의 경우 후송을 위해 춘천에 집결시켜 두었던 차량을 재지급하여 '전투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이 표현

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두었어도 전투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로 가동될 수 있는 차량을 정비·수리 명목으로 회수해 갔다’는 뜻이 된다. 만일 사실이 그렇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 현상에 대해서는 더 자세한 근거와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몇 대 중에 몇 대를 쓸 수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추측하기로는 회수된 차량 중에 일부를 급히 수리하여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만일 채총장이 이 문제에 관여했다면, 병기분야의 전문가로서 그가 특별히 육군의 장비를 재점검하여 수리·정비하도록 특별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은 있다. 병기와 장비의 전반적인 상태가 너무나 나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또한 이 부문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병기와 차량의 후송을 극단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것도 무리일 것이다.

5. 늑대가 온다

반복된 남침설

1949년 후반기부터 북한의 남침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다. 서방의 정보분석가들은 이 때를 「남침의 적기」라고 내다

보고, 유엔은 거듭되는 38선 충돌사건과 북한의 침공설 등의 불온한 정세를 감시할 목적에서 1949년 10월말 총회에서 군사감시반을 설치할 것을 결의하였다.

1950년 봄이 되었을 때 북한군이 곧 남침을 감행해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으며, 북한군이 38선 일대로 집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정보자료가 계속 입수되었다. 한국 정부에서도 '북한의 전쟁준비는 완료되었고 남침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취지의 발표가 반복되었다. 이것이 소위 '3월 위기설'이다. 그러나 3월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1950년 4월 10일 채병덕 장군이 육군총참모장에 취임한 후로는 5·6월의 위기설이 퍼졌다. 당시 북한군의 동향과 국내 정세를 고려한 채총장은 세 번에 걸쳐 경계강화조치를 취하였다.

우선 북한 인민군과 공비들이 5·1 노동절을 전후하여 폭동 및 남침을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각 사단으로 하여금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고 관할지역 내의 순찰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경계강화조치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대기태세로, 29일부터 5월 2일까지는 경계태세, 그리고 5월 3일까지는 대기태세로서 총 7일간의 대기 또는 경계태세를 유지하였다.

다음으로 5월 8일에는 북한이 5·30선거의 혼란기를 틈타 침략과 폭동을 기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전후하여 각 부대로 하여금 비상소집 및 출동에 만전을 기하고 경계를 강

화하도록 하였다. 이때는 5월 9일부터 27일까지 대기태세를, 그후로 6월 2일까지는 경계태세를 유지하여 총 25일간 경계 및 대기태세를 유지하였다.

그 다음은 북한의 남북한 선거제의, 6·10 요인 교환 제의 등 강화되는 평화공세가 남침흥계를 호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6월 11일부터 군에 비상경계령을 하달하였다.

이 시점을 전후한 6월 8일에 미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은 위기설을 확인하려고 하는 기자단의 질문에 대하여 “한국군은 세계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만일 북한군이 침공해 온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예³³⁾와 같이 이를 격퇴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언명하였다.

그리고 6월 12일에는 한국의 성명에 자극을 받은 유엔 한국위원단이 미군사고문단에게 “나돌고 있는 소문의 진상은 어떠한 것인가?”하고 질문을 하자, 그 대답은 “공격을 받을 현실적인 정조는 없다. 만일 침략이 있더라도 한국군은 이것을 격퇴할 수가 있다”고 답변했다.

비상경계 조치가 진행되고 있던 기간 중에 서울에 온 미국 무부장관 고문인 덜레스(John F. Dulles)가 6월 18일에 38선을 시찰하고 그 이튿날에는 국회에서 “미국은 한국이 어떤 외부에서의 침략을 받을 때는 물심양면으로 원조하겠다”는 요지의 연설을 하였다. 또한 그는 22일, 동경에서 맥아더 원수와 회담한 후 “극동 정세에 관해서는 낙관하고 있다”고 하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리고 또 6월 23일 미국 의회 외교위원회에

출두한 중앙정보국장 허랭켓터 제독은 “정보국이 알고 있는 한국의 현 상태는 평온하며 앞으로도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라고 증언했다.

결국 이 세 번째 비상경계령이 발동된 기간에도 아무런 정후를 포착하지 못하자 6월 23일 자정을 기하여 이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였다. 총 13일간의 비상경계태세를 지속한 후의 일이다.

첫 번째 비상경계령이 해제된 후 6일만에 두 번째 비상경계령을 내렸고, 두 번째 비상경계태세가 끝난 후 9일 만에 세 번째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7일간의 비상경계와 6일간의 해제, 25일간의 비상경계태세와 8일간의 해제, 다시 13일간의 비상경계태세기간이 반복된 것이다.

그리하여 채 총장이 부임한 이후로 4월 하순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2개월 동안에 45일간의 경계강화 조치가 취해진 셈이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왜 6월 23일인가?

세 번째 비상경계령이 해제된 다음날(24일)이 마침 토요일이어서 부대는 외출·외박을 실시하고 또 농번기에 즈음한 휴가도 실시하였다. 후방부대 뿐만 아니라 전방사단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부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외출·외박 및 휴가 병력이 평균적으로 전체 병력의 30%에 이르렀다고 한다.³⁴⁾

그 후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세 번째 비상경계령이 발령된 기간은 북한 인민군이 남침을 위하여 부대를 공격 대기지점으로 이동한 기간이었고, 이 비상경계령이 해제된 23일은 공격 준비의 마지막 단계로서 그들이 공격대기지점으로 이동을 완료한 때였다. 그러므로 결과만을 따지자면 국군이 전군에 전투대기령을 내려야 할 시기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왜 6월 23일인가? 왜 전쟁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하여 부대를 전투태세와는 정반대의 상태에 있게 했는가? 더구나 위기설이 퍼져 있었고 실제로 위기가 감지되고 있던 시기가 아닌가?

바로 이런 점 때문에 6월 23일 자정의 비상경계령 해제 조치가 집중적으로 의심과 비난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6월 23일 24시는 24일 0시이다. 이 날은 토요일이고 다음날인 25일은 일요일이 된다. 채총장은 육군장병들에게 주말의 휴가를 마음껏 즐기도록 전심을 쓴 것이다.

비상경계령이 오랜만에 해제되었으므로 장병들은 6월 24일 오후부터 외출, 외박 등 느긋한 휴식에 들어갔다. 그리고 서울의 변화가에는 주간행사에 참가했던 제1 및 제7사단 장병들까지 끼여들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장병들이 주말을 즐기고 있었다. 또한 확증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단에서는 “내일은 좋은 날이니까 규정 외의 외출·외박을 허가해도 좋다”는 상급부대의 전문에 따라서 많은 장병들을 외출시켰다고 한다.

24일에 참모들로부터 전쟁 발발을 예상하는 정보보고를 받았을 때에도 채총장은 다시 비상경계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미 비상해제 명령이 하달되었고 예하부대의 장병들은 농번기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갔을 것이다. 다시 내리는 비상경계령이 올바르다면 문제가 없지만, 만일 그릇된다면 장병들의 불만은 굉장할 것이다. 4월 이래로 세 번에 걸쳐 실시된 비상경계령도 결국은 아무일 없이 끝나고 말았던 것이 아니냐.

이 문제에 관해서 채병덕 총장이 직접 해명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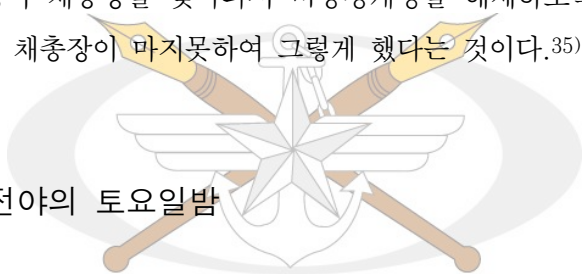
우연의 일치라면 이렇게 설명될 수는 있을 것이다. 비상경계태세가 지속된 기간이 45일이다. 또 바로 직전에 끝난 비상경계태세는 25일간이나 지속되었다. 아무리 군대라고 해도 긴장상태를 계속 지속시킬 수는 없는 법. 긴장과 이완은 번갈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 비상경계태세를 해제한 것인데 그것이 전쟁과 맞물려 버린 것이다.

이런 해석은 군대의 일반적인 성격을 보편화해서 이 문제에 적용·설명한 것이다. 만일 이 해석대로라면, 6월 23일 자정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한 것은 정말 ‘불행한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말마저도 해주는 사람이 없다. 기록도 없다. 확실한 열쇠를 쥐고 있었을 인물은 채병덕 총장과 김백일 참모부장인데, 두 사람 모두 전쟁 중에 고인이 되고 말았다. 장

창국 작전교육국장과 신성모 국방부장관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그 어느 사람의 입에서나 기록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미스터리가 된 것이다.

다만 그 시점을 전후하여 정보계통에 종사하였던 하리마오 씨와 같은 사람은 미군측의 요구에 의해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38선도 6·25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에서 당시 미군사고문단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참모장 헨리 대령이 채총장을 찾아와서 비상경계령을 해제하도록 재촉하였고, 채총장이 마지못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³⁵⁾



6. 폭풍전야의 토요일밤

장교구락부 파티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날 일요일은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휴식시간이다. 그런데 전쟁에서 기습을 달성하려는 측은 이런 휴식시간을 노리곤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과 태평양전쟁의 전단을 열었던 일본군의 진주만 공습이 일요일에 이루어졌다. 또한 6·25전쟁도 일요일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완전한 기습은 공격측의 철저한 기도비닉과 방어측의 경계상의 허점이 결부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6·25전쟁은 거의 완전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생생한 역사적 전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번 일요일의 비극이 연출된 원인은 무엇인가?

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국군에 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육군본부에 일찍 나타난 사람은 채병덕 총장, 이치엽 대령, 장도영 대령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모들이 오전 10시경에, 그리고 늦은 사람은 오후 2시경에야 출근하였다. 통신과 교통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육본 간부들의 출동 지연 이유는 일반적으로 전날 밤에 있었던 파티의 영향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날 밤의 장교구락부 파티 때문에 육군의 고급장교들의 대부분이 몸과 마음이 해이해진 상태에서 전쟁을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습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놓치고 말았다는 것이다. 육군총참모장 이하 중요간부들이 술에 취해 있고 전군의 경계상황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운명의 날 새벽을 맞이한 것이다.

그런데 왜 하필 북한군의 남침 공격이 있기 하루 전인 24일 밤에 파티가 열렸는가? 이것도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 당시 채병덕 총장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24일은, 혹시 (전쟁과 관련된) 계획적인 택일이 아니었는가?

먼저 그날의 진행상황부터 알아보자.

6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 참모학교 건물을 육군회관 장교 구락부로 개수하고, 그 준공을 축하하는 연회가 시작되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장교구락부의 식당에는 채병덕 총참모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단장들, 그리고 육본의 참모 및 고급장교들 약 50명과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부인이나 애인들과 함께 참석하였다.

장기간의 비상경계가 해제되었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매우 자유스러웠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런 정황을 어떤 자료에는 ‘파티에 어울려 술과 춤과 너털웃음으로 신바람나는 저녁시간을 즐겼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어떤 이는 이날 밤 파티의 성격을 전입 환영 및 진급 축하라고 증언하는 사람도 있다.³⁶⁾

당시 정훈국장이었던 이선근 대령은 이 모임을 댄스파티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 전날에 우리 육군은 장교식당을 낙성시켰고, 그날 밤엔 낙성축하 댄스파티가 열렸다. 결코 자랑할 일은 아니었으나 8.15해방 이후 미군의 진주 아래에서 댄스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러한 사회풍조 속에 우리 국군이 창설되기 시작한 만큼 무리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뿐만 아니라 다음날 첫새벽에 어떠한 중대 위협이 발생할 줄도 전연 모르고 육군의 고급장교들이 대다수 모여들어 댄스파티를 즐기고 자정이 넘어서 산회하여 제각기 잠자리에 들게 됐지요. 더구나 다음날이 바로 일요일인만큼 누구나 늦잠을 자도 좋다고 생각하

고 안심하고 단잠에 빠질 수 있었다.³⁷⁾

8·15해방 이후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댄스가 급속도로 퍼졌으며, 장교사회에서는 댄스파티가 인기를 끌었다. 그 영향으로 댄스는 민간에도 유행하여 서울 중심가인 명동에는 카바레가 번성할 정도였다.

이 모임이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었는지 결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24일의 파티를 강경히 옹호하는 사람도 있다.

나는 그날 밤 파티가 하나도 나쁘다고 생각지 않는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면서도 파티는 하지 않는가? 특히 채병덕 총참모장의 전임자인 신태영 장군이 미군 고문단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채총장은 미고문과의 관계 조정에 몹시 신경을 썼다. 그런 기회에 미군과 어울린다는 것이 뭐가 나쁜가?³⁸⁾

당시 중군기자였던 최기덕씨의 말이다. 그의 말대로 파티를 한 것 자체는 굳이 나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파티가 열린 날짜와 그것이 미친 영향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우연의 일치라거나, 또는 아무리 좋게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것 때문에 한국 군대의 지휘권을 쥐고 있는 육본 참모부가 일요일 아침에 완전히 허를 찔린 것이 틀림없으므로 의심은 풀리지 않고, 비난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의문을 풀어줄 만한 자료나 증언은 없는 실정이다. 이 일에 대해서는 추측만 있고 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추측이나 개인의 의견으로서 참고가 될 만한 것 중의 하나로 『38선도 6·25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에서 하리 마오씨가 주장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³⁹⁾

남침 하루 전인 24일은 토요일이다. 그 전날인 23일 낮, 미군사고문단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참모장 헨리 대령이 채병덕 총장을 방문하였다. 한국의 육군 참모학교 구내에 꾸민 장교구락부 개관을 축하하는 성대한 각테일 파티를 24일 밤에 여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채총장은 “의도는 좋지만 지금 전선이 비상경계체제 하에 들어가 있어서 곤란하다”고 사양의 뜻을 비쳤다. 그러나 헨리 대령은 “채총장님,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비상경계령을 내렸지만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북한이 감히 우리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도발할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말고 오랜만에 긴장 좀 풀고 한 잔 합시다. 비상경계령이야 해제하면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서 해제하세요”라고 채총장을 설득하였다. 결국 채총장은 헨리 대령의 재촉을 마지못해 받아들여 6월 24일 0시(23일 24시)를 기해 비상경계령을 해제했다.

혹자는 왜 채총장이 독자적인 판단없이 미국의 의견을 고스란히 받아들였는지 의문을 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채총장의 입장에서는 미 고문단 측의 호의를 거부하기가 난처했을 것

이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군은 그들의 사인이 없으면 무기 공급은 물론 기름 한 방울, 한 발의 탄환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24일 밤에 개관 축하회가 성대하게 열렸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리마오씨의 주장은 채병덕 총장의 입장과 장교구락부 개관 파티를 열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될 듯 싶다. 그렇지만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미 군사고문단 측에서 왜 하필 24일 밤을 파티일자로 선정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2차 파티 문제

장교구락부 개관 기념파티가 비판받는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그것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는 데에 있다. 술을 마시고 댄스를 했다고 해도, 저녁 식사 정도의 시간 또는 그보다 약간 늦은 정도의 시간에 끝났다면 별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 파티가 2차 또는 3차로 이어지면서 귀가 시간이 늦어져서 다음날 비상소집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강문봉씨의 회고록을 보면 그날의 사정을 보다 잘 알 수가 있다.

…… 아뭇튼 이날의 장교클럽 개관파티에는 채총장을 비롯, 당시 제1사단장이던 백선엽 대령, 제7사단장이던 유재홍 준장 등과 미 군사고문단 다수, 그리고 많은 일선지휘관들이 밤의 열기 속에 오래 지속되었던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간 계속적으로 쌓여온 긴장의 나날들, 그리고 토요일 밤이라는 홀가분한 마음까지도 가세돼 있었으므로 이날의 파티는 언제 끝날 줄 모르게 계속 무르익고 있었다. 화려하게 개막된 이날의 파티는 대략 밤 10시경에야 한 고비를 넘겼다.

강문봉씨에 의하면 오후 7시에 시작된 파티는 오후 10시경에 일단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파티 종료시간에 대해서는 증언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거나 분명치 않은 데가 있다. 장도영 대령은 ‘연회장에서 빠져나와 숙소로 돌아온 것은 밤 12시가 넘어서였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파티 종료시간을 밤 11시라고 하기도 한다.⁴⁰⁾

대체로 1차 파티가 끝난 시점은 강문봉씨의 증언대로 밤 10시경이었던 것 같다. 그런데 파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강문봉씨의 증언을 다시 들어보자.

그 중 일부는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장교인지라 이같은 1차 기분으로는 만족감을 얻지 못하고 2차로 불리울 새로운 파티에 매달렸다. 이러한 일부 장교들의 『심야파티』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러들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들뜬 분위기의

파티를 그들은 흥겹게 여기고 있었다. 그게 바로 장교클럽을 성대하게 개최토록 한 채총장의 의도이기도 했던 것이다.

양국진(당시 대령, 육본 군수국장)의 증언에 의하면,

나는 파티에 참석했다. 우리네 장교들이 50여 명쯤 왔던 것 같다. 육본 고급장교로서 그런 회합에 빠질 수는 없었다. 첫 파티는 24일 오후 10시쯤 끝났는데 소위 심야파티는 잘 모르겠다. 아마 그후에 2차가 있었는지 모른다.⁴¹⁾

그런데 문제가 된 2차 파티, 소위 ‘심야파티’가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 다만 심야파티에 참석한 대상 인물이 누구였으며, 그 장소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심야파티는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었으며 언제 끝났는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2차 파티의 장소를 영등포의 미군클럽이라고도 한다. 당시 그곳이 서울에서 가장 멋진 유흥장소의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⁴²⁾ 또 누군가가 명동에서 2차를 하자는 제의를 하자 한국군 장교와 미 군사고문들의 상당수가 명동으로 향했다고도 한다.⁴³⁾

2차 파티의 장소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이야기 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때는 한 곳으로 몰려가지 않고 몇 군데로 나뉘어서 간 때문이 아닐까 짐작된다.

그러면 2차 파티에 참석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 중에는 채병덕 총장이 포함되어 있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와 증언에 따라서 참석 여부가 다르다.

채병덕 총참모장과 제1사단의 해밀턴 중위가 명동의 2차 파티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⁴⁴⁾ 채총장을 수행했던 이상국 본부사령은 그가 2차 파티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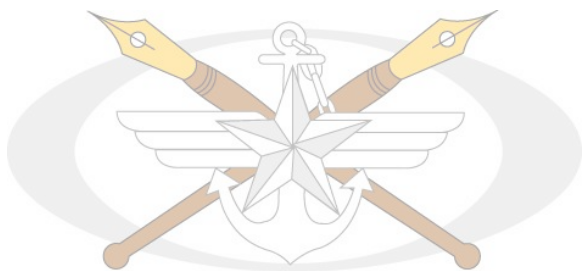
이에 따라 어떤 자료에는 채총장이 새벽 2시에 귀가했다고 하는가 하면, 채총장의 부인 백경화씨는 그가 밤 12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증언하고 있다.

백경화씨는 채총장이 평소에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고,⁴⁵⁾ 또 큰 체구에 비해서 주량이 적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시기에는 조금만 술을 마셔도 빨리 취하고 토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채총장에 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도 그가 냉면을 무척 좋아했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했지만 술을 좋아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채장군과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손희선씨는 채장군이 특별부대장으로 있을 때 장병들과 술좌석 회식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그 날도 그는 술을 많이 마시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2, 3차 파티에 갔을 가능성도 희박해진다.

왜 (전쟁 발발 하루 전인) 24일에 장교구락부 개관파티를 열어야만 했는지, 2차 파티에는 누가 갔으며, 그 자신도 참석

했는지에 대해서는 채총장이 가장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채총장의 증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도 그는 아무런 말이 없다. 또 사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유감스럽게도 심야파티에 참석했다는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제 2 장 전쟁 발발과 작전지도

1. 1950년 6월 25일

전군 비상령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경, 38도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의 침공이 시작되었을 때 이 전황은 즉시 육군본부 상황실로 보고되었다.

당시 육군본부 상황실은 지금의 용산우체국에서 동쪽으로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건물의 2층에 자리잡고 있었다. 상당히 큰 건물인 그곳에는 1층에 정보국, 2층에 작전교육국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동쪽 옆 건물에 육군총참모장실이 있었고, 남쪽 건물에는 인사국과 군수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황실에서는 전날 저녁부터 당직상황장교로 철야근무 중이던 작전교육국 소속 조병운 대위와 정보국의 김종필 중위가 육군본부 예하부대들로부터 전화를 통해 상황보고를 받고 있었다.

전방부대로부터 보고되는 상황은 거의 전 전선에서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북한군의 활동이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총참모장에게 전군에 대한 비상발령을 상신하도록 주변사령 신상철 대령에게 건의하였다. 그리고 김중위는 정보국장 및 작전교육국장을 비롯한 참모 요원들에게 전화가 통하는 대로 이런 위급한 상황을 알렸다.

북한군의 남침을 보고하는 전화는 상황실로부터 총장 숙소에서 근무하는 남상사와 부인 백경화씨를 거쳐 채총장에게 연결되었다.⁴⁶⁾ 그는 전날(6월 24일) 밤에 있었던 육군 장교구락부 개관기념 파티에 참석했다가 늦은 시간에 용산구 갈월동 자택으로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다. 축하연의 주역이었으므로 상당히 취해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채총장의 귀가시간과 숙취 정도는 다음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거리가 되곤 하였다. 그의 귀가 시간은 기록된 자료와 증언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다음날(25일) 새벽 2시경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제2부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4일 자정 이전이라는 주장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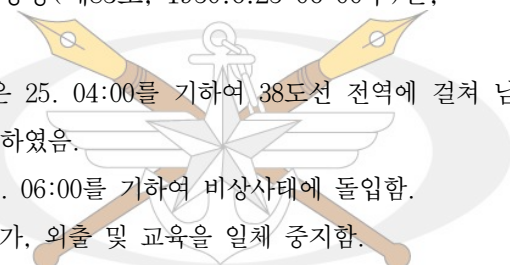
채총장이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백경화씨의 말에 의하면, 그가 평소에 술을 좋아하지 않고 체질적으로도 맞지 않아서 많이 마시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육군본부 상황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란 채총장은 상

황장교 김중위를 자택으로 불러서 자세한 상황을 청취하고, “즉시 전 군에 비상을 발령하고 각 국장을 비상소집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이때가 오전 5시 경.

김중위가 총참모장으로부터 비상명령을 받고 황급히 육군본부로 돌아온 시각은 5시 30분경이었다. 작전명령권을 가진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나 작전교육국장 장창국 대령이 아직도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전군에 비상을 알리는 최초의 작전명령은 이치업 대령이 발령하였다.

이때 하달된 명령(제83호, 1950.6.25 06:00부)은,

- 
- (1) 북한군은 25. 04:00를 기하여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침을 자행하였음.
 - (2) 군은 25. 06:00를 기하여 비상사태에 돌입함.
 - (3) 군은 휴가, 외출 및 교육을 일체 중지함.
 - (가) 각 부대장은 휴가, 외박, 외출중인 장병을 긴급소집하여 출동태세를 갖추라.
 - (나) 각 학교장은 동시부로 피교육자(장교)를 원대복귀 조치하라.

이렇게 해서 오전 6시부터 7시 사이에 전군에 비상령이 하달되었고, 동시에 육군본부를 비롯한 각 부대 장병들의 비상소집이 시작되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전군의 장병 소집을 위하여 전화, 전령, 방송 등 각종 수단을 동원하였으며, 국방부 제2국(정훈국)에서도 서울 시내에 방송을 실시하였다.

이때 스피커를 단 지프차들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국군 장병에게 알립니다. 국군 장병에게 알립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속히 원대로 복귀하십시오. 국군 장병에게 알립니다. 장병 여러분들은 속히 원대로 복귀하십시오 …….

이렇게 해서 장병들의 원대복귀를 독촉하는 요란한 확성기 소리는 종일토록 길거리와 각종 집회장에 울려 퍼졌다.

채총장의 긴급조치

김중령을 보낸 후 채총장은 신성모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신호가 계속해서 울리는데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채총장은 가회동에 살고 있는 비서실장 신동우 중령 집에 전화를 걸어 장관의 위치를 물었다. 신중령은,

“장관님은 숙소에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장관님은 영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일요일에는 아무도 만나시지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했다. 개인이 아닌 공인, 더구나 총리 서리겸 국방부장관이 일요일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랬다.

채총장은 신동우 중령을 자택으로 불렀다.

“그렇다면 귀관이 즉시 내 집으로 오라.”

신중령을 호출한 채총장은 마침 그를 찾아온 전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과 함께 셋이서 지프차로 국방장관 공관인 마포장으로 달려갔다. 신장관은 가운 차림으로 응접실에서 채총장을 맞이하였다.

이 장면에 대하여 신동우 중령은,

장관은 응접실 탁자 위에 지도를 펴놓고 채총장으로부터 전방에서 일어난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이때 그의 표정은 놀라고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였는데, 북한군이 일요일 새벽에 기습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라고 회고하였다.

채총장은 상황보고를 한 후 장관으로부터 비상동원령 선포 재가를 받았다. 이 때가 오전 7시 경이었다. 채총장으로서 비상 명령을 내리고 상황보고를 한 뒤 비상동원령 선포의 재가를 받는 등, 급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절차는 밝은 셈이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육군본부로 직행하였으므로 육본에 도착한 시간은 7시가 훨씬 지나서였을 것이다.

이 무렵 상황실은 전선 각 부대로부터의 긴급보고와 증원 요청의 수신, 그리고 비상령의 발신으로 혼잡을 빚고 있었다.

그는 곧 국방부 정훈국장 이선근 대령(육본 정훈감 겸무)을 육군본부로 불러 “모든 방법을 다하여 신속히 장병들을 소집하라”는 요지의 구두명령을 하달하였다.

다음은 당시 정훈국에서 내보낸 담화문의 내용이다.

25일 조소 5시부터 8시 사이에 38선 전역에 걸쳐 이북 괴뢰 집단은 대거하여 불법남침하고 있다. 즉 웅진 전면으로부터 개성, 장단, 의정부, 동두천, 춘천, 강릉 등 각지 전면의 괴뢰집단은 …… 각계각층에서 군의 의도에 적극 협력하기를 부탁한다.

채총장은 얼마 후에 출근한 김백일 참모부장에게는 후방 3개 사단의 출동과 수도경비사령부 예하 제3, 제18 양개 연대 및 기갑연대의 출동대기를 명령하였다. 이때가 8시 경으로서 중앙방송(KBS)이 북한의 남침을 보도한 직후였다.

그때까지 전 전선으로부터 육군본부 상황실로 들어와 있는 보고는 단편적이었지만 북한군의 본격적인 침공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오전 8시 30분경 의정부 정면의 제7사단으로부터 들어온 긴급전문이었다. 그 전문의 요지는, “사단 정면의 북한군이 맹렬한 포격을 실시하며 총공격을 개시한 것 같다. 적은 이미 주진지에 돌입했다. 긴급 증원을 바란다. 다른 정면도 같은 상황인 것 같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이날 9시 30분경까지 육군본부가 파악한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 웅진의 제17연대는 괴멸상태에 빠진 것 같으며 상황이 불명확하고, 미 고문관은 오전 9시에 탈출을 위한 수송수단을 요청해 왔다.

- 개성·문산지역의 제1사단은 전차를 동반한 우세한 적과 임진강 남쪽편의 기존진지에서 격전중이며, 개성의 상황은 불명확하다.
- 의정부지역의 제7사단에서는 제1선 연대가 돌파를 당했지만, 제2선 연대가 동두천과 포천 북방에서 전차를 동반한 적과 교전중이며 간신히 적의 남하를 저지하고 있다.
- 춘천지역의 제6사단은 춘천 북방의 진지를 고수하고 있으며 적에게 대타격을 가하고 있다. 원주의 예비대를 증원중에 있다.
- 강릉·동해안지역의 제8사단은 제10연대로 하여금 38선 남방의 주진지를 확보시키고, 공비토벌 중이던 삼척의 제21연대를 집결시키고 있다. 적은 정면공격과 동시에 동해안에 게릴라부대를 상륙시켜 제8사단의 퇴로를 차단하였다.

이러한 전방의 상황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육군본부는 혼란의 와중에 휘말려 들어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불명확하고도 불리한 전황보고에 접한 육군본부의 참모들은 흥분과 혼란에 싸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판단하지 못한 채 분명한 순서나 절차없이 명령을 내렸다.

전면침공 판단의 지연

그렇긴 해도 처음부터 이 사태가 북한군의 전면남침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드물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상황이 그동안 빈번했던 38도선에서의 국지적인 분쟁이거나 다소 규모가 큰 남북한 군대의 충돌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 시절 38도선에서는 양측 군대 사이에 충돌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채총장도 낙관적인 태도로서 ‘전면적인 침공’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 자신도 38도선에서 일어난 충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아니면, 전면 남침이라고 느끼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라 그 자체를 믿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일단 후방사단의 출동과 이로 인한 차후조치를 마친 채총장은 미 고문단의 하우스만(James W. Hausman) 대위를 동반하고 곧 수색에 있는 제1사단 사령부를 방문하고, 이 사단의 전방상황과 예비대인 제11연대의 출동상황을 살폈다.⁴⁷⁾ 그 길로 서둘러 의정부의 제7사단을 방문하였다. 그가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10경이었다.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적의 전차에 의해 아군의 경계부대가 순식간에 돌파되었습니다. 국군의 57밀리 대전차포와 2.36인치 로켓트포로는 적의 전차를 격파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1연대가 동두천 방면에서, 제9연대가 포천 방면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으나, 몇 시간의 전투에서 대부분이 소모되어 연대의 실병력은 1개 대대 규모에 지나지 않습니다. 더욱이 투입할 예비대가 없어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라는 급박한 사태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를 들은 채총장은 “육탄공격으로 적의 전차를 저지하라. 즉각 증원병력을 보내겠다”라고 말한 후 서울로 돌아왔다. 그 당시 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무기로도 파괴할 수 없는 적 전차를 육탄으로 저지한다는 것은 무모한 일임이 분명했으나 달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그가 이 전선시찰에서 무엇을 느꼈고 어떻게 대처할 것을 결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렇지만 당시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제7사단 사령부를 방문하고 나서야 채총장이 비로소 적의 주공이 의정부를 지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또 이 상황이 북한군의 ‘전면남침’임을 실감하였던 것 같다.

그후 그의 조치와 행동이 전과 달라진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정보국 등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던 채총장도 상황이 이쯤 되어서야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채총장의 작전지도 방침

전쟁 발발 당일 육군본부의 조치경과를 살펴보면, 25일의 상황을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분쟁이 아니라 “북한군의 전면침공이거나 전쟁”이라고 판단하게 된 시점은 이날 오전 10시 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판단은 채총장이 의정부의 제7사

단을 찾아가서 유재홍 사단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청취하고 돌아온 시간과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새벽 4시경부터 시작된 사태를 6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겨우 본격적인 전쟁이라고 확인하게 된 셈이다.

그때까지 육군본부는 비상경계령 선포 외에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육군본부와 각 사단의 연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과, 전쟁지도를 담당해야 할 주체가 사태의 진상을 그만큼 늦게 파악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전면침공’이라는 상황에 대응하는 국군 수뇌부의 조치가 그만큼 늦게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의정부에서 육군본부로 돌아온 후 채총장은 참모학교 및 보병학교 고급반 등 각 교육기관에서 피교육중인 학생들의 원대복귀를 명령하였다. 또 작명을 하달하여 즉시 제7사단에 대한 증원을 강구하는 동시에 제일 먼저 서울에 있던 제3연대를 의정부로 급파했다. 그리고 육군본부 직할대로 전투부대를 편성토록 지시하였으며, 서울 지역에 있는 모든 부대를 전선에 투입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채총장은 “적의 지상군은 4~5만명이며 전차 49대를 동반하고 있다. 군은 현재 이적을 격퇴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북한군의 침공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위급한 상황이 아님을 시사하는 표현이다.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엿보이



6·25전쟁 초기 북한 인민군의 주공부대와 공방전이 전개되었던 의정부 회랑

는 발표였다. 어떻든 북한군의 실제 규모는 채총장의 설명 내용보다 훨씬 컸으며, 특히 전차의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이 시기에 육군본부에서는 문산의 제1사단 정면에 임시연대를 급파하여 증원하였으며, 웅진반도에 있는 제17연대의 전황이 불리하게 전개되어 위급한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방어계획에 따라 해상철수를 실시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통신이 두절되어 제6 및 제8사단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전반적인 전선의 전황 파악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실정이었으므로, 육군본부는 작전을 지도함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임기응변에 집착하여, 우선 적을 격

퇴하는 조치라고 하면 그 즉시로 시행에 옮기곤 하였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인 정오 무렵에 북한군 YAK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나서 김포공항과 용산 부근에 기총사격을 가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도 긴박감에 싸여 있었다. 간혹 전달되는 전선의 상황은 예외없이 위급함을 알리고 있어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것들 뿐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다 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의만을 거듭할 따름이었다.

개전 첫날에 사태를 판단하고 결심을 내려야 할 최고책임자는 이대통령이었다. 그렇지만 그는 군사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을 군사부문에서 보좌해야 할 신성모 국방부장관도 채병덕에게 상황 보고만을 독촉할 뿐 전략적인 대책이나 방안의 지시는 하지 못했다.

전 군에 비상령이 발령되고 육군본부를 비롯한 각 부대 장병들의 비상소집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육군본부와 예하 부대의 사정은 위기에 대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육군본부와 국방부의 요원들이 대부분 출근한 시간은 오전 10시경, 전원이 출근한 시간은 오후 2시경이나 되어서였다.

38도선에서는 ‘폭풍’처럼 북한군의 공격이 전개되고 있었던 데 반해서, 군수뇌부의 반응은 이처럼 느리고도 분명치 않았다. 특히 긴급상황에 대처해야 할 육군본부 요원들이 신속히 출근하지 못한 원인은 통신 및 교통수단의 어려움에도 있었지

만, 전날 밤에 있었던 육군 장교구락부 파티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장병들의 소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틀전인 6월 23일 밤 12시부로 비상경계령이 해제되었고, 그 다음날인 24일은 마침 토요일인데다 농번기휴가와 외출·외박으로 부대에 남아 있는 병력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영내에 있거나 조기에 귀대하는 장병들이 우선 출동하였고, 나중에 귀대하는 장병들은 임시중대 및 대대에 편성되어 축차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렇게 해서 부대원의 80~90% 정도가 소집된 시간은 이날 오후 2시가 넘었다.

이날 25일 오후 2시, 채총장은 대통령이 소집한 긴급국무회의에 출석하였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신국방부장관은 “적이 남침을 개시하였으나 아군은 후방 3개 사단을 투입, 반격을 감행하여 의정부를 탈환하고 적을 그 북쪽으로 격퇴하였으니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군의 고충은 명령이 없어서 38도선을 넘어 공격작전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공세를 취한다면 1주일 이내에 평양을 탈취할 자신이 있다”라고 하였다.

채총장도 당면한 전황을 설명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문교부장관 백락준과 경무대 비서 민복기씨(후에 대법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그의 설명 요지는 ‘38도선 전역에 걸쳐 4~5만 명의 북한군이 94대의 전차를 앞세우고 불법남침을 개시하였다. 적의 침공은 전면남침이 아니라 공비두목 이주하와 김삼

룡을 탈취하기 위한 책략으로 보이며, 곧 남부에 있는 3개 사단을 동원하여 적을 격퇴할 것'이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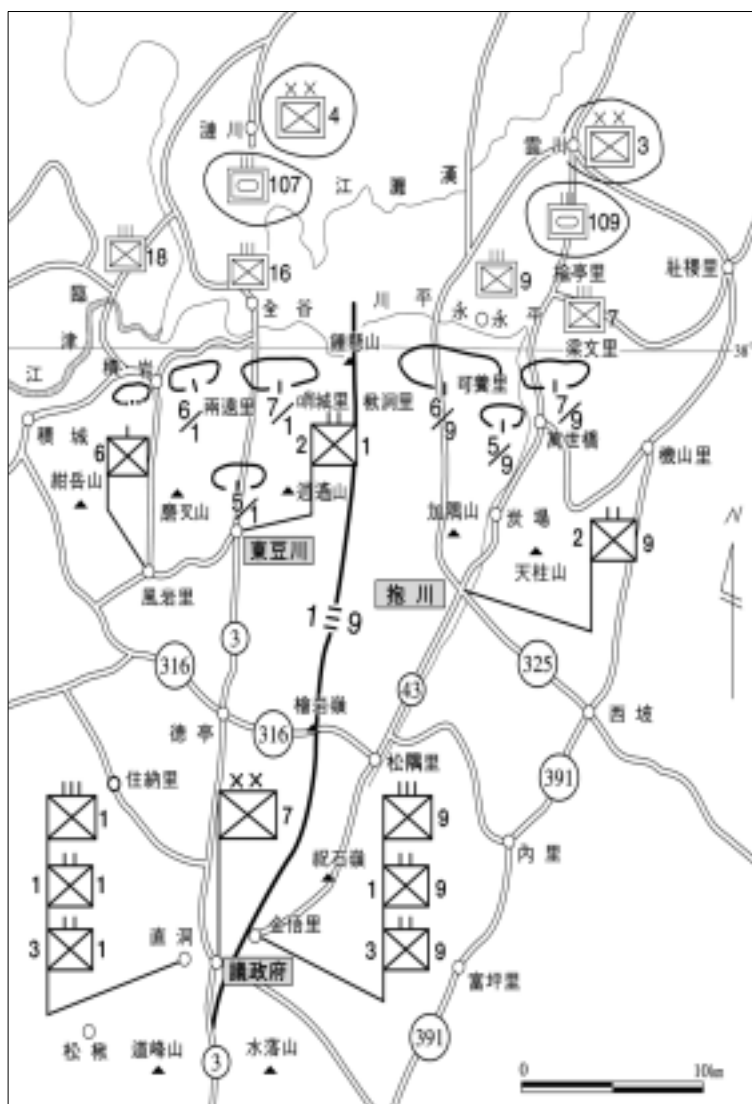
이때 이대통령의 표정은 심각했지만 당황하는 것같이 보이는 않았다고 한다. 이 당시 초긴장상태에 있는 각의원들은 이러한 낙관적인 증언으로 말미암아 다소 안도의 빛이 있었으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논의를 거듭한 끝에 비상시국에 관한 긴급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의 발표를 바탕으로 당시 채총장의 생각을 정리해보면,

- 
- ① 적의 침공을 국지적인 것으로 본다.
 - ② 반격을 하겠다.
 - ③ 남부지방의 3개 사단이 26일 중에 집중을 끝낼 것으로 믿는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이때 채총장은 북한군의 전투력을 과소 평가한 반면, 국군의 집중속도에 대해서는 과도히 기대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그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판단했거나, 아니면 사정을 잘못 파악한 터에 허세를 부리고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는, 최악의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줄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도 생각된다.



<요도 1> 개전 직전 동두천·포천지역 피아부대의 배치 상황

그렇지 않으면, 북한군의 침공을 ‘전면공격’이라고 생각하면 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국지공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계속 떨쳐버리지 못하고, 후방사단을 집중투입하면 능히 격퇴할 수 있으리라 믿었을 수도 있다.

국무회의에서 전황설명을 마친 채총장은 의정부 전선을 다시 방문하여 전세를 살폈다. 그는 여기서 반격작전을 펼칠 생각이었던 것 같으나, 아직 후방사단이 도착하지 않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채총장이 의정부 전황 시찰을 떠나기에 앞서 행한 후방사단의 출동명령은 적의 침공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예비부대를 신속히 전방으로 추진하여 반격작전을 시도하려는 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이들 후방부대가 북상하기도 전에 급속히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는 우선 동원 가능한 부대로 일선부대를 증원하여 적의 남침을 저지하려는 의도가 앞서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채총장은 25일 오후 4시에 또다시 작명을 하달하고 전선 가까이에서 전방사단을 신속히 증원하기 위하여 제1, 제6, 제7, 제8의 4개 사단에 기갑연대와 포병학교가 보유하는 장갑차와 대전차포를 즉시 출동시켜 각 부대를 지원하게 하였다.

이 사이에 유해준 중령이 지휘하는 임시연대를 문산에 급파하여 제1사단 정면의 적을 저지케 하였다. 또한 용진에 있던 제17연대를 철수시키기 위해 LST 3척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다음날인 26일 아침 백인엽 대령 이하 2개 대대 약 1,750명이

인천으로 철수할 수 있었다. 이 철수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하루의 전투에서 연대는 1개 대대에 해당되는 약 750명의 인원과 장비를 상실하였다.

이 시점에서 채병덕 총장의 작전지도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요컨대 서울 부근에 있는 전 부대들을 제일선에 배치된 제1사단과 제7사단에 나누어 투입하여 일단 적의 전진을 저지케 하고, 그 뒤 남부에서 올라오는 부대를 주축으로 하여 반격을 실시한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었다.

전선에 병력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출동은 일선에 가까운 거의 대부분의 부대에서 실시되었다. 휴가나 외출·외박을 나간 장병들이 복귀하기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므로, 부대내에 있거나 조기에 귀대하는 장병들을 우선 출동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귀대하는 장병들은 임시중대 및 임시대대에 편성되어 축차로 전선에 투입되었다.

후방부대의 집결·이동 지연

그런데 남부에 있던 부대들은 공비토벌을 위해 중대 또는 대대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휴가·외출·외박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병력이 단시간 내에 집결되지 못했다. 대기병력과 비상소집으로 집결한 일부 병력을 혼합 편성하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완전한 부대편성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또 구체적인 부대이동계획이 없어서 각 사단은 출동

준비가 된 대대와 연대를, 제각기 열차를 동원하거나 트럭을 징발하여 그때의 수송능력에 따라 축차적으로 서울로 이동시켰다.

이처럼 사단이 일시에 이동하지 못하고 기껏해야 대대 단위로 수송되었으므로, 지휘관이 예하 부대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이동한 부대들이 바로 전선에 투입되었으므로, 연대장이나 사단장의 입장에서는 예하부대가 사라지거나 일부분만 남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채병덕 총참모장은 전선시찰로 바쁘데다가 국방부 장관이나 국회 및 국무회의에 대한 보고 및 회의 등으로 동분서주하여 잠시도 자리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특히 통신의 불통으로 말미암아 유무선을 통한 작전지도가 곤란하게 되자, 그 자신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전황을 파악하려고 하였다. 특히 그는 의정부 정면에 지대한 관심을 두었다. 38도선에서 동두천과 의정부를 지나는 경원가도(京元街道)가 서울에 이르는 최단거리인데다 부대기동을 위한 양호한 접근로로서 북한군이 이곳으로 주공을 지향하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채총장이 빈번히 자리를 비웠으므로 총참모장으로서의 작전지도에는 많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육군본부의 각 참모부는 자연히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관장치 않으면 안되었고, 작전지지도 그의 주도로 처리되고 있었다.

김대령은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과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남쪽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부대들을 도착하는 즉시 전선에 투입시켰다. 전황이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는 때에 붕괴된 전선, 또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예상되는 정면에 대해서는 어떤 부대이든 신속히 투입하려는 생각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 발발 당일인 25일에 이루어진 육군본부의 병력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오전 10시경, 대전·대구·광주에 소재한 사단에게 서울 지역으로의 이동을 명령
- ② 수도경비사령부 예하의 제3연대와 제18연대를 제7사단에 배속
- ③ 용산에 주둔한 포병학교의 대전차 포병단을 제1, 제7사단에 각각 나누어 배속
- ④ 육사 및 보병학교의 교도대대로써 혼성연대를 편성하여 제1사단에 배속
- ⑤ 육사의 생도 제1기생과 제2기생으로 육사대대를 편성하여 포천-퇴계원 방면에 투입
- ⑥ 총참모장,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과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에게 “26일 새벽, 각각 포천가도와 동두천가도를 연하여 반격”할 것을 명령
- ⑦ 홍천으로부터 이동중인 수도경비사령부 제8연대에게 1개 대대로 가평을 확보케 하고 주력은 서울로 급진시키라고 명령
- ⑧ 기갑연대의 장갑차 27대를 전방 각 사단에 분산·배속

한편, 육군본부는 25일 오후 4시 40분 경에 작전명령을 하달하여 전전선의 전황을 예하부대에 알리고, 미처 조치하지 못한 이동부대의 전방집결지를 지시하였다. 이어서 얼마 후에 제7사단 정면에서 침공하는 적의 일부가 김화-만세교-포천가도를 따라 남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게 되자 가용병력을 검토 끝에 태릉에 위치한 육사생도대마저 일선에 사용키로 결정하고, 작명 제90호를 하달하여 사관학교 생도대에게 광능북쪽으로의 출동을 명령하였다.

동분서주하는 채총장

25일 밤부터 육본과 의정부 정면과의 유선통신이 완전히 두절되었다. 전화선 절단이 게릴라의 소행인지, 차량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피난민이 짐을 꾸리기 위해 그렇게 했는지 원인을 알 수 없었고, 또 연결시킬 방법도 없었다.

이 때문에 채총장은 이대통령과 신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황 보고를 요구받을 때마다 곧 의정부로 달려갔다. 시간에 쫓기고 있던 그는 작전을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재홍 사단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다음 되돌아오는 것이 상례처럼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실정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자동차에 무전기장치가 장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현지에서 청취한 보고나 눈으로 본 전황에 의해서만 필요한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었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이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어쩔 수 없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이 이러했다”고 말한다.

육군총참모장이 전선의 상황을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이러한 사정하에서 채총장은 분주하기 이를 데 없었다. 국군 전반의 전쟁지도, 의정부 정면의 시찰과 작전지도, 정부와의 연락과 조정, 국회에서의 답변 등의 업무가 채총장 한 사람에게 몰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채총장은 이런 문제들을 조직에 의해 풀어가려 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혼자서 처리하다시피 하였다. 그 결과 그는 불면과 과로로 판단력이 흐려지고 활동력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되자 전 작전교육국장이었던 강문봉 대령은

“국가존망의 때이다. 총장이 국부적인 전투에 매달려 있으면 전반적인 국면을 지도하는 기회를 놓칠 우려가 많다. 총장은 전 전국(戰局)의 지도에 전념하고 정부와의 연락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급박한 의정부 정면의 작전을 통일지휘하기 위하여 육본의 전방지휘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장이 언제나 그곳에 있을 수는 없으므로, 내가 총장 대신에 의정부 정면의 통제에 임하고 싶다.”

고 상신하였고, 채총장이 이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방지휘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그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육군본부로부터 출동명령을 받은 후방사단 중에서 제2사단이 서울에 도착한 시각은 25일 오후 6시경이었다. 사단이라고 하지만 사단지휘부와 1개 대대 뿐이었다. 사단장 이형근 준장이 도착보고를 하자 채총장은 곧 의정부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때 이장군은 ‘지형도 생소하고 야간인데다 병력의 축차사용은 용병상 위험하므로, 사단의 운용은 내일 새벽 사단주력이 도착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차제에 한강선에서 방어를 준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건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채총장은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대는 이날 밤늦게 제7사단 제9연대의 지휘소가 있는 금오리로 이동하였다. 그 시기에 제2사단의 나머지 부대들과 광주에 제5사단 및 대구의 제3사단의 잔여부대들도 서울을 향하여 이동 중에 있었다.

다만 전황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많은 부대가 투입되었지만 이러한 부대를 통합지휘할 지휘조직이 없었다. 결국 서울 북쪽에는 한국 제7, 제2, 제5, 수도, 제3사단 외에 사관생도, 보병학교 교도대 등이 투입되었고, 이러한 부대들은 육군본부의 직접지휘하에 전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통제된 반격이나 방어를 하기가 어려웠다. 상황이 이미 위급하게 된 상태에서 중간사령부를 편성한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육군본부에서 각 사단이나 부대들을 직접 지휘한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된 요인에는 전쟁지도부의 역할을 담당한 육군본부의 인적 구성과 그 자질에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음이 지적되고 있다. 참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병기출신 장교인데다 큰 규모의 부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없었고, 그나마 육군본부의 중추적 존재라고 할 수 있었던 정일권 준장은 미국에서 귀국중이었으며, 작전국장으로 다년간 근무해온 강문봉 대령은 전쟁 발발 직전에 그 직책에서 물러나 있었다.

김백일 참모부장이나 장창국 작전국장은 보직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 김대령은 전쟁 직전에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육군 본부에 부임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성격과 습관을 그대로 드러내어 국군 전반의 지도에 임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육군 전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면에서나, 조직을 운영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편이었다.

근본적으로 당시의 육군본부 요원들은 젊고 경험이 적은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더욱이 능력이 부족하고 자주적 업무수행 자세가 결여된 사람들도 있어서 혼란의 와중에 시의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런 인적 구성을 가진 육군본부가 240km의 전선에 걸친 십여 개의 지휘단위를 통할하여 적절히 운용하기란 힘든 일이었다. 군단사령부와 같은 중간제대가 없어서 육군본부가 직접 각 사단과 연대 등의 지휘 임무를 수행한 것은 육군본부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다. 의정부의 비극은 이러한 폐해가 가장 단

면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군본부 내에 지휘계통이 존재하지 않았다. 채총장이 김부장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나, 그렇다고 그에게 작전을 완전히 맡긴 것도 아니었다. 채총장은 빈번하게 일선으로 달려가고 국회와 수뇌회의 때문에 자리를 비울 때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김부장이 대리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가 채총장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는지 그 나름대로 움직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시점에 작전지도를 책임진 총참모장으로서 그가 어떠한 전략으로 적의 침략에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분명한 방침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즉 ‘반격하여 38도선을 회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선에서 결전할 것인가’ 등의 기본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채총장은 고민하였을 것이며, 그의 어깨가 무거워졌을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 서울은 포기할 수 없다

반격명령

6월 26일 새벽, 의정부 축선에 투입된 제7사단과 제2사단은 덕정과 금오리에서 각각 공격준비를 서둘렀다. 전날 밤 늦은 시간에 채총장이 명령한 반격을 실시하기 위해서였다.

전쟁 발발 첫날 동두천·포천지역에서 국군의 방어선이 와해되자 곧 의정부가 위태로워졌다. 의정부는 서울방어의 전략적 요충지이다. 의정부의 위기는 서울의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의정부는 그들의 군사적 요지인 철원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도로가 교차되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 38도선에서 의정부를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원가도는 약 50km가 못되는 거리이며, 의정부로부터 서울까지는 약 17km 밖에 되지 않는다. 북한군은 여기에 그들의 최정예부대인 제3, 제4사단과 전차 2개 연대를 투입했던 것이다.

25일 하루동안에 세 번째로 제7사단사령부를 방문한 채총장은 의정부지역에서 기사회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았다. 그래서 두 사단장에게 다음날 아침에 반격작전을 실시하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당시 채총장은 제1사단이 임진강변에서, 제6사단이 춘천 북쪽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정부만이 위기에 처해 있는 셈이고, 서울 방어의 성공여부는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의 이런 생각은 25일 오후 제7사단사령부를 향해 달리는 차 속에서 하우스만 대위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수도 서울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만일 서울이 함락된다면

한국 전토는 반란과 폭동 속에 휘말려 들지도 모른다. 웅진 반도, 개성, 의정부, 춘천, 강릉의 각 전선 가운데 지형이나 거리로 보아 가장 서울에 위협을 주는 곳은 의정부 방면이다. 이미 제2사단 이외에 제5사단, 제3사단에도 출동 명령을 내렸으나, 전체 병력의 집결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어쨌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병력으로 반격하여 적의 전진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들은 하우스만 대위는

반격을 하자면 국군의 병력을 정비하는 것이 필수조건인데, 한강 남쪽 기슭에 주저항선을 구축하고 적을 묶어 놓고 나서 반격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정도의 의견을 말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우스만 대위의 조언에 영향을 받지 않은 듯, 25일 밤 제7사단 사령부를 방문하여 전황을 청취한 채총장은 그 자리에서 제2사단장과 제7사단장에게,

“내일 새벽에 반격을 실시하라. 제7사단은 덕정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공격하고, 제2사단은 포천을 향하여 공격하여 38선을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채총장의 결심은 그가 직접 의정부방면의 전황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굳어졌으며, 참모들의 조언을 받거나 협의하지도 않은 채 독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다.

이형근 사단장과의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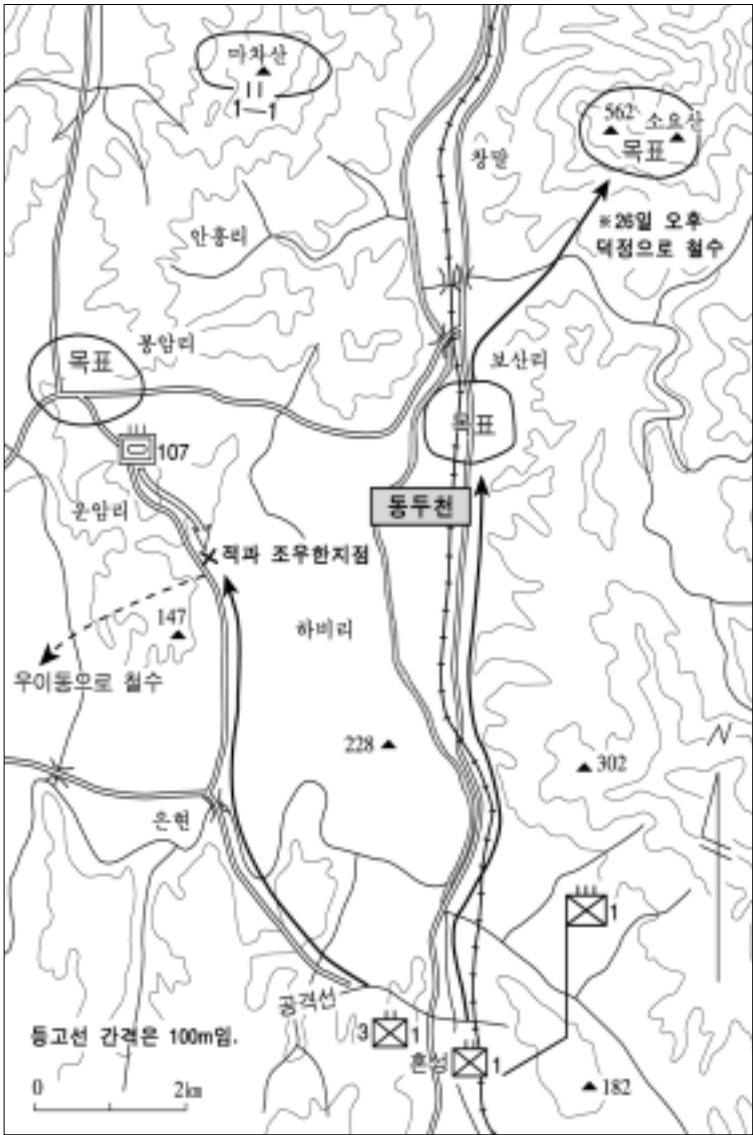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유재홍 준장은 별다른 이의를 표시하지 않았던데 반해, 이형근 준장은 즉석에서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그의 반대 이유는 제2사단의 부대 이동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형편에서 소규모 부대로써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었다. 명령대로 그 시간에 공격을 개시하려면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해야 하며, 그렇게 되면 강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때에도 그는 한강선에 주력을 집중하여 반격태세를 갖추자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채총장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다. 양 방향에서 육박해 오는 2개 사단 규모의 적군을 6개 대대로써 방어한다고 해도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므로 의정부를 확보하는 동시에 북상해 오는 사단의 집중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반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포천과 동두천의 탈환은 어려울는지 모른다. 그렇지만, 적의 진출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루만 의정부를 지탱한다면 속속 도착할 증원병력으로 38도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서 반격을 실시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채총장은 ‘서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요도 2> 제7사단 제1연대의 반격작전

위해서는 반격 이외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고, 이장군은 ‘기습을 받은 이상 격퇴하기는 곤란하다. 전술적으로 고려할 때 한강에서 결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축차전투투입’과 ‘통일된 전투투입’의 의견 대립이었다.

이장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총장은 명령의 시행을 강력히 지시하고 돌아갔다.

제7사단장 유재홍 준장은 채총장의 명령대로 준비를 갖추어 26일 새벽에 동두천을 향한 반격작전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 작전은 첫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북한군 제4사단을 기습공격하는 형태가 되었다. 북한군이 공격개시선에서 잠을 깬 때는 이미 국군의 총검이 눈앞에 다가와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혼란에 빠진 적을 격파하고 제7사단이 동두천에 진입함으로써 이 반격작전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이로써 전황이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 했다.

마침 이 시간에 채총장이 제7사단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전 날 밤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지새우고 기사희생의 반격작전을 지도하기 위하여 네 번째로 의정부지역에 나타났던 것이었는데, 마침 이 사단의 반격 상황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갔다.

육군본부에서는 이 의외의 성공에 고무되어,

“제7사단은 적을 역습하여 적병 1,580명을 사살하고 전차 58대를 파괴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무기를 노획했다”고 방송하였다.

반격 실패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서 포천을 목표로 공격하던 제2사단의 상황은 제7사단과 정반대였다. 이날 새벽에 적정에 개의치 않고 각기 분리된 채 축석령을 향하여 진출하던 제2사단은 북한군 제3사단과 조우하여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전세 회복을 위해서 애써보았으나 적의 위세에 밀려 부대가 와해되기에 이르렀으며, 끝내 북한군의 전차부대는 제2사단 제5연대의 진지 중앙으로 통하는 도로를 돌파하여 의정부 시내로 돌입하였다.

이로 인하여 포천 탈환에 실패한 것은 물론, 동두천을 탈환한 제7사단의 퇴로가 끊어지고 말았다. 육군본부가 동두천 방면의 승리를 과대하게 방송하고 있을 무렵이었다.

미국의 전사가(戰史家) 페렌바크(T. R. Fehrenbach)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This Kind of War)'에서 26일 아침에 북한군 제4사단이 의정부 북쪽에서 한국군 제7사단의 맹렬한 반격을 받고 난관에 부딪혔다고 기록하였다. 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⁴⁸⁾

그날 아침에 매우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유재홍 장군의 사단은 서울의 라디오 방송에서 주장한 것과 같은 진격 같은 것은 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적의 공격을 저지하기는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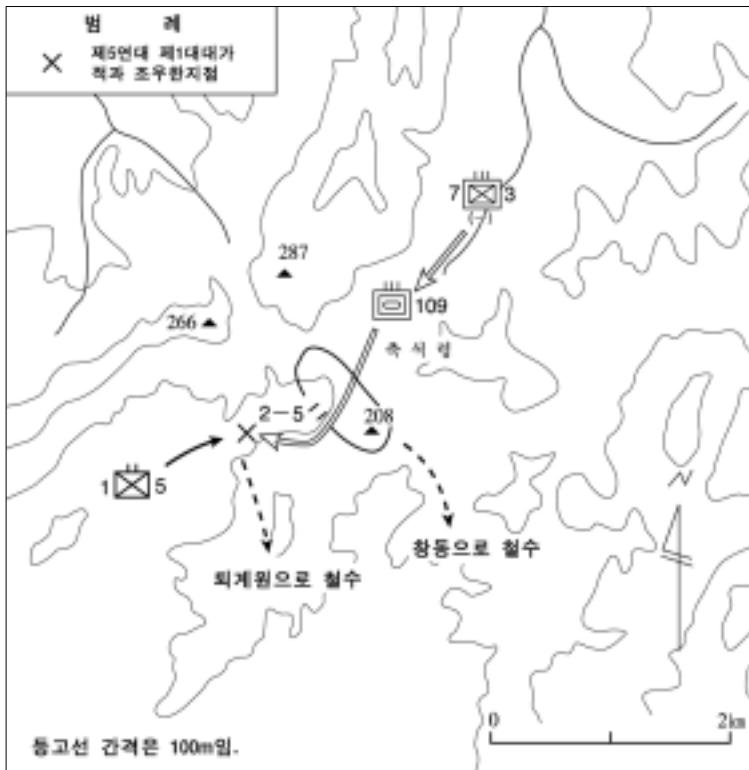
그러나 그 동편인 포천 가도에 연한 제7사단 우익에 있는 이형근 준장의 지휘소에 들어간 미군 고문관은 그가 참모들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2개 대대를 의정부에서 약 2마일 북방의 가도에 배치하고 그들에게 참호를 파게 하고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미약한 대대의 공격은 무익하다는 것을 알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애플만(Roy E. Appleman)도 그의 저서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SOUTH TO THE NAKTONG NOTH TO THE YALU)』에서 ‘이장군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썼다.⁴⁹⁾

전투의 결과와 두 책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이장군은 전투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나머지 채총장과의 논쟁 후에도 그의 명령에 따라 공격을 실시할 준비를 갖추지도, 공격을 실시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남북으로부터 협공을 당하게 된 제7사단은 중장비들을 내버리고 인력으로 운반할 수 있는 장비만을 휴대한 채 의정부 서쪽의 산악을 이용하여 남쪽으로 후퇴하였다.

의정부의 전황이 돌변하여 이렇게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6일 오전 10시경 국방부장관이 주재하는 ‘군 원로회의’에 참석한 채총장은 “곧 북진할테니 안심하시라”고 낙관적인 발언을 하였다.



<요도 3> 제2사단 제5연대의 축석령전투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제7사단의 반격 성공에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의정부 전선이 호전되고, 여기에서 북상중인 후방사단만 투입한다면 북진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뒤에 알려진 일이지만,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수도경비사령관 이종찬 대령으로부터 “서울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도 그로 하

여금 더욱 힘을 얻어 ‘서울 사수’를 굳히게 한 것 같았다.

군 원로회의가 끝난 후 오전 11시 중앙청에서 열린 비상국회에 참석했을 때에도 채총장은 “적을 의정부 밖으로 격퇴했다. 3개 사단이 후방에서 올라오면 평양을 3일 이내에 점령해 보이겠다”라고 발표하여 국회의원들로부터 박수갈채까지 받았다.

그러나 얼마 후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으로부터 “의정부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받은 채총장은 대경실색하여 급히 의정부로 달려갔다. 이때 그를 맞이한 것은 전선이 뚫렸다는 보고와 북한군의 포탄이었다.

이어서 26일 낮 동안 적의 공격을 받던 의정부는 저녁 무렵 적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국군은 창동선으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의정부 정면의 반격작전은 채총장의 기대와는 달리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국가가 전쟁을 수행할 때, ‘전승을 향해서 매진’해야 할 최고 국군통수권자인 이대통령은 이렇게 전쟁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 있게 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군통수상 필요한 명령을 발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입장에 머무르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군정을 장리하는 외에 군령에 관하여 대통령이 부여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사실상 전쟁을 지도해야 할 국방부장관은 수원역장실에서 전황의 추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3. 병력축차투입과 반격작전 논쟁

작전 실패의 책임론

전쟁 발발 초기 전황 추이에 대한 관심은 적의 주공이 지향된 의정부축선에 집중되었다. 이곳의 전세는 수도 서울의 방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당시 작전지도의 총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의 역할 중에 가장 문제가 된 것 중의 하나가 이곳 의정부 방면에 병력을 축차투입한 것과 6월 26일 아침에 단행한 반격작전이다. 여기에서 실패함으로서 38도선 회복이 좌절된 것은 물론, 의정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고, 곧 창동·미아리선이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서울이 함락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병력의 축차적이고도 분할적인 사용’과 ‘무리한 반격작전’이 전쟁 초기 국군이 패배한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히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반격작전을 결심하고 명령했던 채총장에게 그 실패의 지휘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모든 작전의 과정은 그 결과로써 평가된다. 따라서 어느 작전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계획과 과정이 모두 잘못된 것임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채총장의 말을 직접 들을 수 없으므로 그때 그가 했던 상황

판단과 작전 의도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그 과정이 어떠했던 간에 채총장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사실과는 반대로 만일 작전이 성공했다면, 그 과정을 불문하고 그 성과는 바로 채총장의 공로로서 칭송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의정부축선상의 작전지도에 대한 평가를 채총장 개인의 문제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는 승패의 결과만으로 덮어버려서는 안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채병덕과 이형근이라는 우리 군의 핵심 인물 두 사람의 알력과 함께 의정부지역 작전이 그후 계속적으로 논쟁거리가 된 것은 바로 이 문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을 평가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병력의 축차투입이 전술원칙에 위배되고 반격명령은 무모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부대의 축차투입과 반격은 어떻든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군의 공격에 대항하던 국군은 2~3개 대대로써 접전하다가 축차 붕괴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전투력이라고 해도 연대의 경우를 보면, 1개 연대에 고작 1~2개 대대밖에 되지 않는 병력이었다. 그나마 탄약도 지급받지 못한 채 전선에 나선 부대도 있었던 터에, 대전차 방어수단도 없이 병력이 축차적으로 투입되었으니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괴아 전력의 격차보다도 오히려 고위층의

작전지도 능력과 통솔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전쟁 초기에 한국군이 대패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서 바로 이 병력의 축차적이고도 분할적인 사용의 폐단이 꼽히게 되었다.

작전교육국장 장창국 대령은 뒷날 채총장의 결심에 대하여 “우리의 작전에 치명상이 된 것은 6월 26일에 실시한 의정부 정면에서의 반격이었다. 이것은 채총장이 서울 고수의 작전방침을 취하게 된 데서 기인하였다”라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이 책임을 채병덕 총참모장과 함께 실제로 병력운용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김백일 참모부장에게 돌리고 있다.

당시 채총장은 보고와 회의 등으로 전황을 살필 시간이 없었으며, 더구나 통신의 불통으로 말미암아 작전지도가 곤란하게 되자 수시로 의정부 정면의 전황을 직접 시찰하기 위하여 떠났다. 그러므로 그의 작전지도에는 많은 공백을 가져왔으며, 육군본부의 각 참모부는 자연히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관장치 않으면 안되었다.

고 하여 김부장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차레차레 도착하는 남쪽의 연대에 대해서는 김부장이 직접 명령을 부여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 만주에 있을 때 비적도

별이나 국지전에서는 자타가 인정하는 제1인자였으며 용기있고 강직한 사람이었으나, 유감스럽게도 전략을 논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그의 구상은 소규모 부대나 지휘하는 범위를 벗어나기를 기대하기 어려워, 복상한 연대를 도착하는 대로 모조리 전선으로 투입하게 된 것이다. 요컨대, 대게릴라작전 방법을 정규전의 전장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그래서 병력을 축차투입하는 폐단에 빠져들고 만 것이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⁵⁰⁾

실제로 남부에 있던 부대들은 공비토벌을 위해 중대 또는 대대단위로 분산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휴가·외출·외박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병력이 단시간 내에 집결되기가 어려웠다. 대기병력과 비상소집으로 집결한 일부 병력을 혼합편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다. 완전한 부대편성은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또 구체적인 부대이동계획이 없어서 각 사단은 출동준비가 된 대대와 연대를, 그때의 수송능력에 따라 제각기 열차를 동원하거나 트럭을 징발하여 축차적으로 이동시켰다. 철도수송을 위한 별다른 비상대책도 없어서 평시 시간표대로 열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므로 이런 급한 사정을 해소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수송력 관계로 사단이 기껏해야 대대 단위로 이동하였으므로,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예하부대와 분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동한 결과 남쪽에 있던 부대의 주력이 서울에 도착한 시기는 육군본부가 예상했던 26

일에 맞추지 못했다. 채총장과 김부장은 이렇게 미처 집중되지 못한 전투력으로써 무모한 반격을 결심하여 밀어 부쳤던 것이다.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SOUTH TO THE NAKTONG NOTH TO THE YALU)』에는 의정부전투가 있는 후에 이형근 장군이 미 군사고문단의 라이트(William H. S. Wright) 대령에게 했던 자기 입장의 설명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의 설명은 제2사단의 병력이 집중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공격명령을 내린 것은 채총장의 잘못이라는 것이다.⁵¹⁾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애플만(Appleman)은 이 말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페렌바크는 “이장군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으나, 그의 부대가 방어위치에서조차도 산산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채총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공격을 했다고 해도 실패했을 것이다. 한국군의 기동계획은 조급하고 무분별하고 불가능한 것이었다”라고 썼다.⁵²⁾

반격 결심의 배경

그렇다면 이렇게 무모하다는 평을 받게 된 채총장의 반격결심은 어떤 연유로 이루어지게 되었던가? 일설에 의하면 작전 교육국과 정보국이 후방사단의 도착 시간을 26일 새벽으로 예측하여, 그날 아침 의정부 정면에서 반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도달하였고, 채총장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주장도 있다.

반대로, 작전교육국에서는 의정부 정면의 반격을 상신한 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 작전교육국장이었던 장창국 대령은, “나는 전황이 유동적이고 남부에 있는 사단들이 언제 집결할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의정부 정면에 대한 반격을 건의하지 않았으나, 총장이 이미 반격을 결심한 것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결국 채총장이 혼자서 결심하고 그 실행은 김백일 참모부장이 맡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은 다른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일치한다. 또한 결과만이 아니라, 그후 채총장의 언동 역시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짐작컨대 채총장의 뇌리에는 ‘서울 사수 및 반격’이라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었던 것 같다. 피아의 전력비와 국군의 집중 속도 등을 냉철히 검토해 볼 마음의 여유가 없이, 단지 수도 사수와 적의 조기격퇴라는 정치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성만이 절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대통령의 질타설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정치는 ‘신속한 38도선의 회복’, 적어도 ‘서울의 안전’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은 군사에 달려있다. 총참모장으로서 정치에서 요구되는 사항을 군사적으로 달성 가능한지를 가늠하는 것이 직분이며 그것이 군사최고참모로서의 책무인데, 그 가능성의 검토를 소홀히 하여 전술적

으로 불가능한 서울 확보를 끝까지 고집한 나머지 병력을 축차로 투입하고 반격을 지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억측이긴 하지만, 만일 서울 방어에 실패한다면, 군인으로서 그의 생애가 끝나고 만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결심 뒤에는 전략전술을 초월한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채총장의 판단과 결심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의정부는 서울 방위의 요점이다. 이곳을 탈취당하면 직접 서울에서 방어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적당한 방어선도 없을뿐더러 그러한 준비를 갖춘 바도 없다. 더욱이 의정부를 탈취당한다면 북한군은 서쪽으로 진격하여 한국군 제1사단의 측후방을 공격할 수 있고, 서울 동쪽 교외로 접근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정부 확보는 필수조건이다. 또한 소수부대가 대부대를 격파한 전례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국군이 열세하다고 해서 반드시 패배하란 법은 없는 것이다.

또 작전이 전개된 당시의 실질적인 상황도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26일 아침, 문산방면에서는 국군 제1사단이 선전분투하여 적 제1, 제6사단을 임진강-파평산선에서 저지하고 있었다. 춘천방면에서는 국군 제6사단의 완강한 방어로 적 제2사단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홍천으로 남하하려던 적 제7사단마저 더 이상의 진격을 하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또한 강릉방면의 국군 제8사단은 적의 수륙양면 공격으로 한때 어려움

을 겪었으나 전열을 정비하여 용전분투함으로써 적 제5사단의 전과확대를 저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의정부지역을 지탱할 수만 있다면 전 전선의 위급을 해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채총장의 결심과 조치를 완전히 무모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일 것이다. 즉, 시간이 없었다는 것이다. 전투력을 집중 사용한다는 것은 전술의 철칙이지만, 적으로부터 받은 기습의 충격이 지속되고 있는 전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대의 집중을 기다리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여러 전선 가운데 지형이나 거리로 보아 서울에 가장 위협을 주는 곳은 의정부 방면이다. 제2사단 외에 제5사단과 제3사단에도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전체 병력의 집결을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병력으로 반격하여 적의 전진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채총장은 생각했던 것 같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단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팽배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도착된 부대를 차례로 전장에 밀어 넣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지만 누가 그때의 당사자라 해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전을 지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훗날 7월 초순 미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때에도 이와 유사

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이후 낙동강선에 이르기까지 유엔군이 벌인 전투는 병력의 축차적 투입에 의한 지연전이었다.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사단으로써 북한군의 진격을 조기에 저지하여 전선을 안정시킨 다음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전세를 역전시키고자 하였다. 그래서 스미스 대대를 시작으로 연대, 사단, 군이 차례로 증원 투입되었던 것이다. 전형적인 축차투입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투입된 부대는 그 선발대가 북한군에 깨어진 후 후속부대들도 크게 곤욕을 치루었다. 그렇게 하고서도 전선은 어느 곳에서도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낙동강선까지 후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유엔군은 질과 양 어느 면에서나 우세한 적과 대치하여, 수적으로 불충분한 병력을 축차적으로 투입한 결과 성과를 얻지 못하고 많은 손실을 입었다. 이런 전투방식은 미국의 군사교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도 많은 전사서(戰史書)에는 이러한 조치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그 결과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⁵³⁾ 만약 작전하기에 충분한 병력이 도달할 때까지 미군 부대가 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한국군과 미군은 벌써 부산까지 밀려났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즉, '시간'이 촉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시간 때문에 축차투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로 한다면, 한국군의 경우도 같은 논리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을 사수한다는 대의명분과 전략방침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여기서 집중투입에 대해 생각해보자. 축차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집중투입을 하기로 했더라면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 듯이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루 정도를 기다려서 후방의 부대들을 집결시킨 후에 북한군과 접전했다면 과연 성공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국군의 전투력이 북한군에 비해서 열세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 전차의 돌파력과 충격력에 대응할 만한 수단이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적을 압도할 다른 대책 - 예컨대 포병 화력이라든가, 공군력 등 - 도 없었다.

이런 형편인데도 부대를 집중 운용하였으면 상황이 호전되었을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요컨대 이미 이길 수 없는 조건에서 싸우게 된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서 병력의 축차투입만을 패전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여 강조하는 것은 피상적인 분석과 평가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축차 투입의 대안론

또한 병력의 축차 투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모두들 '다른

방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그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흔히들 이형근 준장의 주장이 합리적인 방책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제2사단의 주력이 집중 완료될 때까지 밀려오는 북한군의 전진을 누가 어떻게 저지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병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적을 막아낼 수단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실은 채총장으로 서도 이것이 당면한 문제였을 것이다.

또 이장군의 주장처럼 서울을 포기하고 한강방어선을 확보하려 한다고 가정해 보자. 서울을 포기하는 그 절차와 방법이 간단치 않은데도, 여기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육군 외에 해·공군의 역할은 도무지 기대할 수 없고, 지휘계통과 통신수단이 미비된 상태에서 어떻게 전방에 있는 부대들을 한강선까지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못한 상황에서 부대의 조직적인 철수는 지극히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서울 시민들의 소개 및 피난에 대한 방책이 있는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협조해야 할 정부의 다른 부서, 예컨대 내무부나 경찰청, 서울시청 등과의 협조가 가능했는가?

사실은 그 기관과 부서들은 전부 흩어져서 존재조차 찾을 수 없었다. 모든 조직은 와해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피난하기에 바빴을 뿐이다.

오직 국군, 특히 육군만이 적과 맞서 싸우고 있었다. 그리

고 그 전투에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총장의 작전지도에 대해 가장 강력히 반발했던 이형근 장군은 이 시점에 어디에 있었으며, 그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서 이형근 준장의 작전지도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는 다음과 같은 의문에 대답할 수가 있는가? 즉, 축석령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찰을 하였는가? 필요한 경계 조치는 취했는가? 지휘관 스스로 위급한 상황을 확인하였는가?

그러나 이런 노력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참모활동과 지휘관의 조치도 볼 수 없다. 그런 조치가 이루어진 뒤에야 한강결전이나 반격론의 가부가 토의되고 건의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만일 이장군이 지휘하는 제2사단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최소한 동두천을 기습한 유재홍 준장의 제7사단이 그렇게 위협을 받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아군이 의정부 지역에서 크게 성공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든 반격전의 결과가 상당히 호전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군인으로서 이 장군의 태도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군대의 명령논리로 본다면 총참모장의 의도를 확인한 이상 사단장이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긴박한 전쟁 상황에서 상관의 의도를 확인하고서도 자신의 고집으로 그것을 반복시키려 한 점은 분명히 지나친 일이다.

어떻게 변명한다고 해도 이형근 사단장의 행동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반발이며, 이 때문에 채총장의 전쟁지도에도 큰 지장을 주게 되었다. 당시 같은 조건에서 전투에 참가한 유재홍 사단장, 그리고 백선엽 사단장의 판단과 행동이 이를 반증한다.

이 의정부지구의 병력투입 방식과 반격작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쟁과 전술토의의 주제가 되어왔다. 만일 채총장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아무도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최초부터 그런 상황을 상정하여 계획을 세워두지 못한 점, 전투력의 열세, 위기에 대한 대비의 불철저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작전지도 면에서 볼 때, 전략적·전술적 안목에서 판단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육군본부의 요원들과, 그 중에서도 초기 작전지도의 주역을 맡았던 채병덕 총참모장이나 김백일 참모부장 등이 그들의 능력과 경험에 비하여 책임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이 이 부문에 대한 비판자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남을 비판하기 쉬운 데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다. 더 근원적인 면은 비운의 역사를 강요당한 소산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한많은 미아리고개

창동 방어선

6월 26일 오후 1시경에 의정부를 점령한 북한군이 의정부와 벽제, 퇴계원의 3개 방향에서 서울을 포위할 태세를 갖추고 창동선으로 접근해 오자 수도 서울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이 시기 의정부에서 철수한 제7사단사령부는 국도 옆에 위치한 창동파출소에서 병력을 수습하고 있었다. 이 파출소는 전 작전교육국장 강문봉 대령이 육군본부의 전방지휘소를 개설하고 있는 곳이었다. 국회에 출석한 후 육군본부에 들렀던 채총장이 26일 오후 5시경에 이곳을 방문하였다.

그런데 마침 제2사단장 이형근 준장도 이곳에 나타났다. 이 장군을 본 채총장은 크게 화를 내면서

이형근 사단장은 해임이다. 제7사단장 유재홍 장군을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니 유장군은 제2사단을 통합지휘하라.

고 지시하였다.

이장군이 지금까지 채총장의 명령에 순응하지 않은데다, 의정부전투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물어 그를 현장에서 해임한 것이다. 이로써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이 창동지역에 투입된 양

개 사단을 포함한 모든 전투부대를 통합지휘하게 되었다.

채총장은 유재홍 사령관에게 “창동-우이동 선에서 적을 저지한 후 제3사단과 제5사단으로써 공격하여 빼앗긴 지역을 다시 확보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이 선은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 이 선에서 적의 공격을 쳐부수어 공세로 이전하라. 끝까지 이곳을 사수해야 한다”라고 재차 다짐하였다.

채총장이 의정부지구전투사령부를 만들어 유장군을 사령관에 임명하였으나 전반적인 여건은 매우 불리하게 되어 있었다. 통신이 두절되고 지휘·연락 수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하부대는 분산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었다.

유장군이 파악한 각 연대의 행방은 대부분 불분명했다. 26일 밤에 수습된 전투병력은 1개 연대 규모를 넘지 못했다. 더욱이 보급지원체제가 갖추어지지 못한 탓으로 전투원들에게 제대로 무장을 갖추게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총장은 가능하면 신속히 병력을 수습하여 의정부를 탈환코자 하여 유장군을 독려하였던 것이다. 그는 초전에 고전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듯, 전세를 회복해보려는 작전지도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창동에서 부대를 정비할 수 있다면 다음 날인 27일 새벽쯤에 반격을 재개하여 의정부를 탈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홍 준장은 병력 수습과 아울러 창동전선의 고수책을 마련코자 하였는데, 지휘체제의 혼란과

절대병력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당일(26일) 밤에는 제대로 된 방어선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특히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현지에서 수시로 교체됨에 따라, 대대장이나 중대장은 어느 명령에 쫓아야 할지 당황하는 사례가 허다하였으며, 이것은 혼성부대에 더욱 혼란을 조장하였다.

이와 같은 악조건 하에서도 26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에 대부분의 병력이 창동 부근으로 집결하여 27일 아침에는 여기에서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제1연대(-)는 함준호 대령의 지휘하에 우이동 부근에 집결하고, 제9연대(-)는 윤춘근 중령의 지휘로 태릉에 집결하였으며, 제5연대(-)는 최창언 중령이 수습하여 창동으로 내려가고, 제16연대(-)는 문용채 대령이 수습하여 역시 창동으로 후속하는가 하면, 제25연대(김병권 중령)는 백석천에서 그 뒤를 따랐다.

그래서 이 부대들이 힘을 합하여 태릉-불암산-창동간에 저지선을 마련케 되었으며, 한편 육사 생도대대와 경찰대대도 이에 참가하여 태릉-불암산 간의 일익을 맡았다. 포병학교의 교도대도 끝까지 이를 지원하였다.

이때 유준장은 창동선에서 전선을 정비하면서 이 선이 돌파될 경우를 대비하여 미아리선의 방어준비에 착수하였다.

채총장은 이날 아침에 광주에서 상경한 제5사단장 이용준 소장과 참모학교장 김홍일 소장을 육군본부로 불러서, 이소장에게는 창동선에서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여 미아리선에 저

지진지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김소장에게는 제1사단의 작전지도를 당부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군사원로급 장교들을 일선에 기용하여 위기를 타개하려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었다.

국방수뇌회의에서 「서울 사수」결의를 표명했던 채총장은 그 직후에 정보국의 김종필 중위를 불러 유재홍 장군에게 보내는 한 통의 서신을 주면서 “회답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 서신에는 “창동선을 언제까지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편지를 받고 전선으로 달려갔던 김종위는 총알과 포탄이 쏟아지는 속을 헤매고 다녔으나 유장군을 만나지 못하였다. 그 대신 제7사단참모장 이용문 대령으로부터 “본인의 개인적 견해지만 전세가 불리하여 오늘밤을 견디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다. 김종위는 육본으로 돌아와 이대령의 말과 자신이 목격한 전선의 상황을 종합하여 채총장에게 보고하였다.

실제로 창동방어선은 27일 오전 10시경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창동선에서 물러선 국군은 분산되어 태릉, 미아리 등지로 철수하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아리방어선 뿐이었다.

미아리 방어선

육군본부는 창동방어선이 무너지자 큰 충격을 받았다. 다행

히도 전날인 26일에 후방에서 올라와 미아리-회기동선에 배치해 둔 제5사단과 수도경비사령부의 예하 부대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육본에서는 이 부대들을 활용하는 한편, 분산 철수하는 병력을 수습하면서 미아리방어선을 보장할 수 있었다.

창동방어선을 돌파한 적은 일단 진격을 멈추고 전투정찰을 실시하고 있었으므로, 상황은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이 무렵 태릉 일대에서는 제9연대와 육군사관학교 생도대대가 적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었다.

창동선이 무너지고 미아리선까지도 지탱하기가 어렵다는 보고를 받은 채총장은 이날 오전 11시에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 연석회의를 긴급히 열어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를 밝힘과 아울러 한강교의 폭파계획을 발표하였다.

“창동 방어선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이제 서울 철수는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되었다.” 그는 마침내 패전을 인정하는 모습이었다.

이 무렵 채총장도 피로에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개전 이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한 데다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는 의정부 지역의 전황에 신경을 쓴 나머지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일곱 차례나 이 지역을 직접 방문하였다. 35세의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육본 작전교육국장 장창국 장군은 그 무렵 육군본부의 사정에 대해서

나는 15~16개의 전화기를 앞에 놓고 회의와 보고에 쫓기어 정신없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27일경이 되자 눈꺼풀을 뜰 수 없게 되었다. 쉬는 시간은 물론이고 식사하면서 작전지도를 했다. 채총장의 피로 역시 심했다.

라고 회고하였다.

위기가 고조된 시기에 채총장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러나 며칠동안 잠을 자지 못하고 휴식도 없이 뛰어다닌 것은 개인이었지 조직은 아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불면과 과로로 골지치게 되었다.

계절은 6월 하순으로 더위가 심했다. 채총장은 무거운 몸으로 이런 더위에 견디기가 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정열적으로 작전을 지도하였다.

반면에 그는 육군본부의 참모들을 통해 작전을 지도하는데는 소홀했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조직에 의해 풀어가지려 하지 않고 거의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만 의존하여 혼자서 처리하다시피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부대운용도 채총장과 김부장이 그때 그때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처리했던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두 사람이 긴밀하게 의논하고 협조한 것 같지는 않다.

참모조직에 의한 기능의 분화, 업무의 협조 없이 총장 한 사람이 작전지도를 전담하는 상태는 무리였다. 단일 라인에 의한 상황 판단과 의사결정의 체제로는 부담이 과중되고 능률

이 저하되고 착오가 발생되는가 하면 피로가 누적되는 현상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채총장 자신의 과로와 어지럽고 몽롱한 상태는 기력과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작전지도의 상황을 그만큼 흐리게 했던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활동력이 제한된 만큼 작전지도의 성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여진다.

창동방어선이 무너진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부터 국군의 철수병력이 미아리 일대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전선은 창동 저지선의 붕괴를 고비로 하여 수도 서울이 촌각을 다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육군본부는 모든 가용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미아리 부근에 새로운 저지선을 형성케 하였다.

그렇지만 이날 오후에 미아리-회기동방어선에 배치된 국군 장병들의 대부분은 3일 동안 패전과 철수를 거듭한 충격과 굶주림 및 탄약부족, 또한 전차에 대한 공포증과 지휘체계의 문란 등으로 전투의지를 잃고 있었다.

의정부지구 전투사령관 유재홍 준장과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 이응준 소장은 분산된 병력을 수습 통합하여 급편진지를 마련하였으나 병력과 장비 및 탄약 등이 부족하고 더욱이 혼성부대의 병사들으로써는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때까지 미아리 저지선에 투입된 병력은 전방으로부터 추차 철수한 약 3,000명의 혼성병력과 제8연대 예하의 1개 대대

약 500명과 제3사단 공병대대 및 각 직할부대 등이었다.

서울 시내에는 적 전차가 돌입할 것에 대비하여 요소요소에 차량장벽을 수 개소 설치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시가전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운 것은 아니었다.

한편, 제1사단은 서북쪽에서 밀려드는 적을 저지하고 있었다. 이 사단은 27일 현재 임진강을 넘어선 적을 봉일천선에서 일단 저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날 오후 이곳에 김홍일 소장이 나타났다. 그는 그날 아침 채총장으로부터 제1사단의 작전지도를 위임받고 제1사단사령부를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서울 동북쪽 전황을 모른 채 문산쪽으로 반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백선엽 대령에게 “문산방면에 대한 반격보다는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강선으로 철수해야 한다”라고 권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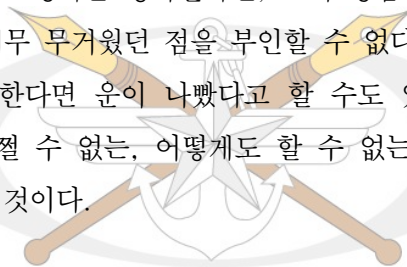
하지만 그때까지 진지 고수의 명령을 받고 있던 백대령은 채총장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지 않고서는 철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자 김장군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11시 경에 육본으로 돌아온 김장군은 그때 마침 미아리에서 돌아온 채총장에게 제1사단의 전황을 보고하고, 이 사단에 철수명령을 내리도록 진언하였다. 그러나 채총장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미아리에 대한 북한군의 공격은 27일 오후 1시경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이곳의 국군 상황은 이러했다.

북한군의 기습에 의해 타격을 받은 국군은 그 충격을 회복

하지 못한 상태이다. 적은 전차에 중포와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는 대병력임에 비하여, 아군은 전차나 비행기는 한 대도 없다. 더구나 적의 전차는 아군의 포를 맞고도 꿈쩍하지 않는다. 전선과의 연락은 끊어졌고 전반적인 전황은 파악할 수가 없다. 전해지는 연락이란 전부가 다 패배의 소식이요 구원을 요청하는 외침뿐이다. 대책을 강구하려 해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

결과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지만, 전쟁 초기 채총장의 역할과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그의 경험과 연령에 비해 그 임무가 너무 무거웠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입장에서 굳이 변명한다면 운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5. 한강교 폭파의 미스터리

육본 철수와 한강교 폭파 명령

6월 27일 오전 11시에 열린 육군본부 참모 및 재경부대장회의에서 채총장은 육군본부의 서울 철수와 한강교 폭파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자세한 계획은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과 공병감 최창식 대령이 설명하였다.

김백일 부장이 설명한 내용은 각 군 본부의 철수시각과 차량 분배에 대해서였다. 이때 그의 설명에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부대들의 철수나 서울 시민의 피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채총장의 관심은 그의 최후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던 ‘방송국 파괴’와 ‘한강교 폭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한강교 폭파계획은 최창식 대령이 설명했다. 그는 ‘적이 서울 시내에 돌입하면 2시간 뒤에 전 교량을 동시에 폭파할 것이며, 지금의 전황으로 볼 때 폭파예정 시간은 오후 4시경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적의 서울 침입 시간을 27일 오후 2시로 판단한 것이다. 이 설명에서도 전선부대의 철수나 시민들의 피난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회의참석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최대령은 초전에 임진강교 등 많은 교량들을 파괴하지 못했던 예를 들면서 ‘한강교 폭파에 실패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채총장의 명령만을 강조하고 설명을 마쳤다. 그후 격론을 거듭하다가 세부계획에 대한 논의도 없이 회의는 끝나고 말았다.

채총장은 회의가 끝나자 군의 서울 철수를 비밀에 붙이도록 지시하고, 일선부대에 대한 별다른 조치없이 이날 오후 1시경에 육군본부를 시흥으로 철수하게 하였다. 최공병감은 한강교의 폭파 준비를 공병학교장 엄홍섭 중령에게 지시하였고, 육본이 철수할 무렵에는 한강교의 폭파 준비가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

이때 서울에 잔류해 있던 미 군사고문단은 육본이 출발한 다음에야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급히 시흥으로 이동하였다. 그 도중에 맥아더 사령부로부터 미국의 한국전 참전을 알리는 전문을 받은 미 군사고문단장 대리 라이트 대령은 채총장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육본의 서울 복귀를 종용하였다.

채총장은 이미 철수를 결정하여 실시하였으므로 서울 복귀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이미 명령을 내린 그의 위신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라이트 대령의 조언에는 매력이 있었다. ‘미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군은 유엔의 『정전과 철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으므로 마음을 바꾸어 육본의 서울 복귀를 지시하였다.

이때 수원역장실에 있던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채총장에게 “미군이 참전할 때까지 축차 철수전을 감행하라”는 지시를 보내왔다. 하지만 채총장은 그것을 무시했다. 지금까지 신장관과 전적으로 보조를 같이 해오던 그가 왜 여기서 장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는지, 그 까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시흥까지 갔다가 서울로 되돌아 오는 동안에 육군본부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만일 육본이 시흥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면 한결 차분한 작전지도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군이 참전한 후에도 서울이 지켜지지 않았던 점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미군측은 오판을 하였고, 채총장은 미국의 참

전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한 셈이 되었던 것이다.

6월 27일 오후 6시가 지나서, 서울에 복귀한 채총장은 곧 미아리로 달려갔다. 방어진지를 순시하던 그는 “28일부터 B-29 중폭격기 100대가 국군을 지원하러 온다”라고 하여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워주었다. 그러나, 이것은 즉흥적으로 꾸며낸 말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며, 그것이 오히려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게 되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이 무렵 국군은 미아리-회기동방어선을 나름대로 강화하고 있었으나, 전황은 이변이 없는 한 서울을 고수할 가망이 전혀 없는 막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병력의 구성, 장병의 사기와 군기, 무기와 장비, 지휘·통신 등,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다. 이때의 전장환경은 지휘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27일 자정을 전후하여 북한군 전차대가 길음교로 밀려들었고, 미아리 저지선이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 포기 결정과 함께 한강교 폭파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통해 이 경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아리 방어선이 무너지고 서울 시내 일각에 적의 전차가 나타난 시각은 새벽 1시 45분경. 이 시간에 돈암동에서 급히 육본으로 달려온 강문봉 대령은 채총장에게 “적의 전차가 시내에 침입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때의 상황은 분명치 않으나, 강대령의 보고를 받은 채총

장이 즉시 공병감에게 전화를 걸어 한강교 폭파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⁵⁴⁾

그 직후 채총장은 참모들의 권유에 의해 육군본부를 출발하여 한강대교를 넘어갔다. 김백일 대령은 자신이 뒷일을 맡기로 하고, 강영훈 대령을 총참모장의 수행원으로 지명하여 함께 동행하게 하였다. 육본에는 김 대령 외에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작전교육국장 장창국 대령, 군수국장 양국진 대령, 그리고 신임 인사국장 신상철 대령 등이 남았다.

한강교 폭파

최대령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총참모장으로부터 재차 한강교 폭파 명령을 받은 최대령은 한강인도교로 가서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엄홍섭 중령에게 “즉시 한강교를 폭파하라”고 명령하였다. 엄중령은 대교 북안에 병력을 배치하여 차량과 인파를 제지케 하는 한편, 각 교량폭파 책임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렸다.

지시를 받은 교량 폭파 담당자들은 1차 설치하였다가 폭파 중지 명령으로 제거하였던 폭약을 다시 설치하였다. 당시 이곳 북한강파출소에는 헌병들이 배치되어 철수하는 차량들을 제지하고 있었으나, 밀어닥치는 차량과 인파로 혼란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 무렵 이용준 소장이 미아리전선에서 육본에 도착하였는

데, 한강교 폭파 시각이 임박하다는 사실을 듣고, 제1선 부대의 주력이 철수할 때까지 폭파를 연기해야 한다고 김백일 대령을 설득하였다. 김 대령은 그 의견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장창국 대령에게 지시하여 폭파를 중지토록 하라고 지시하였다.

지시를 받은 장대령은 현장과의 통신 수단이 없었으므로 폭파 중지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정래혁 중령과 함께 지프차를 몰아 폭파 현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그러나, 차량과 인파 때문에 전진이 지체되어서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에 한강교는 폭파되고 말았다. 이 시각이 6월 28일 2시 30분경이었다.

당시 한강에는 한강대교 및 광진교 등 2개의 인도교와 경인선 상행 및 하행의 단선철교, 그리고 경부선의 복선철교 등 5개의 교량이 있었다. 이때의 폭파로 이 다섯 개의 교량 중 광진교와 한강대교 및 경인간의 하행선 철교는 경간이 완전히 절단되었고 나머지는 일부만 파괴었다.

이 한강교 폭파는 적의 공격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실시된 것이었으나, 서울 북쪽에 있던 아군부대들의 퇴로가 차단되었음은 물론 정부기관 및 시민들의 피난길이 막히게 되었다. 또한 당시 다리 위에 있었던 많은 피난민과 차량이 희생되는 등 이로 인한 손실과 재난이 극심하였으므로 국민의 원성이 높았다.

피난길에 다리를 건너려고 하다가 이 폭파로 인하여 희생된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추정하기로는 적게는 300명에서부터 많게는 800명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되자 사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할 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결국 최창식 공병감이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선고를 받아 총살형에 처해졌다. 이 재판의 결과는 한강교 폭파의 책임이 공병감에게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후 군법에 재심제가 채택되고 최대령의 부인이 재심을 청구하여 그는 무죄선고를 받았다. 사형 집행 후 14년만의 일이다. 이렇게 항고심에서 최대령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한강교 폭파의 책임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지휘계통으로 한강교 폭파와 관련된 공식적인 인물은 신성모 국방부장관-장경근 국방부차관-채병덕 육군총참모장-김백일 참모부장-최창식 공병감 등 5명이다. 당시 재판에서는 이 중에서 공병감에게 폭파의 책임이 있다고 하였으나, 재심에서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 '상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최대령에 대한 유죄판결은 '상명하복이란 군기의 기본을 파괴한 파오'라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한강교의 조기폭파는 전술상의 결정적인 실책이며, 작전지도를 잘못한 채총장에게 그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이와 함께 그의 상관인 신장관에게도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채병덕 총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한강교 폭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처음 한강교 폭파 명령보다, 실제로 폭파가 이루어진 두 번째의 폭파 명령을 내린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가? 최대령은 법정에서 채총장이 그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폭파가 실시되기 직전, 마침 그 시간에 채총장이 한강 인도교를 통과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그래서 그가 한강교를 지나가면서 최종적으로 폭파를 지시한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채총장의 차에 동승했던 강영훈 대령은 절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밤중에 차량이 꼬리를 물고 밀려가는 그 복잡한 상황에서 폭파 현장에 있던 관계관의 어느 누구를 만날 수도, 만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김백일 참모부장이 한강교 폭파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가정도 무시할 수가 없다. 전쟁 초기 그가 채총장을 대신하여 작전의 실무를 전적으로 관장하다시피 하였으므로 이 일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용준 장군으로부터 한강교 폭파를 지연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고 폭파 중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장창국 대령을 현장으로 보낸 것은 폭파를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그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폭파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은, 바꾸어 말하면 폭파 실시의 명령권과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강교 폭파에 김대령이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할 것이다.

전쟁 초기의 작전지도 중에서 큰 물의를 빚었던 사건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한강교 폭파로서, 특히 문제가 된 것은 폭파 책임자와 폭파 시기였다. 그런데, 최창식 대령이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다른 관련 인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난 지금 이 문제는 미스터리가 되고 말았다.

다만 한강교 폭파문제와 채총장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할 것 같다. 즉, 한강교 폭파는 이미 채총장의 결심에 의해서 시작되었음이 확실하다. 창동방어선이 위태롭게 되었을 때 재경부대장 및 육본 참모 연석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 작업을 지시하였기 때문이다. 그 지시에 따라 공병감-공병학교장-폭파담당자(공병학교 폭파교관)들이 폭파를 준비하고 폭약을 장착하는 일련의 작업을 지시 및 실행하였다.

그리고 시흥으로 이동하였던 육군본부의 용산 복귀와 함께 한강교 폭파의 중지를 명령하는 과정에서 채총장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채총장의 책임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증언이 엇갈리고 사실 규명이 안되는 부분은 실제로 폭파가 이루어진 두 번째의 실행명령을 누가 내렸는가 하는 문제이다. 최공병감은 재판 과정에서 채총장으로부터 그 명령을 받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6월 27일 자정을 전후하여 그 두 사

람 사이에 있었을 명령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채총장이 생존하여 재판정에서 증언을 하였다면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릴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했다.

최창식 대령의 항고심 공판의 결과 그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가 폭파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지만 폭파의 결정권자가 아니라 단지 명령의 수행자임을 재심의 결과가 인정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공병감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그 책임자를 찾아야 할 것인데, 김백일 참모부장 그리고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함께 채병덕 육군총참모장도 분명히 그 범주에 포함된다. 따라서 한강교 폭파의 실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세 사람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런데 미국측에서 펴낸 한국전쟁 공간사에는 이 문제가 상당히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애플만(Roy E. Appleman)이 저술한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⁵⁵⁾

(서울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던) 6월 27일 밤, 육본의 작전 교육국에 임시로 나와있던 미 고문관 스코트(Peter W. Scott) 중령은 채총장에게 육군본부를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육본이 그날 밤에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미 고문단장 대리 라이트(William S. Wright) 대령은 밤중에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에게 자기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좀 취하라고 지시했으므로, 대부분의 장교들이 숙소로 갔다. 부참모장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 대령도 막 잠 자리에 들었는데, 그때 작전교육국 고문관으로 나가 있던 세드베리(George R. Sedberry, Jr.) 소령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한국군이 한강교를 폭파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모든 부대와 보급품을 강 남쪽으로 옮길 수 있을 때까지 폭파를 연기하도록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

일찍이 채총장은 적의 전차가 육본 건물에까지 접근하기 전에는 한강교를 폭파하지 않기로 미 군사고문단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그린우드 중령이 육본으로 달려갔을 때 채총장은 보이지 않았다. 채총장은 분명히 그의 의지와는 반대로 억지로 떠밀려서 육본을 떠났고,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그때 그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다. 폭파 중지를 요구한 그린우드 중령에게 김대령은 “국방부차관이 다리를 1시 30분에 폭파하라고 명령했는데, 자기는 그 명령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페렌바크(T. R. Fehrenbach)의 『한국전쟁(This Kind of War)』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⁵⁶⁾ 즉,

6월 27일 밤중에 미 군사고문단 장교들이 숙소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세드베리 소령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

는데 한국군측에서 한강교를 폭파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린우드 대령이 급히 육군본부로 달려가서 교량 폭파를 중지하도록 요청했더니, 김백일 참모부장은 국방부차관이 1시 30분에 다리를 폭파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며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보다 일찍 채병덕 총참모장은, 그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프차에 태워져서 강 남쪽으로 보내졌음이 분명했다. 장창국 대령에 의하면 채총장은 서울에 있기를 원했다고 했다. 채총장이 없으므로 자연히 김대령이 이 극적인 순간에 육본의 최고위 장교가 되었다. 그는 이장군의 요청을 받은 후에는 장대령에게 한강교의 폭파를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위의 두 기록은 한강교 폭파 명령자가 국방부차관⁵⁷⁾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이 수행하는 책임을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6월 27일 밤 신성모 국방부장관은 수원역의 역장실에 가 있어서 연락이 원활하지 못했던 반면에, 장경근 국방부차관은 그 시간까지 채병덕 총장과 행동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가 한강교 폭파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채병덕 총장과 국방부차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는 바가 전혀 없다.

또 페렌바크의 『한국전쟁』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들어 있다.⁵⁸⁾

그후 최창식 공병감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처형되었는데, 그때 한국에 있었던 몇몇 미군 고문관들은 채병덕 총참모장이 한강고 폭파를 명령했으며, 최창식 대령은 단지 그의 명령을 수행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채총장은 그가 그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했다.⁵⁹⁾ 당시의 혼란상황에서 모든 사실들을 알 수 있는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국방부차관이 다리의 폭파를 명령했다고 믿고 있었다.

페렌바크는 공병감 최창식 대령의 재판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한국군을 과멸케 한 명령을 내린 국방부차관에 대해서는 이승만 정부의 어느 누구도 문제삼지 않았다'고 기술하였다.⁶⁰⁾

그런데 6월 27일 밤 채총장의 입장과 처지를 알려주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편위의 '한국전쟁사. (1)'에 실려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채총참모장은 최대령에게 명령을 하달하고 즉시로 현관으로 나왔는데, 이 때 총참모장과 같이 있게 된 참모부장 김백일 대령, 정보국장 장도영 대령, 작전국장 장창국 대령 등 3명이 다가섰다.

이 자리에서 김백일 대령이 "사후조치는 우리에게 맡기고 속히 남쪽으로 대피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건의하자 총참모장은 "내가 이대로 서울을 떠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자 참모들은 그를 반강제로 지프차에 태워 남행토록 하였다.

이 때의 동승자는 인사국장 강영훈 대령과 부관 장인근 대위 그리고 윤전병 등 3명으로서 이들 증언에 의하면 총참모장은 차중에서도 철수의 결심이 서지 않았는지 몇 번 “차를 돌려라”라고 재촉하였다는 것인데, 일동은 이를 겨우 만류하면서 한강을 건너 영등포로 향하였다는 것이다.⁶¹⁾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조지프 굴든은 『한국전쟁』에서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⁶²⁾

커다란 비극이 발생했다. 자정, 한국군에 배속되어 있던 세 드베리 소령은 미 군사고문단 분부에 놀라운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다. …… 한국군이 한강교를 폭파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한국군 고위 사령부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켰으며,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은 큰 소리로 반대하고 있었다. 그는 …… 몇 시간만 더 교량을 고수한다면 며칠 내로 당장에 필요한 병력과 장비가 살아 남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방부 고위 관리는 즉각 폭파시켜서, 비록 한국군 수천 명이 희생하게 되더라도 북한군의 전차가 한강을 넘는 것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채병덕이 계속 반대하자 그는 즉각 지프차에 실려 한강 너머로 보내졌다. 채병덕 장군의 대리 김백일 대령은 한강교 폭파에 동의했다.

이상의 기록과 언급들은 한강교 폭파 명령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동시에 당시 채총장의 입장과 생

각을 짐작케 한다. 재판 과정에서 최대령이 주장한 바도 있어서 이것만으로 폭파 명령자가 누구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럴만한 가능성은 충분히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교 조기폭파 논란

한편, 한강교 폭파 시기에 대해서는 ‘조기폭파(早期爆破)’라는 주장이 일반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교량 폭파의 적기(適期)는 적군이 대안에 도달하기 직전이라 전제하고, 이 경우 북한군의 전차가 한강교에 도달하기까지에는 적어도 5시간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시간만큼 일찍 교량을 폭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시간을 두고 조기폭파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교량이 폭파되던 당일은 음력으로 5월 13일이므로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 떠있었지만, 약간의 비가 내리는 구름낀 날씨였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달리 조명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데다 전쟁 중에 불을 밝힐 수 없었으므로 현장은 매우 어두웠을 것이다.

그 밤중에 서울시 일각에 진입한 적의 전차가 언제 한강변에 도달할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 당시 서울 시내에는 요소 요소에 적의 게릴라, 또는 편의대라고 불리우는 무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만일의 경우 그런 무



폭파되어 무너져 내린 한강 인도교. 교각 옆에 설치해 놓은 부교로 피란민들이 남하하고 있다.

리들이 교량 폭파를 방해하려 한다면 그것을 저지할 방도도 없는 상황이었다.

페렌바크는 당시 ‘서울 시내에 새로운 위협이 나타났다’고 썼다. 여러 해 동안에 서울로 침투한 수많은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동조자들이 인민군이 가까이 오자 활개를 치고 다녔다. 갑자기 아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는데, 심지어 한국군 참모들간에도 서로를 가리켜 ‘공산주의자’ 또는 ‘반역자’라고 몰아부쳤다.

밤이 되니 한국군 참모들은 완전히 공포에 싸였다. 북한군의 선발대는 이미 오후 7시 30분, 서울에 침입하였으나 결사적인 방어로 그들을 잠시 격퇴하였다. 밤 11시에 T-34전차 1대와 1개 소대의 북한군은 서울의 창덕궁에 도착했다. 놀란 서울 시경에서는 그 전차를 파괴하고 함께 온 보병을 몰아냈

는 것이다.⁶³⁾

국군은 앞서 여러 교량의 폭파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방어선이 조기에 무너지고 말았다. 한강교 폭파는 그 어느 교량의 폭파보다 중요한 전략적·전술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강교의 중요성으로 볼 때 안전하게 교량을 폭파하기 위해서 5~6시간 정도는 결코 여유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또 다음날 날이 밝은 후의 상황으로 시간을 계산하여 조기 또는 적기를 판단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라 볼 수 없을 것이다.

한강교가 폭파되고 6월 28일의 날이 밝자 북한군은 서울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하였다. 국군은 이미 조직적인 저항력을 잃어버린 뒤였다. 한강의 교량들이 폭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울 북방의 아군 부대원들은 앞을 다투어 한강변으로 달려나갔다. 그들은 무기와 장비의 대부분을 내버리고 뗏목과 나룻배를 이용하거나 헤엄을 쳐서 강을 건넜다.

6. 오! 한강

한강 방어선의 형성

한강교가 폭파되면서 한강 남안(南岸)으로 철수한 국군은 일단 적의 추격에서 벗어나 전열을 재정비할 시간 여유를 얻

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적의 전차가 더 이상 뒤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할 수 있었다.

한국전쟁에서 ‘한강방어선’이라 함은 서울 서북쪽 김포반도 북단으로부터 한강을 따라 서울 동부의 광나루에 이르는, 이강 남쪽 강변을 전부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협의의 한강 방어선은 노량진-영등포를 국한하여 지칭하는 바, 이는 국군의 주력이 이 전선에 방어의 중점을 둔 때문이다.

한강선 방어선에 대해서는 전쟁 전 참모학교에서 북한군의 전면남침시 지연진지로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이 논의되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다. 전쟁 발발 후 몇몇 사람들이 한강선 방어를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채총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강교가 폭파되고 강북의 서울시가지가 적의 수중에 들어감으로써, 채총장은 비로소 여기에서 방어대책을 세우게 되었다. 그는 28일 오전에 수원농업시험장에 육군본부를 개설하고, 처치(Church) 준장과 만나 대응방책을 협의하고, 한강 이남에 낙오병 집결소를 두어 후퇴병력을 끌어 모아 전력을 다해 한강선을 방어한다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이때 수립된 방안은 궁여지책이었으며, ‘국군이 전력을 기울여 한강을 방어한다는 점을 북한군이 인식하도록 하는 허세로써 그들을 강북 쪽에 일단 묶어둔 다음에 시간을 얻어 조직적인 방어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곧 채총장은 김홍일 소장을 시흥지구전투사령관에 임명하고

한강선 방어임무를 부여하였으며, 김소장은 이 명령에 따라 시흥보병학교에 지휘소를 설치하였다.

채총장은 수원선에서 제2선을 굳히도록 하면서 낙오자수용소를 설치케 하여 여기서 수습되는 병력을 단위부대로 편성하여 한강방어선으로 투입시키도록 하였다. 급박한 시점에 새로운 병력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소총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한강교 폭파 이후 강을 건넌기 때문에 군복과 군장을 제대로 갖춘 장병이 드물었다.

시흥보병학교 연병장을 집결지로 하여 부근 민가에서 지어온 주먹밥으로 허기를 채운 장병들은 500명 정도만 집결되면 「혼성○○대대」로 편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패잔병으로 힘없이 남쪽으로 내려오던 병사들이 다시 전투할 수 있는 병사로 바뀌어 북쪽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채총장은 혼성수도사단장에는 이종찬 대령, 혼성 제7사단장에는 유재홍 준장, 혼성 제2사단장에는 임선하 대령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제1사단은 시흥에 집결시켜 시흥지구 전투사령부의 예비로 삼았다. 이렇게 하여 한강방어선을 고수하기 위한 전투편성이 이루어졌다.

국군지도부의 한강선 방어개념은 가용한 인원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적의 전진을 지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술도 역시 도하하는 적의 병력을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격퇴하는 것이 전부였다.



한강 남쪽 제방에서 적진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병사들. 육군 지휘부는 후퇴해 오는 장병들을 재편성하여 한강선에 투입, 이 방어선을 6일 동안이나 지켜냈다.

여기서 '3일 방어'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국군은 곧 지원될 예정인 미군의 개입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일 동안은 한강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흘이면 미군은 부산에 상륙하여 전선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사흘 이내에 적이 한강 이남에 진출한다면 상륙한 미군은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끝장이다. 그래서 사령관 김소장은 이 점을 각급 지휘관에게 강조하였다.

실상 국민들은 큰 소리쳤던 국군이 어이없이 패퇴하자 그 실망은 더욱 컸으나, 적의 무력이 너무도 우세함을 알고부터는 군을 이해하게 되었다. 더욱이 미군 참전 소식과 함께 '한

강을 최소 3일간은 지탱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이 민군 간에 퍼지면서 피난갔던 학생, 청년들까지 한강변으로 발길을 돌려 총을 잡고 나섰다.

초기전투의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혼성'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고 모두 합해봐야 사단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병력으로 한강선을 지켜야 하는 국군이었지만 사수결의만은 강력하였다.

시간과의 싸움

한강선방어전투에서는 공세적인 입장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적 보병 4개 사단과 전차 1개 여단에 맞서 국군의 혼성 5개 사단이 사활을 걸고 접전을 벌였다. 국군으로서는 2개 사단을 제외한 전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대들을 이곳에 투입하였다. 그렇지만 그 전투력은 개전 초기보다 훨씬 저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강선 방어의 성공 가능성은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

당시 유엔의 결의안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었고, 한국전선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은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었다. 미 고문관은 한강방어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미군이 한강선까지 진출하려면 적어도 3일간의 시일이 필요하며, 만일 3일 이내에 적이 한강을 도하하여 추격해 온다면 전략상 부산에 상륙하는 미군도 일단 일본으로 철수하지 않으

면 안 되므로 대한민국의 존망은 한강을 3일 이상 고수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급은 과장된 점이 없지 않으나, 당시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던 국군으로서 어쨌든 단호한 결의로써 한강선 방어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전투는 적보다도 차라리 시간과 싸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국군이 적을 격멸하고 실지를 회복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지원군의 도착을 기다리는 시간을 얻기 위하여 싸웠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렇게 형성된 한강방어선은 최초 3일을 목표로 하였으나 이후 6일간이나 적의 도하와 남진을 저지· 지연시키게 되었다.

국군이 이 정도로 방어선을 지탱한 것은 무엇보다도 한강이라는 자연장애물 덕분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큰 행운이었다. 만일 한강에서 적을 저지하지 못하였다면 한국전쟁 이후의 전사는 다시 써야만 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한강교의 폭파는 그 비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으로 충분한 가치와 의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강선 방어전을 작전지도의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점은 채총장을 비롯한 육군 지휘부의 신속한 급편조치와 지휘관들의 위험을 무릅쓴 진두지휘를 들 수 있다. 비록 ‘혼성’이라고 할지라도 한강선 방어를 위한 급조편성은 경각을 다투는 상황

에서 긴요한 조치였다. 한강교를 폭파하여 정상적인 철수조차 보장하지 못한 지휘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후퇴하는 병력을 재결집시켜 한강선 방어를 가능케 한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⁶⁴⁾

요컨대 한국전쟁 전반의 대국적인 흐름에서 살펴볼 때, 국군은 여기서 기사회생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인 6월 29일 혼성 수도사단이 맡고 있던 영등포지역에 맥아더 원수 일행이 전선시찰차 방문하였다. 그는 여기서 한국군의 불퇴전의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차후의 작전을 구상하고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다음날 6월 30일에는 채병덕 총참모장이 해임되고, 정일권 준장이 소장 승진과 동시에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해서 전쟁 발발 후 6일간의 짧고도 긴 채병덕 총장시대가 끝났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제 2 부 6·25전쟁의 작전지도

- 1) 손희선, 이상국씨의 증언.
- 2)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고려서적(주), 1996) p. 129.
- 3) 자유신문(1949. 5. 10)(샌프란시스코 9일 발, AP합동, 제임스 D. 화이트 제공).
- 4) 연합신문(1949. 5. 26).
- 5) 자유신문(1949. 8. 31).
- 6) 자유신문(1949. 8. 31).
- 7) 정일권, 앞의 책, p. 145.
- 8) 서울신문(1949. 6. 29).
- 9) (일본)육전사연구보급회편, 육본군사연구실역, 『한국전쟁』(1)(명성출판사, 1986), p. 133 ; 미 공간사.
- 10) 자유신문(1949. 7. 1).
- 11)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1977), p. 749.
- 12) 정일권, 『전쟁과 휴전』(동아일보사, 1986), p. 17 ; 안용현, 『한국전쟁비사』(1)(경인문화사, 1992), p. 123.
- 13)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pp. 133/134 ; 정일권, 『전쟁과 휴전』, pp. 17/22.
- 14) 정일권, 『정일권 회고록』, p. 131.
- 15) 사사키, 『한국전쟁비사』(중), p. 205.
- 16) 정일권, 『전쟁과 휴전』, p. 26.
- 17) 이영근씨의 증언,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p. 575.
- 18) 전편위, 위의 책.
- 19) 맥아더, 『맥아더 회고록』(한림출판사, 1971), p. 374.
- 20) 트루먼, 『트루먼 회고록』(한림출판사, 1971), p. 371.
- 21) 萩原 遼, 『朝鮮戦争』(文藝春秋, 1993), pp. 261~263.
- 22) 정장군은 채병덕 장군이 제2대 총장일 때부터 년 동안 작전참모부장으로 재직하였고, 이미 군원계획에 의해 미국 유학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한다.
- 23)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p. 149.
- 24) 위의 책, p. 574.
- 25) 정래혁씨의 증언.
- 26) 이형근 장군은 6월 10일에 전임발령을 받았으나 6월 17일에 도착

한 후임자 이성이 대령에게 사단 창설 1주년 기념일인 6월 20일에 지휘권을 인계한 후 다음날 새벽 서울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이틀을

묵고 23일 밤에 대전에 도착하였다고 한다. 이형근 회고록, p. 47.

27)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구판 제1권), p. 383.

28) 자료를 찾을 것

29) 그는 그후 월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31) 정래혁, 『정래혁 회고록, 격변의 생애를 돌아보며』(삼양애드, 2001),

pp. 105/117.

32) 유재홍, 『격동의 세월』(을유문화사, 1994), p. 111.

33) 웅진·개성사건 등의 예를 말한다.

34) 실제로 그 병력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줄 자료는 없다.

35) 하리마오, 『38선도 6·25한국전쟁도 미국의 작품이었다』((주)새로

운 사람들, 1998), pp. 117/118 ; 이런 문제는 ‘미국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그의 주장과 상통하는 내용이다.

36) 이치엽, 스티븐 엠·팔프, 『번개장군』(원민, 2001), p. 23.

37)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1)(을유문화사, 1973), p. 23.

38) 위의 책.

39) 하리마오, 위의 책.

40) 장대령은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야 그 파티에 참석했다고 한다. 장

도영, 『장도영 회고록』(금속의 집, 2001), p. 192.

41) 중앙일보사, 『민족의 증언』(1)(을유문화사, 1973), p. 23.

42) 이치엽, 스티븐 엠·팔프, 『번개장군』(원민, 2001), p. 24.

43) 조성관, 『1950년 6월 25일 육군본부의 오판』(월간조선, 1992. 7).

44) 위의 글.

45) 백경화씨는 남편이 술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술상 차리는 일에 익숙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날 채총장의 형님이 방문하였을 때 백경화씨가 제대로 술상을 차려내지 못해서 불평을 들었다고 한다.

46) 전쟁 발발 상황보고를 전화로 받아 채총장에게 연결시킨 사람은 지금까지 나최광 중위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채총장의 부인 백경화씨는, 당시 그가 사택 별채에 기거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자기에게 건네준 사람은 남상사(이름은 기억하지 못함)라고 증언하고 있다.

47) 사단장 백선엽대령은 당시 시흥 보병학교에서 고급간부훈련을 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연락을 받고 사단사령부에 도착한 시간은 25일 오전 9시 경이었다고 한다.

48) T. R. Fehrenbach, *This Kind of War* (The Macmillan Company, 1963), pp. 68~70.

- 49) Roy E. Appleman, *SOUTH TO THE NAKTONG NOTH TO THE YALU* (OCMH, 1961), p. 30.
- 50) 장창국씨의 증언에는 육군 전체 작전의 주무참모로서 총참모장과 참모부장을 보좌할 임무가 있던 그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의 상관인 총참모장과 참모부장의 과오를 그 자신의 과오와 분리 설명하기는 어렵다.
- 51) 애플만, 위의 책, p. 30.
- 52) 페렌바크, 앞의 책, p. 70.
- 53) 미 합동참모본부 편, 채한국 역, 『한국전쟁』(상)(국방군사연구소, 1990), pp. 142~157.
- 54)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 p. 545 ; 최창식 대령 공판 기록.
- 55) 애플만, 앞의 책, p. 74.
- 56) 페렌바크, 앞의 책, p. 32.
- 57) 당시 국방부차관은 장경군이였다.
- 58) 위의 책, pp. 33/34.
- 59) 이 상황은 '최창식 공병감의 재판'과 '채장군의 명령 하달 부인'이라는 사실이 겹쳐져 있지만, 실제로는 한강교 폭파와 최창식 공병감의 재판이 있었던 그 사이의 어느 시기에 생존 당시의 채장군이 했던 이야기이다.
- 60) 페렌바크, 앞의 책, pp. 75/76.
- 61) 전편위, 앞의 책, p. 545.
- 62) 조지프 굴든 저, 김패상 옮김, 『한국전쟁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일월서각, 1982), p. 101.
- 63) 페렌바크, 앞의 책, p. 77.
- 64) 채총장의 후임으로 한강선 방어작전을 지도하였던 정일권 소장은 '미 제24사단을 대전에서 맞이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군 2개 군단을 창설하여 군 건제를 정비할 수 있었던 여유'도 한강선에서 시간을 얻은 덕분이라고 하였다.

제 3 부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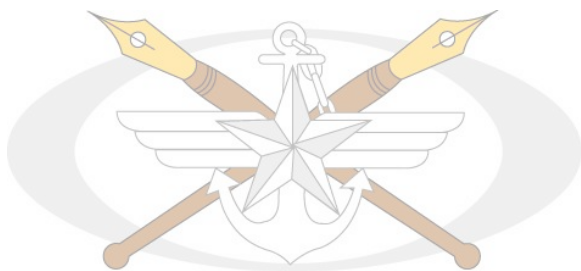


국방부

소

제1장 군인의 최후

제2장 궤적(軌跡)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채장군이 전사한 하동 쇄고개

제 1 장 군인의 최후

1. 영남편성관구사령관(嶺南編成管區司令官)

총참모장 해임

전쟁이 발발한 후 엿새동안 채병덕 총장은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고 힘든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이제 겨우 한강선을 의지하여 한숨을 돌리면서 미군의 지원을 기다리는 시간에 해임이라는 전격적인 조치가 그에게 떨어졌다.

전쟁이 파국으로 몰리면 전쟁지도부에는 질책이 따르기 마련이다. 수도 서울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였고, 공격의 화살은 자연히 신성모 국방부장관과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에게 집중되었다.

6월 29일 아침 대전에 집결한 국회의원들은 성원 미달로 정식 회의를 열지 못했지만 간담회를 통해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하고 시국 수습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었다. 이 자리에서 몇 명의 의원들이 “국민을 기만한 책임자는 물러나

게 해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고 군수뇌부 교체를 주장했다.¹⁾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강을 건너다가 말을 갈아탈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여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²⁾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인 30일에 이대통령은 미국 보병학교 시찰차 도미했던 정일권 준장이 귀국하여 도착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육군총참모장의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즉, 채병덕 소장을 현직에서 해임하고 7월 1일부로 정일권 준장을 소장 진급과 동시에 육·해·공군 총사령관겸 육군총참모장에 임명했던 것이다.

총장 교체를 거부하던 이대통령이 단 하루 사이에 이처럼 완전히 뜻을 번복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채총장을 해임하고 정일권 장군을 총장으로 임명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없다. 이대통령이나 신국방부장관의 언급도 없다. 단지 ‘바로 전날인 29일 한국을 방문한 맥아더 원수가 육군총참모장 경질을 요청하여 이대통령이 결심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과 함께 당사자인 정일권 장군과 관련자 몇 사람의 개인적인 증언과 기록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맥아더 원수의 요청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가능성을 반반 정도로 보는 것 같다. 이대통령의 완강한 성품으로 보아 외국군(맥아더)의 인사 개입은 있을 수 없다는 일면의 시각이

있다. 한편, 국가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기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이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여사의 회고록에 ‘맥아더 원수가 총장교체를 권고했다’고 밝히고 있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어떻든 채총장의 해임 동기는 ‘초전의 패배에 대한 책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만 그 책임을 왜 채총장만이 짊어져야 했는가 하는 점에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문책성 인사라고 한다면, 왜 국방부장관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을까? 전쟁이라는 국가적인 대위기와 재난에 대처하지 못한 데에는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장관급은 물론이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책임도 거론되어야 마땅할 것이었다.

한편 채총장 해임의 경위에 대하여는 강문봉 대령이 그의 회고록(‘6·25비화’)에서 다음과 같이 색다른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작전이 거듭 실패하면서 총장 소속의 하우스만 소령과 작전소 소속의 세드베리(George R. Sedberry, Jr.) 중령, 그리고 나는 6월 28일부터 총참모장의 경질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후임에 정일권 준장을 꼽고 있었다. ……

강대령이 육군본부 작전교육국장의 자리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6월 28일 이 시기에 과연 어떤 위치에 있었기에 총장 경질까지 논하게 되었는지 사실 여부와 그 신빙성을 확신할 수는

었다. 어떻든 그의 설명에 의하면, 6월 28일 오후부터 시흥에서 육군본부의 작전담당자와 합동근무를 하게 된 미 군사고문단에서 처음으로 채총장 교체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때 후임 총장으로는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정일권 준장이 거론되고 있었지만 채총장의 경질까지는 생각지 못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하우스만 소령이 그에게 총장 후임인 물에 대해 상의를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즉시 정장군이야말로 적임자 중의 적임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강문봉 대령은 주변의 여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전황을 감안, 총장 경질의 시기가 도래했음을 직감하고서 곧 신장관을 방문, 육군총참모장 교체를 건의하고 명령 초안을 작성하여 장관의 재가를 얻었다고까지 한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온 김에 정장군의 계급을 소장으로 올려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미군과 대등한 입장이 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채병덕의 눈물

채장군의 해임과 정장군의 임명 과정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주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의 『한국전쟁사』(제1권)에는 채총장 해임 및 정총장 임명 과정에 관련된 세 사람의 증언을 실고 있다.³⁾

먼저 정일권 장군이 뒷날 이 일에 관하여 밝혔다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6월 30일 오후 3시에 미국에서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다음 즉시 전선을 시찰한 뒤 육군본부에 돌아갔는데, 대통령이 서신을 보내왔기에 뜯어보니 내용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 육군총참모장, 계엄사령관에 명한다’는 대통령 친서로 된 명령서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은 사실을 함께 있던 총참모장에게 말하였더니 그는 깜짝 놀라며, “왜 나에게 한마디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매우 분개하였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마음을 안정시키더니 “그러나 나의 친애하는 정일권 차장이 이 일을 맡게 되어 꼭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만족한다”라고 하면서 앞으로의 대임을 부탁하였다.

다음으로 국방부장관 비서인 신동우 중령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6월 30일 아침에 장관이 불러서 갔더니 “채병덕 장군 귀하”라고 쓴 길다란 봉투를 주면서 “이것을 총참모장에게 갖다 주라”며, 갈 때는 국도로 가지 말고 공주 쪽으로 돌아서 수원으로 가라고 세밀히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 “편지의 개봉은 너하고 총장하고 단둘이 있을 때만 하라”고 했다.

장관명령을 받고 나는 지프차를 달려 공주쪽으로 해서 수원의 농업시험장에 있는 육군본부로 갔는데, 마침 그때 야크기 1대가 근처에 추락해서 반쯤 화상을 입은 북한군 조종사 1명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있었다.

그때 총장이 전선 시찰을 마치고 약 30분 뒤에 돌아왔는데,

내가 장관의 편지를 주니까 그는 서 있는 채로 겹봉을 뜯기 시작하였다.

이때 겹봉은 국방부장관이 총참모장 앞으로 쓴 것이고 속봉은 이대통령이 총참모장 앞으로 쓴 것이었다. 이대통령의 편지는 ‘채장군, 그동안 수고 많으셨소. 피로할테니 정일권 장군에게 지휘권을 넘기고 쉬도록 하오’라는 것이었다.

채소장은 그것을 보더니 손을 떨면서 한동안 얼굴마저 창백한 표정을 보이다가 안도와 낙담의 엇갈림 속에서 침착을 되 찾으려는 기색을 보였다.

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러나 당시 국방부장관 부관인 김병삼 대위는 이 일에 대하여 술회하기를,

신장관은 대전에서 대통령을 몇 번 만난 다음 정일권 장군의 귀국을 몹시 기다리는 눈치였으며, 독촉 국제전보도 한 두번 친 것으로 기억한다. 30일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정일권 장군은 그길로 대전으로 가 신장관과 이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이영진 충남지사 관사로 직행하였는데, 얼마 있다가 장관으로부터 총참모장의 경질을 발표하라는 명령이 내려다.

라고 한다.

이상에서 보면 채총장의 해임 및 정장군의 임명 통지가 각 다른 시간에 두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아니면 같은 시간

에 전달되었는지 분명치 않다. 이에 대하여 신동우 중령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이상이 『한국전쟁사』(제1권)에 기록된 내용이다.

이 일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당사자인 채병덕과 정일권 두 사람의 말이 가장 신빙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채장군은 이 일에 관해서 아무런 말이나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그 한쪽 당사자인 정일권 장군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을 남겼다. 그런데 정장군마저도 그의 회고록마다 이 사실을 상당히 다르게 기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희미하긴 하겠으나, 중요한 일을 이렇게 상이하게 기억하고 기록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먼저 정일권 장군이 쓴 『6·25비록 전쟁과 휴전』에 기술된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C-54수송기가 수원 비행장에 도착한 것은 30일 오후 2시 반 경이었다. 비행장에는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외 수명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이때 나는 예정보다 닷새나 뒤늦게 귀국하는 자책감으로 얼굴이 화끈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채장군에게 거수경례를 했다.

“정군,⁴⁾ 왜 늦었어.” 채장군의 일성이었다. 얼핏 듣기엔 굉장한 질책 같았으나 채장군으로서는 만감이 교차하는 첫마디인 것 같았다. ‘얼마나 나를 기다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 가슴에 와 닿는 솔직한 말이라고 생각되었다.

채총장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나를 데리고 바로 전선인 한강변으로 향했다.

지프차를 몰아 한강변으로 가는 도중에 채총장은 정장군에게 “정군이 빨리 와주기를 정말 기다렸소. 이제 정군이 왔으니 나도 좀 쉴 수 있게 됐어”라고 말했는데, 가는 도중에 채총장은 이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럴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한강전선 시찰을 마치고 일행이 육군본부 전방지휘소가 있는 수원의 농업시험장에 도착했을 때가 30일 저녁 6시쯤이었는데, ‘대통령 각하께서 기다리고 계심. 즉시 출두하라’는 긴급 명령이 와 있었다.⁵⁾

여기까지는 정장군이 귀국하여 채총장을 만나고 한강방어선을 둘러본 후 수원의 육군본부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 설명에서는 정장군이 대전으로 가서 임명장을 받게 되는데, 앞의 증언들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정장군이 대전으로 가서 이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과정이다.

경무대로 쓰고 있는 충청남도지사 관사에 내가 서둘러 도착한 시각은 밤 9시가 훨씬 지난 시간. 대통령 집무실에는 신성모 국방장관도 있었다.

여기서 이대통령은 양면패지에 미리 써둔 다음과 같은 글을 직접 읽었다.

임명장

육군준장 정일권, 명 육군소장, 보 육해공군 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1950년 7월 1일

대통령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임명장은 경무대 전용의 양면패지에 그가 직접 한 자 한 자 붓글씨로 쓴 것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물러나온 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맨 먼저 채병덕 장군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달리는 지프 안에서 나는 속으로 힘과 용기를 달라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⁶⁾

그러나 실의에 빠져 있는 채총장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는 것이 괴로운 부담이었다. 미국에서 귀국할 때는 돌아가서 채총장을 보좌하여 난국을 극복하리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뜻밖의 발령으로 사정이 달라지고 말았다.

수원의 전방지휘소에 도착했을 때 채장군은 한강전선의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출동하였으므로 시흥지구전투사령부까지 가서 그를 만났다. “오, 각하를 만나고 오는 길ियो?” 채장군은 나를 반가이 맞아 주었다. 나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고, 채총장도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1950년 7월 1일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 와중에 총참모장 채장군은 잠시 후 코를 골기 시작했다. 지난 닷새 동안을 거의 뜬눈으로 지새웠던 채장군의 지친 모습을 보고 더욱 마음이 안쓰러웠다. 그러나 나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채장군을 흔들어 깨우고, 경무대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이야기했다.

“열심히 보좌해 드릴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채장군은 내 두 손을 덥석 쥐었다. “튀가 미안해. 정군. 아니 총장각하. …… 열심히 보좌해 드리겠어요.” 그리고 채장군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 그는 어느새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있었다.⁷⁾

정일권 장군이 임명장을 받는 과정과 채총장의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그 후에 쓰여진 『정일권 회고록』에는 앞의 것과 또 다른 점이 발견된다.

귀국하자마자 한강 방어선부터 찾아 본 6월 30일은 나의 생애에 있어 가장 긴장되고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한강에서 수원의 육본에서 숨돌릴 사이도 없이, 대전 임시 경무대의 긴급호출을 받고 다시 지프차를 몰아야 했다. 충남도지사 관사가 임시 경무대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나에게 대한 임명장을 손수 써 놓고 있었다.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대독했다.

현 육해공군 3군총사령관 겸 육군총참모장 채병덕은 국방예비군총사령관으로 이임하고 현 육군참모부장 정일권을 육군총참모장 겸 육해공 3군총사령관으로 임명함.

단기 4283년 6월 30일 대통령 이승만

나로서는 참으로 뜻밖의 사령이었다. 채병덕 장군을 열심히 보좌하여 패세 만회에 헌신할 각오였는데 대독하는 신 장관

의 목소리가 어딘가 멀리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인 것처럼 착각되기까지 했다.

이 대통령은 나의 군복 어깨에 소장 계급장을 달아주고나서, “부탁하오. 정장군.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나만의 부탁이 아닙니다. 우리 국군 전장병, 그리고 국민 모두의 부탁임을 명심해 주기 바라는 바입니다. 어제 다녀간 맥아더 장군도 크게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의 군대가 오면 잘 협조해서 해주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하고 간곡히 말했다. 가슴 치는 충격과 함께 ‘대한민국 나의 조국’을 벅차게 느낀 순간이었다.

시각은 이미 7월 첫 날의 0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 시각부터 모든 작전을 주재하고 책임져야 한다. 시흥의 전투사령부로 차를 몰게 했다.⁸⁾

이 『정일권 회고록』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앞의 것과 특별히 다른 점은 임명장(후자가 진본과 일치함)과 정장군 임명에 맥아더 장군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외에 앞뒤의 것이 서로 다른 점들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사실인지 취사선택하기 곤란하다.

위의 자료 외에 고지마 노보루의 『한국전쟁』에도 신동우 중령이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채총장에게 해임 통고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이 비교적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⁹⁾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게 당사자의 기억이 다르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사실 확인이라는 면

에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한 채병덕 장군의 슬회를 들을 수 없는 것이 더욱 안타까운 일로 느껴진다.

어떻든 이렇게 해서 1950년 6월 30일부로 채병덕 소장이 육군총참모장직에서 해임되고, 7월 1일부로 정일권 소장이 새로운 총참모장으로 임명되면서 전쟁지도의 권한과 책임은 채소장에게서 정소장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2. 하동에서 벌이 지다

하동으로 가게 된 동기

6월 30일 육군총참모장에서 해임된 채소장은 이후 영남편성관구사령관¹⁰⁾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받아 부산으로 내려갔다. 이 때를 전후하여 노장급에 속하는 이응준 소장, 신태영 소장, 유승열 대령이 각각 전남편성관구사령관, 서해안지구편성관구사령관, 경북편성관구사령관 등의 직책으로 후방지역에서 활동하였다.

부산에 머무르던 채소장이 어떻게 해서 하동으로 가게 되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증언들은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에서 발간한 『한국전쟁사』(제1권)에는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7월 24일에 영남편성관구사령관으로 보직된 채병덕 소장의 신고를 받고, ‘하동은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요성이며 진주 및 사천으로 이르는 통로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¹¹⁾라고 역설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것은 착오인 듯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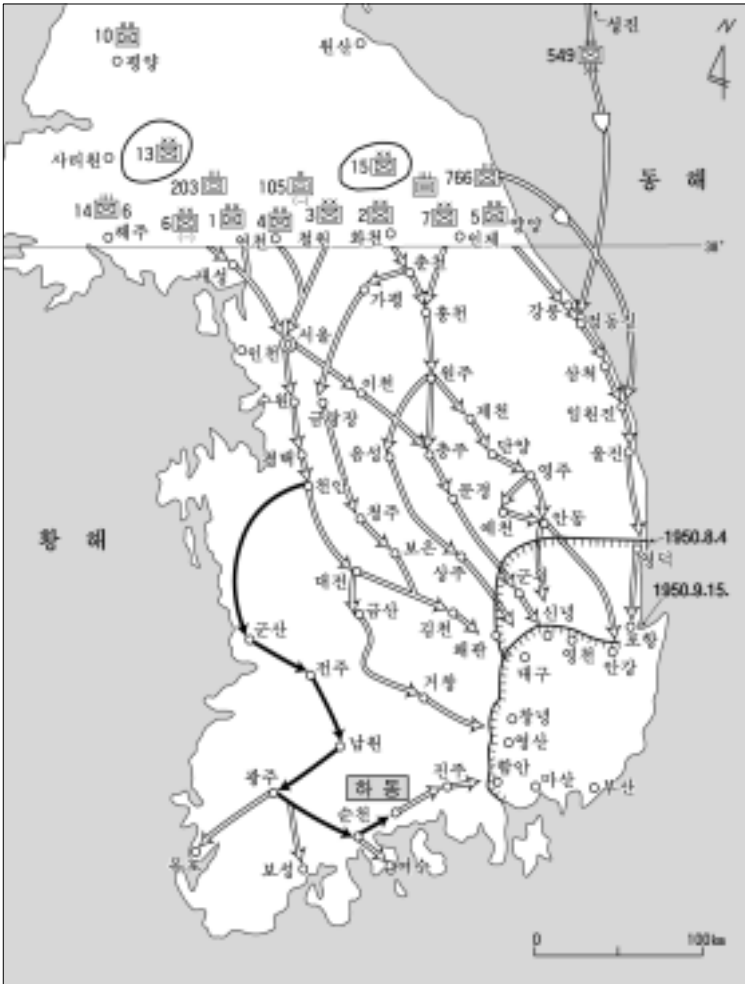
왜냐하면 6월 30일에 해임될 때 채소장에게는 이미 이대통령으로부터 ‘국방예비군총사령관¹²⁾이라는 직책이 부여되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난 7월 24일에야 보직신고를 했다는 것은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합당하지 않다.

『참 군인 이종찬 장군』에 기술된 내용을 보면, 7월 5일에 수도사단장직을 김석원 장군에게 넘긴 이종찬 대령이 “채병덕 소장이 부산에서 새 전력을 조성중이므로 귀관은 채소장의 지휘하에 들어가 제9사단을 신편하라”는 새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채병덕과 합류하여 사단편성문제를 협의했다고 한다.¹³⁾ 그러므로 채소장은 일찍이 7월 초순부터 부산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하는 자리에서 국방부장관이 ‘하동을 방어하라’고 채소장에게 지시했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으며, 다른 자료 및 증언과도 차이가 있다. 만일 신고시에 어떤 지시를 했다면 일반적인 사항이거나 영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며, 결코 하동을 지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시기에는 아직 하동이 문제시되지 않을 때였다.

그러나 신고 당시는 아니라고 해도 채소장으로 하여금 하동 전투에 참여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제공한 사람은 역시 신

국방부장관이 분명한 것 같다. 몇 가지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때의 정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요도 3> 북한군 제6사단의 호남지역 기동 및 하동 진출 상황

파죽지세로 남하한 북한군이 호남지방을 석권하고 있을 무렵인 7월 22일(23일 또는 24일이라는 증언도 있다) 채소장에게 국방부장관이 보내는 편지 한 통이 전달되었다. 이 편지를 전달했다고 알려진 장관부관 신동우 중령의 말에 따르면, 그가 전달한 서한에 “각 병원에 입원 중인 장병중에서 거동이 가능한 부상병과 그밖의 병력을 모아 하동으로 출동하라”는 명령이 쓰여 있었다고 한다.

전편위 『한국전쟁사』(제1권)에는 “채병덕 소장은 한때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고 실의에 빠져 있었으나, 이처럼 막중한 작전임무가 부여되자 생기를 되찾은 듯이 기뻐하고 다음날 아침에 정래혁 중령을 대동하고 하동으로 달려갔다”¹⁴⁾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게 진행된 것 같지 않다. 당시 제9사단장이었던 이종찬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7월 20일이 지난 어느 날 채병덕이 자기를 불러 “신성모 장관한테서 편지가 왔다. 자네가 읽어보게”라고 하여 그가 대강 훑어본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고 한다.

귀관은 서울을 잃고 중대한 패전을 했다. 책임은 중하고 또한 크다. 그런데 적은 전남에서 경남으로 향하고 있다. 이 적을 막지 않으면 전 전선이 붕괴될 것이다. 귀관은 패주중인 부대를 지휘해서 적을 격퇴하라. 귀관은 선두에 서서 독전할 필요가 있다.

는 힐문장(詰問狀) 비슷한 것이었다. 마지막 구절은 ‘죽어서

잘못을 사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¹⁵⁾

다 읽고 난 후에 이대령이 말없이 편지를 채소장에게 돌려 주자, 그는 잠자코 그것을 불태워 버렸다. 이종찬은 이때 채장군이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것으로 여겼다고 한다. ‘패주 중인 부대를 지휘하고 선두에 서서 독전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 편지가 장관 스스로 쓴 것인지, 아니면 상사인 이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쓴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이종찬은 그후에 “신장관의 편지가 채장군을 죽음으로 쫓아 보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다시 전선으로

명령을 받은 채장군은 참모들을 이끌고 자신이 직접 부산과 마산에 있는 각 병원들을 찾아 활동이 가능한 부상병을 수습하여 부대를 편성했다. 겨우 1개 대대 규모였다.

당시 채사령관의 참모였던 정래혁 중령의 증언은

그 무렵 채소장은 패전의 책임을 통감하여 보기에다 딱할 정도였는데, 작전 임무가 주어져서 기운이 난 것 같았다. 우리는 채장군과 함께 부산과 마산지구의 병원을 뛰어다니며 경상환자를 몰아내어 부대를 새로 편성했는데, 겨우 소총만을 가진 1개 대대를 편성했을 뿐이었다. 채소장은 이를 24일 오덕준 대령에게 지휘시켜 진주로 보냈다.

7월 24일 부대를 먼저 출발시킨 후 채소장은 늦은 밤에 송도에 있는 셋방의 가족을 찾아갔다. 채소장의 미망인 백경화씨는 그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나는 6월 27일에 서울을 떠나 28일에 부산에 도착했는데 바로 그날 막내 아들을 출산했다. 남편을 만난 것은 7월 24일인 것으로 기억한다. 남편은 아이를 보자 이름을 생각하다가 영웅(英雄)의 ‘영’자와 38선 이북으로 진격(進擊)한다는 ‘진’자를 따서 영진(英進)이라고 짓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신성모 장관의 편지를 받고 전선으로 떠나는 채소장의 비장한 결심이 미망인의 회고담에 여실히 배여 있다. 어떤 기록에는 부인에게 “다시 군인으로 싸우게 되어 기쁘다”는 말을 남기고 전선으로 갔다고 되어 있다.

육군본부에서는 그 다음 날짜로 작명 제70호(1950. 7. 25, 16:00)를 하달하여 채소장으로 하여금 남원-하동전에서 이웅준 부대와 민기식 부대를 통합지휘토록 하였다. 그 작명의 요지는,

아군은 호남지구로 남하하여 전남북도를 교란시킨 후 경상도로 침투하려고 하는 적을 저지하기 위하여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며, 육군소장 채병덕은 이웅준 부대와 민기식 부대를 통합 지휘하여 이를 포착·섬멸하라.

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무렵, 통신수단이 두절된 상황하에서 두 부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당시 이웅준 부대는 순천으로부터 여수로 철수 중이었으며, 민기식 부대는 운봉으로부터 함양으로 지연전을 전개하며 후퇴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채소장으로서는 그 움직임을 알 수 없었다. 심지어 오덕준 부대의 소식도 알 수가 없었다.

이러한 까닭으로 하동지구에는 겨우 신편 제5사단 제15연대의 일부 병력만이 집결하고 있었을 뿐이다.

채소장은 하동에 가서 현지를 정찰하고 지리적인 중요성을 재인식하였으나, 이곳을 방어할 만한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음을 알았다. 그의 고충을 알아챈 정래혁 중령이 “제가 이곳에 남아 정보를 수집하면서 후퇴해 오는 부대를 수습하여 방어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자, 그는 쾌히 승인하고 그를 남겨둔 채 진주로 돌아갔다.

다시 정래혁의 증언을 들어본다.

하동은 확실히 요충이다. 나는 지리산 서쪽 산기슭에 자리잡은 곡성 태생이며, 전라남도 경찰청에 근무한 적이 있었으므로 이 부근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다. 지리산 남쪽 산기슭의 이 마을은 경남과 전남의 도 경계로 되어 있는 섬진강에 임한 경남 서남단의 도읍이며, 순천이나 남원, 그리고 구례를 거쳐 경남에 이르는 도로의 교차점이다. 만일 이곳이 적의 손에 넘어간다면, 적은 쉽게 진주에 육박할 것이다.



전쟁 당시의 하동 시가지

25일 하동에 가 보았으나 우군의 상황도 적의 동정도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하동이 전술적으로 요충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채소장은 이곳을 방어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부대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하동에 남아 정보를 수집하고 후퇴해 오는 부대를 붙들어 방어하기로 하고 채소장께서는 진주로 돌아가시게 했다. 진주에 오기로 되어 있다는 미군과 연락하기 위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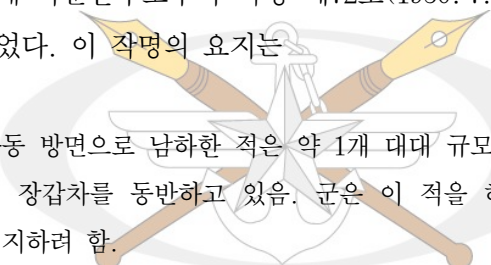
이때 미 제8군사령관 위커 중장은 김천 부근에 집결하여 정비 중에 있던 미 제24사단을 급히 진주로 이동시키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이 사단의 제19연대(-)가 24일 밤에 진주로 이동하였다. 이어서 25일 저녁에는 일본 오키나와를 출발한

제29연대의 제1 및 제3대대가 진주에 도착하여 제19연대에 배속되었다.

진주에 돌아온 채소장은 그 길로 미 제19연대장 무어(Ned D. Moore) 대령을 방문하여 “호남지구로부터 동진 중인 적을 하동에서 막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자신도 하동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리하여 두 사람이 하동으로 진격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채소장은 공격제대의 고문으로 동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늦게 육군본부로부터 작명 제72호(1950. 7. 25, 23:00)가 하달되었다. 이 작명의 요지는

- 
- (1) 하동 방면으로 남하한 적은 약 1개 대대 규모이며 약간의 장갑차를 동반하고 있음. 군은 이 적을 하동선에서 저지하려 함.
 - (2) 채병덕 소장은 이미 수령한 임무를 완수하는 동시에 하동으로 약진하여 동쪽으로 진출해오는 적을 섬멸하라.
 - (3) 장갑차 공격시에는 휘발유병(휘발유 충전)을 제조 사용하라.
 - (4) 전투지휘소의 위치를 보고하라.

이처럼 적을 섬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채소장에게는 그럴만한 병력이 없었다. 부관 이상국 소령 및 김영혁 대위와 새로이 합류한 박현수 중령이 그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당시 제7사단(사단장 민기식 대령)의 제3연대장이었던 박현수 중령이 채소장과 행동을 같이 하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다. 박중령이 증언하는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는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부대를 이끌고 전주-순천-여수-부산으로 향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발대를 보내 확인해 본 결과 여수에서는 이미 배가 출발하였으므로 도보행군으로 순천-하동을 경유, 7월 18일(또는 19일)에 진주에 도착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가 채장군을 만났는데, 내가 진주에 오게 된 경위를 듣고 “잘 만났다. 내가 영남지역사령관으로 명령하니 제3연대는 육본 명령대로 부연대장 지휘하에 부산으로 이동시키고 귀하와 연대의 일부병력은 이 시간 이후 나의 지휘에 따르라. 귀하는 일본에서 미군 교육을 받았으니 미군과 협조를 잘 할 수 있지 않겠나”¹⁶⁾라고 해서 본대는 부산으로 가게 하고 연대의 일부 병력과 나는 채장군 지휘하에 들어갔다.

미군과의 동행

이렇게 해서 채소장을 수행하게 된 박중령은 때마침 미 제24사단 제19연대가 진주의 어느 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채소장과 함께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을 찾아갔던 것이다.

채소장과 무어 대령간의 합의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언급하였으나, 박현수씨의 증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좀더 생생하게 알려준다.

무어 대령을 만난 채소장은 “우리가 진주에서 그제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안되니 전차 1개 중대를 포함한 1개 소대를 차출하여 적의 진주 공격을 막는 동시에 적의 서측방을 공격하자. 그러면 그들의 주력을 분산시켜 적의 주공격 병력을 서부쪽으로 유인 분산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구의 함락은 시간 문제이고, 대구가 떨어지면 부산까지도 위험하여 교두보마저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러니 서부쪽으로 내려오는 적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득하였다.

무어 대령은 처음에는 출동을 완강히 거부하였으나, 채장군의 끈질긴 설득에 마침내 동의하였다. 이때 무어 대령은 우리의 요구대로 공격은 하지만, 채장군과 나는 반드시 자기네 대대장과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조건부였다.

한편 단신으로 하동에 남았던 정래혁 중령은 저녁 때가 되자 구례 방면에서 삼상오오로 후퇴해오는 우군 병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제15연대 소속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광주나 순천 근방에서 막 징모된 신병들이었다. 그들은 정지하라고 해도 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병사가 많았다.

그래도 20~30명을 모았기 때문에 이를 하동에 배치하고 채소장의 지원을 기다렸다. 적의 대부분은 구례를 거쳐 남진 중

이며, 이날(25일) 정오 무렵 화개장(花開場)에서 아군 부대와 교전했다고 하므로 거리로 치면 저녁때에는 하동에 진출해 올 것으로 판단되었다.

초저녁에는 피난민들 외에는 적의 동태가 느껴지지 않았으나 밤이 깊어졌을 때 이윽고 섬진강 북안 도로에 대규모의 적군 종대가 나타났다. 잠시 적과 교전을 벌였으나 곧 병사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12~13명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이때 적이 후방으로 포위할 기색을 보였으므로 어찌 할 도리가 없어 트럭으로 후퇴하였다.

한편 이와 거의 같은 시각에 미 제19연대장 무어 대령은 하동이 실패된 사실을 모른 채 배속된 제29연대 제3대대장 모트(Horald W. Mott) 중령에게 하동으로 진출하라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모트 중령은 '대대는 전투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포병과 중박격포의 지원도 없이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곤란하므로 공격보다는 방어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건의하였으나, 연대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대대장 모트 중령은 날이 새기 전에 하동으로 진출하기로 결정하고 그곳에 이르는 도로 상황을 도상 연구하였다. 이때 그 자리에 있던 채소장이 하동을 왕복하면서 관찰한 도로망에 대하여 그에게 조언하였다.

이때 민부대 예하의 제30연대(연대장 김용주 중령)가 이곳 진주에서 부대를 재편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채소장은 즉

각 연대장을 불러 출동을 명령하였다. 이리하여 이 연대는 미 제29연대 제3대대와 행동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모트 중령이 지휘하는 제29연대 제3대대는 26일 0시 30분에 진주를 출발하여 채소장의 길안내를 받으며 차량편으로 하동으로 향했다.

그 무렵 때마침 폭우가 쏟아진 뒤라 하천이 범람하고 교량이 유실되어 도로 상태가 매우 나쁜데다가, 전방에 대한 수색을 마치고 나서야 본대를 진출시켰던 까닭에 행군은 어렵고 속도가 느렸다.

이렇게 하여 하동에서 20km 못미친 원전동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기에서 마침 하동으로부터 철수 중인 정래혁 중령 일행을 만나, 일행은 비로소 전날밤에 하동이 적의 수중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소장은 정래혁 중령의 노고를 치하하고 “진주에 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였다.

적정을 알게 된 대대장 모트 중령은 대책을 숙의한 끝에 이 상황에서 하동으로 진출하기는 대단히 어려우므로 현 위치에서 방어할 것을 건의하기 위해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을 진주로 급파하였다. 사람을 직접 보낸 까닭은 무전기가 고장났기 때문이었다.

연대장을 만난 부대대장은 현지 상황 보고와 포병 및 전술 항공통제반의 증파, 그리고 하동 공격보다 방어를 하는 편이 더 좋겠다는 건의를 전하였다.

그러나 연대장은 증원문제는 곧 조치할 것을 약속하였지만, 하동을 공격하라는 최초의 결심을 바꾸지는 않았다.

이렇게 부대대장이 진주를 왕복하는 사이에 이외로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대대가 하동 동북쪽 8km 지점인 횡천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졌다. 대대장 모트 중령은 훈련되지 않은 병력으로써 야간에 접전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야영기로 하였다.

채병덕 장군의 최후

다음날인 7월 27일 아침에는 그동안 계속해서 내리던 비가 그치고 안개마저 활짝 걷히어 날씨가 맑아졌다. 미 제3대대는 오전 8시 45분에 횡천리의 야영지에서 하동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대대가 1시간 남짓 행군하여 선두인 L중대가 쇠고개(牛峙)에 이르렀을 때 최선두에 나섰던 중대장 샤라(Sharra) 대위가 적병 10여명이 앞쪽 고갯마루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사격을 명령하였다. 중대장은 적이 이 고개를 먼저 점령할 경우에는 하동으로 가는 통로가 막힐 것이라고 판단하고, 각 소대로써 이 고갯마루로 돌진케 하여 도로의 양쪽을 일거에 탈취하였다.

대대장 모트 중령은 샤라 대위의 전향보고를 받고 단숨에 이 고개로 달려가 지형과 적의 동태를 살핀 다음, L중대장에

게 “고갯마루의 양쪽을 계속 점령하고 있다가 9시 45분에 항공지원과 함께 하동으로 공격하라”고 명령하였다.

대대장에 이어 대대참모들이 쇠고개에 올라갔다. 뒤이어 채병덕 소장의 일행도 뒤따라 고개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고갯마루에는 지휘관과 참모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었는데, 이것은 적에게 좋은 목표가 된 셈이었다.

L중대장 사라 대위는 병사들의 개인호 작업을 독려하다가 북쪽 181고지에 병력이 있는 것을 보고 대대장에게 이를 가리키자 그는 대대의 후미에서 뒤따르던 K중대로 하여금 이 고지를 공격하도록 명령하였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181고지에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어서 아군부대가 그곳을 점령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설명도 있다.

또 북한군은 이미 26일 오후에 하동-횡천리간의 좌우 고지를 이미 점령, 미군의 하동 행군을 유인하여 사정거리 내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군은 알지 못했고, 그것이 채장군 전사와 미군 참패를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뒤 하동 쪽에서 S자형의 도로를 따라 쇠고개로 1개 대대 규모의 병력이 별다른 경계도 없이 2열 중대로 행군해 오고 있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들은 고개 정상에 아군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접근해 오고 있다.



<요도 4> 1950년 7월 27일 쇠고개(牛峙) 전투 상황

이때 채소장은 이 병력을 쌍안경으로 살폈으나 그들의 복장만으로는 한국군인지 북한군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아군복장을 혼합 착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L중대장 샤라 대위는 전대원에게 적이 가까운 거리에 접근할 때까지 사격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침내 그들의 참병으로 보이는 선두가 약 100m 앞에 이르렀을 때 채소장은 “너희들은 적이나? 아군이냐?”하고 고함을 질렀다.

이러자 마자 그들은 대답도 없이 곧 산개하여 도로 양쪽의 도랑으로 뛰어 들었다. 순간에 L중대장은 사격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적은 발광적으로 응사하기 시작하여 피아간에 격렬한 사격전이 시작되었다.

이때 이미 181고지를 점령하고 있던 북한군은 쇠고개 정상
의 지휘부에 화력을 집중시켰고, 그중 2발이 채장군에 명중되
었다. 그는 눈깜짝할 사이에 머리와 턱에 관통상을 입고 쓰러
졌다.¹⁷⁾ 옆에 있던 대대장 모트 중령, 부대대장 레이블 소령,
대대 정보장교도 중상을 입었다. 또 박현수 중령도 왼쪽 팔목
에 관통상을 입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당시 채장군의 전사 현장을 목격하고 그의 시신을 차에 옮
겨 실었던 김영혁씨의 증언을 들어본다.

난데없이 좌측 181고지에서 탕탕하고 몇 발의 총알이 날아오
더니, 이내 적의 일제사격이 개시되었다. 채장군은 북한군의
이 총탄에 쓰러졌다. 2m가량 떨어져 있던 내가 달려가보니
머리와 턱에 관통상을 입고 말 한마디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이때 채장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 수 없이 내가 장군의 시체를 100m 고개 아래로 엮고 내
려와 미군 트럭으로 진주까지 후송했다. 누가 뭐래도 채장군
은 적과 싸우다가 전사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까.

그런데 박현수 중령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갑자기 우측고지에서 집중사격을 퍼붓는 바람에 채장군은 전
사하고 나도 거기서 왼쪽 팔목 관통상을 입었다. 그때 채장
군의 부관인 이상국 중위도 옆에 있었다. 3/4톤 차량으로 채
장군을 운구하였는데, 나도 그 차편으로 진주로 나왔다.

이로부터 적의 박격포탄이 비오듯 쏟아져서 전술항공통제반의 무전차량과 대대 지휘차량이 파괴됨으로써 대대 지휘가 마비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대대의 공격을 지원하기 위해 날아온 2개 편대의 항공기는 지상의 무전기가 파괴되어 연락을 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그냥 돌아가 버렸다.

대대본부 장교 중 부상을 입지 않은 장교는 작전장교 후린 대위 한 사람뿐이었다. 북한군은 집중사격에 이어 돌격을 개시해왔다.

다음날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제3대대의 피해는 전사 또는 부상 54명, 실종 349명이었으며, 장교의 피해는 더욱 심해서 대대장, 부대대장, 인사장교와 정보장교가 중상을 입었고, 중대장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제11중대장 한 명뿐이었다.

얼마 후에 채소장의 전사 소식을 듣고 달려갔던 신동우 중령은 “바로 차를 몰고 진주로 갔더니 미군이 벌써 시체가 옮겨졌다고 전해주어 나는 결국 부산으로 가 육군병원에 안치된 채소장의 시체를 붙들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당시의 일을 회상하였다.

또 이종찬 대령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전사 통보를 받고 당시 부산 육군병원으로 달려갔을 때는 신동우씨 그리고 가족 등 친지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채장군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워 부인 백경화 여사도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시신은 화장을 해서 부산 묘심사에 납골했는데, 지금은 국군묘지 장군묘소에 안치되어 있다.

채병덕을 잃은 이종찬은 한동안 허탈상태에서 괴로운 심정을 가누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또한 유일한 동기생인 채병덕의 죽음은 군에 몸담은 그에게 큰 상처인 동시에 손실이기도 했다.

하동전투에서 미군이 입은 피해는 이외로 심대해서, 이 해 9월말에 아군이 복진하면서 미 제25사단이 하동을 수복하고 동 대대의 실상을 조사하여 313구의 미군 시체를 횡천강 일대에서 발견하였다.

채장군 전사에 대한 논란

채장군은 대한민국의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전투 현장에서 전사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에 실패한 지휘관으로서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 그리고 육군총참모장까지 역임한 그가 겨우 1개 대대를 데리고, 그것도 미군의 안내역을 맡아 전선에 나갔다가 죽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동전투에 대하여 북한공간사 『조선전사』는 '181고지를 선점한 아군이 지도를 놓고 둘러서 있는 적의 장교집단에게 명중탄을 들썩워 대대장을 비롯 모두 살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채병덕 장군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들이 전직 총참모장 채병덕 소장이 이곳 쇠고개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을 것인데, 그것은 몰랐던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전투의 전투서열상 채소장이 포함되지 않았던 데도 원인이 있겠으나, 육본에서 피아의 사기를 고려하여 채소장의 전사발표를 미룬 데 있었으며, 이것이 유언비어의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채병덕 소장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동안 의혹이 있었으나, 당시의 정황과 여러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쇠고개에서 접전 중에 적의 사격을 받아 전사한 것이 분명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박현수 중령이 부상당하였고, 미군 장병들의 피해가 컸던 사실을 보면 적의 사격이 얼마나 치열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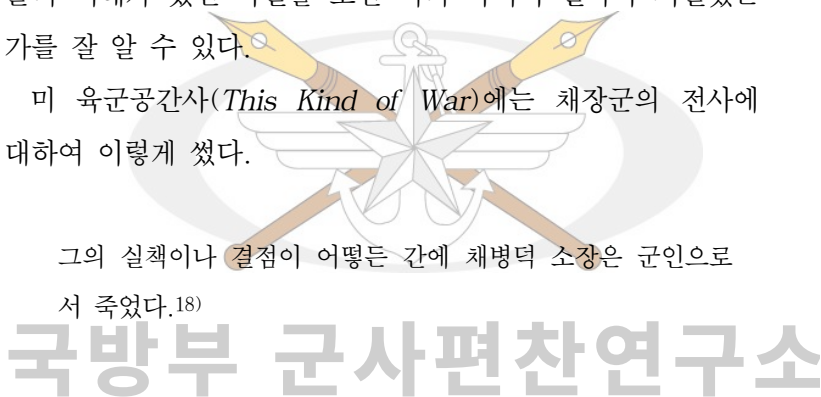
미 육군공간사(This Kind of War)에는 채장군의 전사에 대하여 이렇게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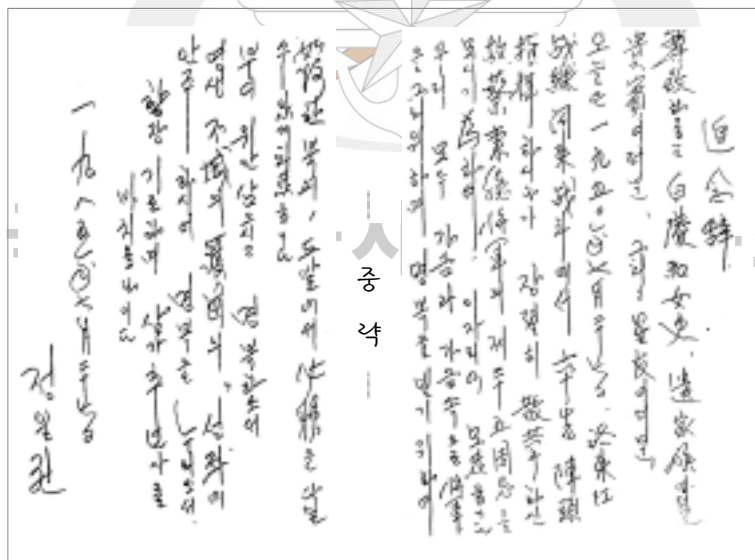
그의 실책이나 결점이 어쨌든 간에 채병덕 소장은 군인으로
서 죽었다.¹⁸⁾

채소장은 전사 후에 중장으로 추서되었다. 그리고 을지무공훈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총참모장을 역임한 장군이 1개 대대 병력의 지휘관으로 전락하여 전투에 참가한 것’이라 하여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으나, 그런 지적은 당시의 상황과 여건을 잘 알지 못한 소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시기에 육군 최고위의 총참모장이 그 직책에서 물러난





채병덕 장군 전사 제35주기 추도식에서 추념사를 읽고 있는 정일권 장군

후에 그보다 낮은 직책에서 복무한 경우는 채병덕 장군만이 아니었다. 초대 육군총참모장 이용준 소장과 3대 육군총참모장 신태영 소장도 후방지역에서 편성관구사령관이란 직책을 맡아서 동분서주하고 있었다.¹⁹⁾ 그들도 이름은 사령관이라고 하지만 예하 병력은 지극히 보잘 것 없었다.

그러므로 총참모장이었던 채소장이 영남편성관구사령관의 직위를 갖게 되었다고 해서 그만이 그렇게 되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육본 작명에는 채소장이 이용준 소장의 부대와 민기식 대령의 부대를 통합지휘하라고 하였으니, 굳이 전략이라는 뜻으로 따진다면 이용준 소장의 경우는 어떨까?

또한, 당시에는 한국군의 절대병력이 부족하였으므로 병력이 있다면 전방으로 보내야만 했다. 그리고 후방에서는 최대한의 인력을 모아 자체 충원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이 그때의 실정이었으며, 채소장과 같은 직책을 맡은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이기도 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백의종군도 할 수 있을 터이고, 예비역도 현역으로 복귀하여 직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치 않고 복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군인이 되었던 자의 의연한 봉사의 태도이다. 채소장의 경우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제 2 장 궤적(軌跡)

1. 풀지 못한 악연(惡緣)의 고리

이형근과의 불편한 관계

채병덕과 이형근은 건군기 국군의 선두주자였고 핵심간부였다. 일찍이 국방경비대에 투신,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함과 동시에 임관하여 장교군번 1번과 2번을 받은 사실이 그것을 상징한다.

나란히 군번 1, 2번을 받은 것은 동시대에 동일한 처지에 있으면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될 수도 있는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한 요인이 되었다. 가장 가깝고도 먼 사이가 되고 만 것이다.

지금은 두 사람 모두 타계하였다. 반세기의 간격을 두고서.

세상을 떠나기까지 두 사람은 살아 생전의 갈등 관계를 풀지 못하고 간 것 같다. 채병덕은 미처 그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이형근은 채병덕 보다 50여년을 더 사는 동안에도 그와의 불편했던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은 것 같다. 이형근의

회고록이나 그가 쓴 글들에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우리 군의 원로에 속하는 두 사람의 갈등 관계를 언급하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이 못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두 사람의 입장을 살펴보면 당시의 우리 군이 처했던 환경과 사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건군기 우리 군 장교 집단의 확실한 컬러를 두 사람이 대변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인간사(人間事)와 장교 집단에서 있을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적인 면들이 농축되어 있다. 개인적인 성격의 차이, 색깔이 서로 다른 인물들의 조화되지 않는 간극, 군사부문에 대한 시각 차이와 작전지도의 견해 차이 등등.

또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히 개인적인 관계로만 생각되지 않고 건군 초기 국군 내에 발생했던 파벌의 대표적인 경우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견해가 사사키 하루다카의 '한 국전비사'에 잘 나타나 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국군의 중핵이 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출신 계별과 출신지별 및 입대 연차별 등 복잡한 요소로 구성되었다. 그러므로 우선 출신계별을 중심으로 한 파벌이 구성되기 시작한 것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다.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한국의 두뇌와 재간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뿐이었으니까 계열 중에 파벌이 생긴 것도 수긍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육사 출신의 채병덕과 이형근의 불화이다.²⁰⁾

당시 그들의 주변에 있으면서 두 사람 사이를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화라는 측면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 생각하여 그것에 대해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무엇보다 먼저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좋겠는데, 이형근이 오랫동안 생존하여 자기의 입장을 피력할 수 있었던데 반해, 채병덕은 일찍 전사하여 그 자신의 말을 남기지 못했던 것이 걸림돌이 된다. 어떤 일이든지 한편의 말만을 듣고서는 사건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주로 이형근의 주장과 회고를 중심으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형근의 말을 역으로 추정하여 채병덕의 입장을 살펴보고, 또 보충적인 자료를 참고로 하기로 한다.

따라서 채병덕의 생각과 입장은 추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찌보면 이형근 보다는 채병덕의 입장을 변호하는 듯 한 모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어서 말이 없는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려다보면 짐작될 만한 상황을 가정하거나 이것저것 아무것이라도 끌어다 놓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형근은 채병덕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질적인 존재였음을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나와 채병덕씨와는 옛날부터 마음이 맞지 않았다. 몸매나 출

신지도 다르지만 육사에 입교해서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경력도 전혀 이질적인 사람이었다. 예를 들면 나는 당시 일본의 아남(阿南) 육군장관의 아들 유경(惟敬)씨와 동기여서 육군장관의 관저에 가끔 놀러 갔었다. …… 그러나 채병덕씨는 일본인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또한 나는 제3사단의 야포병(野砲兵)연대 근무로 상계작전(湘桂作戰)에 참가했고, 1945년 초부터는 제73야포병연대의 중대장으로 몹시 고생했다. 그런 관계로 전선의 분위기와 작전은 내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채병덕씨는 그 전쟁 중에도 병기 분야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소총탄의 세례조차 받은 일이 없었다.

행인지 불행인지 나는 영어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대로 아쉽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채병덕씨는 어학을 싫어하는 편이었다.

이와 같이 하나부터 열까지 서로 상반된 사람도 별로 없다고 생각되고, 두 사람의 이런 갈등상태는 국군의 중견층으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잘 알고는 있었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인간이란 슬픈 것이다.²¹⁾

또 그의 회고록 『군번 1번의 외길인생』에서 채병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 분은 체중 110kg의 거대한 체구와는 달리 성격이 몹시

섬세했고 일본군에서 병기장교(소좌)로 복무했기 때문에 작전능력은 미지수였다. 이러한 육군총참모장이 6·25사변의 초전에 국군을 지휘했던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었다. 그후 그는 국군이 인민군에게 한참 밀릴 때 하동전투에서 전사했다. 국가 존망의 위기에 채장군과 내가 창군 작업 이후 계속 불화했던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²²⁾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형근은 자신과 채병덕의 관계가 불편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말하고 이런 관계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다거나 두 사람이 계속 불화했던 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채병덕의 차이점을 대비하면서 자신의 우월성을 자랑하고 채병덕의 결점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다.

즉, '일본 육군장관의 관저에 가끔 놀러 갔다'든가, '전선의 분위기와 작전을 잘 알고 있었다'든가, 또는 '영어를 잘 했다'고 자신을 표현하였다.

한편 채병덕에 대해서는 '병기 분야에서만 근무했기 때문에 소총탄의 세례조차 받은 일이 없었다', '어학을 싫어하는 편' (영어를 잘 못했다는 말로 들린다), '체구와는 달리 성격이 몹시 섬세했다', '병기장교로 복무하여 작전능력이 미지수인 자가 육군총참모장이 되어 전쟁에서 국군을 지휘했던 것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에는 전쟁 초기 작전지도에서 충돌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자신을 변호하려는 포석이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입장과 생각의 당위성을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예는 그의 회고록에서 또 읽을 수 있다.

(남북교역사건으로) 이대통령이 두 사람 다 예비역으로 편입시켜 버렸다. 후임 총장에는 신태영 소장이 임명되었는데, 채장군은 교묘하게도 6개월여 만인 1950년 4월 총참모장으로 복귀했다. ……²³⁾

그냥 ‘채병덕이 총참모장으로 복귀했다’고 서술하지 않고, ‘교묘하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에서 채병덕에 대한 자기 감정이나 비판의 일면을 읽을 수 있다.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표현만을 근거로 해서는 객관적인 사실 접근이 어려울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충돌의 잔해

채병덕과 이형근의 갈등 문제는 위에서 든 것 뿐만이 아니지만, 그것들은 대체적으로 이형근을 두둔하고 채병덕을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모양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 편이다.

하지만 양 편의 정당한 주장을 듣지 않고서는 객관적인 평

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 사람이 대립한 몇 가지 사항만을 열거하고 대강의 언급만을 하려고 한다.

그 중에서 군번 1, 2번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일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고, 또 제1장에서 설명한 바 있다. 아마도 이때부터 두 사람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대립의 길로 들어섰던 것 같다.

이형근의 회고록에 의하면 채병덕이 제2대 육군총참모장이 되던 당시 미국에 있던 이형근은 상당히 긴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그가 귀국한 후 제8사단장에 보임되는 과정에서 그는 채총장에 대해 감정의 골이 생겼다. 불만을 가졌던 것 같다(그러나 채병덕의 생각과 반응은 알 수 없다).

특히 이형근은 사단장 근무시에 북한군의 남침 징후에 대한 정보를 육본에 보고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에 분노감을 나타냈다. 또 채총장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서 공비 토벌의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였다.

그 다음으로 제8사단장에서 대전의 제2사단장으로 전임된 동기에 대해서도 이형근은 불만을 나타냈다. 그것이 채병덕 총장의 잘못된 인사이동의 하나라고 단정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이형근이 불만스러워 했던 일에 대한 채병덕의 입장이나 생각, 반응은 전혀 알 수가 없다.

채병덕과 이형근 두 사람의 대립을 가장 극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은 역시 의정부 회랑에서 벌어졌다.

이형근의 주장에 의하면 바로 직전에 대전에서 상경한 그의 일부 부대를 의정부 지역에 투입하는 것에서부터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여기서 축차투입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과 논란이 있어 왔다. 전술적으로 채병덕의 결심이 틀렸고 이형근의 건의가 옳았다고 하는 의견이 있다. 그래서 채병덕의 지휘자질이 문제시 되기도 한다.

반면에 채총장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설사 이형근의 견해가 옳다고 해도 적전에서 항명할 수 있느냐 하는 비난도 있다. 뿐만 아니라 제2사단이 패배함으로서 제7사단까지 후퇴케 한 것은 전적으로 이장군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어떻든 두 사람의 불화는 개인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우리 군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두 사람이 끝내 그 악연의 고리를 풀지 못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2. 군인으로서의 채병덕

군인의 외길

채병덕은 1915년 4월 17일 평안남도 평양에서 출생하여

1950년 7월 27일 경상남도 하동에서 전사하기까지 만 35년 3개월의 길지 않은 삶을 살았다. 그는 마치 군인이 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오직 군인으로서의 외길 인생을 살았다.

이종찬씨의 회고담에서는 그 자신이나 채병덕이 일본 육사에 입교한 동기를 민족적 또는 애국적인 면에서 묘사하고, 먼 훗날에 있을 해방까지를 생각한 것처럼 기록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일본 육사를 지원하면서 그토록 멀리 내다보고 큰 생각까지를 품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일본군 장교로 시작하여 그것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그는 국방경비대 창설에 뛰어들어 그 육중한 몸을 날리며 동분서주하였다.

해방 후의 혼란기에 아직 군대라고도 할 수 없는 국방경비대를 만드는 과정에 채병덕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쏟으면서 그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그리고 건군기에는 선두주자로서 맹활약을 하였다. 그와 동시대에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는 확실히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었다.

난세의 풍랑에서 수 차례의 부침을 거듭하면서도 그는 자기 자리를 되찾곤 했다. 하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태풍의 와중에 휘말려 들어가서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침몰하고 말았다.

한국전쟁 초창기 전쟁지도의 핵심에 위치했던 육군총참모장 채병덕 소장.

어느날 갑자기 전쟁이 시작되어 그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정신없이 작전을 지도하였다. 전쟁 초기 3일간, 즉 북한군의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된 25일부터 적군이 서울에 들어오기 시작한 28일까지 그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휴식도 취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다.

마침내 그는 서울 사수를 체념하고, 밤중에 황급히 한강을 넘었다. 그의 등뒤로 한강교의 폭파음을 들으면서 —

이제 한강을 의지하여 방어선을 치고 적의 전차가 건너오지 못하는 한 버티어 보기로 했다. 그러나 전세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다만 미국의 적극적인 지원만을 바라는 처지가 되었다.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의 시대는 결국 여기서 끝났다.

후세의 사람들에게는 전쟁 발발 직전과 직후 바로 이 6일간의 '실패'가 너무나 크게 각인되었다. 그래서, 국군 창설기의 활약, 국방부 참모총장과 제2대 육군총참모장, 그리고 병기행정본부장 등으로서의 그의 업적이 완전히 묻혀버리다시피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백선엽 장군도 채장군이 건군 초기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며 지도력이 있었고, 만일 두 번째 총참모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국군에서 제일 큰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채병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는, 그가 병기부문에는 전문가였지만 작전과 정보에는 어두웠다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작전지도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권총탄이

날아오는 밑을 뚫고 나간 경험이 없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소에는 정치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상하급자들에게서 인기를 얻었다고 해도, 전쟁이라는 위기에 대처할 만한 자질과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전쟁 초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당황해 하던 행동에서 그것이 잘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이런 여건에서도 육군본부의 참모들을 잘 활용하고, 군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어 적용하려 했다면 자신의 결점을 보완하고 조직적인 전쟁지도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결과만으로 비판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지만, 전쟁 초기의 3일 - 전쟁 발발 후 정일권 장군에게 총참모장의 직무를 물려줄 때까지 전체적으로는 6일 - 동안의 채병덕 총참모장의 역할과 그 성과를 평가한다면, 그의 경험과 연령에 비해 임무가 너무 무거웠던 면을 부인할 수 없다. 그의 입장에서 굳이 변명한다면 운이 나빴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또 그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떻게든 할 수 없는 처지였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군인 채병덕에 대한 비판

채병덕에 대한 비판 내용의 핵심은 ‘전쟁대비 불철저’와 ‘작전지도의 실패’로 압축될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당시 육군

총참모장으로서 예상되는 적의 남침에 대비하지 못하여 개전 초기에 한국군이 열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고,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도 적절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지 못하여 초전의 패배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은 채병덕에게 가혹한 평가를 내리는 경향이 있다. 마치 6·25전쟁의 초기 패전에 대한 울분을 그에게 모두 쏟으려는 듯이 —

그렇지만 여기에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의 전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하나는 ‘채병덕에게 그만큼 권한이 주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으로 그에게 책임을 물을 정도가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전자에 대해서 서술해보기로 한다.

어떤 일이든지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채병덕에게 전쟁을 대비하고 작전을 지도하는 데 어떤 권한이 주어져 있었기에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일까?

손자는 일찍이 ‘손자병법’의 첫머리에 전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 不可不察也’라고 하였다. 즉, ‘전쟁은 국가의 중대사로서 국민의 생사가 달려 있고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는 길이니 깊이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전쟁은 한 나라를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는 중대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준비하거나 대비하는 일은 국가의 총력을 경주해야 하는 일이다. 지금도 그렇겠지만,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해당 부처의 장관들, 기타 각종 관련 기관들이 모두 이 일에 힘을 기울여야만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을 것이다. 거기에다 당시로서는 특히 미국의 절대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했던가? 이승만 대통령과 신성모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은 전쟁 대비를 위해 어떤 일을 했던가? 국회는 어느 규모로 전쟁 대비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고 이를 지원했던가? 정부의 다른 기관은?

이대통령이나 신장관은 군사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고 정견도 없어 실질적인 전쟁 대책은 전혀 세워두지 않고 정치적으로 허세를 부리기만 했다.

더구나 미국과 미 군사고문단은 오히려 전쟁 대비를 저지하려고 했다. 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무기와 장비를 지원해주면 이승만 정권이 복침할 지도 모르니 오히려 억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런 조건이라면 군 내부의 어떤 곳에서 전쟁 대비를 잘 할 수 있었겠는가? 육군총참모장인들 별 수 있었겠는가?

전쟁 대비는 마땅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것이 불비했다면, 그 책임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물어야만 할 것이다. 채병덕 육군총참모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물어야할 책임은 지극히 지엽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작전지도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그때에도 육군과 해군과 공군에는 각각 총참모장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군이 육군 중심 체제였다고는 해도 채총장은 역시 세 사람의 총참모장 중 한 사람이었다. 그의 상관으로는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이 있었다.

국군조직법이 만들어질 때 존재했던 국방부의 ‘참모총장’ 직위가 폐지된 후로 3군을 통할하는 권한은 국방부장관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군 전체의 지휘권은 역시 국방부장관에게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채장군을 ‘3군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 직위와 명칭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방편적인 것으로서 그 직책을 뒷받침할 어떤 조직도 없었으므로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려웠다. 3군총사령관의 직위와 명칭이 공식화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정일권 장군을 육군총참모장직에 임명할 때가 처음이었고, 또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채병덕 총장은 순식간에 그의 어깨에 매여진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렇지만 기습을 당한 후로 전세는 그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기울어져 있었다.

손자 병법에서 말하는 바 ‘승리의 요건을 미리 갖추고서 싸운다(先勝而後求戰)’가 아니라, ‘일단 전쟁을 시작한 연후에

승리를 구한다(先戰而後求勝)’는 실상이었으니, 전세 만회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보름 후에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담화문 속에서 “제갈공명이 국무총리가 되고 장비가 총사령관이 되었다더라도 어떻게 공산군의 장총과 대포와 전차를 막아냈겠느냐……”는 표현은 이 상황을 가장 적절히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울 사수 또는 서울 포기, 의정부 회랑에 병력을 축차투입하느냐 집중투입하느냐 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그것들은 육군총참모장으로서 해볼 수 있는 전술적 방책이긴 했지만, 어느 것도 전쟁의 방향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었다.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전쟁지도 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는 증발해 버리고 그 허허벌판에 국군과 채병덕이 서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군인들은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

전쟁과 같은 국가 위기에 군이 선두에 서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다. 그렇지만 군인을 소집하고 훈련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총과 탄환을 주는 것은 정부와 국민이 해야 할 도리이다. 그런데 평소에는 무관심하여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맨몸으로 적 전차에 뛰어들어야 하는 군인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그리고 만일 그때 신성모 국방부장관이 채병덕 총창처럼 선두에 서서 군사문제를 처리했다면 그에게 패전의 책임이 돌아

갔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는 수원 역장실에서 몸을 도사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 범주에서 사라졌다.

일찍이 대전의 충남도지사 공관까지 가버린 국군통수권자인 이대통령, 서울 시민의 안위를 걱정해야 한다면 당연히 군과 협조하고 시민의 철수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던 서울시장, 국가 질서 유지나 국민의 피난을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해야 했을 내무부장관과 경찰의 총수. 그들에게도 채병덕 못지 않은 책임이 있다.

당시 채병덕 총장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았던 강문봉 대령의 다음과 같은 증언도 흥미해 볼 만하다.

나로서는 채 소장을 ‘패전지장’으로 보는 것은 틀린 일이라고 생각한다. 전쟁이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전쟁이란 어떤 의미에서 종합예술적인 뜻이 담겨 있다. 매스게임과도 같은 게 전쟁이란 얘기다. 주변여건과의 조화, 그리고 적이라는 상대성을 고려해야 하는 게임으로서 일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면모

사람은 누구에게나 특징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다. 채병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채병덕의 인간적인 면모를 자세히 알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의 생애가 짧고 그 자신에 관한 기록, 또는 남들처럼 회고록이나 전기 같은 것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병덕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의 말도 단순한 편이다.

외형적으로 그는 남달리 큰 몸집의 소유자였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며, 증언이나 기록에 따라서 그의 신장이 167cm로부터 175cm, 체중은 110kg에서 120kg(어떤 기록에는 135kg)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떻든 별로 균형잡혔다고 할 수 없는 뚱뚱한 신체 때문에 미군들은 그를 뚱보라는 뜻에서 ‘패트 보이(Fat Boy)’라는 별명으로 불렀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경멸의 뜻이라기보다 애칭이라는 면이 더 강했다고 한다.

자료와 증언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워서, 여기서는 그와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종찬의 기억을 통해서 채병덕의 인간적인 면을 살펴보려고 한다. 다음은 이종찬씨의 회고록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채병덕은 ‘천진한 순정과 남에게 속을 수 있는 인간성’을 지녔다. 성격은 불같이 급하여 즐거울 때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화가 날 때는 자리를 가리지 않았다. 옛 성인은 『군자는 불형어색(不形於色)이라』 하였는데 그 점에서는 확실히 군자는 못되었다. 그러나 직정(直情) 경행(經行)으로서 천진 그 대로의 쾌남아였다. 사실 복잡 일반세정과 인간처세로 보면 그와 같은 천성은 항상 오해와 실패를 초래하기 십상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순심을 믿기 때문에 남을 과신하는 것도 죄가 아니며, 오히려 그 속을 알고 남을 속인다면 속는 편보

다 속인 편이 나쁘다고 생각했다.

도의적 양지(良知)보다 교리적 지능이 성공하는 듯 보이는 세상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남에게 속을 수 있는 성품인 채병덕의 순진'이야말로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다.

또 채병덕은 허식(虛飾)을 모르고 눈물이 많은 성품이었다. 일반적으로 사교적인 인물이 되려면 인간적인 처신에 능해야 하고, 눈치가 빨라서 임기응변을 잘 해야 하는데, 채병덕은 그런 눈치가 없었다. 그 대신 누구에게도 겸허한 태도였다. 여러 사람이 느끼고 본 바이지만, 바쁜 때라도 내방한 손님에게 그 큰 몸과 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선생님"하는 모습이란 참으로 자연 그대로였다.

원래 배가 앞으로 튀어 나와서 옷이 컸으므로 몸맵시 내기는 어려웠으나 본시 모양내기를 싫어했었다. 그는 옷이든 언사이든 허식(虛飾)을 싫어했다. 좋고 싫다기보다는 허식 그 자체를 모르고 일생을 끝마친 사람이었다. 어느 집에 가든지 배가 고프면 밥 좀 달라고 하는 소탈한 성격이었다.

또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6·25전쟁 전 평양에 살고 있던 그의 부친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부친이 38도선 이북에서 고생하시다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불운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면서 목을 놓고 통곡하였다.

이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거나 그 제사(祭祀)에 갔을 때에는 항상 뜨거운 눈물을 참지 못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대장부는 함부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채병덕은 그런 것과는 정반대였다.

이종찬씨가 말하는 채병덕은 소박·소탈하고 꾸밈이 없으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된다. 그런 면에서 다음과 같은 일화를 들었다.

어느 날 채병덕이 자기 부하인 모 장교와 평양냉면을 먹으러 갔다. 그 장교가 ‘곱배기’ 한 그릇을 먹는 동안에 채병덕은 같은 ‘곱배기’ 세 그릇을 순식간에 다 먹어버렸다. 그러고서도 아직 부족한 듯이 남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에 그 장교는 미안하여 “각하 더 주문하시지요.” 하였더니, “글쎄, 그러나 부끄러우니 너도 같이 더 먹으면 주문하겠다.” 하므로 하는 수 없이 각각 곱배기 하나씩 더 시켰다. 그는 그것도 역시 몇 젓가락만에 다 먹고 말았다. 함께 갔던 그 장교는 이번에 주문한 것은 억지로 먹는 척하다가 말았다고 한다.

이상이 이종찬씨가 말하는 채병덕의 인간적인 면모이다. 이종찬은 채병덕과 절친한 친구였으므로 그를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때문에 도리어 객관적인 면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이것으로써 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될 것이다.

채병덕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와 공통적인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다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전반적으로 그가 정치적인 면에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 외에 신경질을 잘 내는 성격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사교성은 있는 편으로서 일본어와 중국어는 할 줄 알았지만 영어는 잘 못했다고 하는 데, 언어상의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고문단과 그런대로 원활한 협조를 했던 것은 흥미있게 생각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그의 사상적인 면을 첨언하지 않을 수 없다. 6·25 전쟁이 기습으로 시작됨으로써 우리 군이 패전의 늪으로 빠져들었던 것은 우리 내부에 적과 내통하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형근이 제기한 소위 '10대 불가사의'의 근본적인 의심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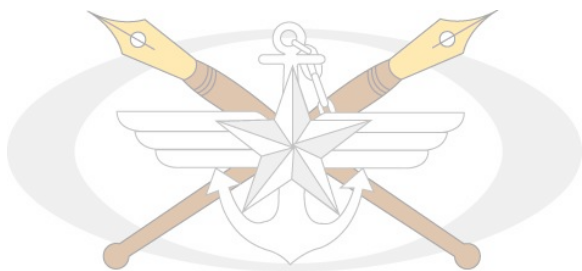
따라서 그 당시에 존재했던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 채병덕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에 대한 사상문제도 검증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 성격상 대단히 예민하고 은밀한 것이라서 간단히 연구하여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들은 그가 좌익사상을 갖고 있었다면 그의 성격상 그것을 품고 있을 위인이 못된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 성격이 그의 장점인 동시에 결점이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의 특징이었다. 김점곤씨는 그가 이중인격과는 거리가 먼, 솔직담백한 성격이었으므로 그 마음 어느 구석에 다른 사상을 숨겨두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을 할 위인이 못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채병덕은 좌익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진력하였으며 공비토벌과 숙군에도 큰 힘을 기울였다.

또 정황적 논리로서, 만일 그가 공산주의자였다면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그들과 합류했을 것이다. 군을 지휘하여 싸우지도, 하동에 가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그의 사상적 문제를 인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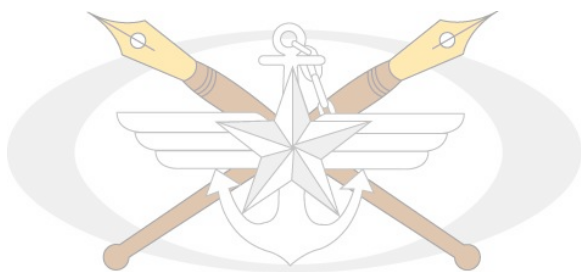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주

제 3 부 빛과 그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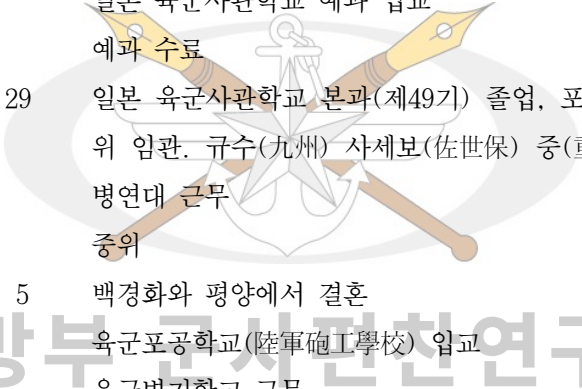
- 1)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서범석씨의 증언.
- 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1)(1970), p. 598.
- 3) 위의 책, p. 607.
- 4) 채병덕(당시 일본군 육군대위)은 일본 육사생도였던 정일권을 해방 전인 1938년 일본 동경 시내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정군(丁君)’이라고 부른 이후로 그를 계속 이렇게 불러왔다.
- 5) 정일권, 『6·25비록 전쟁과 휴전』(동아출판사, 1986), pp. 23~30.
- 6) 정일권 장군은 그의 일생에 남 모를 가장 간절한 기도를 세 번 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번의 절박한 기도를 이때 했다고 한다.
- 7) 위의 책, pp. 31~42.
- 8) 정일권, 『정일권회고록』(고려서적, 1996), pp. 152~153.
- 9) 고지마 노보루 지음, 김민성 옮김, 『한국전쟁』(상)(종로서적, 1981), p. 92.
- 10) ‘영남지구전투사령관’ 또는 ‘경남지구전투사령관’이라고도 한다. 정일권 장군을 참모모장에 임명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채소장을 ‘국방예비군총사령관’에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다.
- 11) 전편위, 『한국전쟁사』(1), p. 821.
- 12) 이 직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채소장을 전역시키지는 않았으므로 어떤 직무를 수행케 하려고 했던 것만은 분명하다.
- 13) 강성재, 『참 군인 이종찬 장군』(동아일보사, 1986), p. 45.
- 14) 전편위, 『한국전쟁사』(1), p. 821.
- 15) 강성재, 앞의 책, p. 46.
- 16) 박중령은 1950년 4월에 일본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연대장반 교육을 받았다. 당시 한국군에서 장교들을 선발하여 연수를 시키는 중에 전쟁이 발발하여 급히 7월 2일에 귀국하였다. 그러므로 채장군이 특히 미군과의 업무협조에 박중령을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았다.
- 17) 호적상으로는 ‘1950년 7월 27일 오전 10시 경상남도 하동에서 전사’로 기록되어 있다.

- 18) T. R. Fehrenbach, *This Kind of War* (The Macmillan Company, 1963), p. 153.
- 19) 월션 후의 경우로서 정일권 소장은 육군총참모장을 역임한 후에 사단장으로 내려갔다.
- 20) 사사키 하루다카, 『韓國戰秘史』(상), pp. 102/103.
- 21) 위의 책, pp. 106/107.
- 22) 이형근, 『군번 1번의 외길 인생』(중앙일보사, 1993), p. 42.
- 23) 위의 책, p. 45.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록 1. 蔡秉德 主要 年表



1915. 4. 17	평양에서 채관수씨의 차남으로 출생
1929	평양 종로보통학교 졸업
1933	평양 제1중학교 4학년 수료
1933. 4	일본 육군사관학교 예과 입교
1935. 3	예과 수료
1937. 6. 29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제49기) 졸업, 포병소 위 임관. 규수(九州) 사세보(佐世保) 중(重)포 병연대 근무
1938	중위
1938. 6. 5	백경화와 평양에서 결혼
1939	육군포공학교(陸軍砲工學校) 입교
1940	육군병기학교 근무
1941. 3	대위
1943	소좌
1943	인천 육군조병창 부평공장장(해방시까지)
1945. 12. 5	군사영어학교 입교
1946. 1. 15	국방경비대 대위 임관, 제1연대 제1대대 A중 대장
1946	소령

1946. 10	통위부 병기국장
1946. 11	중령
1947. 4	통위부 특별부대사령관, 대령
1948. 4. 29	제4여단장
1948. 8. 16	통위부 참모총장
1948. 12. 1	육군준장
1948. 12. 15	국방부 참모총장
1949. 2. 2	육군소장
1949. 5. 9	제2대 육군총참모장(∼9.30)
1949. 12. 15	국방부 병기행정본부장
1950. 4. 10	제4대 육군총참모장(∼6.30)
1950. 7. 8	영남편성관구사령관
1950. 7. 27	하동전투에서 전사 육군중장·을지무공훈장 추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부록 2. 채병덕 장군의 저서

『國軍의 進路와 國民皆兵의 意義』

(정민문화사, 1949)

이 소책자는 그가 제2대 육군총참모장직(1949. 5. 9~9. 30)에서 물러난 지 약 1개월 후인 1949년 11월 7일에 자신의 개인 이름으로 발간한 것으로서, 그가 생전에 어떤 저술을 만들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으로는 유일한 책이다.

6·25전쟁 이전인 1949년 법률 제41호로 공포된 병역법은 국민개병제도를 최초로 시도한 것으로서 대한민국 병역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채병덕 장군은 이 책에서 국민개병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는 이 책을 쓰는 목적을 ‘국민개병이란 무엇이며 어찌하여 국민개병제를 실시하게 되었는가를 알게 함으로써 다소의 의아, 불필요한 위구, 불만 같은 것을 완전히 일소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그는 ‘국민개병제는 대한민국의 국초(國礎)를 반석 위에 놓는 것이요, 우리 민족에 대한 지상명제인 것인 만치, 이 제도의 진의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병(兵)되는 자나 그 주위의 모든 인사들이 서로 돕고 명량한 기분으로 이 민족적 도장인 군영생활(軍營生活)을 체득하여 주기 바란다’고 하였다.

특히 국민개병제에 대해서 ‘국군이 될 병사보다도 그들의 주위에 있는 전국민 특히 지도계급에 있는 유지들이 상식적으로 알

아야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다음해인 1950년 3월 징병제의 시행이 유보되고 경비대 초기부터 시행해 오던 '지원을 통한 병원의 충원'으로 환원됨으로써 6·25전쟁 초기에 우리 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만약 채병덕 장군이 기도한대로 국민개병제가 계획대로 실시되어 전쟁 발발 이전에 국군이 수십 만으로 확장되고 무장되었다면,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는데도 절대 필요한 존재'가 되어 북한의 김일성과 소련의 스탈린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였을 것이며, 또한 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책의 안쪽 표지에는 「국민정신의 확립과 국민개병의 의의」라고 되어 있으며, 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부 국군정신확립을 위하여

1. 민족정신과 국군정신
2. 역사와 군인
3. 국군정신의 도표는 이대통령각하의 애국정신
4. 당면문제와 그에 대한 각오

제2부 국민개병의 의의

1. 단일민족의 군대
2. 우리 군영은 민족의 심신도장이다.
3. 국군정신의 근본요소는 충효

부록 국민병역법(國民兵役法) 전문(全文)

* 박일송, 『전쟁중 국군의 충원과 교육훈련』,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2집(군사편찬연구소, 2002) 참조.

후 기

글을 써서 출간할 때마다 남 앞에서 본인의 벼은 몸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가려두었던 내 속모양과 결점을 그대로 내보이는 데서 오는 부끄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채병덕 장군에 관한 글은 더욱 그렇습니다.

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일반적으로 채병덕 장군이 6·25전쟁에서 패배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거의 비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흡사 이 전쟁의 초기 실패 원인이 모두 그에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반면에, 그에 대한 새로운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시는 분은 채병덕 장군이 중학교 4학년을 수료하고 일본 육군사관학교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서 35년의 길지 않은 삶을 군인이라는 외길 인생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란의 시대를 살았던 그의 인생 여정은 어려운 고비도 있었지만 화려한 편에 속했습니다. 국방부 참모총장이나 육군 총참모장 등의 직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에게는 그런 관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서 그는 순식간에 혼란의 와중에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경험과 능력은 전무후무한 이런 전쟁을 지도할 만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을 대비하여 무슨 훈련이나 연습도 해보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 정부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면 1950년 6월 쯤에 전쟁 관리 능력, 위기관리능력이 갖추어져 있을 만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본능적인 육감으로 동분서주하면서 작전을 지도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의 판단이 합리적이거나 행동이 조리정연하지 못했던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능력의 한계였고 실패의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는 불면불휴(不眠不休)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채병덕 장군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면서 전쟁시에 군인에게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지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서 전쟁을 지도하는 사람의 판단과 의사결정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후세 사람들의 교훈이 되고 언행의 준거가 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어느 인물의 잘 잘못에 대한 비평이 분명하고도 엄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시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역사를 쓰는 일은 캄캄한 밤중에 움직인 앞사람의 행동을 한한 대낮에 살펴서 비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

라서, 전후좌우를 구분할 수 없었던 당시의 밤과 같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적절한 분석이나 평가는 어려울 것입니다. 채장군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6·25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반세기가 지났고, 당시의 주역들은 거의 타계하였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회고록이나 자서전을 펴낸 이들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들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이 그런 작업의 시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채병덕 장군과 동시대에 활동하셨던 분들로서 그때의 일들에 관해 증언해주신 분들, 특히 강영훈(姜英勳), 김점곤(金點坤), 김창규(金昌圭), 박현수(朴炫洙), 백선엽(白善燁), 백선진(白善鎭), 손희선(孫熙善), 신상철(申尙澈), 유양수(柳陽洙), 유재흥(劉載興), 윤흥정(尹興禎), 이상국(李相國), 정래혁(丁來赫)(가나다 순) 장군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망인 백경화(白慶和) 여사님의 배려와 동국대학교 이기동(李基東) 교수님, 그리고 안용현(安龍鉉), 이원복(李元馥) 선배님들의 조언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채병덕 장군의 손자 채동균(蔡東均 Thomas Chae) 생도에게도 조부의 행적을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찾아보기

(ㄱ)

- 강동정치학원 101
- 강문봉 136, 149, 155, 156, 165,
166, 169, 175, 177, 192, 193,
201, 217, 219, 243, 254, 283,
284, 329
- 강영훈 165, 167, 176, 177, 255,
258, 264
- 강태무 88
- 경리학교 98
- 경무국 67
- 경무대 288, 289, 290
- 경북편성관구사령관 292
- 경옥 46
- 경원가도 214, 221
- 계림회 36, 38, 39
- 고또 36, 37, 38
- 고지마 노보루 291
- 광진교 256
- 교육총감부 27, 36
- 국군조직법 15, 73, 76, 78, 79,
95, 327
- 국방사령부 53
- 국방예비군총사령관 293
- 국부군 135
- 군사영어학교 21, 53, 54, 55, 56,
59, 60, 64, 74, 314
- 군의학교 98
- 권준 95, 168, 175
- 그린우드(Walter Greenwood, Jr.)
261, 262
- 김백일 186, 199, 202, 219, 229,
232, 235, 242, 251, 252, 255,
256, 257, 258, 260, 261, 262,
263, 264
- 김병삼 286
- 김삼룡 209
- 김석원 95, 106, 107, 108, 109,
112, 113, 114, 115, 116, 125,
136, 139, 140, 141, 143, 168,
173, 175, 293
- 김영철 20
- 김영혁 308
- 김용주 303
- 김인준 24
- 김점곤 166, 333
- 김정열 20, 39
- 김종오 136, 166, 168, 174, 175
- 김종필 157, 197, 246
- 김창규 39

김홍일 84, 166, 168, 175, 245,
250, 268

(ㄴ)

남로당 86, 88, 104

남벌론 132

남북교역사건 102, 112, 125, 319

남조선국방경비대 55, 63, 69

노태준 74, 75

(ㄷ)

대부생활 39

대상 소좌 26, 27

덜레스(John F. Dulles) 183

도널드 맥도널드 161

도요바시 40

동두천 214, 221, 222, 223, 225,
226, 241

(ㄹ)

라이트(William H. S. Wright) 234,
253, 261

로버츠 70, 97, 183

(마)

마포장 201

만주사변 26

맥아더 145, 161, 162, 183, 238,
253, 273, 282, 283, 291

모트(Horald W. Mott) 303, 304,
305, 308

무어(Ned D. Moore) 300, 301,
302, 303

미 군사고문단 17, 24, 73, 74, 97,
116, 133, 147, 149, 154, 159,
189, 191, 192, 193, 234, 253,
261, 264, 284, 326

미아리 방어선 254

미아리지구전투사령관 249

민기식 298, 301, 313

민복기 209

(바)

박범집 39

박원석 39

박임항 166

박재홍 43

박현수 301, 302, 308, 311

반격론 241

반민특위 85, 86

배속장교 26, 27

백경화 46, 48, 195, 297, 309

백락준 209

백선엽 165, 175, 193, 242, 250,
323

백홍석 46, 63, 94

베로스 68

병기행정본부장 116, 125, 174,
323

보성전문학교 50

부평병기창 178

북벌론 132, 136, 142, 143, 145

- 북어사건 112
 북진론 132
 비상경계령 183, 184, 185, 186,
 187, 191, 206, 209
 비파호반 34
 326, 328
 신웅군 43, 78
 신태영 94, 112, 126, 131, 149,
 190, 292, 313, 319
 심야파티 194, 196
 10대 불가사의 127, 129, 333

(ㅅ)

- 사막의 오아시스 36, 37, 38
 사세보(佐世保) 40, 44, 45, 46
 3군총사령관 327
 3월 위기설 182
 샤라(Sharra) 305, 307
 서해안지구편성관구사령관 292
 세드베리(George R. Sedberry, Jr.)
 261, 264, 283
 손원일 136, 137, 138, 143
 손자(孫子) 143
 손자병법 325
 송호성 74, 95, 168, 175
 쇠고개(牛峙) 305, 306, 308, 310,
 311
 수의운동 33
 스톤 162
 시흥지구전투사령관 268
 신동우 201, 285, 287, 291, 295,
 309
 신상철 39, 48, 166, 167, 176,
 198, 255
 신성모 132, 133, 143, 144, 187,
 200, 208, 253, 257, 260, 262,
 281, 288, 290, 292, 295, 297,

(ㅇ)

- 애치슨선언 150
 애플만(Roy E. Appleman) 227, 234,
 260
 양국진 165, 194, 255
 역순10·19사건 79, 80, 101
 영길 47
 영남편성관구사령관 292, 313
 영순 47
 영옥 46
 영진 47
 오덕준 298
 5·6월의 위기설 182
 원용덕 74, 86
 월로비 161
 유승렬 95, 165, 292
 유재홍 48, 55, 57, 95, 166, 168,
 174, 175, 177, 193, 204, 206,
 215, 216, 223, 225, 226, 241,
 242, 243, 244, 246, 249, 269
 유해준 212
 육·해·공군총사령관 273
 육군방어계획 148
 육군병기학교 47, 48

- 육군본부 정보국 148
 육군정보학교 98
 육군참모학교 97
 육군포공학교 47
 육사 생도대대 245
 윤상필 38
 의정부 206, 209, 212, 214,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4, 235, 236, 237, 241, 243, 244, 247, 320, 321, 328
 의정부지구전투사령관 243
 이나가끼 32
 이병주 66
 이선근 201
 이성가 166, 168, 175
 이승만 132, 133, 135, 142, 143, 144, 161, 162, 263, 282, 289, 290, 326, 327
 이영근 157
 이용문 38, 39, 246
 이응준 58, 60, 61, 63, 74, 75, 84, 85, 86, 87, 89, 90, 91, 131, 165, 245, 249, 255, 258, 292, 297, 298, 313
 이종찬 23, 28, 29, 30, 33, 34, 39, 40, 41, 42, 44, 45, 46, 48, 53, 70, 74, 75, 126, 166, 228, 269, 293, 295, 296, 309, 322, 330, 332
 이종혁 37
 이주하 209
 이준식 95, 166, 168, 175
 이찌가야 31, 32
 이청천 37, 38
 이치업 166, 188, 199
 이형근 55, 56, 57, 58, 59, 60, 61, 62, 63, 74, 76, 95, 127, 128, 129, 166, 171, 177, 215, 218, 223, 227, 231, 234, 240, 241, 242, 243, 314, 315, 316, 318, 319, 320, 321, 333
 이형석 175
 인천조병창 49
 임선하 57
 (주)
 작전참모부장 94, 97
 장경근 167, 257, 262
 장교구락부 파티 188, 209
 장석윤 55
 장지량 39
 전남편성관구사령관 292
 전술항공통제반 309
 정래혁 48, 166, 177, 256, 295, 296, 298, 302, 304
 정홍범 46
 조선경비대 15, 69, 78
 조선총독부 53
 조지프 골든 264
 중·일전쟁 44

중포병연대 40, 44

지인태 38, 39

(ㄲ)

창동방어선 246, 247, 249, 259

채관수 23

처치(Church) 268

초수회 35

최기덕 190

최덕신 95, 97, 168, 175

최명하 39

최용덕 78

최창식 128, 251, 252, 257, 259,
260, 263

축차전투투입 225

(ㄴ)

태릉 62, 64, 216, 245, 246, 247

태백산지구전투사령부 101

태평양전쟁 44, 49, 187

트루먼 161

(ㄷ)

패트 보이(Fat Boy) 330

페렌바크(T. R. Fehrenbach) 226,
234, 261, 262, 263, 266

편의대 265

평양 22, 23, 29, 30, 46, 101, 132,

133, 139, 209, 229, 321, 331

평양 제1중학교 24, 26, 27

평양 종로보통학교 24, 38

포천 222, 223, 226, 227

표무원 88

(ㄹ)

하기와라 료 162

하동 22, 127, 292, 293, 295, 298,

299, 300, 302, 303, 304, 305,

306, 310, 322, 334

하동고개 22

하리마오 187, 191, 192

하우스만(James W. Hausman) 204,
221, 222, 283, 284

한강 방어선 22, 240, 267, 268,
269, 271, 272, 288, 290

한강결전 241

한강교 폭파계획 252

한강인도교 255

해행사 27, 30

행정참모부장 94

현인회 35

홍사익 38

화개장 303

황천강 310

□ 著 者 : 金 幸 福

陸軍士官學校 졸업(25기)

慶北大學校 文理大 史學科 및 同大學院 碩·博士과정 졸업(文學博士)

제25보병사단·제1공수특전단 근무, 베트남戰 參戰

육군제3사관학교 교수부 戰史學科 教授 및 圖書館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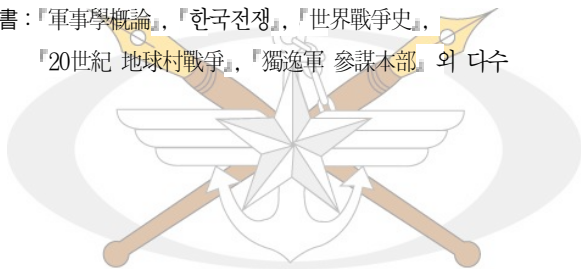
영국國際戰略研究所(IISS) 研修, 런던大學校 킹스칼리지 客員教授

國防軍史研究所 研究企劃室長 및 北韓軍史部長

(現)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戰爭史部長

著書 : 『軍事學概論』, 『한국전쟁』, 『世界戰爭史』,

『20世紀 地球村戰爭』, 『獨逸軍 參謀本部』 외 다수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과 채병덕 장군

인 쇄 2002년 12월 17일

발 행 2002년 12월 20일

발행처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발행인 河 載 平

인쇄처 대한상사